

주인「영상미디어센터」
사업백서

2007년, 2008년



이 책은 2007년 9월 5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간동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의 모든 사업은 스텝(강화순, 경희령, 김정석, 노현일, 손동혁, 위치해, 이희랑, 정수미, 전철원, 최영준)과 강사, 학생, 영화감독, 기관, 시설, 학교, 기업 등의 참여와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우리들 스스로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를 확장하고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1장 개요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개요	9
2. 운영체계	16
3. 연혁	19
4. 시설현황	21

2장 2007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추진사업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1. 2007년 사업개요	31
2. 미디어교육 사업	32
3. 대안미디어 사업	32
4. 창작지원 사업	33
5. 상영관 사업	33

2부 각 권역별 사업 내역

1. 미디어교육 사업	34
1) 정규강좌 운영 사업	34
2)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	40
3)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45
2. 대안미디어 사업	51
1) 개관 기념 토론회	51
2) 공동체 미디어 사업	52
3) 퍼블릭 액세스 사업	53
3. 창작지원사업	54
1) 기자재실 운영사업	54
2) 영상제작 지원사업	55
4. 상영관 사업	56
1) 독립영화 상영 사업	56
2) 기획상영 사업	57
3) 독립영화 마스터클래스	58
4) 대관 및 후원 사업	59
3부 2007년 사업 기록	61

3장 2008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추진사업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1. 2008년 사업개요	65
2. 미디어교육 사업	67
3. 대안미디어 사업	68
4. 창작 지원 사업	68
5. 정책 사업	69
6. 상영 사업	69
7.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사업	69

2부. 각 영역별 사업 내역

1. 미디어교육 사업	70
1) 정규강좌	70
2)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	104
3) 지역사회 협력 및 위탁교육	129
4) 교사양성 사업	135
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40
6) 찾아가는미디어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145
2. 대안미디어사업	147
1) 공동체미디어사업	147
2) 퍼블릭액세스 지원 사업	206
3. 창작지원사업	213
1) 기자재설 운영사업	213
2) 아카이브 사업	219
3) CAMF 특강 사업	220
4) 오매불망 프로젝트 사업	223
5) I-culture 사업(인천문화PD 사업)	224
4. 정책사업	227
1) 웹진 발간 사업	227
2) 정책 토론회 사업	229
5. 상영사업	232
1) 독립영화 개봉 상영 사업	232

CONTENTS

2) 기획 상영	233
3) 다양성 영화 정기 상영 사업	235
4) 디렉터스 뷰 정기 개최 사업	237
5) 대관, 후원, 기타	239
6) 찾아가는 영화관	239
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64
1) 사업 개요	264
2) 사업진행 내용	264
3) 사업총평	267

4장 부록 - 아카이브 목록

1. 도서 자료 목록	271
2. 영상 자료 목록	275



1장 개요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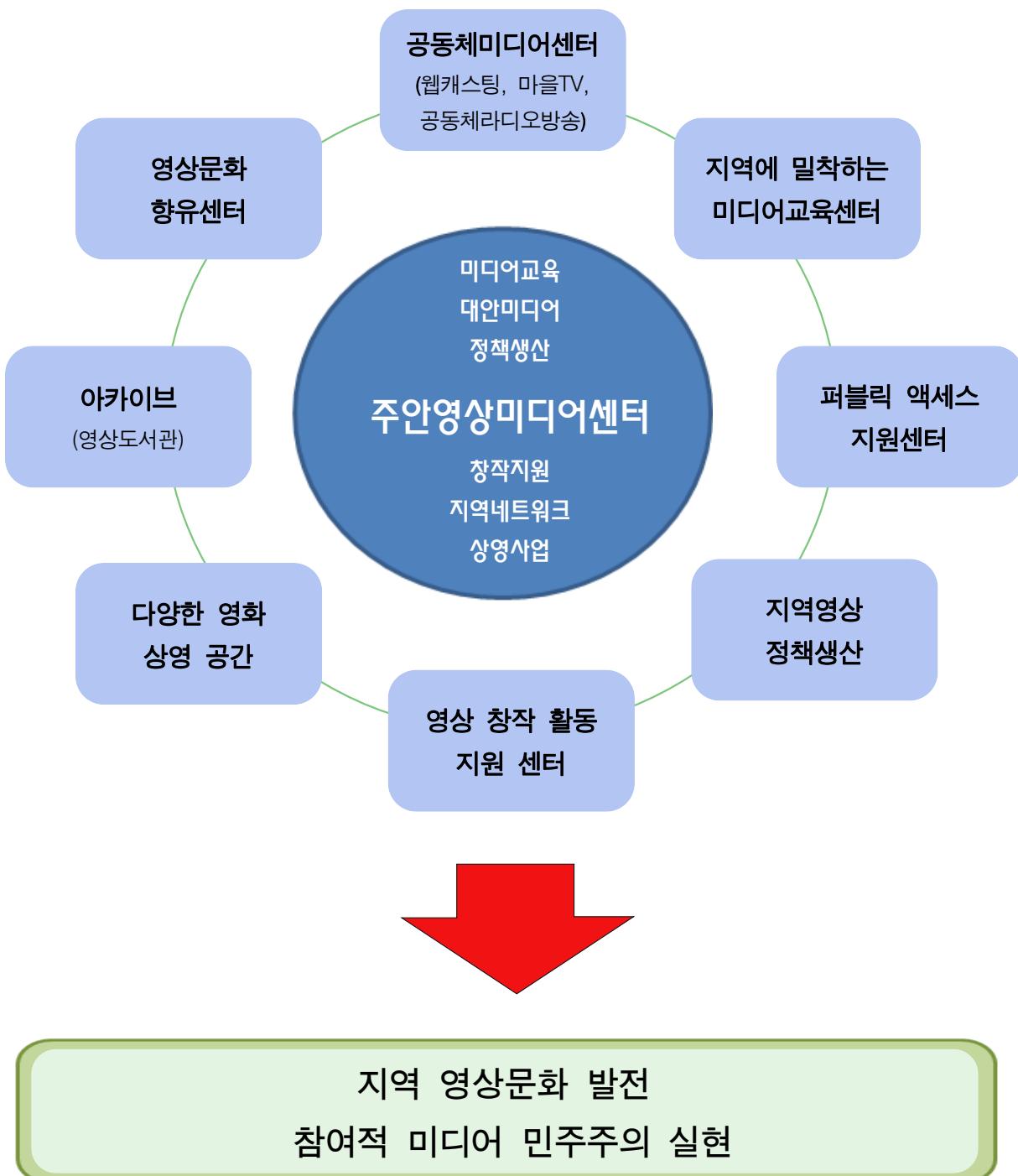
2. 운영체계

3.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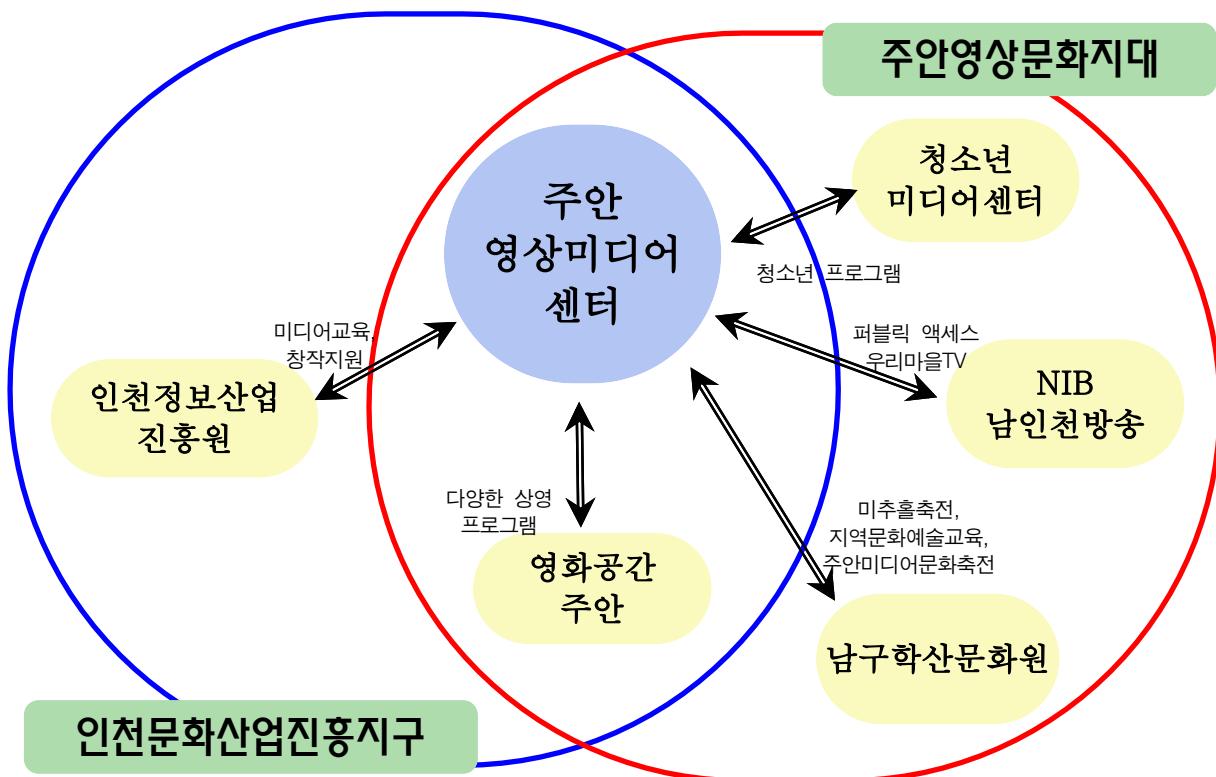
4. 시설현황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개요

1) 핵심개념



2) 주변 환경



■ 대학 및 전문대학, 중 · 고등학교 등 교육 집적지역

-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 인천전문대, 재능대 등 소재
- 20여개의 중 · 고등학교 밀집

■ 영상관련 시설 및 문화행사의 중심지

- 남구 청소년 미디어센터, WAVE센터(게임영상지원센터), 영화공간 주안
(예술영화관), 가상현실체험관, NIB남인천방송 등 영상 및 방송 관련시설 소재
- 미추홀축전, 주안미디어문화축전, 옛 시민회관 쉼터, 2030거리 등 문화행사 중심지
- CGV, 공공도서관, 공연시설(문화회관 등), 전시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인근 소재

3) 주요역할

■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 기자재를 대여하고, 제작 프로듀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에서 퍼블릭 액세스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역할
- 지역 케이블 채널 및 공중파 TV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 지역의 문제와 관심사들을 지역민들의 시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천 지역케이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고정 프로그램 혹은 독립 채널 확보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한 퍼블릭 액세스 방송 실현

- 퍼블릭 액세스 취지에 맞는 방송 운영을 위해 시민제작주체, 방송사업자 등을 아우른 지역 퍼블릭 액세스 네트워크 형성

■ 21C 영상미디어 시대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장

- 다양한 영상 미디어 교육 강좌 운영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제작 교육 및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
 - 영상일기, 영상편지 등 일상에 밀접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등 일반 시민들이 영상미디어를 쉽고 편하게 이해하고, 자기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 실현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지역 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미디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인터넷, 라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계층별 특성과 관심에 따른 미디어 활용 능력 교육과 창작활동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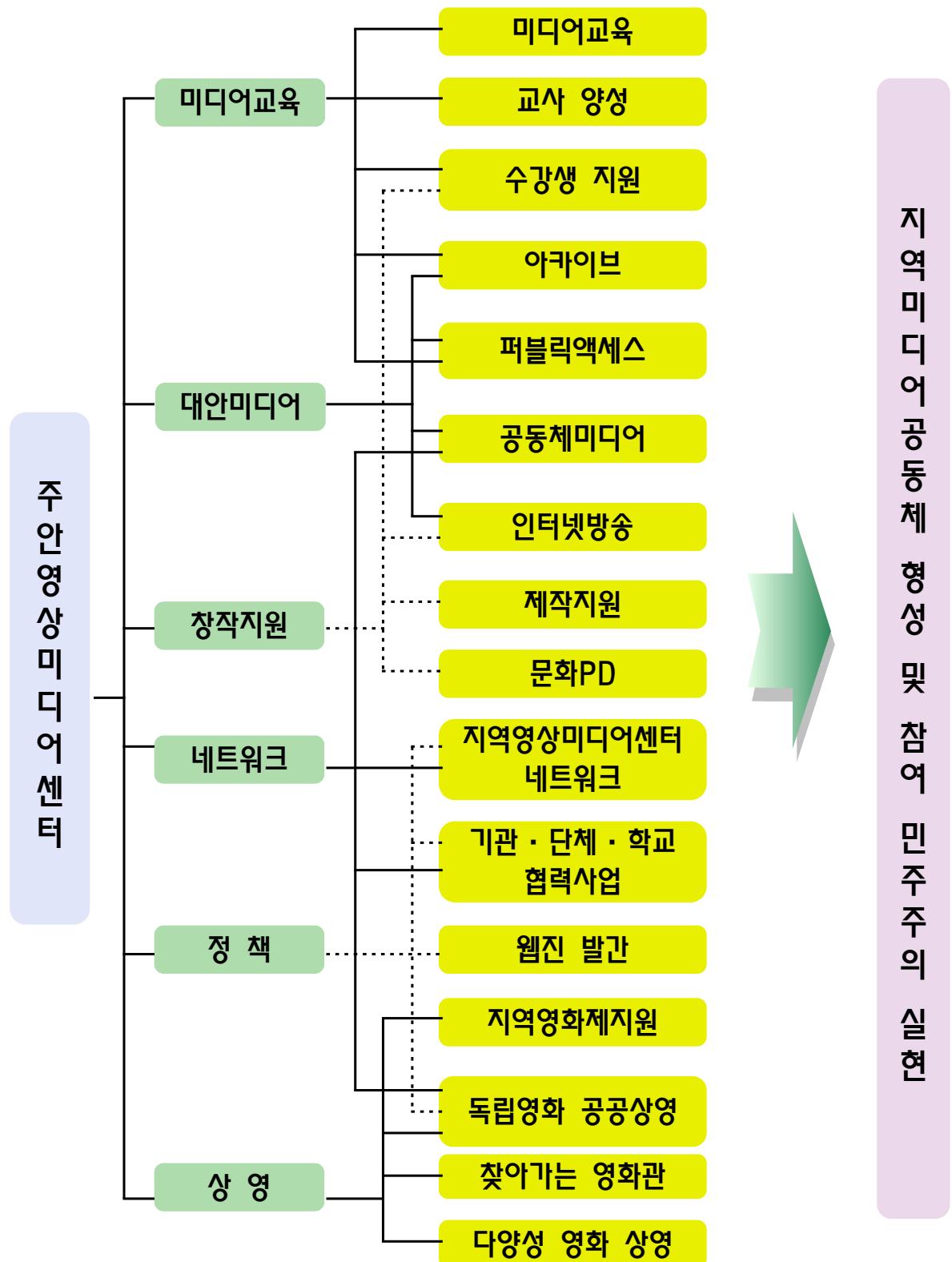
■ 다양한 영상물의 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

-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영상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맞는 영상 표현능력 및 해석 능력의 확장을 꾀함.
- 독립영화, 소수자 영화, 실험영화, 제3세계 영화 등의 상영
- 지역 주민 및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기획전
- 자생적인 지역 영화제들에 대한 지원

■ 지역 공동체 활동의 새로운 매체 확보 지원

-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제작된 시민 창작물과 각종 정보를 웹 상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통
-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우리 마을 TV 등의 직접적인 공동체 미디어를 개발하고, 지역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제작 및 운영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 제공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지역 소식의 제작과 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네트워크 실현 도구 마련
-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지방 자치 시대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확장된 민주주의 기대

4) 주요사업



5) 주요대상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주 대상은 남구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며 나아가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생까지 포함한다. 남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구내 주민들의 계층별 대상 설정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인천광역시 시민들과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영상교육기회와 창작기회를 제공한다.

■ 주부

-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 등의 문화프로그램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계층
- 삶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보냄으로써 지역의 현실에 가장 밝고, 능동적인 지역 참여 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상에서의 영상 활용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과 우리마을TV 등 공동체미디어의 지역 내 형성과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 대학생 및 청년층

- 관련학과 전공자와 영상관련 동호회 활동자
- 관내에 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인구비에서도 20~30대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및 청년층은 영상매체에 대한 욕구도 높고, 영상 활용 능력 역시 높은 편이다. 지역 내 영상문화활동과 퍼블릭 액세스 활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일반 직장인

-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여가 생활의 여유가 높은 계층
-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활용한 주거지 및 직장 중심의 영상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삶의 근간인 지역의 교육, 문화,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 퍼블릭 액세스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

■ 소외계층 시민들

- 장애인, 아주 노동자, 노인, 저소득 계층의 접근 보장
- 소외계층에 속한 시민들은 미디어접근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이것은 소외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대 및 광범위한 지역 통합을 위해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찾아가는 영화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이 계층의 미디어 접근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유관 시설 및 단체 활동가

- 학교 방송반, 영상제작반 담당 교사 및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 복지관,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등의 실무자
- 지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 시민 복지 서비스나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등으로 훈련된 계층으로 주체적인 활동력이 보장되는 집단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나 지역 통합 등에 관심이 많고,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도 뛰어나다. 퍼블릭 액세스 및 공동체 미디어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성이 높다.

■ 청소년

- 각급 학교 내 방송반과 영상활동 동아리
- 각급 학교 CA 프로그램
- 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 장애인, 저소득층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등에 대한 격차 해소

- 영상매체에 대해 큰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영상 활용도 또한 높은 집단이다. 지역 내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로의 성장,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및 다양한 영상 문화 활동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와 상호간 사업적 연계를 이루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독립영화인

-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독립영화인 양성 및 지원
-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영상제작 활동을 추동함으로써 독립영화 제작 주체들이 형성됨으로써 인천에서의 전문적 영상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6) CAMF 발전 단계 설정

■ 2007년(설립기)

- 기간 : 2007년 9월 5일 ~ 12월 31일
- 사업방향
 - CAMF의 설립과 의의를 인천 시민들에게 알림
 - 각 영역별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를 기초로 CAMF의 장기적 전망 수립
- 주요사업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우리 마을TV 시범사업
 - 퍼블릭액세스 제작 주체 교육

■ 2008년(출발기)

-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사업방향
 - CAMF가 영상 문화 형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 인천에 정착
 - 미디어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 창작 욕구를 이끌어 내고, 이를 CAMF가 지닌 시설·장비와 연결
 - 공동체 미디어를 위한 교육·제작·소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부에서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주체가 성장하는 과정을 찾아가는 공동체 미디어 시범 사업 수행
 - 인천의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가 성장하는 토대 마련
- 주요사업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우리 마을TV 시범사업
 -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 지원
 - 퍼블릭액세스 제작 주체 형성 및 네트워크 지원
 - 독립영화 정기 상영
 - 다양한 영상 활동 주체 형성
 - 미디어 웹진 발간

■ 2009년(발전기)

- 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사업방향
 -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영상에 대한 욕구를 CAMF가 마련한 교육·시설·장비와 연결하여 시민 영상 제작 를 생산

- 공동체미디어 시범사업 성과와 조사 연구에 기초하여 사업지역 확대
- 인천 내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 네트워크 형성
- 2008년 사업 평가를 기초로 확대된 프로그램과 사업 수행
-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및 정책 제안
- CAMF 운영 및 사업 수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주요사업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우리 마을TV 사업
-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 및 운영 지원
- 퍼블릭액세스 제작 네트워크 지원
- 독립영화 정기 상영
- 인천 미디어 정책 웹진
- CAMF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2010년(성숙기)

○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사업방향

- CAMF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초로 한 사업 수행
-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민자치 영상언론활동
- 시민영상 창작물의 교류와 전국단위 시민 미디어네트워크 추동
- 공동체미디어 시범사업을 다양한 공동체로 확대하고, 각 공동체 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방송의 기초를 마련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지역미디어민주주의 확대
- 인천 내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 네트워크 지원

○ 주요사업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우리 마을TV 사업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운영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시민미디어 네트워크 지원
- 독립영화 정기 상영
- 인천 미디어 정책 웹진

2. 운영체계

1) 운영 개요

(1) 운영 형태

- 설립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 운영기관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남구학산문화원 컨소시엄
- 대표 운영기관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 운영위원회 구성
 - 총 8명 내외의 운영위원 위촉
 - 운영위원회를 통해 설립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적인 운영틀 구성
- 협력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천문화재단 등

(2) 운영 원리

- 비영리 공공문화기반시설
- 공익적 운영을 통한 지역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
- 영상미디어 전문가에 의한 내실 있는 운영
- 공공기관과 위탁기관과의 협의제 운영
- 독자적인 전문운영의 보장과 엄정한 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3) 위탁운영기관 및 운영위원회

■ 대표 운영기관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 ‘뜨내기 문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저질문화’ 즉 비인간적이고 반자연적인 상업화된 모든 문화를 배격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인천지역의 “신명나는 삶의 문화”를 일구고자 1994년 9월에 창립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는 해방이후 민주화운동과 함께해 온 문화예술운동의 성과를 대중화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예술인의 구심점이다.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는 문화의 세기에 걸맞은 대안문화 창조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빈약한 문화정책의 대안생산을 위해 노력하며, 정보화 등 문화예술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개발하여 더 많은 민중이 그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천공공미디어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2007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위탁을 맡아 그 설립과 운영을 책임졌다.

■ 컨소시엄 운영기관 : 남구학산문화원

-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2003년 9월에 창립하였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한 지역고유 문화의 정신을 창발적 사고로 계승 발전시키고 남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구민들을 위한 인천문화의 한 협의체로서 문화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구민들의 문화자치향상과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교육활동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영화공간 [주안]의 운영위탁을 맡아 그 설립과 운영을 책임졌다.
- 다양한 참여적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컬쳐팩토리 공간 조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8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이 이 호선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의의를 이해하고, 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장(당연직)
 - 남구청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업 및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2인 이상이 심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

2) 조직

(1) 조직구성의 기본방향

- 공익성 함양 :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는 조직 구성
- 전문성 제고 : 영상미디어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
- 참여도 증대 :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
- 네트워크 추진 : 지역 문화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모델 추진할 조직

(2) 조직구성의 기본 틀

- 독자적인 조직구성의 필요성
 -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
- 교육사업과 예술경영의 조화 필요성
 -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공공성과 합리적 경영을 동시에 추구

(3) 조직 구성



(4) 업무 분장

- 운영위원회
 - 센터의 연간 사업, 예산, 결산,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며 남구청 추천 3인 내외 민예총 추천 3인 내외 당연직 소장 1인으로 구성
- 소장
 - 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개발하고 관리
- 사무국장
 - 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각각의 업무방향을 기획 · 점검 · 평가
- 사무국
 - 구체적으로 재정관리, 회원관리, 홍보 등의 관리 및 홍보 업무 담당
- 미디어교육팀
 - 정규 강좌와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며 교사양성, 교재 출판 등의 교육관련 연구 및 네트워크사업을 담당
- 대안미디어팀
 -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공동체의 소통구조를 만들어내고,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상영 프로그램 운영, 창작지원 등의 업무 담당

부 서	역 할	인원
소 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총괄 지역과의 소통채널 개발, 확보, 관리 / 정책 제시	1
사무국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업무 총괄 업무방향 기획 · 점검 · 평가	1
사무국	수강생 접수 및 관리 회원관리 재정관리/회계	2
미디어교육팀	정규강좌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교육 공간 관리	2
대안미디어팀	창작지원/기자재 대여 스튜디오 운영 퍼블릭 액세스 지원 시민 제작단 운영	2

3. 연혁

개관이전

2003. 06	인천지역공공미디어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인천지역 13개 단체참여)
2005. 05. 05	문화관광부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신청
2005. 06. 27	문화관광부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선정

2007년

2007. 03. 21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운영위탁
2007. 09. 05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개관
2007. 09. 13 ~ 16	'Open Indie-CAMF 독립영화의 불한당들' - 인디포럼 영화제 인천상영
2007. 09. 13 ~ 12. 27	학교문화예술교육 - 실업계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운봉고)
2007. 09. 18	'인천 퍼블릭엑세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07. 10. 22 ~ 11. 05	아동복지교사 미디어교육
2007. 11. 23 ~ 25	'서울독립영화제 with 주안'
2007. 11. 24	'두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기술 시사회
2007. 12. 13 ~ 14	남구 직원 영상미디어 교육
2007. 12. 21	독립단편 쇼케이스 - 무림일검의 사생활, 적의사과
2007. 12. 22	1st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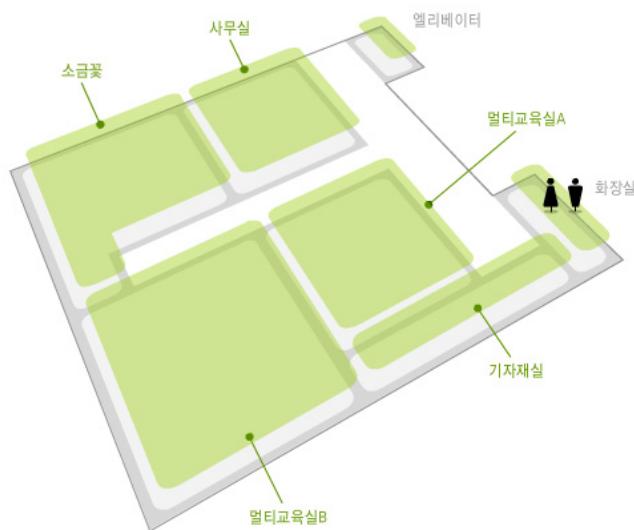
2008. 01. 03 ~ 02. 22	독립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교실
2008. 01. 08 ~ 12	2008년 교사 특수 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2008. 01. 22 ~ 23	청소년 촬영특강<10대가 만드는 팽팽파인더>
2008. 01. 24 ~ 25	청소년 편집특강<디지털 감성족의 쿵짝쿵짝 뮤직비디오>
2008. 02. 23	2nd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03. 07	퍼블릭 액세스 특강 <내가 만든 영상도 방송할 수 있다>
2007. 03. 21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남구학산문화원 컨소시엄 운영위탁
2008. 04. 01 ~ 5. 02	공동체 미디어 기초 조사
2008. 04. 25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2008. 04. 26	디렉터스 뷰 4월 - 나홍진 감독
2008. 05. 01 ~ 12. 30	인천 문화PD(i-culture)
2008. 05. 03 ~ 06. 30	공동체 미디어 심층 조사
2008. 05. 06 ~ 07. 22	장애인 미디어교육 <민들레이아학 장애성인 영상미디어교육>
2008. 05. 07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08. 05. 07 ~ 09	교육자원활동가 상반기 교육
2008. 05. 14	퍼블릭 액세스 특강 <내가 만드는 방송 - 이슈발굴과 기획하기>
2008. 05. 15 ~ 17	아시아나 국제 단편영화제 수상작 순회 상영회<(떴다 뒀다 아시프)>
2008. 05. 15 ~ 07. 31	실버미디어교육 <오춘프로젝트>
2008. 05. 22	3rd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05. 28 ~ 07. 30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이주여성이여 미디어로 소통의 날개를 달자>
2008. 05. 28 ~ 06. 04	시민단체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 받기 프로젝트>
2008. 06. 05 ~ 08	서울독립영화제 2007 순회 상영회 <인디피크닉 2008>
2008. 06. 10 ~ 11	미디어교육 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2008. 06. 25 ~ 09. 02	독립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제작워크숍 <오색감성, 영화로 빛나다>

2008.	06. 28	디렉터스 뷰 6월 - 허진호 감독
2008.	07. 11 ~ 1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8.	07. 09 ~ 12. 3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교재 개발 - 출판워크숍
2008.	07. 17 ~ 10. 16	하품학교 영상제작 위탁 교육
2008.	07. 29	창작지원 사업 <오매불망 프로젝트> 공고
2008.	07. 30	4th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07. 30 ~ 08. 02	청소년 영상미디어캠프 <청푸름 미디어 캠프 2008>
2008.	08. 01 ~ 11. 30	찾아가는 영화관 - 인천 구석×2
2008.	08. 07	웹진 CAMF 페이퍼 창간준비호 발간
2008.	08. 11 ~ 15	2008년 교사 특수 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심화과정>
2008.	08. 26 ~ 27	교육자원활동가 하반기 교육
2008.	08. 30	디렉터스 뷰 8월 - 이명세 감독
2008.	09. 02 ~ 11. 25	한부모가정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나도 영화감독!>
2008.	09. 03 ~ 11. 22	공동체 미디어 기획 조사 - RTV 액세스
2008.	09. 04 ~ 10. 10	여성미디어교육 <아줌마의 바람난 카메라>
2008.	09. 05	개관 1주년 기념 상영회 <CAMF가 쓴다>
2008.	09. 05 ~ 12. 05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2008.	09. 17 ~ 12. 03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2008.	09. 17 ~ 12. 03	실버미디어교육 <오춘프로젝트 2>
2008.	09. 22 ~ 12. 22	청소년 퍼블릭 액세스 제작교실
2008.	09. 26	저작권 특강 <알쏭달쏭 저작권, 알아야 이긴다!>
2008.	10. 09 ~ 10. 16	주안도서관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 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2008.	10. 21	아동복지교사 위탁 보수교육 <미디어 읽기>
2008.	10. 23 ~ 12. 04	인천미디어활동가 워크숍
2008.	10. 25	웹진 CAMF 페이퍼 창간호 발간
2008.	10. 25	디렉터스 뷰 10월 - 원신연 감독
2008.	10. 29 ~ 12. 17	제1기 시민PD 제작 워크숍
2008.	11. 01 ~ 12. 26	<이야기가 있는 인천> 공모사업
2008.	11. 03 ~ 12. 22	대학생 퍼블릭 액세스 제작교실
2008.	11. 07 ~ 12. 20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워크숍
2008.	11. 18 ~ 21	시민단체 영상제작 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 받기 프로젝트>
2008.	11. 29	디렉터스 뷰 11월 - 이경미 감독
2008.	12. 05 ~ 0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08.	12. 06	5th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12. 12	미디어비평 특강 <방송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2008.	12. 16 ~ 20	포켓미디어제작 특강 <주머니 속의 미디어를 만나다>
2008.	12. 17 ~ 18	국제세미나 <미디어융합과 공동체미디어의 미래>
2008.	12. 19 ~ 20	동시녹음 특강 <동시녹음과 HD-P2 활용>
2008.	12. 25 ~ 28	독립영화 상영회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어요>
2008.	12. 27	트라이포트 특강 <Fig-Rig 등 다양한 트라이포드를 활용한 촬영 스타일>
2008.	12. 27	포켓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토론회
2008.	12. 30	웹진 CAMF 페이퍼 2호 발간

4. 시설현황

-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232-2 (5, 6층)
- 규모 : 센터 653.4m², 상영관(158석)
- 시설개방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22:00 / 일요일 13:00 ~ 22: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경일, 노동절
- 공간구성

▶ 5층



사무실



기자재실

센터의 대여용 영상기자재를 대여·반납·관리하는 곳으로 4개 군으로 분류된 총 15종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다.



멀티교육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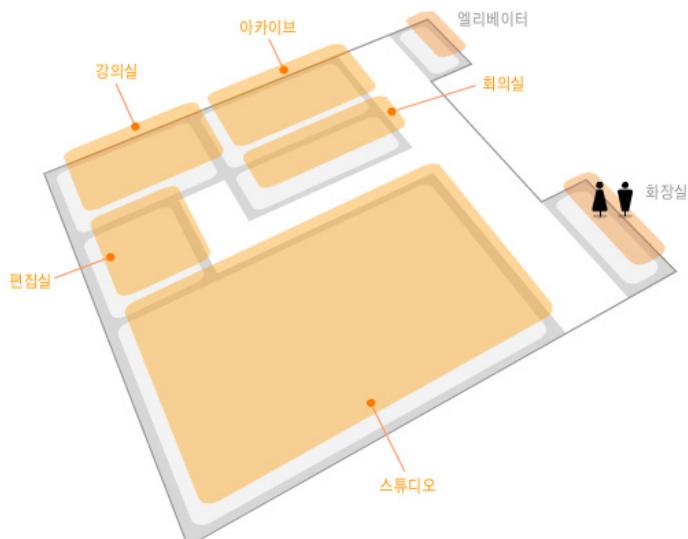
총 12평 규모의 영상편집 및 그래픽 교육공간으로 HDV 포맷까지 지원하여 전문적인 수업도 가능하다. 총 11개 편집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어 10명이 동시에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



멀티교육실 B

총 17평 규모의 영상편집 및 그래픽 교육공간으로 HDV 포맷까지 지원하여 전문적인 수업도 가능하다. 총 11개 편집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어 10명이 동시에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

▶ 6층



스튜디오

30평 규모로 방음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촬영 및 녹음, 선형 편집, 자막 및 음악 삽입 등의 설비가 갖춰져 있다. 또한 내부에 블루스크린이 있어서 크로마키 작업도 가능하다.



전문 편집실

HDV 편집이 가능한 NLE 편집기 2개조가 설치되어 있다.



강의실

대형 LCD TV와 5.1채널 사운드가 설치되어 있어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며 수업이 가능하다. 10~12인 정도가 적정 인원이다.



아카이브

미디어와 다양성을 키워드로 영상자료와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감상 할 수 있는 플레이어 4개조가 설치되어 있다.



회의실

8~10명 정도가 세미나 혹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장비현황

구분	품 목	규 격	수량	단위
시설기자재	Digital Projector Head & Body	PT-D7000	1	set
	- Zoom Lens		1	ea
	- Remote Control S/W for PC		1	ea
	Intercomm	RT-6	6	ea
	- 이어폰		6	ea
	DVCAM VCR - HDV	HVR-M25N	1	ea
	Preview Monitor(LCD)	1720TV	1	ea
	Rack for Projector	L.M.	1	ea
	LCD Mic Receiver	LRX-702E	1	ea
	- Wireless Mic	LTX-7H	2	ea
	- Mic Charger	BC-320	2	ea
	마이크분배기	MX882	1	ea
	유선마이크	SHURE PG-58	8	ea
	Mic Stand	T type	8	ea
멀티 교육실 A	Mixer	Makie 1604	1	ea
	Installation & acceptance test		1	lot
	OpenHDCertified NLE Workstation	HP XW4400	11	set
	- HP Workstation xw8200 BASE UNIT	DU935AV	11	ea
	- MS Windows XP PRO KOR	DY308AV#AB1	11	ea
	- 2.0GHz/2MB Core 2 Duo	PQ908AV	11	ea
	- 1GB DDR2-400 ECC Reg	DY358AV	11	ea
	- 160GB SATA/300 7,200 rpm (1st)	EA059AV	11	ea

	- 250GB SATA/300 7,200 rpm (2nd)	EA064AV	11	ea
	- HP 16XDVD+/-RW DL Lightscribe 1st	EM129AV	11	ea
	- Wireless LAN Card		11	ea
	Production Studio Premium	CS2	11	ea
	Aspect HD V4.13	V4.13	11	ea
	- HP USB Standard Keyboard KOR	DY302AV#AB1	11	ea
	- HP USB Optical Scroll Mouse	DC560AV	11	ea
	TFT-LCD Monitor	19"	11	ea
	DVCAM VCR - HDV	HVR-M15N	6	ea
	DLP Projector	LC-XB40	1	ea
	Elctronic Screen	100"	1	ea
	Audio System	RX-V461	1	ea
	Speaker	JBL LX2002	1	pair
	Audio Rack	Chamber	1	ea
	Headphone	HD 202	11	ea
	Installation		1	lot
	메모리1	삼성DDR21GPC2-5300(b)	20	ea
멀티 교육실 B	OpenHD Certified NLE Workstation	HP XW4400	11	set
	- HP Workstation xw8200 BASE UNIT	DU935AV	11	ea
	- MS Windows XP PRO KOR	DY308AV#AB1	11	ea
	- 2.0GHz/2MB Core 2 Duo	PQ908AV	11	ea
	- 1GB DDR2-400 ECC Reg	DY358AV	11	ea
	- 160GB SATA/300 7,200 rpm (1st)	EA059AV	11	ea
	- 250GB SATA/300 7,200 rpm (2nd)	EA064AV	11	ea
	- HP 16XDVD+/-RW DL Lightscribe 1st	EM129AV	11	ea
	- Wireless LAN Card		11	ea
	Production Studio Premium	CS2	11	ea
	Aspect HD V4.13	V4.13	11	ea
	- HP USB Standard Keyboard KOR	DY302AV#AB1	11	ea
	- HP USB Optical Scroll Mouse	DC560AV	11	ea
	TFT-LCDMonitor	19"	11	ea
	DVCAM VCR - HDV	HVR-M15N	6	ea
	DLP Projector	LC-XB40	1	ea
	Elctronic Screen	100"	1	ea
	Audio System	RX-V461	1	ea
	Speaker	E20	1	pair
전문 편집실	Audio Rack	Chamber	1	ea
	Headphone	HD 202	11	ea
	Installation		1	lot
	OpenHD Certified NLE Workstation	HP XW4400	2	set
	- HP Workstation xw8200 BASE UNIT	DU935AV	2	ea
	- MS Windows XP PRO KOR	DY308AV#AB1	2	ea
	- 2.0GHz/2MB Core 2 Duo	PQ908AV	2	ea
	- 1GB DDR2-400 ECC Reg	DY358AV	2	ea
	- 160GB SATA/300 7,200 rpm (1st)	EA059AV	2	ea
	- 250GB SATA/300 7,200 rpm (2nd)	EA064AV	2	ea

		Aspect HD Ingest	V4.13	2	ea
		- HP USB Standard Keyboard KOR	DY302AV#AB1	2	ea
		- HP USB Optical Scroll Mouse	DC560AV	2	ea
		TFT-LCDMonitor	19"	2	ea
		External HDD 320GB SATA2	SATA II 320G	10	ea
		External HDD Case	AIO EASYRACK 301	10	ea
		DVCAM VCR - HDV	HVR-M25N	2	ea
		Headphone	HD 25 SP	4	ea
		Installation		1	lot
		750GBSATA7,200rpm16M	WD7500AAKS	3	ea
		메모리2	HynixDDR21GPC2-6400U	8	ea
	기타	SD Memory	SANDISKUltra21G정품	20	ea
		전기케이블릴(30M)	한배전자KHB-2030N	6	ea
		22" Monitor	Dell E228FWP 22"	5	ea
		PC/22WideLCD	DELL Inspiron 530	1	ea
		블루스크린(크로마키)	동영상캔버스오토플배경	1	set
	아카 이브실	TV	Lucoms 2210WBT	4	ea
		DVD/VHS PLAYER	LC-6056M	4	ea
		Headphone	MDR-XD100	4	ea
		Archive	DVD,VHS,잡지	1	lot
		Installation		1	lot
	사무실	CCTV	MCC-520	4	ea
		DVR w/Monitor	JSD-800	1	ea
		- Monitor	Samtron 96B	1	ea
		NoteBookPC	Dell Inspiron 1420	1	Set
		Desktop PC	Inspiron 530MT Desktop	3	set
		TFT-LCDMonitor	22"	3	ea
		NoteBook computer(crew)	FujitsuS6311SD20VP(13.3형)	3	Set
		NoteBook computer(rent etc.)	Fujitsu P7230SD12VP	1	Set
		HDV Deck	HVR-M25N	1	Set
		HDV Deck	HVR-M15N	1	set
		Deck AL Box	2step	1	ea
		무선Lan구축공사	Hub,AcessPoint포함	1	lot
		LCD TV	32LX2DCW	1	ea
		DVD HDD RECORDER PLAYER	RH-1788	1	ea
		메모리3(노트북용)	삼성1GDDR2PC2-5300	2	ea
	강의실	22" Monotor	LG M228WA	1	ea
		Wireless Keyboard+Mouse	로지텍무선EX-90	1	set
		TV 1	XCANVAS 42PC1DB2W	1	ea
		Sound System	RX-V469+Nothridge E80	1	set
		TV 2 (Superslim)	CT-32Z40HDP	1	ea
		DVD/VHS PLAYER	LC-6056	2	ea
	찾아 가는 미디어 교실	화이트보드(대)	1200*900mm	2	ea
		화이트보드(중)	900*600	2	ea
		NoteBook computer	VESTRO1500	6	set
		ExternalHDD	SATA II 320G	6	ea
		External HDD Case	FHA 353UA	6	ea
		DLP Projector w/case	LC-XB40	1	ea
		Portable Screen	80"유압식	1	ea

		Speaker	BR-1000A	1	pair
자료실	PC w/ 22" Monitor		Dell Inspiron 530st Desktop	2	Set
	Duplicator		DG Wox	1	Set
스튜디오	블루스크린(크로마키)		동영상캔버스오토플래경	1	set
촬영 장비					
대여기자재	HDV Camera	HVR-V1N	3	ea	
	Big size battery(spare) for HVR-V1	NP-F970	6	ea	
	Quick charger w/ adapter(spare)	AC-VQ1050D	3	ea	
	HVR-V1용광각렌즈	VCL-HG0862K	2	ea	
	Camera HDD REC	FS-C 100G	1	set	
	- BATTERY		1	ea	
	- Adapter		1	ea	
	- 핫슈		1	ea	
	W/L Mic. System	UWP-C1	2	set	
	62mmUVFilter	62UVP	3	ea	
	LCD Hood	SH-L35W	2	ea	
	ALCase(V1N용)	2step	3	set	
	Tripod	503/525kit	3	set	
	DV Camera (Rent, Education)	HVR-A1N	8	set	
	- Battery	NP-QM91D	8	ea	
	- Adapter	AC-VQ50	8	ea	
	- Case	DVCAM SO2	8	ea	
	- Tripod	VCT-870RM	1	ea	
	- Wireless Mic.	5채널가변형	8	set	
	- Windscreen		8	ea	
	HDD Digital Camera(Education)	DCR-SR42	15	Set	
	Digital Camera(Education)	Powershot A710 IS	11	set	
	Tripod-SonyHVR-A1N용	TH-950DV	8	ea	
	ALcase-SonyHVR-A1N용		8	ea	
	Softcase-HDDcamera용		15	ea	
	Battery-DVcamera용	NP-QM91D	10	ea	
	Battery(AGDVX-100용)	파나소닉VW-VBD35	6	ea	
	ALBOX(AGDVX-100용)	2step	2	ea	
	JVC호환Battery	JVC BN-V428U	30	ea	
	레인커버1	KATA CRC-14	2	ea	
	레인커버2	KATA CRC-18	2	ea	
	트라이포드	FIG RIG 595B	1	set	
	- UNIVERSAL SHOCK MOUNT MICROPHONE HOLDER MICC4		1	ea	
	- FIG RIG CLAMP 595CLA		1	ea	
	- Hard case		1	ea	
	Battery(HDDCam용)	Sony NP-FH70	30	ea	
	캠코더 가방 1	지호시스콤J1-952[정품]	15	ea	
	캠코더가방2	DG302 캐논로고 가방	14	ea	
	소니배터리	Sony NP-QM91D	9	ea	
	DV Camera - [JVC]	DV3000	14	ea	
	- AC ADAPTER CHARGER	AA-V40	14	ea	
	- Battery (호환)	BN-V428	30	ea	
	- Battery	BN-V408U	13	ea	
	- CU-V504U	CU-V504U	14	ea	

- 리모컨	RM-V717U	14	ea
- A\V라인		14	ea
- SD메모리	RP-SD016B	14	ea
Soft case		14	ea
Tripod [C] - FOX TRIPOD	DT-213D	14	ea
DV Camera - [Panasonic]	DVX100	2	ea
- Battery	PA,D320	1	ea
- AC ADAPTER CHARGER	DE-852D	2	ea
필드용모니터	Sony GV-HD700	1	set
조명 장비			
Kino Flo Gaffer Kit	4ft 4Bank	4	set
Fresnel Tungsten w/ case	650W	6	set
40" Century C Stand w/ case	MSE	10	ea
2 1/2" Grip Head	MSE	10	ea
40" Extension Arm	MSE	10	ea
Two Way Light w/stand, w/case	650W *2	6	set
Reflector	white	2	set
Dedo Light Kit Set		1	set
조명악세서리(Grip Accessory)		1	set
- 젤리틴+유선지			
- Flags set(B, W, Silk, Double)	18*24 Flag	5	set
- Sandbag		10	ea
- Cutter		10	ea
40" Century C Stand w/ case	MSE	6	ea
2 1/2" Grip Head	MSE	6	ea
40" Extension Arm	MSE	6	ea
BAG	Trekker DayPack2	3	ea
녹음장비			
Headphone	HD 202	4	ea
Boom Pole w/XLR audio cable	MZA718	2	ea
Shot Gun Mic	AT-815B	2	ea
Windscreen	VJ	3	ea
Audio Recorder	HD-P2	2	set
- case(야외용),CS-P2포함		2	ea
- CF Memory	1G	2	ea
Divx Player	디비코M-4110SH	1	ea
회의녹음용마이크	RODEVM고성능	1	set
- 3단삼각대		1	ea
- 9V건전지		1	ea
보이스레코더	세닉스디지컴 MVR-W700G	2	ea
CFMemory(HD-P2용)	TRANSCEND CF 4GB 75X	4	ea
MIC	필립스SBC-MD185	5	ea
Pin MIC	Sony ECM-C10	3	ea
PinMIC연장선	5m	3	ea
Headphone	Sony MDR-Z300	5	ea
턴테이블	마란츠TT-42	1	ea
오디오믹서	KENYX 1002FX	5	ea
MD Recorder	Sony MZ-RH1	3	ea
현장녹음용Micset		1	set
- 이동용하드case		1	ea

	- MZS20-1(서스펜션+피스톨그립)		1	ea
	- MZH60-1(헤어리커버)		1	ea
	- MZW60-1(원드바스켓)		1	ea
	- K6/ME66,마이크케이스		1	ea
	- 마이크언장케이블캐논MF(10m)		1	ea
	- Boompole	MZA 718	1	ea
	- Case		1	ea
	- Battery		4	ea
	각종 Line		1	set



2장

2007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추진사업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2부 각 권역별 사업 내역

3부 2007년 사업 기록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1. 2007년 사업개요

1) 사업 목표

- 21C 영상시대에 발맞춰 설립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공유한다.
-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이외에 쉽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2008년을 대비해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중·단기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 방향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대중적 접촉면 확대

- 시범강좌, 체험사업 등을 통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낯설음을 해소한다.
- 학교,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교육내용을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과정으로 설계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 상영 등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주민들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힌다.

■ 지역 내 미디어 영역에 대한 장기적 전망 수립

- 토대조사, 시범강좌 분석, 보조교사 강좌 참여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교안 등의 전 영역에 걸쳐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개발하고 지역에 밀착한 미디어교육 교사를 발굴한다.
- 지역 내 미디어 영역의 지형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단체 및 다양한 공동체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미디어영역에 대한 대안적 개입의 방향과 방법을 개발하고, 제시한다.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의 결과물을 포함하여 독립적, 대안적 영상물들의 상시적 소통구조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전용극장을 활용한 상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상영과 관련한 각종 네트워크, 전국적 시네마페스티벌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상영을 일상화한다.

■ 사업 내용

- 미디어교육 사업
- 대안미디어 사업
- 창작지원 사업
- 상영관 사업

2. 미디어교육 사업

1) 사업 목표

- 영상미디어에 대한 기본 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예상 수요와 실제 교육 참여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2008년 강좌 구성의 근거를 잡는다.
-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교육 사업을 모색하고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인지도를 확보한다.
-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구상할 수 있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 시범강좌 보조교사 참여, 교안개발 공동 진행 등을 통해 미디어교육 교사를 발굴 및 훈련한다.

2) 사업 방향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생산 및 운영

- 기본 정규 강좌 개설
- 영상제작 기초 강좌 : 성인 대상의 영상제작 기초교육프로그램 구상. 비평과 제작을 통합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생산. 교육 참여자들의 욕구와 평가를 반영하여 차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계.
- 단기 기초 강좌 :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을 고양할 수 있는 촬영과 편집을 위한 기초 강좌 개설
- 후반제작 전문강좌 : 편집에 대한 전문 강좌 개설. 전문 강좌에 대한 지역의 욕구 파악 후 교실 확대 모색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지역의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의 현황 및 욕구 파악
-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기획
- 시범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
- 지역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방향 설정 및 중장기 프로그램 구상

■ 지역네트워크 연계 교육사업

-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사업 모색
- 문화기반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 미디어교육 교사 발굴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지향과 일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교사를 발굴한다.
- 미디어교육 교사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교사세미나 구성
- 2007년 시행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미디어교육 교사를 지향하는 이들을 보조교사로 참여시킨다.

3. 대안미디어 사업

1) 사업 목표

- 남구 및 인천지역의 지역영상미디어 제작팀 발굴 및 초기 네트워크 형성

2) 사업 방향

■ 남구 및 인천지역의 지역 영상미디어 제작팀 발굴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 남구 및 인천지역의 퍼블릭 액세스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역 내 방송국의 퍼블릭 액세스 상황과 주민들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네트워크 한다.
- 지역의 퍼블릭 액세스 제작팀의 영상물을 지역방송국의 시청자제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방송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 공동체 미디어 모델 개발

- 남구 및 인천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와 모임들의 내적, 외적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 미디어의 역할 모델을 개발한다.

4. 창작지원 사업

1) 사업 목표

- 인천지역에서의 영상제작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 사업 방향

- 제작을 위한 기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제작과정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5. 상영관 사업

1) 사업 목표

- 상영관을 통해 인천 내 대안적 상영 및 배급 활동을 만들어간다.
- 상영관을 인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2) 사업 방향

■ 비상설 상영관

- 비상업적 영상물의 상영 및 독립영화, 지역 영화들을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 세미나 및 강연을 위한 공간

-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세미나 또는 강연을 통해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며,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대강의실로 역할하며 대규모 회원 사업 등을 위한 공간

■ 지역 단체의 영상 상영 및 지역 영화제를 지원

- 지역 단체들의 다양한 영상 상영 활동 및 지역 영화제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상영관 시설 지원

2부. 각 권역별 사업 내역

1. 미디어교육 사업

1) 정규강좌 운영 사업

교육명	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촬영기초 -2day, 카메라를 들다	9.14/9.15	7시간	2일	14	28
	10.12/10.13	7시간	2일	7	14
	12.7/12.8	7시간	2일	3	6
무비메이커 활용 편집기초-뻔뻔, 포토다큐	9.18	5시간	2일	10	20
	10.16/10.17	4시간	2일	7	14
	12.11/12.12	5시간	2일	1	2
프리미어프로	9.20/9.21/9.28/9.29/10.5	15시간	5일	8	40
	11.28/11.29/11.30/12.5/12.6	15시간	5일	6	30
동영상 제작 기초	11.2/11.7/11.9/11.14/11.16/11.2 1/11.23/11.28	24시간	8일	8	64

(1) 프로덕션 - 촬영

① 사업내용

■ 교육 목표

- 촬영의 기본적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서 촬영 작업에 대해 존재했던 막연한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세계에서 동영상으로 소통하는 즐거움과 유용성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동영상으로의 소통을 위한 자기 행동기획이 만들어지도록 자극받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교육대상

- 비디오카메라를 한번도 만져보지 않은 초보자
- 가정, 직장, 사업장, 단체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 UCC 등 동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

■ 강사

- 경희령 - 미디어교육 교사
- 박명희 - 미디어교육 교사

■ 교육 내용

- DV영상 제작에 대한 이해
- 영상언어의 원리 이해
- 촬영의 원리와 이미지 구성의 원리 이해
- 인터뷰, 동적이미지, 연출 촬영 등에 대한 실습

■ 교육 세부 내용

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교육 공간 활용	교육장비 활용
9월	9.14/9.15	7시간	2일	14인	28인	강의실	HDD캠코더 7대 트라이포드7대
10월	10.12/10.13	7시간	2일	7인	14인	강의실	HDD캠코더 7대 트라이포드 7대
12월	12.7/12.8	7시간	2일	3인	6인	강의실	HDD캠코더 4대 트라이포드 4대
합계		21시간	6일	24인	48인	강의실	

- 11월 강좌는 정원(14명)의 과반수 미달로 폐강되었으며, 강좌 신청자들은 12월 강좌로 연기 신청
- 12월 강좌는 11월 신청 연기자들로 구성됨. 강좌 신청자는 11월에 이어서 정원 과반수에 못 미쳤으나, 11월부터 대기했던 교육 신청자들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팀 스텝이 교육 진행

② 사업평가

촬영기초-2day, 카메라를 들다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② 교수 방법 및 과정 평가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 평가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⑤ 강좌 추천			
교육 목표 달성	교육 만족도	교육 양	내용 일치도	교사 만족도	교수 방법	시 간 효율성	친절성	강의 계획 진행	교자료 적절성	교육 환경	센 터지 원	강의 당 학생 수	수 강료	기 자재	활 용가 치	관 심도 증 가	센 터신 뢰도	상 위 강좌 수강	강 좌 추천
80	86	80	88	93	92	92	95	94	93	86	83	88	86	77	85	88	89	84 %	92 %
*조사 방법 : 수강생 설문조사 ①~④번까지 유목은 10점 등간 척도로 조사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⑤번은 <예/아니오>의 명목척도로 조사, <예>에 대한 응답률 %로 환산																			

(2) 포스트프로덕션 - 무비메이커활용 편집기초 ‘뻔뻔, 포토다큐’

① 사업내용

■ 교육목표

- 컴퓨터로 하는 동영상편집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동영상 만들기를 통한 이야기 하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가족, 단체, 직장, 사업장 등에서 영상편집능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 교육대상

- 디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간단한 영상편집 프로그램인 무비메이커를 이용하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해보고 싶은 편집 초보자

■ 강사 : 강은정

- 미디어교육 교사(문화공동체 이공)

■ 교육내용

-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과 이야기 만들기에 대한 원리 알기(구성과 편집의 원리)
- 무비메이커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편집 툴 이해
- 자신의 일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편집해보기
- 다함께 상영하고 이야기 나누기

■ 교육 세부 내역

기간		교육 시간	강좌 일수	참여 인원	연 인원	교육 결과물	교육공간 활용	교육장비 활용
9월	9.18	5시간	2일	10인	20인	영상 10편	멀티교육실B	디카5대
10월	10.16 /10.17	4시간	2일	7인	14인	영상 7편	멀티교육실B	디카5대
11월	11.12 /11.13					폐강		
12월	12.11 /12.12	3시간	1일	1인	2인		멀티교육실B	
합계		12시간	5일	18인	36인		멀티교육실B	

- 11월 강좌는 정원 과반수 미달로 폐강
- 12월 강좌는 11월부터 신청했던 1인과 함께 1일 단축 강의를 미디어교육팀 스텝이 교육 진행

② 사업평가

무비메이커활용 편집기초-뻔뻔, 포토다큐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② 교수 방법 및 과정 평가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 평가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⑤ 강좌 추천		
교육 목표 달성	교육 만족도	교육 양	내용 일치도	교사 만족도	교수 방법	시간 효율성	친절성	강의 계획 진행	교자료 적절성	교육 환경	센터 지원	강의 당 학생 수	수강료	기자재	활용 가치	관심도 증가	센터 신뢰도	상위 강좌 수강	강좌 추천
82	84	80	77	90	90	87	92	87	90	91	86	91	85	86	84	88	87	88 %	88 %
*조사 방법: 수강생 설문조사 ①~④번까지 유목은 10점 등간 척도로 조사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⑤번은 <예/아니오>의 명목척도로 조사, <예>에 대한 응답률을 %로 환산																			

(3) 포스트프로덕션 - 프리미어 프로 강좌

① 사업내용

■ 교육목표

- 디지털비디오와 디지털 영상 편집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자신이 제작하는 동영상에 컴퓨터 편집 및 효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욱 풍부하게 작업하고자 하는 사람
- 동영상 제작 경험은 없지만, 컴퓨터 편집 및 합성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 영상편집의 초보자부터 프리미어프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 강사 : 원현숙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창작지원실

■ 교육내용

- 디지털비디오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 디지털영상 제작의 과정과 편집 과정에 대한 이해
- 프리미어의 필수 기본 기능들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실습

■ 교육 세부 내용

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교육공간 활용
9월	9.20/9.21/9.28/9.29/10.5	15시간	5일	8인	40인	멀티교육실B
11월~12월	11.30/12.1.12.4/12.5/12.6	15시간	5일	6인	30인	멀티교육실B
		30시간	10일	14인	70인	멀티교육실B

- 교사의 갑작스러운 일정 조정으로 11월 29일에서 11월 30일로 교육시작일 변경 조정
- 9월에 이어 11월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동영상제작 기초강좌와 교사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11월 말에 교육이 시작되어 12월까지 강좌 진행

② 사업평가

프로미어 프로 강좌																			
①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②교수 방법 및 과정 평가						③교육환경 및 운영방식 평가				④교육 후 태도 평가			⑤강좌 추천		
교육목표 달성을 교육목표 달성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	교육양 교육양	내용일지도 내용일지도	교사만족도 교사만족도	교수방법 교수방법	시간효율성 시간효율성	친절성 친절성	강의계획진행 강의계획진행	교자료적절성 교자료적절성	교육환경 교육환경	센터지원 센터지원	강의당학생수 강의당학생수	수강료 수강료	기자재 기자재	활용가치 활용가치	관심도증가 관심도증가	센터신뢰도 센터신뢰도	상위강좌수강 상위강좌수강	강좌추천 강좌추천
9	9.2	9.4	9.5	9.5	9.7	9.7	9.5	9.7	9.2	9.4	9.1	10	9.4	9.5	9.4	9.8	9.5	87	100

*조사 방법: 수강생 설문조사

①~④번까지 유목은 10점 등간 척도로 조사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⑤번은 <예/아니오>의 명목척도로 조사, <예>에 대한 응답률을 %로 환산

(4) 제작통합 - 동영상 제작기초

① 사업내용

■ 교육목표

- 디지털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실습을 통해 영상표현의 생산자로서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교육대상

- 영상제작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경험이 없는 초보자
- 촬영 경험은 있었으나, 기획 과정을 통해 영상제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 강사 : 강은정

- 미디어교육 교사(문화공동체 이공)

■ 교육내용

- 동영상과 재현의 원리, 영상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감상
- 촬영의 원리와 편집의 원리 이해
- 비디오카메라와 프리미어 프로의 기술적 이해
-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획하고 구성하기
-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촬영하고 편집하여 완성하기
- 시사

■ 교육 세부 내용

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교육결과물	교육공간 활용	교육장비 활용
11월	11.2/117/11.9/1 1.14/11.16/11.2 1/11.23/11.28	24시간	8일	8인	64인	영상 4편	강의실 멀티교육실B	A1N 4대 M15N 1대 트라이포드 4대

- 센터 교육 장비 중 JVC 캠코더의 배터리 문제로 A1N카메라로 교육 진행
- 교육생들에게 제출되는 교육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카메라 지원을 위해 교육생이 직접 장비신청을 제출하고 카메라를 대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 진행

② 사업평가

동영상 제작 기초 강좌																			
①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②교수 방법 및 과정 평가						③교육환경 및 운영방식 평가				④교육 후 태도 평가			⑤강좌 추천		
교육목표달성을	교육만족도	교육양	내용일지도	교사만족도	교수방법	시간효율성	친절성	강의계획진행	교자료적절성	교육환경	센터지원	강의당학생수	수강료	기자재	활용가치	관심도증가	센터신뢰도	상위강좌수강	강좌추천
76	90	88	86	92	94	88	96	94	92	96	96	92	94	92	92	96	100	100	100

*조사 방법: 수강생 설문조사
 ①~④번까지 유목은 10점 등간 척도로 조사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⑤번은 <예/아니오>의 명목척도로 조사, <예>에 대한 응답률을 %로 환산

(5) 정규강좌 총괄 평가

① 교육 준비과정

- 교안개발에 대한 교사회의 등이 있었으나,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으며 일부 강좌에 한정해 진행
- 교사네트워크, 교육자료 생산 등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못함
- 전략 강좌를 중심으로 한 센터의 교안 및 교재 생산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수요예측을 통해 대중강좌의 성격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방향과 내용을 연구하고 생산하여 지역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토대 마련 필요
- 센터 교육 장비 및 시설에 사전 테스팅 및 점검이 완료되지 못한 채 강좌가 진행 되었으며 강좌 진행 중에 돌발적 상황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
- 센터의 교육 장비 구축 상태와 교육 전체의 진행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장비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즉자적으로 파악하여 대처
- 강좌 준비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각 진행 단계에서 필요한 센터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매뉴얼 작업 필요
- 교육준비 과정에서 교육 기획, 교사섭외, 교육 구체내용 생산, 교육 장비와 시설에 대한 유기적 배치 및 점검이 필요

② 교육내용

- 디지털미디어 환경, 영상언어, 영상미디어의 제작과 재현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이해를 종합적으로 반영 하려고 시도
- 한편으로 미디어의 공공성, 퍼블릭액세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 등에 대한 교육적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습 및 제작 중심의 정규강좌에서 이러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개념 중심의 교육내용이 모델화 될 필요가 있음
- 영상제작의 주류적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된 영상을 읽고 감상하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며 독립 강좌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대중강좌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음
- 기초과정과 중급이상 과정,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 제작 통합과정과 프로덕션 프로세스별 분화된 제작 과정 등에 대한 교육 스펙트럼이 필요

③ 교육 진행

- 강좌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 홍보, 교육시설 및 장비기획 및 점검의 내용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프로세스 매뉴얼이 필요함
- 교육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계획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 교육 과정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위한 계획, 기록 이후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
- 강좌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설문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이후 수강생들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욕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서 수강생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교육 시설 사용 중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해결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기술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음
-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육 장비를 교육팀이 보관,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교육 장비를 안정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공간 필요

④ 종합 평가

- 기초, 중급이상 과정, 단기와 장기 과정, 제작 통합과정과 프로덕션 프로세스별 분화된 제작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정규강좌의 교육 스펙트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영상언어와 영상미디어의 재현에 대한 이론적 이해, 미디어환경, 미디어의 공공성(퍼블릭엑세스 등) 등에 대해 대중 강좌에서 접근하기 위한 특강 형식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작중심의 정규강좌에서 이러한 내용이 통합적으로 교육되기 위한 교육내용 연구 역시 필요하다.
- 지역의 수요예측을 통해 핵심 전략 강좌를 중심으로 한 교안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재를 생산해야 한다.
- 미디어교육 아카이브로서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장소
성동학교 청각장애인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9/7~12/21	24h	12일	7	84	성동학교
작은자 야학 영상미디어교육	10/13~12/8	21h	7일	4	28	회의실 / 멀티교육실A

(1) 성동학교 청각장애인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내용

■ 교육개요

- <공공미술연구모임 문화수리공>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의 후원 사업으로 교육 진행
-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사업의 주내용은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통해 성동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공간에 대한 상(想)을 공유하고, 성동학교 청소년들이 그리는 학교에 대한 상을 구체화하여 교문 디자인 시안을 제시하여 예술가들이 교문을 새롭게 제작
- 문화예술 교육 일환으로 영상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성동학교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아름다운 교문만들기>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담는 과정에 대한 교육 진행

■ 교육목표

- 청각장애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
- 성동학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서 학교의 변화과정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표현

■ 교육대상

- 성동학교 청각장애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 7명

■ 강사

- | | |
|-----------------------|--------------------|
| ○ 이희랑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팀 | ○ 김영경 - 사진 작가 및 강사 |
| ○ 김정환 - 성동학교 교사 | ○ 박승규 - 성동학교 교사 |

■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 시간	강좌 일수	참여 인원	연 인원	교육 결과물	교육장비 활용	장소
9.7~12.21 (매주 금)	24 시간	12일	7	84	〈자기소개〉 영상 4편 〈나의 일상〉영상 3편 〈일상 발견〉 사진 전시	HDD캡코더 3대 노트북 2대	성동 학교

- 사진 교육 : 자신이 하고픈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서 표현하기
 - 사진의 원리에 대한 이해
 - 나의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사진으로 담기
 -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의미 만들기
 - 사진 작품전(프로젝트 전시와 함께 기획)
- 동영상 제작교육 : 촬영 및 편집을 비롯한 동영상 제작 및 소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상하고 표현
 - 영상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 청각장애인이 만든 영상작품 감상 및 비평
 - '영상으로 소통하기'에 대한 의미 나누기
 - 촬영의 원리와 편집원리 알고 기능 익히기
 - '나', '나의 일상', '우리학교' 등을 주제로 한 영상 제작해보기
 - 상영과 소통(프로젝트 작품 전시회)

■ 교육 진행

- 7명의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에 디카가 있는 청소년들 3명은 사진교실, 나머지 4명의 청소년들을 동영상 교실로 나누어 진행
- 사진 교실은 학교, 나의 관계, 주제촬영, 교문만들기 등을 주제로 하여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한 의미만들기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
- 동영상 교실은 HDD캡코더와 무비메이커를 활용하여 '나의 소개', '우리학교', '나의 일상'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 그중 '나의소개'와 '나의 일상' 관한 짧은 영상이 결과물로 나옴
- 교육 기획에서 목표로 설정했던 〈아름다운 교문만들기〉에 대한 다큐만들기 내용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결과물로 도출되지 못함

② 사업평가

■ 교육기획 및 준비과정

- 청각장애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영상미디어교육과 〈아름다운 교문만들기〉 프로젝트 기록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설정.
- 영상미디어 교육을 처음 시작한 청각장애 청소년들에게 프로젝트 기록이라는 과중한 교육목표가 설정됨.
- 교육 인원과 교육 장비 운영의 효율성 문제만 생각하며 사진교실과 동영상 교실을 임의적으로 분리.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분리하거나, 사진교실과 동영상 교실의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필요했음.
- 학교나 교문은 청소년들의 관심 영역이 아니었으며, 두 번 이상 이야기하면 식상하고 재미없는 주제가 됨. 처음 영상미디어를 접하는 청각장애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교육 기획이 바뀌어야 함.
- 교문을 철거하고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전 과정에 대한 스케줄링과 영상미디어교육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했음. 교문철거 및 시공 과정이 안정적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지 않아 교육일정 별로 교육 내용이

계속해서 재수정되는 사태가 발생함.

- 영상미디어교육의 목표를 ‘기록’에 두는 오류 속에서 청각장애청소년에 맞는 교육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하지 못함.
- 교육을 진행했던 교사가 청각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해준 학교교사와 긴밀하게 교육 기획 및 준비를 하지 못함.
- 교육 환경과 교육기자재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통해 성동학교의 시청각실 컴퓨터의 무비메이커 편집 프로그램, 센터 기자재인 HDD캠코더 등의 상호 호환 관계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채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기초교육 과정임을 고려치 않은 교육 목표 설정의 오류.
- 청각장애인임과 동시에 청소년임을 고려한 교육자료 구축의 실패.
- 사진교육 과정의 이미지 읽기와 생산, 동영상 교실에서의 영상 편집 과정을 유기적으로 배치한 포토에세이 형식의 교안으로 재조정 필요.
- 청각장애의 특성을 지닌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관심영역을 분석하고 적용한 교육자료 및 교육주제 도출 필요.
- 청각장애 청소년의 발달과정 및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한 교육 내용 도출 필요.
- 기초 교육 과정에서는 기술 이해 중심의 기능교육이나 제작 교육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읽기와 감상 교육이 필수이며, 청각장애적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과 미디어의 공공성 등에 일방적 전달이 아닌, 공감하며 쉽게 이해하고 문제제기 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 내용 개발 필요.

■ 교육진행

- 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가 영상미디어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파악,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
- 프로젝트나 모니터가 있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컴퓨터실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나, 커다란 모니터와 어두운 조명 등으로 상호작용적 소통이 힘들었음.
- 보조교사(학교교사)와 긴밀하게 교육에 대한 내용 및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채, 교육전에 간단한 브리핑으로 교육을 시작했으며, 교육이 끝나면 바로 다른 수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관계로 교육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못함.
- 보조교사의 역할이 수화 통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통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수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내용을 준비해야 하며, 수화통역을 담당하는 교사는 미디어교육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 발견.
- 임의적으로 학년이 선정되거나, 학교 수업 교과시간에 영상미디어교육이 배치되는 것이 아닌, 관심 있는 또래 집단을 모아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 평가 및 차후 계획

- 청각장애 청소년의 경우,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에서의 목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 자료 구축이 필수적임.
- 제작 중심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영상을 보고 비평하고 토론하기 위한 교육자료 구축이 필수.
- 비장애인 교사이거나 수어가 불가능한 교사이 경우, 수어 통역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수화 통역자는 통역자 외에 보조교사로서 전체 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 방법 등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능동적으로 결합해야 함.
- 청각장애 청소년 교육자이며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발굴하고 청각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 제출 필요.
- 청각장애인 청소년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영상문화의 장이 있어야 함.

(2) 작은자 야학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내용

■ 교육개요

- 인천야학연합회(비정규학교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에서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주관한 <2007 지역문화기 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영상미디어교육을 <작은자 야학> 비정규 학교와 함께 진행
- <작은자 야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인천의 비정규학교
- <작은자 야학>의 장애인교육생들과 비장애인 교육활동가들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형태로 기획

■ 교육목표

- 영상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함께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갖는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미디어교육의 사례를 창출하고 평가한다.

■ 교육생

- 작은자 야간학교교육생 3인, 교육활동가 3인(지체장애인3인, 비장애인3인)

■ 강사

- 문정현 - 독립영화감독(푸른영상)
- 이희랑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팀

■ 교육기간

- 2007년 10월 13일 ~ 11월 24일 매주 토요일 6시~9시(야학일정에 따라 일요일 변경)

■ 교육내용

- 영상이미지로 나를 소개하기
- 미디어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미디어에 대해 이해하기
- ‘나’를 이야기한 다양한 영상 감상하기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발견하기
- 촬영의 원리와 편집 원리를 배우고 기능 익히기
- ‘나의 이야기’ 만들고 함께 시사하기

■ 교육 세부 내용

교육기간	교육 시간	강좌 일수	참여 인원	연 인원	교육 결과물	교육 공간	교육장비 활용
10.13/10.21/10.28/11.3/11. 10/11, 17/12.8	21h	7일	4	28	영상에세이 2편	회의실, 멀티교육실	디카 3대 M14N 데크1대 HDD캡코더 3대

- 신청된 교육생은 <작은자 야학>의 교사 3명, 장애인 교육생 3명이었으나, 야학의 일정상 교육이 일요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생 2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 교육 결과 영상에세이 2편이 나왔으며, 이는 <인천 지역문화예술교육 통합발표회-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상영됨.

② 사업평가

■ 교육기획 및 준비과정

- 교육 기획과 교육 준비 과정에서 <작은자 야학>의 대표교사와 함께 야학의 교육 환경, 교육 참여자들의 특성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금번 교육에 대한 교육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함.
- 야학의 교육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야학생들이 센터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여 낮선 공간에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함.
- 작은자 야학의 주간 교육일정과 교사의 교육일정등을 고려하여 토요일 오후로 수업을 정했으나, 야학의 행사등에 대한 일정을 고려치 않아 교육 기획 과정에서 교육일의 변동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함.
- 보조교사를 찾지 못한 과정에서 센터의 교육팀에서 주교사를 보조하며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교육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한 교사들 간의 회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거시적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유기적 관계가 형성 되지 않은채 특정 사업만 진행하면서 수단화 된 경향이 있음.

■ 교육내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교안이 만들어짐.
-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사의 경험에만 의존하며 교육내용이 진행됨.
-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함께 감상했는데, 교사의 즉자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감상의 목표와 감상 영상에 대한 관계적 고찰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의 형태에 대한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형태의 교육였으며 다양한 영상을 감상하고 개별 영상을 제작하여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녹아 있었음.

■ 교육진행

-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고려 없이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함.
- 교육이 진행의 후반 과정에서 ‘장애인 예산 편성’ 관련 문제가 투쟁의제로 불거져 교육생 절반이 투쟁에 결합하면서 후반 교육에 참여를 못함.

■ 종합 평가

- 장애인 중심의 비장애인과 통합교육을 모색했으나,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장애인 교육 활동가들에 대한 매개자 교육 형태가 되어 버림.
- 교육생이었던 장애인 교육 활동가들과 차후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계획을 도출할 계획임.
- 장애 유형별 교안과 교육자료에 대한 고려가 있는 교육 내용 개발
- 사회적 참여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장애인들과 반면에 사회적 참여와 소통에 적극적인 장애인 공동체를 나누어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미디어교육 활동가 교육 모색.

(3) 2007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종합평가

- 2007년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은 센터의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지역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장애인 관련 미디어교육이 중심을 이룸.

3)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교육명	교육기간	강좌일수	교육시간	참여인원	연인원
학교문화예술교육 - 실업계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9/13 ~12/27	20일	60h	8	160
주민제안 영상미디어교육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과)	9/15 ~10/26	12일	36h	6	72
아동복지교사 미디어교육 (아동복지교사 인천지원센터)	10/22 ~11/5	2일	5h	155	310
남구 직원 영상미디어교육 (인천광역시 남구)	12/13 ~12/14	2일	8h	9	18

(1) 학교문화예술교육-실업계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영상미디어교육
- 주관 - 학산문화원 (문화예술교육지원처)
- 위탁교육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사업기간 - 2007년 9월~2008년 1월
- 사업목표
 - 지역문화예술 관련 공공기반 시설과 실업계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연계성에 기반한 교육 모델생산
- 사업내용
 - 지역의 실업계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교실 기획 및 운영
 - 실업계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의 교육 방향 및 내용 생산

■ 교실명 : 네모 속 상상의 엔진을 켜다

■ 교육 목표

- 실업계청소년들이 영상미디어를 통해 주체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가족과 학교라는 올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장소,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소통의 대상 및 관계를 확장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교육생

- 인천 운봉고등학교 영상반 약 8명

■ 강사

- 경희령 - 미디어교육 교사
- 이송이 - 미디어교육 교사(문화공동체 이공)

■ 교육일정

- 2007년 9월 13일 ~ 12월 27일 매주 목요일, 토요일

■ 교육 내용

- 영상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에 대한 영상이야기 만들기
- 주체적으로 상영 기획하고 실행해보기

■ 교육 세부 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교육결과물	교육공간	교육장비활용
9.13/9.20/9.27/9.29/ 10.4/10.6/10.11/10.18/10.25/10 .27/11.1/11.3/11.4/11.8/11.11/1 1.15/11.22/11.24/11.29/ 12.6/12.13/12.24/12.27	60시간	20일	8	160	영상 4편	회의실 멀티교육 실	A1N 3대 트라이포드 M15N 1대

② 사업 평가

■ 교육기획 및 준비과정

- 교육은 작년에 이어 2년차에 걸쳐 진행된 지속사업의 형태였음.
- 작년 교육참여자의 대부분이 후속 교육에도 참여하기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주강사 역시 작년 강사(경희령)가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였음.
- 3년 연계 시범사업 중 2년 지속 사업으로서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와, 교육참여자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작년 교육 주제인 '나'로부터 '나의 밖'에 대해 인식하고 이야기해 보는 것을 교육 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 교육내용

- '나의 밖'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방법을 찾을지에 대해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주제가 전도됨.
- 다른 한편, 교육참여자들의 욕구가 '영화'를 비롯한 영상만들기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교사로부터 제기되었고, 영상제작물을 목표로 두는 교육목표가 설정되었으나, 영상제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과정, 촬영과 편집에 대한 기술적 이해능력이 사전에 고려되지 못했음.
- '우리동네찍기' 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교육목표가 모호한 상태에서 '주제 및 소재잡기' 혹은 스토리텔링하기 등의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촬영 기술교육으로 매개 없이 넘어가버림(촬영 모니터 결과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교사가 요구하여 기술교육을 실시).
- 기초 교육 과정에서는 기술 이해 중심의 기능교육이나 제작 교육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읽기와 감상 교육이 필수임을 고려한다면, 교육참여자들과 함께 할 교육 방향이 기초교육과 토대교육인지, 제작물을 목표로 한 제작교육의 형태일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방향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교육진행

- 교육참여자들 간의 일상적(학교내) 권력 관계가 미디어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평등한 소통을 목표로 하는 교육 진행에 교사들의 어려움이 야기되었고, 교육참여자들이 불참하는 문제 등이 발생함.
- 주교사와 보조교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내용 준비 및 평가를 수시로 진행했으며, 진행 과정에서 교육참여자 들에 대한 문제인식 및 교육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음.
- 교육이 주1회가 아닌 주2회 진행될 때가 다수 있었으며, 학사일정이 있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정일 수 있었으나, 1강 2시간 교육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종합 평가

- 참여자의 욕구와 수준, 이전 단계에서의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 교육자의 교육방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육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함.

- 미디어교육적 결과물로서의 영상물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과 영상을 제작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교육방향을 설정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자'에 대한 관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소통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2) 학산문화원 <하품학교>의 주민제안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주민제안프로그램 사업 (인천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과)
- 주최 - 하품학교(남구 학산문화원 영화소모임)
- 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후원 - 남구청 평생교육과
- 사업기간 - 2007년 9월1일 ~ 12월 31일
- 교육목표
 - 촬영 및 편집을 비롯한 동영상 제작 및 소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 지역 공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본다.

■ 교육생

- 학산문화원 '하품학교' 회원6~8명, 일반 신청 주민 2명

■ 강사

- 이희랑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팀
- 심설희 - 미디어교육 교사

■ 교육일정

- 2007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토요일(화요일: 낮3시~6시, 토요일: 낮2시~5시)

■ 교육내용

- 영상미디어 및 영상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 영상 촬영과 편집의 원리와 재현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기능 익히기
- 지역의 공간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주제 찾기
- 기획하고 구성하기
- 하품학교 영화제에서 함께 시사하기

■ 교육 세부 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교육결과물	교육공간	교육장비 활용
9.15/9.18/9.29/10.2/10.6/10.9/10.16/10.20/10.21/10.23/10.26	36시간	12일	6	72	포토에세이 4편 다큐멘터리 3편	회의실 멀티교육실	HDD캠코더 트라이포드

- 하품영화제에 상영을 목표로 교육기획이 이루어져 총 7편의 영상이 교육결과물로 제출됨.

- 하품학교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하품영화제 때 직접 상영을 기획하고 집행함.

② 사업평가

■ 교육기획 및 준비과정

-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연령대와 영상제작에 대한 경험 수준이 다양했으나, 이를 고려한 교육목표 및 방향, 내용 설정을 하지 않음.
- 교육 과정으로서 상영을 기획하지 못하고, 상영을 염두한 교육과 교육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도됨.

■ 교육내용

- 영상제작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과 상영을 목표로 교육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에 대한 비평적 시각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 등이 풍부히 반영될 수 있는 교육시간을 확보하지 못함.
- 지역 문화관련 소모임임을 고려하며 ‘우리 지역’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상 제작에 들어갔으나, 젊은 층에게 지역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 관련된 지역민들의 다양한 영상물을 함께 보고 지역민이주체적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자료 필요.

■ 종합 평가 및 후속 계획

- 교육생들이 스스로 영상제를 기획하고 영상제를 통해 본인의 작품을 상영하며 상영을 통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음.
- 지역 주민 영상모임으로 지역의 문화를 기록하고 지역의 문화를 담론화할 수 있는 영상 모임으로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심화된 후속 교육과 활동 제안에 대한 초동 주체 형성이 필요함.

(3) 아동복지교사 미디어강좌

① 사업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명 - 아동복지교사 인천지원센터 2차 보수교육 미디어 강좌 위탁교육
- 주최/주관 - 아동복지교사 인천지원센터
- 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사업목표 - 소외지역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의 재교육

■ 교육목표

- 소외지역의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하는 아동복지교사의 미디어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대상 : 아동복지교사 155명

■ 강사

- | | |
|----------------------------|--------------------------|
| ○ 이희랑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팀 | ○ 전칠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 ○ 강은정 - 미디어교육 교사(문화공동체 이공) | ○ 김성희 - 미디어교육 교사(연분-홍치마) |
| ○ 경희령 - 미디어교육 교사 | |

■ 교육내용

- 이미지로 자기를 소개하기

- 영상언어의 이해, 이미지 구성의 원리, 편집의 원리 이해
- 무비메이커를 활용한 아동복지센터 기록영상 만들기
- 영상물 웹에 올리고 공유하기

■ 교육 세부 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교육결과물	교육공간	교육장비 활용
10.22/10.24/10.26/10.29 /10.31/11.1/11.2/11.5	5시간	2일	155	310	영상물 150여개	멀티교육실	디카 10대

-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사진 이미지를 무비메이커를 통해 음악과 자막을 넣어 편집하는 간단한 기록 영상 제작. 155편의 기록영상들이 결과물로 제출됨.

② 사업평가

■ 교육기획 및 준비과정

- 센터의 무비메이커행용 정규강좌를 모델로 하여 교안을 준비하고 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교안 조정.
- 무비메이커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됨.
-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은 교안과 같은 집단에 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 회의와 시범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의 통일성을 기함.

■ 교육내용

- 교육생들이 아동복지교사라는 특이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결과물에 연관된 주제로 교육 내용을 기획함.
- 영상언어, 이미지의 구성과 편집 원리등에 대한 영상에 대한 이해와 편집을 위한 제작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 내용 구성.

■ 종합 평가

- 무비메이커가 영상편집으로 활용도가 높은 점을 인정하나, 불안정함으로 인해 규모가 큰 교육이나 지속적인 교육이 불가능.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센터 멀티교육실은 프리미어 프로CS3 버전을 중심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메이커와 같은 가볍고 일상적 활용이 용이한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적 멀티교육실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인천광역시 남구청 직원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남구청 직원 영상미디어교육
- 주최 - 인천광역시 남구
- 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일시 - 2007년 12월 13일 ~ 14일
- 사업목표
 - 지역 주민들과 일상적인 공직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남구 공무원들의 영상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 남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미디어능력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 교육목표

- 영상이미지가 말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영상이미지를 구성하여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며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생

- 인천광역시 남구청 직원 9명

■ 교사

- 이희랑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팀
- 경희령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팀
- 김영 - 미디어교육 교사

■ 교육내용

- 영상언어에 대한 이해
- '나'를 표현 할 수 있는 이야기 발견하기
- 이미지 구성의 원리와 편집의 원리를 이해하고 편집의 기술적 기능을 익히기
- '나'를 표현하는 영상작품 만들고 소통하기

■ 교육 세부 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교육결과물	교육공간
12.13/12.14	8시간	3일	9	27	포토에세이 9편	멀티교육실

② 사업평가

■ 교육기획 및 준비과정

- 지역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지역민들과의 일상적인 공직커뮤니케이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공무원 영상미디어교육은 의미있는 작업이었음.
- 공무원의 영상미디어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할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전 연구가 부족했으며, 교육 위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

■ 교육내용

- 공무원 영상미디어교육은 단순히 기술능력 합양이나 제작 교육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1차적으로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적 교육이 필요.
- 개인의 판단과 결정보다는 국가의 결정에 우선하는 측면이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어떤 저해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 필요.
- 한편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태도와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소통의 주체로서 표현할 권리를 인정받고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자존감을 획득하는 교육이 동시에 필요함.

■ 종합 평가

- 공무원들의 영상미디어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어필되는 계기.
-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업군에 대한 영상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교육내용 생산 필요.

2. 대안미디어 사업

1) 개관 기념 토론회

(1)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인천의 영상제작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모델과 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기획하는 계기가 된다.
- 지역 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국, 위성방송, 지역 라디오 방송국 등의 다양한 채널의 퍼블릭 액세스 상황을 공유한다.
- 인천의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채널의 기획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사업대상

- 퍼블릭 액세스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지역에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 지역 방송 종사자

■ 사업내용

- 토론회 명 - TV와 라디오가 인천주민의 사랑방이 되는 꿈
- 일시 -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17층 중회의실
- 사회자 - 전철원(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발제
 - 퍼블릭 액세스 의의와 전망 : 박채은(미디액트 정책실)
 - 인천의 퍼블릭 액세스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최영준(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안미디어팀)
 -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의 역할 : 이정훈(시민방송 RTV 편성국장)
 - 웹 2.0 시대 시민참여를 통한 방송 만들기 : 강일석(OBS 경인방송 PD)
- 토론
 - 이은주(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김금녀(상명대학교 영상학부 겸임교수, 퍼블릭 액세스 시민영상제 집행위원장)
 - 김동주(NIB 남인천방송국 PD)
 - 양재호(CJ 케이블넷 북인천방송 편성제작팀장)

(2) 사업평가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며, 2000년대 미디어 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퍼블릭 액세스와 관련한 토론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개관 기념 토론회로 배치한 것은 적절하였다.
- 그러나 토론의 유의미성을 지역사회에 알려내고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지역 제작 주체와 시민단체들이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 인천 관내 3개의 지역 케이블 중 NIB 남인천방송국과 CJ 케이블넷 북인천방송, 지역 지상파 방송국인 OBS 경인방송에서 모두 참석하여 퍼블릭 액세스와 관련한 각 채널의 기획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이다.

2) 공동체 미디어 사업

(1) 우리마을TV 시범사업

①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공동체 내부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한 도구로써 미디어를 인식하고, 이러한 공동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고자 함.

■ 사업 대상 :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 사업 기간 : 2007년 9월 ~ 12월

■ 사업 내용

- 영상소식지 제작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촬영한 영상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제작
- 영상제작 지원팀 구성
 - 자원활동가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안미디어팀으로 구성
 - 기획, 촬영, 편집 등 매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지원과 인터넷 상영 및 퍼블릭 액세스 안내
- 영상소식지 방송
 - 시민방송 RTV 방송, 평화의원 휴게실 상영, 웹 상영 및 VHS 테잎 배포

② 사업 결과 및 평가

- 2편의 영상소식지 제작 및 방송
-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내부 활동가 2인, 자원활동가 1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안미디어팀 1인으로 제작팀 구성
- 영상미디어를 통해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활동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되었으나, 내부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내부 주체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배치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2) 어머니 리포터 교육 - <우리집, 우리동네 이야기를 예쁘게 촬영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TV에!!>

① 사업 내용

■ 사업 목적

-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소식지에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활동할 주부 리포터를 양성한다

■ 교육 목표

- 주류 방송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식, 내 이웃의 소식 그리고 나와 가족의 소식을 사진과 리포터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해 봄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알린다.
- 교육 과정에서 생산한 내용을 지역의 영상소식지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지역의 소통을 만드는 계기를 만든다.

■ 교육 대상 : 40대 초중반 어머니 6명

■ 교육 진행과정

차시	일시	장소	교육명	교육내용
1차시	11/15	평화의료생협	디카 배우기	기초적인 디카 사용법을 배운 후, 인물과 풍경으로 나누어 실습 찍은 사진을 보며 촬영의 구도와 앵글 등에 대해 이야기
2차시	11/22	주안영상 미디어센터	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진앨범 만들기	윈도우 무비메이커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앨범을 만들어보기
3차시	11/29	평화의료생협	리포터 교실	일상의 이야기를 사진과 인터뷰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보기 실습
4차시	12/2	수강생 집	편집 프로그램 익히기	윈도우 무비메이커 사용법 보충 교육
5차시	12/13	평화의료생협	시사회 및 평가	수료작을 함께 보고 토론

■ 결과물

제 목	내 용
민우 민영이네 김장하는 날	김장 사진과 음악, 아이들 인터뷰로 구성
책 먹는 엄마 2007년 활동 동영상	2007년 활동사진과 음악, 어머니들의 인터뷰로 구성
마지막 가을	풍경 사진과 음악, 시 나레이션으로 구성
전자랜드 & SK 농구경기 관람	농구시합장면 사진과 음악, 아이들 인터뷰로 구성
우리집	화분 사진과 음악, 어머니 나레이션으로 구성
눈 오는 날	눈 사진과 음악, 시 나레이션으로 구성

② 사업 평가

- 목표했었던 디지털 카메라의 활용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삭제나 버튼 누르기 등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셨던 분들의 경우, 촬영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카메라 앵글이나 구도 등에 대한 설명과 실습을 통해 사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컴퓨터에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한 사진앨범을 만드는 방법은 생활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의 실습을 통해 어머니들이 직접 제작하시는 것에 무리가 없게 되었다. (단, 개인적 컴퓨터 사용능력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남)
-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 영상소식지 리포터로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였다. 그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상의 이야기를 사진과 인터뷰 등을 통해 영상소식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 전체적으로 수업 양은 적절했다. 각 차시별로 이론이나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보다 일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했다. 단지 편집 실습시간은 한 차시로는 부족했다. 컴퓨터가 익숙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했는데, 어머니들의 컴퓨터 사용능력 차이에 따라 실습 결과물이 틀렸다.

3) 퍼블릭 액세스 사업

(1) 퍼블릭 액세스 제작 교육

① 사업 내용

■ 사업명 : 카메라로 말하는 인천 이야기

■ 사업 목표

- 카메라를 통해 인천의 이야기를 말하고, 방송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지역 퍼블릭 액세스 주체들을 발굴한다.

■ 사업 기간 : 2007년 8월 ~ 12월

■ 사업 내용

	모임	교육시간	참여인원	제작결과물	지원 장비
1	교사영상제작모임	36h(12강)	4인	영상 3편	JVC GR-DV3000 3대
2	여성영상제작모임	36h(12강)	4인	〈비디오 일기〉 영상 2편 시민방송 RTV에 액세스 / 국제여성노동영화제 출품	JVC GR-DV3000 2대 트라이포트 2대 편집컴퓨터 1set
	총 계	72h(24강)	8인		

② 사업평가

- 각각 직업과 계층에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시민들로 제작 모임을 구성하여 교육 및 제작 지원을 진행하였다. 영상 기술이나 이론에 대한 교육보다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일상이 잘 드러나는 수료작들을 제작하였다.
- 특히 여성제작모임이 제작한 〈비디오 일기〉는 시민방송 RTV에 방송되었고, 국제여성노동영화제에 출품하면서 영상 제작이나 방송을 전문제작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 추후 각각 영상제작모임을 영상 제작 동호회로 추동하여 지속적인 영상 창작과 방송 참여를 하는 지역 퍼블릭 액세스 주체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창작지원사업

1) 기자재실 운영사업

(1)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촬영 및 편집 기자재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한다.

■ 사업대상

- 회원교육을 이수한 시민들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개인
- 학교 방송반,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 제작을 하고자 하는 단체

■ 장비별 활용 현황(대여일수 기준)

활용장비목록	소계	교육	지원	유료
Sony HDV HVR-V1N	31	■	31	■
Sony HDV HVR-A1N	83	44	1	38
Sony HDD Camera DCR-SR42	116	116	■	■

JVC GR-DV3000	158	4	154	■
Manfrotto 503 Tripod set	28	23	■	5
Libec TH-950DV	76	56	4	16
Tripod (C)	88	■	88	■
Sony HDV HVR-V1N용 광각렌즈	22	■	22	■
Reflector 42"*42"	2	■	■	2
Wireless Mic UWP C-1	2	■	■	2
Wireless Mic TX-755PM	9	5	4	■
Condenser Mic Audie Technica 815B	2	■	■	2
BoomPole	2	■	■	2
편집실 (15,000/4Hr)	1	■	■	1
편집실 (25,000/8Hr)	59	■	58	1
디지털 카메라	126	125	1	■
노트북	13	13	■	■
M15N	12	11	1	■
M25N	3	■	3	■
외장하드	4	4	■	■
총계	837	401	367	69

■ 총 대여 현황

	대여건수				대여일수				비고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2007년 총계	103	14	64	25	837	69	401	367	

② 사업평가

- 2007년 9월 개관 이후 4개월 동안 기자재 사용일 수가 총 837일에 이른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이용 현황이다. 물론 그 대부분이 교육과 지원 부분 영역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시민영상제작 지원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상태라 평가할 수 있다.
- 차후 각종 교육을 통한 시민창작자 형성 및 지역의 전문적 창작 인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 사용을 포함하여 더 많은 기자재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2) 영상제작 지원사업

(1) 사업내용

■ 사업 목표 : 인천지역 전문적 영상 제작 활성화

■ 사업 대상 : 지역 내에서 영상으로 소통하고자 하며 제작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 사업 내용

- 지원작품 -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 지원결정 기준 - ‘두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는 지역색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 음악다큐멘터리라는 흔치 않은

영역에 대한 신선함과 언더그라운드 밴드의 음악 여행을 통해 예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하는 기획에 높은 평가를 함.

- 지원내용 - 후반작업지원(전문편집실)

■ 지원작품 개요

- 작품명 -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Two-Eyed Ireland)
- 장르 - 음악 다큐멘터리
- 감독 - 임진평
- 프로듀서/촬영 - 김요환
- 편집/촬영 - 김경훈
- 작품내용 - <두 번째 달>의 Irish trad project 'BARD'와 함께 떠난 아일랜드 음악여행> 이라는 부제가 붙은 음악 다큐멘터리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는 바로 2007년 여름, 아일랜드로 음악여행을 떠난 다섯 젊은이들의 발자취를 쫓으며 그 과정에서 삶을 통해 견고히 이어져 온 아일랜드의 살아있는 음악적 전통(living Tradition)을 만나고, 더불어 지정학적으로 먼 거리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낯선 아일랜드의 숨은 여러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 사업결과 - 공개 시사회

- 일시 - 2007년 11월 24일 (토) 오후 7시 ~ 9시 30분
- 후원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 프로그램
 - <두 번째 달>의 Irish trad project 'BARD'의 아일랜드 음악 공연
 - <두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상영

② 사업평가

- 좋은 기획 내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에 대한 제작 지원은 결과적으로 성황을 이룬 공개 시사회를 통해 인천 지역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새로운 디지털 포맷인 HDV를 사용한 촬영과 편집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한 다양한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점은 또 다른 성과이다.

4. 상영관 사업

1) 독립영화 상영 사업

(1)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독립영화, 예술영화 및 지역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공간 설정

■ 사업내용

- 독립장편영화들의 개봉 상영을 통한 상영관 기능 수행
- 다양한 독립영화들과 함께 독립단편영화들을 위한 상영회 마련

세부사업명	기간 및 장소	참여인원	사업내용 및 실적		
			일시	관객수	
독립장편영화개봉 - 판타스틱 자살소동	11월 8일 ~ 21일 CAMF 상영관	73	8일	7	
			9일	4	
			10일	6	
			11일	8	
			13일	7	
			14일	8	
			15일	9	
			16일	2	
			17일	2	
			18일	6	
			20일	4	
			21일	10	
			합 계	73	
독립장편영화개봉 - 은하해방전선, -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	12월 11일 ~ 18일	49	일시	관객수	
			11일	4	
			12일	4	
			13일	3	
			14일	13	
			15일	5	
			16일	17	
			18일	3	
			합 계	49	
독립단편 쇼케이스	12월 21일 CAMF 상영관	12	시 간	상영작명	내 용
			8시	무림일검의 사생활(연출:장형윤), 적의사과(연출:이수진)	영화소개와 상영
			9시	이수진감독과의 대화	

② 사업평가

- 인천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인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물론 독립영화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 사업 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정기적인 상영 행위를 통해 인천 내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기획상영 사업

(1) 기획상영

① 사업내용

■ 사업 목표

- 지역 및 지역 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상영 모델 개발
-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기간 및 장소	참여인원	사업내용 및 실적															
Open Indie-CAMF	9월 13일~16일 CAMF 상영관	18	<p>인디포럼과 같이 공동기획하여 센터의 개관 기념과 상영관의 운영시작을 알리는 의도로 2007 인디포럼의 상영작품들을 선정하여 하루 4세션씩 4회 상영.</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시</th><th>참여관객수</th></tr> </thead> <tbody> <tr> <td>13일(목)</td><td>2</td></tr> <tr> <td>14일(금)</td><td>3</td></tr> <tr> <td>15일(토)</td><td>1</td></tr> <tr> <td>16일(일)</td><td>12</td></tr> <tr> <td>총 계</td><td>18</td></tr> </tbody> </table>	일시	참여관객수	13일(목)	2	14일(금)	3	15일(토)	1	16일(일)	12	총 계	18			
일시	참여관객수																	
13일(목)	2																	
14일(금)	3																	
15일(토)	1																	
16일(일)	12																	
총 계	18																	
서울독립영화제2007 with 주안	11월 23일~25일 CAMF 상영관	181	<p>독립영화의 저변확대와 중앙에 집중된 독립영화 상영의 확대와 동시성, 그리고 규모와 전국적 의미의 확대를 가지고 주안에서 서울독립영화제2007의 기간에 동시 공동개최.</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시</th><th>참여관객수</th></tr> </thead> <tbody> <tr> <td>23일(금)-4회</td><td>22</td></tr> <tr> <td>24일(토)-3회</td><td>123</td></tr> <tr> <td>25일(일)-3회</td><td>36</td></tr> <tr> <td>총 계</td><td>181</td></tr> </tbody> </table>	일시	참여관객수	23일(금)-4회	22	24일(토)-3회	123	25일(일)-3회	36	총 계	181					
일시	참여관객수																	
23일(금)-4회	22																	
24일(토)-3회	123																	
25일(일)-3회	36																	
총 계	181																	
시네마 프랑스 인천	12월 22일 CAMF 상영관	374	<p>알리앙스프랑세즈 인천과 꼬레프랑스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획영화제로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프랑스 영화들을 지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th>내용</th><th>참여관객수</th></tr> </thead> <tbody> <tr> <td>2시</td><td>French Talk House</td><td>60</td></tr> <tr> <td>3시30분</td><td>마드모아젤 상영</td><td>118</td></tr> <tr> <td>5시20분</td><td>나쁜 피 상영</td><td>96</td></tr> <tr> <td>7시20분</td><td>리셉션</td><td>100</td></tr> </tbody> </table>	시간	내용	참여관객수	2시	French Talk House	60	3시30분	마드모아젤 상영	118	5시20분	나쁜 피 상영	96	7시20분	리셉션	100
시간	내용	참여관객수																
2시	French Talk House	60																
3시30분	마드모아젤 상영	118																
5시20분	나쁜 피 상영	96																
7시20분	리셉션	100																

② 사업평가

- 개관행사로 치러진 〈Open Indie-CAMF〉와 서울독립영화제와 함께 진행한 〈서울독립영화제2007 with 주안〉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의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다. 특히 지역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과가 있었다.
-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등과 같은 전문 영상단체, 알리앙스프랑세즈 인천이라는 지역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内外의 영상단체, 문화예술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 방식의 안정화와 확대를 꾀함으로써 다양한 상영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3) 독립영화 마스터클래스

①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다양한 영상문화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 영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다양한 영화들 특히 독립·단편영화들을 통한 상업영화로 진출한 감독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상영

■ 사업내용

- 주관 - 인천영상위원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공동 주관
- 초대 대상 - 독립 단편영화로부터 상업영화로까지 영역을 넓힌 감독들 초대
- 프로그램
 - 단편 및 장편 각 1편 상영
 - 감독과의 대화

■ 세부진행내용

세부사업명	기간 및 장소	참여인원	사업내용 및 실적												
독립영화 마스터클래스 1 - 변영주 감독	9월 8일 CAMF 상영관	36	<p>지역에서 영화를 꿈꾸고 좋아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기획. 독립영화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과 제작과 영화적 고민, 그리고 영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첫 번째로 변영주감독의 작품 상영과 강연을 진행.</p> <table border="1"><thead><tr><th>시 간</th><th>상영작명</th><th>내 용</th></tr></thead><tbody><tr><td>3시</td><td>낮은 목소리</td><td>영화소개와 상영</td></tr><tr><td>5시</td><td>발레 교습소</td><td>영화소개와 상영</td></tr><tr><td>7시</td><td>강연</td><td>변영주 감독과의 대화</td></tr></tbody></table>	시 간	상영작명	내 용	3시	낮은 목소리	영화소개와 상영	5시	발레 교습소	영화소개와 상영	7시	강연	변영주 감독과의 대화
시 간	상영작명	내 용													
3시	낮은 목소리	영화소개와 상영													
5시	발레 교습소	영화소개와 상영													
7시	강연	변영주 감독과의 대화													
독립영화 마스터클래스 2 - 임창재 감독	12월 15일 CAMF 상영관	9	<p>마스터클래스 두 번째로 임창재 감독과 함께 예술로서의 영화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짐. 데뷔작부터 최근작까지 5편의 작품들을 상영하고 실험영화,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의 작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관객들과 교감.</p> <table border="1"><thead><tr><th>시 간</th><th>상영작명</th><th>내 용</th></tr></thead><tbody><tr><td>7시</td><td>ORG, 눈물, 미미, 정화되는 밤, 물의 기억</td><td>영화소개와 상영</td></tr><tr><td>8시</td><td>강연</td><td>임창재 감독과의 대화</td></tr></tbody></table>	시 간	상영작명	내 용	7시	ORG, 눈물, 미미, 정화되는 밤, 물의 기억	영화소개와 상영	8시	강연	임창재 감독과의 대화			
시 간	상영작명	내 용													
7시	ORG, 눈물, 미미, 정화되는 밤, 물의 기억	영화소개와 상영													
8시	강연	임창재 감독과의 대화													

② 사업평가

- 상업 장편으로 이름을 알린 변영주 감독의 경우 독립 단편부터 상업 장편으로 이어지는 작품 세계를 한 번에 보고 감독과 직접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됨으로써 영화제작을 꿈꾸는 인천 시민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임창재 감독의 경우 위낙 실험적인 작품 경향으로 인해 관객이 적게 들어와 아쉬움을 남겼다.

4) 대관 및 후원 사업

①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지역 문화예술 및 영화 관련한 전문적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인천 시민사회에 다양한 지원 방안 개발

■ 사업내용

- 지역단체들의 행사 및 세미나 등 기타 영상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대한 대관 및 지원

세부사업명	기간 및 장소	참여인원	사업내용 및 실적
아동복지지원센터 인천지역 간담회	5월 25일 CAMF 상영관	140	아동복지교사 인천지원센터에서 교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간 담회로 공간 사용(유료 대관)
12회 여성주간 기념회	7월 5일 CAMF 상영관	150	인천 남구 가정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여성주간 기념회 개막식과 개막작품 상영을 위한 공간 사용(무료 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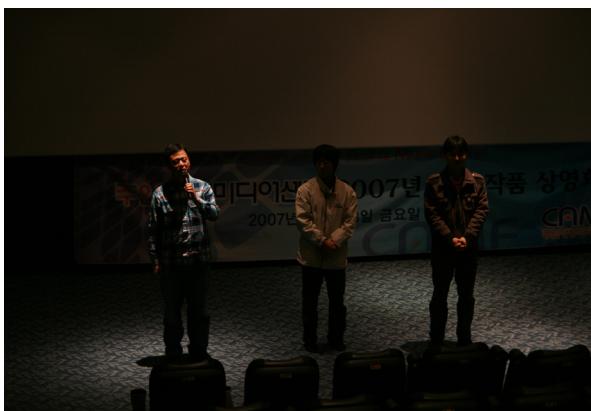
인천환경운동연합 주최 환경영화 상영	7월 21일 CAMF 상영관	250	인천환경연합이 환경주간을 맞아 영화〈불편한 진실〉을 회원들과 일반 관객들에게 무료로 상영(유료 대관)																																			
인천 남구 PM 보고회의	10월 18일 CAMF 상영관	151	남구 사업 추진을 위한 PM 보고회의 개최(무료대관)																																			
주민이 만드는 제4회 하품영화제 'Oh!感영화제' 주최 : 학산문화원	10월 26일~28일 CAMF 상영관	500	주민이 직접 작은 영화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영화해설을 하는 주민영화제로 CAMF는 공간과 교육등을 제공하고 후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날짜</th> <th>시 간</th> <th>프로그램명</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26일 (금)</td> <td>18:00~18:30</td> <td>개막식</td> <td>제4회 하품영화제 개막식</td> </tr> <tr> <td>18:30~19:00</td> <td>주민제작영화 상영</td> <td>주민제작프로그램 참여작 상영</td> </tr> <tr> <td>19:00~21:00</td> <td>영화상영</td> <td>영화상영 (후각-여인의 향기)</td> </tr> <tr> <td rowspan="2">27일 (토)</td> <td>14:00~16:00</td> <td>영화상영</td> <td>영화상영 (청각-스윙걸즈)</td> </tr> <tr> <td>17:00~19:00</td> <td>영화상영</td> <td>영화상영 (미각-음식냄녀)</td> </tr> <tr> <td rowspan="3">28일 (일)</td> <td>14:00~16:00</td> <td>영화상영</td> <td>영화상영 (시각-크리스마스악동)</td> </tr> <tr> <td>16:00~17:00</td> <td>특강</td> <td>영화평론가 박명진</td> </tr> <tr> <td>17:00~19:00</td> <td>영화상영</td> <td>영화상영 (촉각-피아노)</td> </tr> <tr> <td></td> <td>19:00~19:30</td> <td>폐막식</td> <td>제4회 하품영화제 폐막식</td> </tr> </tbody> </table>	날짜	시 간	프로그램명	내 용	26일 (금)	18:00~18:30	개막식	제4회 하품영화제 개막식	18:30~19:00	주민제작영화 상영	주민제작프로그램 참여작 상영	19:00~21:00	영화상영	영화상영 (후각-여인의 향기)	27일 (토)	14:00~16:00	영화상영	영화상영 (청각-스윙걸즈)	17:00~19:00	영화상영	영화상영 (미각-음식냄녀)	28일 (일)	14:00~16:00	영화상영	영화상영 (시각-크리스마스악동)	16:00~17:00	특강	영화평론가 박명진	17:00~19:00	영화상영	영화상영 (촉각-피아노)		19:00~19:30	폐막식	제4회 하품영화제 폐막식
날짜	시 간	프로그램명	내 용																																			
26일 (금)	18:00~18:30	개막식	제4회 하품영화제 개막식																																			
	18:30~19:00	주민제작영화 상영	주민제작프로그램 참여작 상영																																			
	19:00~21:00	영화상영	영화상영 (후각-여인의 향기)																																			
27일 (토)	14:00~16:00	영화상영	영화상영 (청각-스윙걸즈)																																			
	17:00~19:00	영화상영	영화상영 (미각-음식냄녀)																																			
28일 (일)	14:00~16:00	영화상영	영화상영 (시각-크리스마스악동)																																			
	16:00~17:00	특강	영화평론가 박명진																																			
	17:00~19:00	영화상영	영화상영 (촉각-피아노)																																			
	19:00~19:30	폐막식	제4회 하품영화제 폐막식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2008년 사업설명회	11월 16일 CAMF 상영관	130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대표, 아동복지교사, 자체공무원을 대상으로 08년 지원사업설명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유료 대관)																																			
제12회 인천인권영화제 후원	12월 6일 ~ 9일 CAMF 상영관	350	2007년 12회가 열리는 인천인권영화제를 후원하여 상영관 대관 및 영화제 진행, 프로그램 컨설팅 등 후원 힘(무료 대관)																																			

② 사업평가

- 설계에서부터 단순한 상영공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다목적 형태를 소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상영 포맷은 35mm Film 뿐 아니라 DVD, DV, HDV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고, 데크의 상황에 따라서는 HD의 상영도 가능하다. 단 Full HD는 프로젝터의 수준이 약간 미흡하다. 또한 상영만을 중심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향시설을 보강하여 무선마이크 2 set와 유선마이크가 최대 8개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함으로 총 10개의 마이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규모 포럼과 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이러한 설계에 따라 대관 및 기타에 대해 상영과 심포지움 등 여러 가지의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상영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3부. 2007년 사업 기록







3장

2008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추진사업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2부 각 권역별 사업 내역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1. 2008년 사업개요

1) 사업 배경

- 인천의 영상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사업화 할 필요가 있음.
- 영상문화형성은 제작과 상영을 한 과정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공동체들은 커뮤니케이션 확대의 필요성과 삶의 공통 영역 혹은 공통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공동체별로 특성과 지향에 맞는 작은 미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함.
- 지역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영상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인천 시민들에게 영상 제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촉매.
- 지역에서 전문적인 영상 활동 주체들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이 인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표

- 영상 및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욕구를 축발한다.
- 미디어가 공동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확장함으로써 공동체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함을 보인다.
- 인천을 기반으로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들을 발굴 육성한다.
- 인천에 퍼블릭 액세스를 소개하고,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추동·지원한다.
- 인천 시민들이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행한다.
- 영상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 사업 방향

- CAMF가 영상 문화 형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 인천에 정착
- 미디어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 창작 욕구를 이끌어 내고, 이를 CAMF가 지닌 시설·장비와 연결
- 공동체 미디어를 위한 교육·제작·소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주체가 공동체 내부에서 발굴·성장하게 추동하고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 수행
- 인천의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가 성장하는 토대 마련
-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과 현황을 인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인천 시민들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지원, 채널 개발 등을 수행
-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돋고, 미디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미디어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인천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실행할 교사들의 발굴 및 육성

-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인천 내 영상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
- 전국의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의구조 구축 모색

4) 사업내용

■ 미디어교육 사업

- 정규강좌 운영 사업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
- 위탁 및 협력 교육 사업
- 교사 양성 및 교재 개발 사업
- 기타

■ 대안미디어 사업

- 공동체 미디어 사업
- 퍼블릭 액세스 사업
- “이야기가 있는 인천”공모사업

■ 창작지원 사업

- 기자재실 운영 사업
- 아카이브 운영 사업
- CAMF 특강 사업
- 오매불망 프로젝트 사업
- I-culture (인천문화PD) 사업

■ 정책 사업

- 웹진 발간 사업
- 정책 토론회 사업

■ 상영 사업

- 독립영화 개봉 상영 사업
- 기획 상영
- 다양성 영화 정기 상영 사업
- 디렉터 뷰 정기 개최 사업
- 대관, 후원, 기타
- 찾아가는 영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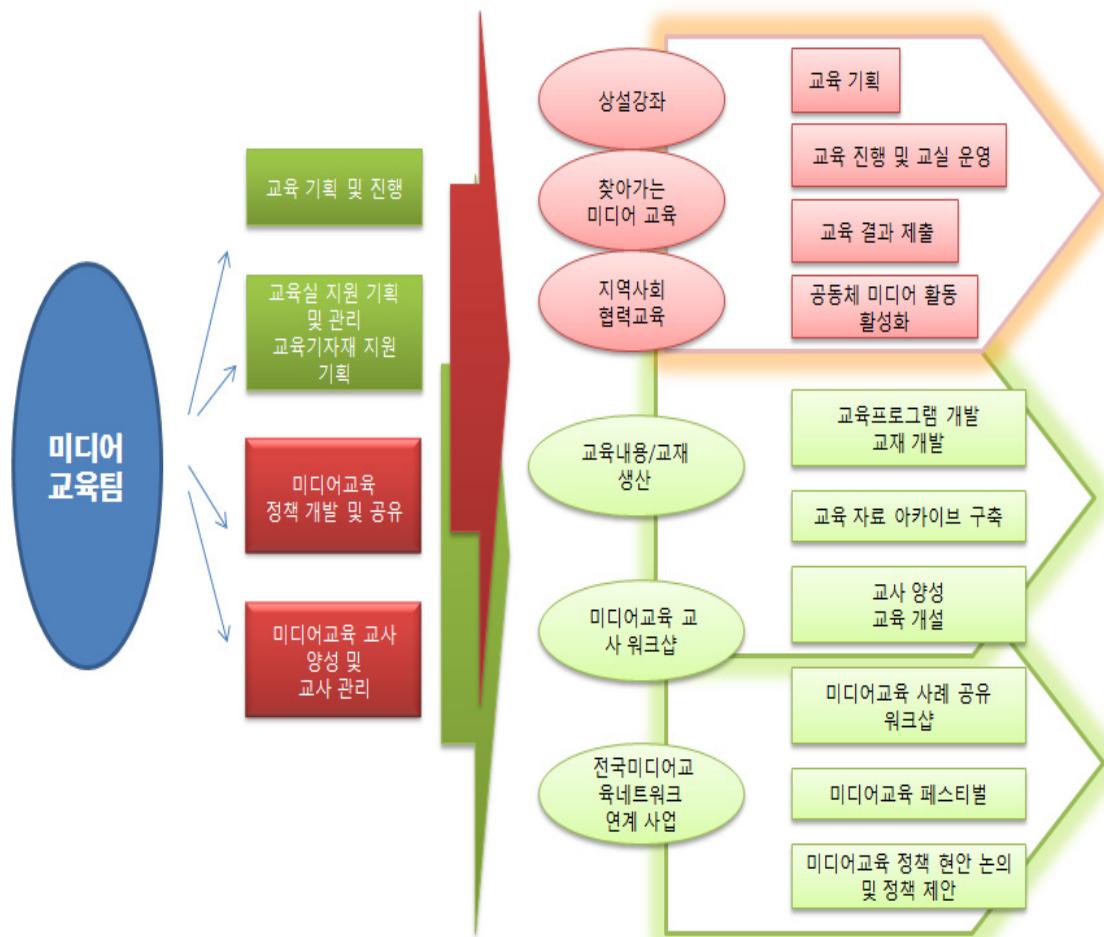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 미디어교육 사업

1) 사업 목표

- 지역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주체로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 미디어능력을 배양하는 미디어교육의 내용을 생산하고 실행한다.
- 지역의 공공기반 미디어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CAMF 포지셔닝 구축.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 선택 접근이 가능한 미디어교육 상설 강좌 스펙트럼을 만들고 실행함으로써 공공기반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 미디어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 및 공동체들의 미디어소통 욕구 창출 및 공동체 미디어 활동으로 지속되는 미디어교육 사례 발굴. 지역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미디어격차 해소, 공동체 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매개자)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 미디어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 요구 되는 미디어교육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양성을 통한 지역 미디어교육 아카이브의 기초를 마련한다.

2) 2008년 미디어교육 사업 개요



3) 사업 방향

- 미디어교육 기획과 운영 총괄
- 교육 공간 및 교육 기자재에 대한 운영 기획 및 운영 총괄
- 미디어교육 정책 개발 및 공유
-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및 관리

3. 대안미디어 사업

1) 사업 목표

- 인천에 퍼블릭 액세스 주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한다.
- OBS 경인TV 및 인천 케이블 방송국들이 추진하는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언들의 창구 역할로 자리매김하도록 견인한다.
- 지역의 공동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미디어 매체들을 개발한다.
- 작은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수행한다.

2) 사업 방향

- 구체적 발언들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서 퍼블릭 액세스를 소개하고,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교육, 제작 지원을 병행한다.
- 인천 퍼블릭 액세스 주체들을 형성·네트워킹 하고,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체들과 케이블 방송국과의 협의 테이블을 구성한다.

4. 창작 지원 사업

1) 사업 목표

- 시민창작 활성화 및 전문 영상제작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 기자재 및 시설 활용 활성화

2) 사업 방향

- CAMF 보유 기자재와 관련한 기자재 사용 특강 진행
- 창작과정뿐만 아니라 제작 결과물의 소통까지 포함한 지원

5. 정책 사업

1) 사업 목표

- 인천의 미디어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 연구 공론화
- 창의적 사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

2) 사업 방향

- 인천 미디어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생산 및 지역적 확산
- CAMF 스텝에 대한 정기 교육

6. 상영 사업

1) 사업 목표

- 비상업적 영상물의 대안적 상영 활동 개발
- 인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물 관람 기회 제공

2) 사업 방향

- Indiespace 등 독립영화 배급 단체와 업무 협조(MOU 체결)를 통한 프로그램 배급
- 지역 대학 영상동아리, 영화제작팀 등의 상영 활용 공간 제공
- 지역 영화제 상영 후원

7.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사업

1) 사업 목표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호간 협의 구조를 일상화
- 동질성을 기초로 한 공동 사업을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독립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공동사업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규모와 질을 높이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전형을 창출

2) 사업 방향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의 공동 논의를 통한 사업 계획 마련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실무자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사업 진행

2부. 각 영역별 상세 사업 내역

1. 미디어교육 사업

1) 정규강좌

교육명	기간	교육시간	강좌일수	참여인원	연인원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1/7~1/8	6h	2일	10명	20명
청소년 촬영특강, 〈10대가 만드는 텩텐파인더〉	1/22~1/23	6h	2일	11명	22명
청소년 편집특강, 〈디지털 감성족의 쿵짝쿵짝 뮤직비디오〉	1/24~1/25	6h	2일	10명	20명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2/21~3/18	24h	8일	10명	80명
퍼블릭액세스 특강, 〈내가 만든 영상도 방송할 수 있다!〉	3/7	3h	1일	15명	15명
촬영중급 〈카메라의 재발견, 끈되어기 프로젝트〉	4/8~17	15h	5일	4명	20명
편집기술 〈프리미어 프로 CS3〉	4/22~26	15h	5일	6명	30명
퍼블릭액세스 특강 〈내가 만드는 방송-이슈발굴과 기획하기〉	5/14	3h	1일	7명	7명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5/22~23	6h	2일	5명	10명
시민단체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발기프로젝트〉	5/28~6/4	6h	2일	8명	16명
미디어교육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6/10~6/11	6h	2일	7명	14명
편집기술 〈프리미어 프로 CS3〉	6/30~7/4	15h	5일	6명	30명
독립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영화제작워크숍 〈오색감성, 영화로 빛나다!〉	6/25~9/2	78h	26일	5명	130명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7/18~7/19	6h	2일	8명	16명
편집 효과 〈에프터이펙트〉	8/19~8/23	15h	5일	6명	30명
昂코르DVD 특강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DVD만들기〉	8/29~8/30	7h	2일	8명	16명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만드는 영상이야기〉	9/23~10/16	24h	8일	6명	48명
저작권특강 〈알쏭달쏭 저작권, 알아야 이긴다!〉	9/26	3h	1일	9명	9명
주안도서관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10/9~10/16	6h	2일	24명	48명
미디어교육특강 심화과정 〈시각미디어 리터러시〉	10/22~10/24	6h	2일	5명	10명

프리미어 프로CS3	10/27~10/31	15h	5일	5명	25명
촬영 기초에서 활용까지 〈내 카메라, 장롱탈출프로젝트〉	11/11~11/27	24h	8일	5명	40명
시민단체 영상제작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발기 프로젝트〉	11/18~11/21	9h	3일	8명	24명
미디어비평특강 〈방송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12/12	6h	2일	11명	22명

(1) 프로덕션 - 촬영

① 사업내용

프로덕션 - 촬영	촬영의 원리와 기술 〈카메라의 재발견, 끈기되기 프로젝트〉	4/8~17
	촬영 기초에서 활용까지 〈내 카메라 장롱탈출 프로젝트〉	11/11~11/27

■ 교육 목표

- 영상의 구성요소인 이미지와 오디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기술적 이해를 높인다.
-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절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익힌다.
- 빛의 통제 및 구도 잡기 등을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원하는 영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제작 경험이 없는 초보, 비디오카메라 작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촬영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
- 제작경험은 있으나 촬영의 원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 촬영과 편집 경험은 있으나,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촬영기법과 응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
- 우리지역이나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다큐멘터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

■ 강사

- 태준식 - 독립 다큐멘터리스트. 다큐멘터리로 소통하고, 그리고 생존하는 사람.
 - 〈인간의 시간〉 연출
 -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연출
 - 〈필승 ver 2.0 연영석〉 연출

■ 교육 내용

- 디지털비디오카메라의 기본적인 작동법
- 영상언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의 촬영기법
-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큐멘터리 촬영에 필요한 촬영 기법과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명과 오디오를 응용하는 방법
- 실습현장 중심의 카메라를 다양하기 활용하기 위한 팁 등 실제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촬영기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강좌

■ 교육 세부 내용

- 촬영의 기초,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법

- 영상언어의 이해와 다양한 촬영기법을 통한 영상표현 실습
-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해, 좋은 촬영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
- 현장에서 빛을 통제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법 (화면의 구도, 조명, 심도)
- 현장인터뷰 촬영의 실제(인터뷰 조명과 사운드)

■ 실습내용

- 2인 1팀/5인 1팀으로 실습 및 과제수행
- 촬영의 기초 및 카메라의 수동조작에 대한 기본 이해, 빛의 통제에 따라 표현된 영상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촬영 실습

■ 실습내용

- 실습1 : 영상언어의 기본이해와 5컷 영상 촬영
- 실습2 : 디지털카메라 매뉴얼을 이용한 사물/공간촬영(화이트밸런스/노출/심도)
- 실습3 : 현장감을 살리는 구도연출과 촬영실습 (야외촬영)
- 실습4 : 조명과 오디오기기를 활용한 현장 인터뷰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4월		촬영중급 <카메라의 재발견! '꾼'되기 프로젝트>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5
			교육만족도	83
			교육양	78
			내용일치도	7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5
			교수방법	80
			시간효율성	83
			친절성	80
			교자료 적합성	85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70
			센터지원	58
			수강생 수	90

			활용가치	73
	(4)	교육 후 태도 평가	관심도증가	75
			센터신뢰도 증가	65
	(5)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75
			강좌추천	75
		평가총점		76

11월	촬영 기초에서 활용까지 <내 카메라 장롱탈출 프로젝트>			
평가 항목별 점수	(1)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3	
		교육만족도	73	
		교육양	73	
		내용일치도	70	
	(2)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78	
		교수방법	94	
		시간효율성	90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90	
	(3)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2	
		센터지원	92	
		수강생 수	90	
	(4)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0	
		관심도증가	86	
		센터신뢰도 증가	94	
	(5)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7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상반기 교육 기획의 경우 <촬영중급>이라는 컨셉만 제시되었을 뿐, 촬영기술교육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을 설정하지 못함. <중급>이라는 컨셉에 맞는 교육대상이 ‘누구’인가의 문제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생산하지 못한 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반기 교육 기획의 경우 <중급>이라는 컨셉을 지우고 초보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촬영원리와 실습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접근함. 이에 따라서 교육 대상의 애매함이 사라지고 <초보자> 중심으로 모집하되, 교육과정을 통해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기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활용능력을 배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촬영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을 다양한 실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킴. 구체적인 현장을 방문, 인터뷰 촬영 활동을 함으로써 촬영원리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응용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짐.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교육생 수에 비해 교육기자재 지원은 충분하게 이루어짐. 그러나 교육생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커리큘럼의 조정이 필요하다. 실습내용과 시간에 대한 고려, 기자재를 활용해야 하는 교육생 수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함.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후속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함.

○ 종합

- 촬영기초와 결합된 형태의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배치.
- 촬영에 대한 원리, 촬영관련 장비(카메라, 오디오, 조명) 기술 특강, 프로덕션 중심의 촬영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
- 교육과정에서 원활한 촬영 과제수행을 위해 센터 기자재 활용과 이용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 이론과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생들에게 체화시킬 수 있는 교육시간 배치.(최소 24시간)

(2) 포스트프로덕션 - 편집

① 사업 내용

포스트프로덕션 - 편집	편집의 원리와 기술 <프리미어 프로 CS3>	4/22~26
	편집의 원리와 기술 <프리미어 프로 CS3>	6/30~7/4
	편집의 원리와 기술 <프리미어 프로CS3>	10/27~10/31

■ 교육 목표

- 영상제작 및 편집의 원리와 DV의 기술적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프리미어 프로CS3의 기본 체계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편집)

■ 교육 대상

- 디지털비디오카메라로 작업한 영상물을 직접 편집해보고 싶은 사람
- 영상제작 경험이 있으나 편집경험이 없는 사람
-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보았으나 체계적으로 인지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강사

- 조현주 - AVID강사, 편집감독
 - 전주영상정보진흥원 AVID강사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AVID강사
 - 인천 문화예술교육 <카메라로 함께 쓰는 이미지 자서전> 강사
 - 이노비전(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 공동 장비실) 근무
 - 필로(게임기술 개발 지원센터 영상편집실) 근무
 - 주요작품 <풀라로이드 작동 법> 타이틀 색보정, <길 잊은 시간> 편집, <열 번째 비가 내리는 날> 편집, <기다린다> 편집, 그 외 다수의 뮤직비디오와 전시영상 편집감독

■ 교육 내용

- 영상제작의 과정과 DV기술의 중요한 개념들
- 프리미어프로CS3의 인터페이스와 프로젝트 창 익히기(CAPTURE에서 EXPORT까지)
- 소스창과, 타임라인의 기능 알고 응용하기,
- 비디오/오디오 트렌지션과 이펙트 사용하기, 오디오 믹서 사용하기
- 모션주기, 자막 넣기, 출력하기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4월		편집기술, <프리미어CS3>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3
			교육만족도	78
			교육양	80
			내용일치도	85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3
			교수방법	83
			시간효율성	78
			친절성	88
			교자료 적합성	83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3
			센터지원	90
			수강생 수	88
	④	교육 후태도 평가	활용가치	83
			관심도증가	83
			센터신뢰도 증가	83
			상위강좌수강	100
	⑤	강좌추천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5
6월		편집기술, <프리미어CS3>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0
			교육만족도	85
			교육양	83
			내용일치도	85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5
			교수방법	85
			시간효율성	83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85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8
			센터지원	90
			수강생 수	95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0
			관심도증가	88

			센터신뢰도 증가	90
(5)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75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8
10월		편집기술, <프리미어CS3>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0
			교육만족도	95
			교육양	90
			내용일치도	9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0
			교수방법	88
			시간효율성	95
			친절성	95
			교자료 적합성	9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5
			센터지원	95
			수강생 수	95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8
			관심도증가	93
			센터신뢰도 증가	93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3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프리미어 프로 편집툴을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대상의 경우 편집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은 초보부터 프리미어 프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사람들까지 확장함.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편집의 기초 원리를 알고 작품편집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편집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이 필요.
- 기초 편집교육용 콘텐츠 및 편집 교재 필요.
- 지역주민들의 교육 수준에 맞도록 교육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할 수 있는 교육 능력을 갖춘 강사 섭외가 요구됨.

○ 센터의 지원

- 툴 설명 중심이 아닌 실습중심으로 교육커리큘럼을 바꿀 경우, 교육 공간이나 시간배치의 조정이 필요함.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제작기초 등 다른 교육활동을 통해서 연계되어 편집강좌를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여타의 기술 강좌와 특강 등으로 교육생들이 후속교육에 참여함.

○ 종합

- 편집원리와 이론, 실습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생산이 절실히 요구됨.
- 편집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재배치해야 함.

(3) 포스트프로덕션 - 효과

① 사업 내용

포스트프로덕션 - 효과	편집 효과 <에프터이펙트>	8/19~8/23
--------------	----------------	-----------

■ 교육 목표

- 디지털 효과의 원리를 알고 익혀서 다채로운 동영상 제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에프터이펙트의 매뉴얼과 기능을 익히고 모션 그래픽과 시각 효과를 통한 영상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프리미어, 아비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편집 경험이 있는 사람
-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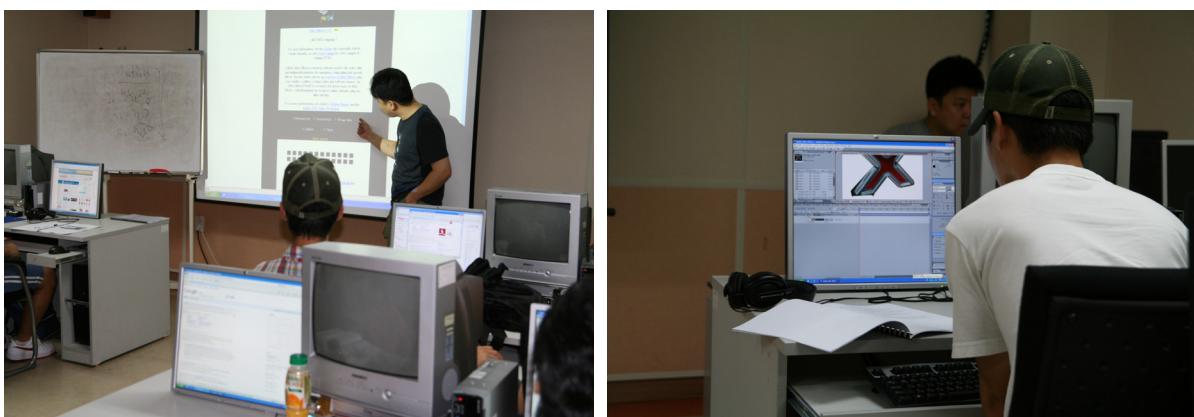
■ 강사

- 홍수동 - 현 서울예대, 추계예대 강사, '프로덕션 진공' 대표
 - 2002년 10월 KBS 수원센터에서 디지털 편집 강의
 - 2001년 6월 ~ 2003년 6월 '한국 어도비 디지털 워크샵 2002'에서 프리미어, 에프터이펙트 강의
 - 2002년 5월 ~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에프터이펙트 강의
 - <송환> 효과-색보정, <우리학교> 디지털 인코딩

■ 교육 내용

- 에프터이펙트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환경 익히기
- 레이어의 개념, 키프레임 개념 이해와 응용
- 모션의 기초 실습(모션트래커, 모션 스케치)
- 알파채널의 이해와 활용
- 기본적인 효과의 응용과 실습
- 3D 레이어, 카메라·라이트 레이어의 실습
- 최종출력을 위한 파일 포맷과 코덱에 대한 이해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8월	편집효과, <에프터이펙트>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0	
		교육만족도	88	
		교육양	78	
		내용일치도	90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5	
		교수방법	95	
		시간효율성	93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98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8	
		센터지원	98	
		수강생 수	9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0	
		관심도증가	93	
		센터신뢰도 증가	93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3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2008년 동영상제작기초와 프리미어CS3를 통해 편집효과 강좌에 대한 수요가 생겨 에프터이펙트 편집툴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 목표를 설정함.
- 영상편집 혹은 사진편집 툴을 다루어봤거나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전제는 에프터 이펙트의 기초개념인 레이어와 모션 등이 영상편집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임.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에프터이펙트 툴만을 사용하는 기능 교육임에도 5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평이 많았는데, 에프터이펙트 툴에 대한 기능적 전문가가 되고자하는 욕구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애초에 설정된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수준이 에프터이펙트 기초임에도 수업시간에 활용된 기능들이 위낙 다양한 데다 초보자 수준에서 봤을 때 세부적이고 어려운 설정들이 많음. 교육 수준 재설정 필요.
- 교육양과 관련된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는 실습시간 부족으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임. 실습시간 확보 필요.
- 현재의 커리큘럼을 유지하려면 교육시간 조정 필요.
- 교육 내용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함.(에프터이펙트를 이용한 멋진 자막만들기, 에프터이펙트를 이용한 모션의 활용 등)

○ 센터의 지원

- 교육공간을 교육 외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
- 교자료 개발 필요.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동영상제작기초와 프리미어CS3 수강 후 에프터이펙트 강좌에 대한 욕구 발생.

- 에프터이펙트 상위 강좌나 다른 편집효과 강좌에 대한 고려 필요.

○ 종합

- 프리미어CS3와 같이 일정한 포맷의 틀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함.
- 강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강좌의 횟수를 늘릴지 여부를 판단.
- 강좌 내용을 축소하여 일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것인지 강좌 커리큘럼은 그대로 두고 시간을 늘려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함.

(4) 제작통합-포토에세이

① 사업내용

제작 통합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1/7~1/8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5/22~23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7/18~7/19

■ 교육 목표

- 영상언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미지의 배치와 구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편집의 원리를 이해하고 편집 기능을 익힐 수 있다.
- 영상이미지를 배치하여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영상제작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
-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지 모르는 사람
- 프리미어프로CS3의 기초 기능 몇 가지만을 활용하여 영상에세이를 편집해보고 싶은 사람

■ 강사

- 이희랑, 경희령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

■ 교육 내용

- | | |
|------------------|-------------------|
| ○ 영상언어의 요소 | ○ 이미지의 배치와 구성의 관계 |
| ○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기능 | ○ 영상에세이 만들기 |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1월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9
			교육만족도	91
			교육양	81
			내용일치도	92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6
			교수방법	92
			시간효율성	93
			친절성	96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4
			센터지원	90
			기자재	93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3
			관심도증가	97
			센터신뢰도 증가	97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3

5월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6
			교육만족도	92
			교육양	82
			내용일치도	96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100
			교수방법	96
			시간효율성	96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94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4
			센터지원	90
			수강생 수	96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8
			관심도증가	86
			센터신뢰도 증가	94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8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3

7월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4
			교육만족도	96
			교육양	92
			내용일치도	94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8
			교수방법	98
			시간효율성	92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98
(3)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8
		센터지원	94
		수강생 수	98
(4)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4
		관심도증가	94
		센터신뢰도 증가	96
(5)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6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포토에세이를 통해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된 수강생들을 제작강좌나 프리미어 강좌로 유도한다는 정도의 목표는 있었으나 교육팀 전체 사업과 어떤 계획과 방법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함.
- 50대 여성 수강생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은데, 이는 교육대상의 수준을 분명히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임. 교육 내용의 수준과 강의 속도를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할 필요.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수강생들의 연령분포나 컴퓨터 사용 능력 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수강생 배치와 교사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
- 수강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는 높으나 교육목표달성과 교육양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교육시간이나 교육 양을 조절해야 할 필요.

○ 센터의 지원

- 강좌를 신청한 수강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 필요.
- 교육공간을 교육 외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
- 수강생들끼리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강의 이후 동영상제작기초를 듣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프리미어 ProCS3 강좌를 이어 수강하는 경우가 많음.

○ 종합

- 수강생들끼리의 관계 형성을 위해 커뮤니티를 가입하여 과제나 수업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 필요.
- 영상언어의 이해 및 편집원리 이해에 대한 이론 강의의 비중을 줄이고 포토에세이의 사회적 소통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배치할 필요.
- 수강생들의 컴퓨터 사용능력 정도를 사전에 체크하여 자리배치.

(5) 제작통합 - 동영상제작기초

① 사업내용

제작 통합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2/21~3/18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만드는 영상이야기>	9/23~10/16

■ 교육 목표

- 계획된 과정으로서 영상제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기획과 제작, 시사를 통해 영상으로 소통하는 전 과정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감상과 비평과정을 통해 영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의 기쁨과 다양한 영상소통문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작품제작실습을 통해 창의적 영상제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에서 영상이 자기표현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영상제작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경험이 없는 초보자
- 촬영 혹은 편집 경험은 있었으나 기획과 구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계획적인 작업으로 영상제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 강사

- 문정현 - 독립다큐멘터리스트
 - 2000년 11월 CAPE TOWN INTERNATIONAL FILM SCHOOL
 - 2002년 3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 영상학과 졸업
 - 2003년 1월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집단 푸른영상
 - 2003년 8월 다큐멘터리 “고향에 가고 싶다” 연출
 - 2005년 5월 다큐멘터리 “슬로브핫의 딸들” 연출(인권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광주 국제영화제 등)
 - 2006년 4월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미혼모” 연출(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 2008년 1월 다큐멘터리 “할매꽃” 연출(인권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운파상, 서울독립영화제-2007년 올해의 독립 영화,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 교육 내용

- 동영상제작과정과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해
- 기획과 구성에 대한 이해와 실습
- 촬영의 원리와 편집의 원리 이해
-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와 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실습
-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비평과 감상

■ 교육 세부 내용

- 동영상제작과정의 이해
- 기획안, 구성안 작성법 이해하기
- 촬영의 기초 원리와 실제
- 영상작품 제작 실습

■ 실습내용

- 촬영 기초 실습 : 각자 주제를 정해 촬영 후 결과물 모니터링
- 영상작품 제작 실습 : 각자 기획한 영상을 구성안대로 촬영, 작품 편집 후 시사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2월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7	
		교육만족도	97	
		교육양	93	
		내용일치도	100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8	
		교수방법	97	
		시간효율성	98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100	
		센터지원	98	
		수강생 수	9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100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10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9

9월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2	
		교육만족도	97	
		교육양	92	
		내용일치도	95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100	
		교수방법	97	
		시간효율성	98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97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8	
		센터지원	98	
		수강생 수	100	
	④ 교육 후	활용가치	98	

		태도 평가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100
(5)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8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교육대상을 영상제작 초보자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요구와 잘 맞아떨어져 참여자 모집이 원활함.
- 교육 과정 안에 기획 · 촬영 · 편집 과정을 1인 1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완성된 작품을 함께 시사하는 것으로 영상을 통한 소통과정 전반을 경험함으로써 영상제작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목표설정.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8강 안에 별도의 시간 없이 영상기획과 편집 및 상영이 가능하도록 강좌를 설계하고 교사와 협의를 거쳤으나, 실제 교육 양에 비해 교육 시간이 부족함. 제작강좌의 특성상 작품의 주제나 내용 혹은 촬영 일정 등에 따라 별도의 편집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교육조교와 교사와의 사전 만남이 필요했다. 센터의 교육 공간 이용 관련 교육과 조교의 역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을 교사와 교육팀, 조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미디어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권리(퍼블릭엑세스)개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이 더 풍부해질 필요가 있음.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 HDD캡코더의 한계로 인해 교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교육생들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HDD캡코더를 주 기자재로 활용하다가 SONY HVR-A1N으로 기자재 조정함.
- 통합제작교육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부터 상영활동까지 경험하기에는 교육시간이 보족한 상황.
- 실제 교육 시간 외에 편집등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배치 고려.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다른 특강이나 편집툴 교육으로 연계되어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발생.

○ 종합

- 교육과정에서 센터 기자재 활용과 이용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미디어의 이해부터 상영활동까지 통합제작교육의 전 스펙트럼을 실행할 수 있는 최소 교육 시간으로 조정. (최소 30시간)
- 교육생들간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초기에 인터넷커뮤니티 형성, 뒷풀이자리 만들기 등을 고려해봐야 함.

(6) 제작통합 - 영화제작워크샵

① 사업내용

제작 통합	독립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영화제작워크숍 <오색감성, 영화로 빛나다!>	6/25~9/2
-------	--	----------

■ 교육 목표

- 영화제작 워크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영화를 통한 자기표현이 가능한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다.
- 공동작품 제작 및 상영을 통해 영상제작 욕구를 발현할 수 있다.
- 영화제작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영상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한다.

■ 교육 대상

- 영상제작에 입문하는 초보자부터 영상제작 경험이 있는 인근지역 대학생이나 단편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 강사 - 전임강사 이수진 외 8명

- 이수진 - 독립영화감독
 - 2002년 "내가네" DV6mm각본, 연출, 촬영
제2회 인디비디오페스티벌 상영
 - 2003년 "립스틱" DV6mm 각본, 연출, 촬영
 - 2004년 "아빠" BETA 각본, 연출, 촬영
 - 제30회 서울 독립영화제 한국자료원장상 수상
 - 제1회 서울 넷마프 영화제 초청상영
 - 제4회 미쟝센단편영화제 비정성시부문 상영
 - 제2회 뉴욕 씨라큐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부문 상영
 - 제6회 장애인영화제 초청상영. 외 다수
 - 2006년 "아들의 것" 35mm 각본, 연출
제36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 제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 제6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 제6회 제주영화제 경쟁부문 상영
 - 2007년 "적의 사과" 35mm 각본. 연출
제8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일반부 최우수상
 - 제10회 코닥 단편영화 사전제작지원작
2007년 영화진흥위원회 상반기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부문 상영
 - 제33회 서울독립영화제 단편부문 상영
 - 제1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단편부문 상영

■ 교육 내용

- 이론 - 영화란 무엇인가?
 - 영화 제작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
 - 디지털카메라의 기초
- 실습 - 촬영 I : 영상언어의 이해
 - 촬영II : 컷의 연결과 조명 실습
 - 촬영III : 카메라워크와 컷의 구성 실습
 - 동시녹음
 - 편집 I : 프리미어CS3의 기초, 컷 편집
 - 편집 II : 이펙트의 활용, 사운드 믹싱

- 시나리오의 이해
- 공동작품 제작 및 발표 - 시나리오 최종점검, 팀별 역할분담
 - 중간점검
 - 공동작품 시사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4월	영화제작워크숍, <오색감성 영학로 빛나다!>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4
			교육만족도	84
			교육양	72
			내용일치도	84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4
			교수방법	84
			시간효율성	88
			친절성	96
			교자료 적합성	9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4
			센터지원	84
			수강생 수	84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6
			관심도증가	84
			센터신뢰도 증가	94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강좌추천	100 100
		평가총점		88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영화제작강좌에 대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수요가 많지는 않았으나 강좌를 신청한 수강생들이 대부분 대학생이었음. 강좌의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한 실습과정이 배치되어있어 여름방학기간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합했다는 판단. 주요 타겟으로 했던 대상과 실제 강좌에 참여한 대상이 일치함.
-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교육목표와 진행과정에서 추구한 교육목표는 일치하였으나 영상제작 경험자가 많지 않아 교육수준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실습수준의 작품을 제작해보는 것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는 달성됨.
- 기본적으로 영상제작 워크숍이 가지고 있는 특성(전문성, 공동작품 실습, 3개월 이상의 교육기간 등)들을 살펴 볼 때, 현재 인천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강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전반적으로 기간에 비해 교육양이 많았다는 평가. 교육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음. 각각의 기술 특강들의 경우 강의위주보다는 직접 기자재들을 사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함.
- 특강들의 배치나 전체적인 흐름은 좋았으나 각각의 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수강생들이 이해도에 차이를 보임. 한 명의 강사가 사전에 정리된 내용들만 강의하는 것 이 아니라 8명의 강사들의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특강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함. 영상제작 초보자들에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특강을 여러 개 듣는 것보다 잘 정리된 한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

○ 센터의 지원

- 센터머니를 통해 공동작품제작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간을 지원함.
- 교육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교육 공간 및 회의 공간 지원.
- CAMF 상영관에서 공동작품 공개상영.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교육기간동안 수강생카페를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고정적인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수강생들끼리 만남이 꾸준히 지속됨.
- 후반작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조명 등의 기자재 활용특강으로 연계.
- 정규강좌 교육조교로 활동 연계.

○ 종합

- 장기 워크숍 형태의 제작강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 교육 대상을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하되, 교육 과정을 축소·단순화하여 초보자들이 큰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상 및 내용 조정 필요.
- 교육 이후 수강생모임 형성,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모색 필요.

(7) 특강-청소년 특강

특강	청소년 촬영특강, <10대가 만드는 탱탱파인더>	1/22~1/23
	청소년 편집특강, <디지털 감성족의 쿵짝쿵짝 뮤직비디오>	1/24~1/25

① 사업내용

■ 교육 목표

- 청소년들에게 카메라를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촬영활동을 통해 영상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 하면서 영상을 통한 자기표현과 그 결과물이 소통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미지 읽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이미지에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편집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상 편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장의 사진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간단한 에세이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

■ 교육 대상 : 15~18세 청소년 10명

■ 강사

- 이희랑, 경희령 - CAMF 미디어교육팀 스텝

■ 교육 내용

- 영상언어의 기초적인 이해
- 캠코더의 작동법
- 영화 감상
- 5컷 영화 만들기(실습)
- 이미지의 이해(강의)
- 프리미어프로CS3로 포토에세이 만들기(실습)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청소년 촬영특강, <10대가 만드는 텐텐파인더>		청소년 편집특강, <디지털 감성족의 콩짜콩짜 뮤직비디오>
구 두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컷 연출촬영의 경우 영상언어를 촬영실습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전체적으로 즐거웠다고 함.- 인터뷰다큐 기획/촬영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뷰 하는 경험이 생소하고 어려움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어의 기초 기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편집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함. 실제 학교에서 사용되는 편집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어 활용도가 떨어짐.-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막을 넣고 효과를 주는 등의 기술적인 내용들에 흥미를 느낌.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청소년이 센터의 대중강좌에 능동적으로 선택,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수강생모집이 어려움을 겪음. 교육 홍보의 타겟이 청소년이 아닌, 학교 선생님 혹은 학부모가 되거나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
- 수강생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특정 학교의 위탁교육 형태로 교육이 진행됨.
- 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이해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을 더욱 좁혀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미지리터러시를 통해 영상언어를 이해하고 에세이를 통해 가볍게 영상제작과정을 익히는 것이 15세~18세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적합한 목표설정이나 청소년이라는 교육대상에게 단기교육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 필요.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기획단계의 설정대로 청소년 개별 개별의 욕구로부터 시작된 교육이라기보다 학교 선생님의 요구와 과제에 의해서 참여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한 교육이라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실습과정의 수정이 필요했다.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선정하여 청소년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감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것의 연장선에서 인터뷰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 편집교육의 경우, 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쓰는 것과 달라 교육 동기가 떨어져 집중도가 낮아진데다 영문으로 되어있어 기초 기능을 이해하는데 수강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다. 청소년 수강생들은 자막이나 이펙트 등의 기술적 내용에 주로 흥미를 느꼈다.
- 영상에세이라는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영상을 제시하였으나 형식보다 영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이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과정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듯하였다.
- 단기교육 형태의 청소년교육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하고 청소년의 경우 장기교육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함.

○ 센터의 지원

- 실습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및 공간 지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강좌의 경우, 교육 이후 연계 가능한 다른 활동을 모색해야함.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후속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함.

○ 종합

-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강좌를 피하고, 미디어교육 중심의 장기강좌를 모색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교육 모델을 구상해야함.
-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함.

(8) 특강 - 퍼블릭액세스 특강

특강	퍼블릭액세스 특강, <내가 만든 영상도 방송할 수 있다!>	3/7
	퍼블릭액세스 특강, <내가 만드는 방송-이슈발굴과 기획하기>	5/14

① 사업내용

■ 교육 목표

-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일상적 접근으로 자신이 만든 영상물을 액세스한다는 것의 의미와 영상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영상매체를 이용하는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주민들의 영상제작활동에 대한 욕구가 단순히 자기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액세스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영상문화 활동 전반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지역 사회 속에서 혹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자신의 영상창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

- 지역사회나 공공영역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영상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지역주민.
- VJ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영상제작과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 단체 활동에 대한 영상기록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 강사 : 최영준

- 노동자영상패 씨
- 인천시민연대 퍼블릭액세스 특별위원회 간사
- 민예총인천지회 영상위원회 위원장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 운영위원

■ 교육 내용

- 퍼블릭액세스의 개념과 법적 권리
- 우리 영상을 방송할 수 있는 매체 현황
-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기획의 원칙
- 퍼블릭액세스 기획에 따른 사례 공유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3월		퍼블릭액세스 특강, <내가 만든 영상도 방송할 수 있다!>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0
			교육만족도	83
			교육양	74
			내용일치도	86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8
			교수방법	83
			시간효율성	82
			친절성	91
			교자료 적합성	88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7
			센터지원	84
			수강생 수	8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1
			관심도증가	83
			센터신뢰도 증가	82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92
평가총점				85

6월		퍼블릭액세스 특강, <내가 만드는 방송-이슈발굴과 기획하기>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7
			교육만족도	89
			교육양	84
			내용일치도	87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1
			교수방법	90
			시간효율성	89
			친절성	96
			교자료 적합성	94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3
			센터지원	93
			수강생 수	83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6
			관심도증가	87
			센터신뢰도 증가	9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1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3월에 진행된 교육은 영상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퍼블릭액세스에 대해 알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무료로 진행된 강좌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수강정원을 초과하여 모집되었지만 참여자 중 일부는 영상제작교육으로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가 많아 수강생의 목표와 실제 교육목표

가 일치되지 못한 지점 발생.

-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설정했으나 전체 수강신청자의 절반정도가 단체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이후 퍼블릭액세스 관련한 활동가 특강으로 연계.
- 6월에 진행된 교육은 대상은 동일하나 3월 교육 평가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함. 퍼블릭 액세스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들을 위주로 액세스 활동 직접 기획하는 데 필요한 매체별 액세스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6월 교육은 3월 퍼블릭액세스 특강에 대한 후속 교육 형태로 교육 내용을 구성 함. 교육 내용의 핵심은 영상기획과 방송매체별 액세스전략에 대한 것이었으며 실제 퍼블릭액세스의 사례영상들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고 매체 전략을 구체화하여 공유함.
- 1차 퍼블릭액세스 교육 내용과 2차 퍼블릭액세스 내용을 통합하여 연속교육 형태로 재구성 할 필요.

○ 센터의 지원

- 2회의 특강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함.
- 1차 특강의 수강생들에게 지속적 참여를 권유하고 수업이후 별도의 시간의 배치하여 후속활동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수강생들의 요구에 의해 퍼블릭액세스 관련 활동을 위한 수강생 커뮤니티가 만들어짐. 이후 영상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별도의 모임을 가지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 종합

- 퍼블릭액세스 할 영상물을 기획하고 아이템을 발굴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발견됨.
- 퍼블릭액세스 영상물제작을 위한 기획과 전략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완해야 함.
- 퍼블릭액세스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9) 특강 - 시민단체특강

① 사업내용

특강	시민단체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받기프로젝트>	5/28~6/4
	시민단체 영상제작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받기 프로젝트>	11/18~11/21

■ 교육 목표

-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미디어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퍼블릭액세스를 통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시민단체의 영상미디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각 단체의 상황에 맞게 구상할 수 있도록 돋는다.

■ 교육 대상 : 시민단체 활동가

■ 강사

- 최영준 - 노동자영상페 씨

- 인천시민연대 퍼블릭액세스 특별위원회 간사
 - 민예총인천지회 영상위원회 위원장
 -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 운영위원
- 김성희 - 미디어 강사
- 2006. 6. 장애여성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미디어워크숍 강사
 - 2006. 10.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예술교육연구사업 ‘성인지적 문화교육 해외우수사례 연구’
 - 2007.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주여성이 만드는 여성영화 제작 워크숍’ 강사
 - 2007.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여성의 문화향유권과 미디어창작활동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중심의 미디어 워크숍’ 강사
 - 2007.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로 하나되는 우리, 열넷’ 결혼이민자 여성미디어 워크숍 강사
 - 2007. 6. 문화관광부 주최 · 당진문화원 주관 노인미디어제작 워크숍 강사
 - 2007.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 당진문화원 주관 결혼이민자 여성 미디어제작 워크숍 강사
 - 2008. 5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이주여성이여 미디어로 소통의 날개를 달자’ 강사

■ 교육 내용

- 상반기 :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소속 단체의 활동을 기록하고, 활동방향과 의의를 영상으로 표현하여 더 많은 이웃들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상 소모임을 기획 컨설팅.
- 퍼블릭액세스 사례연구
 - 영상을 통해 지역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 지역 미디어활동을 위한 진단과 방법 모색
- 하반기 : 시민단체 활동 기록 사진을 프리미어CS3를 이용한 영상편집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해보는 활동을 경험, 완성된 작품 시사.
- 영상제작모임의 형성과 활동 기획 실습
 - 영상언어의 이해
 - 영상편집의 기초
 - 프리미어CS3를 활용한 영상편집 실습
 - 영상기획 및 구성안 작성
 - 영상작품 편집 후 시사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5월		시민단체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받기 프로젝트>		
평가 항 목 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4
			교육만족도	78
			교육양	88
			내용일치도	78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6
			교수방법	84
			시간효율성	78
			친절성	96
			교자료 적합성	84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4
			센터지원	86
			수강생 수	92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72
			관심도증가	78
			센터신뢰도 증가	8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6

11월		시민단체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받기 프로젝트2>		
평가 항 목 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1
			교육만족도	94
			교육양	86
			내용일치도	94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100
			교수방법	100
			시간효율성	91
			친절성	93
			교자료 적합성	93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1
			센터지원	93
			수강생 수	94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2
			관심도증가	91
			센터신뢰도 증가	84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86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3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5월 특강의 경우, 퍼블릭액세스 특강의 연장선에서 퍼블릭액세스를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증진하고, 영상소모임 기획을 컨설팅하여 시민단체의 영상미디어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때문에 교육 대상을 시민단체의 조직사업 및 회원사업, 문화 및 교육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 5월 특강 이후 영상제작을 체험해볼 수 있는 제작강좌를 개설해달라는 요구의 반영으로 11월 강좌는 영상에 세이 제작강좌로 프리미어프로CS3 편집 툴을 이용하여 영상구성과 편집의 원리를 배워보고 작품을 제작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1월 특강의 경우, 5월 특강을 수강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모집하였다.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5월 특강의 경우, 강좌기획 시 시민단체의 퍼블릭액세스 활동 및 영상소모임 활성화를 제안하는 교육내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섭외 및 홍보 과정에서 영상제작 및 실무지원에 대한 교육으로 오인된 경향이 있었다.
- 퍼블릭액세스 활동과 영상소모임 컨설팅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계획, 진행하였으나 과제로 제시된 기획부분에 교육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제로는 컨설팅이 진행되지 못하고 참여자들의 생각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 참여자들 중 다수가 영상 홍보 실무자들이었으며 교육 내용보다는 단체 홍보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용일치도와 교육만족도에 대한 수강생 평가가 다른 부분의 평가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 이러한 수강생 평가를 적용하여 11월에는 영상제작과정을 경험하고 작품을 제작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프리미어프로CS3 편집 툴을 이용한 영상에세이 작품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 11월 특강의 교육 참여자는 YMCA 방송모니터링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분들이 많았으며, 영상에 세이 제작을 통해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고 주류미디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는 반응이다.

○ 센터의 지원

- 11월 교육 이후 1회 멀티교육실을 개방하여 프리미어 프로CS3 편집 툴에 대한 후속 교육 지원.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12월 방송비평특강으로 참여자 연계.

○ 종합

- 시민단체 특강의 경우 교육 홍보와 수강생모집 전략이 필요함.
- 교육 신청자에 대한 사전정보 필요, 명확하게 교육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세부 내용 공지.
- 이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제작기초에서부터 액세스까지 영상을 통한 소통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 구체적인 커리큘럼 필요.

(10) 특강 - 미디어교육특강

① 사업내용

특강	미디어교육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6/10~6/11
	주안도서관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10/9~10/16
	미디어교육특강 심화과정, <시각미디어 리터러시>	10/22~10/24

■ 교육 목표

- 1, 2차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초등학교 선생님 및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어린이들의 미디어읽기 교육의 중요

성에 대해서 알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미디어 보기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

- 3차(심화교육)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초등학교 선생님 및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일상적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비주얼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시각미디어를 이용한 여러 소통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 공부방 선생님,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 강사 : 이신정

- 영상기획 〈해오름〉 기획이사
- 한겨레문화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 전문교사 과정〉 전임강사
- 한국언론재단,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교원연수 강사
- 교육용 단편애니메이션 컬렉션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우리가 다시 그려요〉, 〈더불어 사는 세상〉 출간
- 애니메이션 리터러시 시리즈 〈달걀꼬리〉 출간

■ 교육 내용

- 소비사회와 매체환경
- 영상미디어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 이미지 리터러시의 개념 및 중요성
- 영상미디어와 함께 주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 양질의 영상미디어를 선택하자
- 아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보고 이야기 나누는 방법
- 사진을 이용한 이야기활동
- 영화 포스터 만들기 활동
- 그림으로 이야기 구성하기 활동
- 시각미디어, 영상미디어를 이용한 소통의 중요성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6월		미디어교육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8
			교육만족도	92
			교육양	88
			내용일치도	8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3
			교수방법	93
			시간효율성	88
			친절성	92
			교자료 적합성	92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5
			센터지원	87
			수강생 수	83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8
			관심도증가	97
			센터신뢰도 증가	9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1

10월		주안도서관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4
			교육만족도	90
			교육양	85
			내용일치도	78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4
			교수방법	100
			시간효율성	100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91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1
			센터지원	100
			수강생 수	7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100
			관심도증가	90
			센터신뢰도 증가	10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88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2

10월		미디어교육특강2 〈시각미디어를 이용한 리터러시〉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8
			교육만족도	90
			교육양	93
			내용일치도	9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8
			교수방법	98
			시간효율성	93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95
			교육환경	95
			센터지원	93
			수강생 수	70
			활용가치	88
			관심도증가	90
			센터신뢰도 증가	93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2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1차 특강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초등학교 선생님 및 공부방 선생님들을 교육대상으로 설정함. 기획 과정에서 주요 타겟으로 설정했던 대상은 학부모였으나 모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 실제 교육 참여자는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어린이 미디어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리터러시 방법에 관심이 많았음.
- 2차 도서관에서 진행된 특강은 도서관 평생교육 강좌를 자주 수강하는 30~40대 여성들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다수를 차지함. 1차 특강과 동일한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2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 1차 교육에 비해 교육 내용과 활동을 축소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진행함.
- 3차 특강은 시각 미디어를 이용한 비주얼 리터러시 심화교육으로 1차와 2차 특강의 참여자를 연계하여 모집.
- 1,2차 평가를 반영하여 강의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소통방식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1, 2차 특강은 같은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와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3차 특강은 1, 2차 특강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리터러시 교육방법과 적용사례 등의 활동을 위주로 진행함.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강사의 강의가 수강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시들로 이루어졌으며,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됨.
- 실제 자녀에게 시도해볼 수 있는 미디어 교육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짐. 그 과정에서 강사와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며 토론이 활성화 됨.
- 교육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교육 직후 구두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후속 교육에 대한 요구와 수강생 모임에 대한 제안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 센터의 지원

- 교육 후속활동을 위한 영상자료 및 공간지원.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수강생 모임을 추동하여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자녀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기로 함. 월 1회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며 토론하는 모임 진행.(총 3회 진행)

○ 종합

- 학부모 집단, 부녀회 등을 타겟으로 한 교육기획 및 홍보 전략 필요.
- 수강생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필요.
- 어린이미디어교육을 위한 영상자료 구축 필요.

(11) 앙코르 DVD특강

① 사업내용

특강	앙코르 DVD특강,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DVD만들기>	8/29~8/30
----	-----------------------------------	-----------

■ 교육 목표

- DVD 포맷으로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을 익혀 영상매체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앙코르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을 통해 메뉴를 직접 디자인 하여 DVD를 제작해봄으로써 DVD Authoring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원 중에서 영상편집경험이 있거나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CAMF 1주년 기념 회원특강으로 무료로 진행)

■ 강사 : 흥수동

- 현 서울예대, 추계예대 강사, '프로덕션 진공' 대표
- 2002년 10월 KBS 수원센터에서 디지털 편집 강의
- 2001 6월~2003 6월 '한국 어도비 디지털 워크샵 2002'에서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강의
- 2002년 5월~현재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애프터 이펙트 강의
- <송환> 효과-색보정, <우리학교> 디지털 인코딩

■ 교육 내용

- DVD제작과정의 이해
- 앙코르DVD의 특징
- DVD형식에 맞게 영상 및 사운드 소스의 엔코딩
- 앙코르DVD의 라이브러리를 응용한 메뉴제작 실습
- DVD 오쏘링 실습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8월		양코르DVD특강,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DVD만들기>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4
			교육만족도	96
			교육양	84
			내용일치도	96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6
			교수방법	96
			시간효율성	96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94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6
			센터지원	96
			수강생 수	94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2
			관심도증가	92
			센터신뢰도 증가	96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5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영상편집경험이 있거나 그래픽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CAMP회원을 대상으로 CAMF개관 1주년 기념 무료 특강으로 진행됨.
- 중급 강의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실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교육난이도 조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짐.
- 양코르DVD를 이용하여 DVD 메뉴를 직접 제작해보면서 DVD오쏘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양코르DVD라는 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됨.
- 틀교육에 실습까지 포함할 경우 교육양이 많아 7시간동안 진행하기는 어려움. 교육시간 재배치 필요.
- DVD메뉴를 통해 수강생 각자의 영상작품을 새로이 DVD포맷에 맞추어 만들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실습위주의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 생산.

○ 센터의 지원

- 틀 설명 중심이 아닌 실습중심으로 교육커리큘럼을 바꿀 경우, 교육 공간이나 시간배치의 조정이 필요함.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후속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함.

○ 종합

- 양코르DVD 틀과 관련된 교재 생산 필요.
- DVD오쏘링 과정을 실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필요.
- 실습중심의 커리큘럼에 맞는 교육 시간 배치.

(12) 저작권특강

① 사업내용

특강	저작권 특강, <알쏭달쏭 저작권, 아는 것이 힘이다!>	9/26
----	--------------------------------	------

■ 교육 목표

- 저작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저작권체제가 작용하는 방식과 현행저작권법의 내용과 현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정보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방법들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인천 미디어활동가 및 일반 시민 (인천지역에서 공동체미디어활동, 미디어교육, 퍼블릭 액세스활동 등의 활동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활동가들이나 앞으로 미디어 활동에 전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

■ 강사 : 오병일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19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 현재 : 상근활동가로 활동
- 1999년 ~ 현재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2000년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 (도서출판 이후) 발간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대안 미디어 운동 등 다양한 활동

■ 교육 내용

- 저작권의 기본개념
- 저작권이 이슈화되는 이유
- 디지털환경과 저작권 강화
- 정보공유운동의 의미와 중요성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12월		저작권특강, <알쏭달쏭 저작권, 알아야 이긴다!>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을	86
			교육만족도	88
			교육양	81
			내용일치도	84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1
			교수방법	86
			시간효율성	87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86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1
			센터지원	91
			수강생 수	96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1
			관심도증가	93
			센터신뢰도 증가	91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89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0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교육대상을 인천지역에서 공동체미디어활동, 미디어교육, 퍼블릭 액세스활동 등의 활동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활동가들이나 앞으로 미디어 활동에 전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포괄하여 설정.
-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좌를 신청하였으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신청자 중 포함되어있지 않음. 교육대상의 범주를 좁혀 전략적 홍보 필요.
- 저작권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을 교육대상에 적합한 목표 설정.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교육 참여자들의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 저작권법 일반과 정보공유운동을 소개하는 차원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 특강이 마무리 되어 교육 참여자들이 이후 정보공유운동의 방향과 현재 지역에서 미디어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작권 강좌 개설 요구.

○ 센터의 지원

- 강의 내용을 추가하여 다른 미디어이론특강과 연계하여 배치.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후속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함.

○ 종합

- 교육대상의 범위를 좁혀 교육 내용 및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
- 다른 미디어이론특강과 연계하여 배치.

(12) 미디어비평특강

① 사업내용

특강	미디어비평특강, <방송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12/12
----	-----------------------------	-------

■ 교육 목표

-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미디어비평의 개념과 미디어비평의 관점을 형성한다.

■ 교육 대상

- 지역의 미디어비평, 방송비평, 문화비평 및 문화연구를 시작하는 초심자들/ 지역 시민단체 방송모니터링 회원들

■ 강사 : 전규찬

- 한국종합예술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교육 내용

- (지역)방송미디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미디어 산업의 특성
- 미디어공공성에 대한 이해
- (지역)방송미디어 비평 혹은 분석이란 무엇인가?
- 모니터링과 분석/비평의 차이에 대해서 알기
- 모니터링에서 분석/비평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12월	미디어비평특강, <방송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9
			교육만족도	88
			교육양	84

			내용일치도	81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8	
		교수방법	86	
		시간효율성	83	
		친절성	88	
		교자료 적합성	91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6	
		센터지원	84	
		수강생 수	92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7	
		관심도증가	89	
		센터신뢰도 증가	9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89	
		강좌추천	89	
평가총점			87	

■ 운영자 평가

○ 교육 목표와 대상

- 지역의 방송 모니터 활동이나 방송비평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미디어비평의 관점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 시민단체특강을 통해 연계된 인천YMCA 모니터링회원들을 주요 타겟으로 교육대상 설정하고 교육 목표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함.

○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오늘날의 미디어 구조와 방송의 현실,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내용과 방송 및 미디어 비평이 갖추어야 하는 관점과 요소들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

○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지역의 방송문화 모니터링 모임의 활성화와 함께 모니터 및 비평 활동으로 연계
- 센터의 CAMF 페이퍼 지역방송 모니터 활동으로 연계

○ 종합

- 미디어비평의 제 관점을 통한 구체적인 비평이론 및 미디어비평 글쓰기를 위한 특강으로 연계할 수 방안을 모색.

2)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

영역	교육명	기간
장애인	민들레이학 장애성인 영상미디어교육	5/6~7/22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9/5~12/5
실버	오춘프로젝트1	5/15~7/31
	오춘프로젝트1 후속/심화 교육	10/14~11/4
	오춘프로젝트2	9/17~12/3
여성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이주여성이여 미디어로 소통의 날개를 달자>	5/28~7/30
	이주여성 미디어교육 후속/심화 교육	10/22~11/12
	여성미디어교육, <아줌마의 바람난 카메라>	9/4~10/10

청소년	푸른샘어린이도서관 영상미디어교육, <나도 영화감독!>	9/2~11/25
	학교문화예술교육,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9/17~12/3

(1) 민들레야학 장애성인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내용

■ 교육목표

-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적 미디어제작활동에 대한 이해.
- 영상미디어로 소통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기술 습득
- 장애인 당사자가 제작한 영상물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
- 장애성인 공동체의 미디어 활동을 위한 인적 토대 형성

■ 교육대상: 민들레야학 교육생 및 장애인활동가

■ 강사 : 박종필

- 독립다큐멘터리스트

■ 교육내용

- 장애의 사회적 이해와 비판적 미디어 읽기
- 장애인관련 영상 감상 및 토론
- 장애인 당사자가 제작한 영상 감상 및 토론
- 영상언어의 이해와 촬영원리 이해
- 편집 원리의 이해와 기초 편집프로그램 이해
- 일상의 관심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상미디어 제작 실습
-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기

■ 기록



■ 강사 평가 에세이

새로운 경험, 지체성인영상미디어교육

박종필

5월6일 영상교육을 위해 찾아간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 그곳은 인천종합예술회관 맞은편 공원에 있는 천막이다. 민들레장애인야학은 4월16일부터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고 있다. 야학을 지키고자 학교 선생님들이 개인의 사비를 털어 운영해왔지만 최근 월세와 관리비를 못내 거리로 쫓겨난 것이다.

전체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둘 중에 한명은 학교를 아예 안 다녔거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얘기이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켜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못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교육받을 권리가 유독 장애인에게만 배제되어 왔다.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의 이동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은 “이동할 수 있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 평생 시설과 클방에서 갇혀 지내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아 기껏해야 교회나 복지관에 가는 것이 전부란다. 그런 장애인에게 야학은 학습의 공간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일 것이다. 도로가 옆에 있어 시끄럽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열린(?) 천막교실이지만 학교를 지키려는 학생과 교사들의 열정,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평소 장애인투쟁을 촬영하면서 만났던 분들이어서 별 어려움 없이 첫 수업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 후 민들레야학은 인천시청과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보름간의 투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장애인교육은 일정대로 진행하기가 참 힘들다. 출석률은 저조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휴강을 하기도 한다. 주1회 12회차 교육으로 7월말에 끝나야 할 교육은 8월말까지 갔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7월17일 제물포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추락참사, 그리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 등, 민들레야학의 학생들은 이동권 투쟁과 활동보조인서비스 투쟁에 함께하면서 교육은 지연되었고 참여율은 떨어졌다. 장애인에게는 교육 외에도 함께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존재한다.

결국 2명이 끝까지 수업에 참여하여 교육 수료작을 완성하였다. 한 명은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촬영해서 영상물을 완성하였고, 다른 한 분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어려움과 권리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다.

장애인영상교육을 하면서 늘 가지는 고민이 있다. 교육을 어렵게 기획한 단체도 그렇고 직접 교육을 하는 강사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참여자가 완성도 높은 교육 수료작을 만들었으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조건과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수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 수료작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획단체와 강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육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교육 참여자들에게 수료작의 완성을 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영상물의 기획에서 편집까지 전 과정을 한 번 경험하는 것, 문화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던 장애인당사자가 새로운 경험을 갖는 것에 만족하자라고 다짐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장애인영상교육은 공적지원을 받아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을 기획한 단체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 교육 수료작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료작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수업과정 속에서 수업참여 장애인들에게 무리

한 요구로 이어진다. 결국 장애인의 속도와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성과 주체성을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 수료작은 교육 참여자가 영상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양한 결과중의 하나라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미디어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으로서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고 자존감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 교육생 평가 에세이

내가, 미디어를 배운다는 것

김수미(민들레야학)

미디어를 배운다라는건 평생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어하죠. 저 또한 그런 욕심 실린 도전을 생각할 쯤에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민들레장애인야학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오셔서 미디어교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뜻, 카메라 작동법, 촬영법, 편집법 완성에 이르기 까지 4개월 동안에 하나하나 알아가고 해 나갈 때마다 신기한 마음 그리고 너무 뿌듯하고 할 마음만 있다면 나 같이 중증장애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번에 계획하고 촬영한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했습니다.

'자립생활' 이 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차별이라면 차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니 말이죠. 비장애인도 혼자 독립을 해서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크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차별 속에 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 학력이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동 할 기회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한달에 50만원 남짓 되는 돈으로 한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도 돼야 겨우 한달 빠듯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과 돈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활동보조입니다. 지금의 활동보조 시간은 우리에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많으면 5시간 고작 와서 밥한끼 화장실 한번 갔다오면 끝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에게 저처럼 자립생활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사람의 중증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16평의 아파트를 얻어 한사람이면 감당하기 힘든 보증금과 월세와 생활비를 세명이서 감당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사람보다 움직이는 것이 조금 나은 제가 모자란 활보시간에 물이라도 먹여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수급자 대상자에서도 빠지는 아주 이상한 우리나라 법 그 재산이 내 재산이 될 것도 아닐뿐더러 지금 나에게 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용기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가지 눈물 또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 되었다면 그래도 한번 도전 해 이런 차별과 억압이 많은 이 나라를 장애인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지는 그런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뛰쳐 나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미디어교육을 하면서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간에 못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미디어발달과정은 구조적으로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미디어 수용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서의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옴.
-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활동보조인등과 같은 장애인의 생활 문제 전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민들레아학 성인 장애인들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녔으며, 교육공간 확보와 장애인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미디어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영상미디어교육을 능동적으로 요구함.
-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교육 구성들이 모아졌으나 교육과정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배치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함으로써 후반기에 갈수록 교육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
- 공간과 날씨의 조건이 장애인의 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획자가 미리 예측하지 못함.

○ 교육 목표와 내용

- 장애인들의 삶을 왜곡 또는 배제시키는 미디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고 미디어를 스스로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비판적 미디어 이해를 위한 다양한 영상물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음.
- 장애인들의 삶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미디어발달과 미디어이용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던질 수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중증장애인들은 대개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며, 손을 이용해 캠코더를 작동하고 운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센터의 자체장애인용 캠코더가 구비되어야 하는 현실임. 현재 부산미디어센터, 제주미디어센터 등은 이러한 장애인 휠체어 캠코더를 자체 제작하는 등 장애인의 미디어활동을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게도 주어진 주용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또한 캠코더 작동의 경우 활동보조가 작동하는 경우보다는 리모콘등을 이용해 작동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구가 발견됨.
- 쉽게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편집프로그램으로 무비메이커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센터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노트북을 활용함. 노트북에서 무비메이커로 다양한 영상 소스를 캡쳐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 후속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후속교육과 미디어활동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였으며, 미디어활동단체 및 지역미디어활동가등과 연계한 후속 계획을 구상중.
-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영상물을 시민방송 RTV에 퍼블릭액세스하여 방송함.

○ 종합

- 중증장애인 및 자체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영상미디어교육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조건, 교육공간에 대한 조건, 활동보조인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고려한 교육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 중증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상하고 직접 제작하여 실행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시간의 경우 비장애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배치해서는 안되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여유있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자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기준에 놓여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2)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 내용

■ 교육목표

- 청소년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적 미디어제작활동에 대한 이해.
- 영상미디어로 소통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기술 습득

■ 교육대상: 성동학교 중고등부 도서반 6명

■ 강사

- 강묘애 - 테프미디어, 주강사
- 이상립 - 성동학교 교사

■ 교육내용

- 장애인관련 영상 감상 및 토론
- 장애인 당사자가 제작한 영상 감상 및 토론
- 영상언어의 이해와 촬영원리 이해
- 편집 원리의 이해와 기초 편집프로그램 이해
- 일상의 관심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상미디어 제작 실습

■ 기록



② 사업 평가

■ 강사 평가 에세이

인천 성동학교- 미디어수업

강묘애(데프미디어)

그동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미디어교육을 하다가 서울과 가까운 인천에서 성동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수업을 처음이었다. 성동학교를 비롯해서 여러군데의 농학교에서도 미디어수업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필자인 내가 하고있는 미디어활동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미디어수업을 통해 아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미디어활동, 즉 영상을 통한 소통활동은 영상에 대한 취미 외에 '소통'에 대한 간접함을 겪어보지않으면 농인미디어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현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인들에게 있어서 영상제작을 통한 소통의 의미는 각별하기에 영상제작을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이끌어내고 필자인 본인 뿐 아니라 많은 농인들이 학교 졸업 후, 사회 생활을 통해 경험했던 소통의 부재, 차별에 대한 경험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통의 방법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찾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었다.

총 12차시의 수업중에서 3차시까지는 미디어읽기 일환으로 첫 수업시간에는 자신이 매일매일 만나는 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미디어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수업에는 현재 활발하게 자신의 꿈이나 전문직에서 뛰고 있는 농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학생들과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3차시에는 영상제작의 워밍업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UC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과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에서 제작한 농영화와 그밖의 다른 장애인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4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제작에 들어갔는데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들을 특히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데프미디어에서 영화를 제작할 때의 경험을 살려 준비했던 콘티나 양식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니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처음에 영상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부담감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 아이들이 차츰차츰 자신감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콘티자료 덕인지 아이들이 위낙 잘 이해를 해서 그런지 다른 농학교 미디어수업에서는 10컷내지 정도 하던 콘티를 성동학교 아이들은 30컷이상 그려오는 놀라운 준비성을 보여서 놀라웠고 그래서 뿐듯했던 수업이었다. 총 6명의 학생 중 2명씩 3팀을 이루어서 사전에 캠코더 사용법을 익히고 팀별로 알아서 촬영을 해오게 하였다. 사전에 실전처럼 영상구도나 앵글, 컷등을 충분히 익힌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기본적인 것만 익혔기 때문에 아이들이 찍어온 촬영본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촬영해온 것을 보니 어떤 팀은 가게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하기 쉽지않은 장소에서 양해를 잘 구하고 촬영을 해와서 모두를 놀라게 하였고 학생이라 촬영할 시간이 없을텐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촬영해온 모습이 좋았다. 남은 4차시동안 편집을 하였는데 다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였고 편집프로그램을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다양한 툴들을 가르쳐주고 익히면서 편집의 다양한 매력을 알아가는 것 같았다.

미디어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은 농학교마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성동학교가 서울과 가까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정보의 양이 더 넓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곧 아이들의 자신의 표현욕구가 다양하며 아이들이 뭔가를 새로 배울때 이해하는 폭이 넓다는 뜻이 된다. 대도시에서 먼 곳에 위치한 곳일 수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접근권이 좁아 비장애인학생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적어 표현력이 덜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도시에 노출된 학교일 수록 아이들의 표현력이 더 크고 이렇게 표현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표현력이라는 것은 비장애인학생들과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농인들은 특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흑백논리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비장애인들처럼 꿈을 가지거나 뭔가를 이를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이 살고있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디어수업을 하면서 꼭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국과 외국농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주려고 노력한다. 의외로 아이들은 이세상에 있는 많은 농인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농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흥미로워하고 동질감을 가지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어간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번 수업을 하면서 뿌듯했던 것은 처음에 목표한 의도대로 아이들이 주제를 잘 선택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완성했다는 것이다. 영상제작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재의 그들의 모습, 즉 농문화나 그들의 정체성을 담은 주제, 그들의 이야기등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비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했는데 목표한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아이들이 영상제작 경험을 살려 자신이 갖고 있는 영상도구를 활용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요즘 가정마다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어있으니 카메라를 활용할 수있고 아니면 핸드폰 안에 동영상 기능이 있으니 그것 또한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바랄 뿐이다.

농인에게 미디어수업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화는 시각언어이기 때문에 영상언어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장애인인 사용하는 한국어는 음성언어이다. 음성언어는 눈에 잘 보이지않기 때문에 100% 소통을 하기가 힘들다. 가족간의 대화는 어느정도 가능해도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어느정도 말을 조금 할줄 아는 농인이라고 해도 자신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매일 보던 사람의 말하는 음성언어 방식(말투)에 익숙해져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 그들의 새로운 말하는 방식이 적응되지않아 당황하게 된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농인들은 그저 귀가 안들리니까 크게 말하기만 하면 들릴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입을 무조건 크게 벌리면 알아들을거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 이와 관련해서 농인사회에서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맹인, 절름발이, 농인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늘나라의 신이 그 3사람에게 살아서 불편한 몸으로 고생이 많았으니 너희가 필요한것을 주겠다고 하였다. 맹인은 흰지팡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신은 지팡이를 주었고 맹인은 편하게 걸어갔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훨체어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신이 훨체어를 선물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농인이 오자 신은 말하지않아도 알겠다듯이 너는 보청기가 필요하겠구나 라면서 보청기를 선물해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농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보청기가 필요한게 아니라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신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편견을 깨기위해서 농인들이 모국어인 수화를 그대로 그들의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아 편집의 도움을 받아 자막을 넣는다면 비장애인들이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농인, 농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수화도 하나의 언어라는 인식이 생기게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수업이 꼭 필요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수화를 언어로서 법적인정을 받아 수화통역시스템이 아주 잘 이루어져있다. 수화연구도 활발하고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아 농인들이 자유롭게 뮤지컬이나 연극등을 제작해서 다양한 공연들을 보여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농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련 미디어기관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농인미디어수업을 받고 있다는 외국 농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거기서는 미디어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농인들이 영상제작이 활성화되려면 농학교 안에 방송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필자는 농학교를 유치원 때를 제외하고 비장애인학교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비장애인학교마다 있는 방송실이 대부분의 농학교에 없다는 것을 알고나서 놀란던 적이 있다. 농학교에 방송실이 있다해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이 많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비장애인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방송실 임원경험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꿈을 키워 영상관련 공부를 더 하거나 관련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농인은 수화로 많은 얘기를 영상에 담아야한다. 또한 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자료의 보존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거 농인들의 삶을 담은 영상자료들이 전무하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 관심있는 농인들이 많은 영상들을 제작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보존하여 후대의 농인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농인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가 후대에도 비장애인사회에서 소외된다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래서 농인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농인들에게 기본 소양을 가르쳐주고 키우면서 '소통'에 대한 중요성 또한 크게 신경써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인 역시 농인미디어교육에 대해서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에서 활동하다가 미디어센터와 알게 되었고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농인들은 듣지못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약하다. 하지만 청인이 먼저 조금만 정보를 농인들에게 전해주면 농인들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바로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은 농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인들의 삶이, 소통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듣지못하는데서 오는 정보의 부재때문이다.

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조금만 배려해준다면 청인들과 농인들의 삶의 차이가 크지않을 것이다. 농인들의 삶은

아직은 후진국이다.

그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할일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밭걸음이 무겁지만 영상제작을 통해 농인들의 삶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힘이 된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교육은 '소통'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사람들이 더 나은 회사를 위해서 취업컨설팅을 받듯이 농인들도 듣지 못해서 정보접근권이 약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통에 대한 차이와 차별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소통은 수화를 모국어로 쓰는 농인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름이 없다면 인간은 교류하고 소통할 이유가 없으며
평등하지 않다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나 아렌트-

청각장애 청소년들, 학교 올타리를 넘다

이상림(성동학교 교사)

작년 교사 연수 때 미디어 교육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미디어 교육을 받고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물에 애정을 갖고 관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찾아낸 소소한 일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 일에 관심을 더 쏟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즐거운 경험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수를 찾아 듣고, 미숙하지만 미디어 교육도 시작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단 모르는 게 더 많은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부터 편집하는 과정 내내 재미있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올 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청각장애인 미디어 교육 선생님을 초빙하여 영상미디어교육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교육 시작일 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학교에 있는 기자재나 시설이 편집 교육을 받기엔 적절하지 않아 주안으로 갔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지역사회기관을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 여가활동으로 대부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만화책을 보는 아이들이 다수이다. 학교 이외에 공공 도서관조차 잘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건청인들만 있는 학교 밖 공간으로 미디어 교육이라는 아직은 낯선 공부를 하러 간다는 말에 살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수화를 잘 하시는 예쁜 청각장애인 선생님과 진행지원을 도와주실 친구 같은 남자 선생님이 계셨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덕분에 학생들은 영상미디어센터를 금세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다. 수업 초반에는 나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생활을 둘이켜 보았다.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른 청각장애 학생이나 청각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만든 영상물을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감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로 풀고 그 이야기를 다시 영상으로 만들었다.

미디어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2인 1조의 팀들 중 몇 팀에서는 서로 자기 생각대로 편집하겠다고 싸웠다. 빼지는 아이들도 생겨났고 심통을 부리는 아이도 있었다.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올바른 합일점을 찾아나갔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던 아이가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팀에서 만든 영상물을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아~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만 맞고 내 결정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타인과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고집을 꺾기도 했다.

아이들은 영상세대 답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빨리 배웠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 이야기를 펼칠 수 있었다. 수화라는 청각장애인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영상만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일반인 선생님이 수화를 통역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만든 영상물을 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언어의 장벽을 넘게 해주는 영상의 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국어시간이면 문법에 맞게 글을 잘 쓰지 못해 글쓰기를 어려워했다. 그런데 영상 미디어 교육시간에는 자신이 쓴 글이 부끄러워서 몸을 비틀거나 쭈뼛거리며 자신 없어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줄 수 있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아이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처음 주안 영상미디어센터를 찾았을 때는 반팔 차림에도 땀이 흘러내렸다. 시간이 흘러 몇 겹의 옷을 겹쳐 입고도 추위를 느끼는 지금 미디어 교육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제는 주안을 찾아가는 날이면 아이들이 먼저 나를 데리러 교무실로 찾아오고 언제 갈꺼냐고 문자를 보낸다. 지하철 안에서는 지난주 수업 때 어려웠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을 재잘거린다. 벌써부터 이번 교육이 끝나면 다음엔 언제 미디어 교육을 시작할 거냐고 물었다. "헉!" 부답스러우면서도 웬지 모르는 뿌듯함이 밀려온다. '내년에는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수화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큰마음을 먹어야 가능하다. 단편영화나 좋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어도 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면 대부분 자막이 없었다. 물론 상영관에는 시설이용이나 이용준수사항을 설명해 줄 수화통역지원은 당연히 갖춰지지 않았다. 미디어교육을 하려면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간에도 데려가야 하고 미디어교육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분과 인연도 만들어야 한다. 또 영상물을 만드는 일련의 제작교육을 배우는 곳도 찾아봐야 한다. 다양한 영상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물을 만들어보는 경험들이 어우러져야 미디어교육이 제작이나 비평과 같은 한 분야일 뿐이라는 편향된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갖춰져야 하고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검색해 봐도 서울 이외의 대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더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시설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홍보동영상을 만들거나 영화를 전공할 학생들을 위한 외재적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모색하게 하는 "소통 교육"이라고 본다. 각박한 세상 여유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배려해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아이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기만의 속도와 리듬을 갖고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켜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점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미디어 교육에 서성이고 있는 이유인지 모르겠다.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시각이미지를 통한 소통을 전제하지 않으면 소통자체가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은 특히 농인들에게 시각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상미디어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상기시킴.
- 본 교육에 함께 했던 성동학교 청소년들은 2007년 하반기에 인솔교사의 지도로 스토리텔링 중심의 미디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으며, 영상제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 인솔교사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실제 미디어교육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또한 학생들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으며, 교육의 기획과 실행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음.
- 학교 이외의 사회 공간에서의 활동이 거의 전무함을 고려하여 학교 울타리를 나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함.

○ 교육목표와 내용

- 영상미디어교육을 통해 농인청소년들이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것, 특히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오는 사회생활의 부적응과 자신없어하는 마음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국내외의 농인미디어활동가들의 영상에 대한 감상과 토론, 미디어에 비쳐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기 등, 미디어를 이용하여 농인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과정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상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교육내용 구성.
- 총 세 개의 모둠으로 구성하여 모둠별 영상제작을 하였으며, 각 모둠별로 농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스토리로 구성하고 영상으로 제작함.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충분히 이루어어졌음.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교육결과 영상물을 전교생과 함께 상영하고 미디어에 대한 깊은 특강 시간을 갖음.

○ 종합

- 인천의 유일한 청각장애인 청소년 공교육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청각장애인들의 이미지 인지능력을 고려한 영상제작교육 교육방법을 모아 교재화 구상의 가능성 발견.

(3) 실버미디어교육 <오춘프로젝트1, 2>

① 사업 내용

■ 교육 목표

- 세대적 차이로 인해 미디어 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미디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기운 복돋기
- 어르신들의 생각과 감성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소통하는 경험하기
-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미디어를 통해 성찰하고 연대기를 구성하기
- 영상이미지 표현활동을 통해 이웃 그리고 다른 세대들과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 교육 대상

-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명
- 컴퓨터 기본 사용능력이 있는 어르신

■ 강사 : 문정현

- 독립다큐멘터리스트

■ 교육내용

- 미디어 연대를 통해 나의 삶에 대해 회고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 프레임과 컷 등 영상 문법을 이해하고 기능 익히기
- 프리미어프로 편집프로그램의 기본 기능 익히기

- '나'를 주제로 하는 영상에세이 만들고 상영해보기

■ 운영 방법

- 교육자원활동가 모집 및 운영
- 남구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형성

■ 기록



② 사업 평가

■ 강사 평가 에세이

오춘 프로젝트 교육을 마치고

문정현(풀영상)

어르신 미디어교육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르신들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상 미디어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이다. 이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경제상황 등을 떠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해당된다. 평생을 수동적인 교육에 익숙하신 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그것도 영상미디어로 풀어낸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이방인으로 살아오시던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미디어 교육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는 비단 그 분들의 삶에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취미생활로의 접근일 뿐 아니라 내가 미디어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미디어 교육의 경험들을 통해 어르신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외롭고 고독한 노인이 아니라, 주체적인 한 명의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의 방법들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의식의 변화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은 어르신들 자신의 변화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이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인 것이다.

어르신들의 주체적 미디어 만들기를 통한 세상과 소통하기, 그리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어르신미디어교육의 현황 소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가 무수히 논의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미디어 교육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해당 기관, 미디어 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교육의 결과물들이 2008년 11월 제 1회 서울노인영화제를 통해 일반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영화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이 제작한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영화의 완성도 및 문제의식에 있어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현재도 주안 미디어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미디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미디어교육 내용, 주안점으로 두는 것

우리가 어르신들의 미디어 교육에서 얻고자 한 바는 영상제작과정의 기계적 습득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 미디어 제작의 주체가 되어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일방향의 미디어 소통과정에서 쌍방향의 소통을 담보하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외연 확장의 가능성까지의 변화를 이루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참가자들의 열린 자세로의 수업 참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모든 미디어 교육이 그렇듯이 노인미디어 교육 역시 어르신들의 개성과 느낌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소재 및 메시지를 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랜 경륜과 연륜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영상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인생사, 가족의 기록, 미안함의 고백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 지금 이 시기에 기록할 만한 소재 및 메시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주로 자기 생각과 주장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자가 이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로 유도할 수 있는지가 미디어 제작 결과물의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르신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 활동으로 지속되기 위한 제언

매 교육이 끝날 때마다 꼭 나오는 평가가 있다. 노인 교육은 그 특성상 조금 더 긴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번의 교육으로는 절대 교육자와 이 미디어 교육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없음을 교육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정책 및 자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접근이 용이한 촬영 장비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작의 각 과정별로 심화 과정 등을 상설 강좌로 개설해 과정별 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도 고민해 볼 만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 이후에도 개별 작업 혹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계속해서 미디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 상설 강좌, 미디어 동아리 만들기 및 팀별 제작 시스템 마련, 강 강좌별 심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보는 등 여러 방법의 시도들과 다각의 전문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 교육생 평가 에세이

어르신들, 알차고 재미있는 새로움으로 함께 하시길

강영길

거짓말도 때론 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몹쓸 人間이다.

그러나...

2008년 7월부터 동영상 촬영 교육을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12주간 교육을 받았다. 교육기간 중 각자 만든 작품(사실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을 제출했다. 2008년 10월 중순 쯤 인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내 작품을 서울 노인영화제에 출품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대답하길 좋다고 승낙을 했다.

사실 그게 뭐 작품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것 아닌가!

그리고 얼마 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장에 모여서 말하자면 교육1기생끼리 친목회 같은 모임체를 갖자고 해서 <은하수>란 동아리를 만들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기로 한 날이였다. 그날 내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비공식 통보를 받고도 반신반의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노인복지회에서 전화가 왔다. 11월 18일-19일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 영화 시사회 및 폐회식에 참석하라고.

시상식에 집사람과 함께 갔다. 영화 상영이 끝나고 수상자를 무대위로 올라 오라고 하여 올라갔다. 사회자 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란다.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이 오고갔다. 사회자가 질문하길 어떻게 배우게 되었으며 비용은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답하기를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좋은 세상 언제 우리가 상상이나 했으며 꿈이나 꿨냐고, 복지회관에서 컴퓨터를 무료로 배웠고 또 복지회관 추천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12주간(1주 3시간) 무료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하였다고 지금 다시 한다면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어르신 선배 동료 여러분 산이 구름을 탓하지 않고 물이 굴곡을 탓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며 재미있게 살자고 했다.

이렇게 좋은 얘길 했는데도 어느 누구 한사람 박수쳐주는 사람이 없다. 아차 싶었다. 내가 너무 건방진 소릴 했나 싶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엎질러진 물인걸. 이렇게 시상식은 끝이 나고 그 일 후인가 복지회관엘 갔더니 그 곳에선 한 술 더 떠서 상금에 관심이 많았다. 집에서 그렇지 않아도 물어 볼 것을 예상하고 연구했다.

사실대로 30만원 받았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아니다 이 노인네들 절대적으로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도 나도 한번 해 보자라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거짓말이 3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아니나 다를까. 호기심과 부러움이 가득한 인사며 상쾌 따윈 관심 없다. 오로지 상금에만 관심 있을 뿐. 나는 비록 몹쓸 거짓말은 하였으나 그 양반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다. 거짓말 그자체가 나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늙어가면서 쉼 없이 우리는 빈 공간을 활용할 가치고 찾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악의에 의한 거짓말은 절대 아니었으며 살아 가야할 어르신들의 앞날에 조금은 알차고 재미있는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실버세대들은 영상미디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에 있어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권리개념이 희박함.
- 일방적, 주입식 교육과 문화환경에 익숙한 세대이며,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활동과 경험이 부재한 상황.
- 남구노인복지관의 컴퓨터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생을 모집, 디카교육이나 컴퓨터 기본 교육을 이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교육생들은 남구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만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음.

○ 교육목표와 내용

-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소통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둠.
- 컴퓨터 이용능력이 있는 어르신 교육생들은 기술교육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드러냄.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충분하였음.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교육결과 영상물은 남구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과 함께 상영하고 노인영화제등에 출품하는 경험을 이끌어냄

으로써 사회의 문화적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함.

- 편집교육을 중심으로 한 후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심화교육 및 미디어활동 욕구를 이끌어 냄.
- 교육생 중심의 영상동아리가 현성되었으나,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기획하지 못하는 상황.
- 지역에서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미디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의 지원체계가 요구됨.

○ 종합

- 실버세대는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실버미디어 교육을 기획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제작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미디어교육과 활동에 대한 체계를 구상하는 한편,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실버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에서 더욱 진전된 실버미디어활동을 위한 대한미디어활동 체계에 대한 고민이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이주여성이여 미디어로 소통의 날개를 달자>

① 사업 내용

■ 교육 목표

- 이미지 중심의 영상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봄으로써 구어와 문자와는 다른 소통방식을 새롭게 경험해보고,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며 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 나만의 영상이야기를 가족, 친구,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10인
- 인천광역시 국제결혼가족지원센터, 문화원 등의 한글교실 교육생 중심으로 교육생 모집

■ 강사 : 김성희 (연분홍치마)

■ 교육 내용

- 감정카드 만들기를 통한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표현해보기
- 영상언어에 대해 이해하기
- 촬영과 편집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적인 기능 습득하기
- '나'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소통해보는 경험하기

■ 기록



■ 강사 평가 에세이

이주여성의 수다스런 미디어교육, 담아두었던 ‘나’를 이야기하기, 보여주기

김성희(연분홍치마)

처음으로 이주여성과 함께 미디어교육을 진행했을 당시의 일이다. 교육에 참여했던 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오신 한 언니께서 역정을 내며 말씀하셨다.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한글 교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한글을 지도하니 신청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란다. 남편은 그것 참 좋은 제도라며 흔쾌히 사인을 하려는데, 언니가 벼락 화를 냈단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 집에만 있는데 한글 공부하러 나가는 시간까지 빼앗으려 하냐고.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정책이라며 언니는 연신 고개를 내저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된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공부는 ‘한글’을 배우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글공부는 혼치 않은 외출의 기회이자, 친구들을 사귀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마실 나오 듯, 카메라로 놀자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미디어교육과정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싶다. 때문에 교육과정을 진행했던 나는 미디어교육과정이 편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마실 나오듯 나와 한바탕 별이는 ‘수다’가 되었으면 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 과거의 기억과 일상적 경험이 수다스럽게 풀어져 ‘구성안’이 되고, 낯설기만 한 카메라를 이리저리 굴려보며 이것저것 화면에 담아내는 놀이와 같은 과정이 ‘촬영’이 되고, 편지나 일기를 쓰듯 혹은 앨범에 한 장 한 장 사진을 붙여나가듯 나의 영상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편집’이 되었으면 했다. 교육과정이 그 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전네는 과정이자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경험의 ‘차이’에 서로 귀기울이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했다. 카메라를 처음 접하는 이주여성과 함께 한 이번 미디어교육에서 촬영, 편집에 대한 기술습득이나 영상언어에 대한 이해보다도 ‘이야기하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더디지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자

하지만 남편, 아이들, 시부모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듣기’만 하던 언니들이 대뜸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기억과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낯섦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듯 했고, 특히나 서로 다른 언어에 익숙해 있는 까닭에 우리의 소통은 더욱 어렵기만 했다. 때문에 교육 초반에는 그 막연한 낯설음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요구되었다. 서로의 얼굴을 그려보며 인터뷰하기, 미리 준비한 다양한 이미지카드와 사진을 이용해 나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느낌과 감정 표현하기, 나 혹은 가족을 포함해 누군가에게 전네고픈 편지 혹은 일기쓰기 등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야하는지 무척이나 고심하고 어려워했던 언니들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얼마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영화에 담아낼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카메라를 만지고 조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을 찍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구성안을 작성하고 촬영의 컨셉을 정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내내 언니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문제는 ‘찍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다 할 사건 없이 남편이나 아이들과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촬영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담아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부담이 있었던 듯싶다. 때문에 이 부담에서 벗어나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지극히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촬영교육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했다. 촬영본을 함께 리뷰하고 서로의 의견을 보태면서, 더디지만 열정적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고 드디어 편집에 들어섰다.

사실 편집은 교육과정에서 언니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다. 편집 프로그램의 복잡스런 사용법과 그러하거나 이것저것 많기도 많은 작은 창들과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들이 떡 하니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교육과정에서 그러했지만, 특히나 편집교육은 ‘언어’의 문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나는 가능한 최대한 알아듣기 편한 언어와 비유로 편집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때문에 편집과정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언니들 각자의 속도와 이해 정도를 배려해 개별적인 편집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영상을 선택하고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이야기를 비로소 완성하는 작업에 서로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보탤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작품을 완성한 여섯 분과의 작업은 가족을 비롯한 친구, 지역주민과의 공개 상영회로 끝을 맺었다. 상영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주’와 ‘여성’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이자, 엄마이고 아내이고 며느리이기만 했던 언니들이 ‘감독’으로 품 나게 데뷔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금은 수줍지만 당당하게 관객 앞에 선 감독들은 자신들을 향한, 작품을 향한 지지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고 관객 역시 그랬다.

아직 남은 배려와 시작되는 기대들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미디어워크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다. ‘이주’의 경험에서 오는 다른 언어와 삶의 역사,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의미 있는 사회적 경험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언어’의 문제는 교육의 전 과정에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많은 경우 예산이나 인력의 여건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교재 및 영상물 번역, 교육과정상 혹은 상영회시의 통역은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준비되고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정 역시 필요하다. 이번 교육결과물에서도 나타나듯 ‘가족’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언니들의 이야기들이 ‘이주’나 ‘여성’의 경험으로 확장되고 의미화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자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넓히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로서, 영상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동시에 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영상매체 활용의 기회로서, 영상미디어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보육교사나 보조교사 등의 인력확보 문제, 완성된 작품을 안정적으로 상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더 나아가 이주여성이 미디어교육의 참여자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 역시 요구된다.

교육 이후 언니들의 후속모임이 준비 중이다. 이제 막 감독으로 데뷔한 언니들의 활약이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 교육생 평가 에세이

저는 중국에서 온 태선입니다

태선

저는 중국에서 온 태선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다니면서 한글 공부를 하던 중 이주여성 영상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고 보니 참 즐겁고 뜻있고 보람이 있었어요. 첨 시작에는 좀 두려웠어요. 카메라도 잘 찍지 못하는데 영상으로 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때 난 또 일하러도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열정과 관심 또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직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하는게 선생님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천 대공원 수봉공원...등’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다 보니 남편과 같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같이 하는 시간이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요.

행복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와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했어요.
나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행복의 길”이라고 나만의 영상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가족, 친구,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내가 한국
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영상이야기 “행복의 길”을 본 모든 분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안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통역과 교재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교육생 모집.
- 국제결혼가족지원센터와 문화원등을 중심으로 출신국 별 커뮤니티 형성.
- 교육을 희망하는 다수의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를 교육현장에 동반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여를 하지 못함.

○ 교육목표와 내용

-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이미지카드 놀이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다른 지역의 이주여성들의 교육사례와 영상들을 함께 보면 공감대 형성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미디어교육 자원활동가들의 지원을 통해 교육생들에 근접하여 교육을 실시함.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후속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디어구조에 대한 이해와 이주여성의 미디어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편집 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함.
- 미디어활동가와의 연계 속에서 후속모임 형성, 심화 미디어교육에 대한 계획과 활동에 대해서 모색중.

○ 종합

- 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교재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교재 개발 및 번역작업이 필요함.
- 2008년 이주여성미디어교육의 결과 형성된 이주여성 미디어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주여성미디어교육에 대한 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여성미디어교육 <아줌마의 바람난 카메라>

① 사업 내용

■ 공동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천여성회

■ 교육 목표

- 여성의 시선과 관점에서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웃’ 여성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 여성으로서

의 공감과 소통을 시도한다.

■ 교육 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

■ 강사 : 김진열 (푸른영상)

■ 교육 내용

- 여성으로서의 자기 삶을 이미지로 표현해보기
- 촬영과 편집 원리를 알고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기
- 지역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재현해보기(인터뷰/구술)
- 퍼블릭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개념 알기

■ 기록



② 사업 평가

■ 강사 및 운영자 평가 간담회 내용

이희랑 : 여성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주관했던 두 주체와 강사가 함께 모였으니, 각각 인상평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설정했던 목표와 달성정도 등을 간략하게 이이가 해보면 좋겠다.

박성희 : 인천여성회 입장에서 이번 교육목표를 첫째, 이 교육을 통해서 영화제와 연관시켜서 회원들이 영상에 관심을 갖는다면 좋겠다. 둘째는 후속모임을 만든다는 것,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평가는 좋은 평가로 나오고 있다. 교육시사회 할 때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좋아하셨다. 관심들이 커진 상태이다. 운영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영상 후속모임도 만들어진 상태임.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 후속모임에 대한 지원까지 운영위에서 고려중임.

김진열 : 이번 교육에서 구술생애사를 도입해보았다. 자기드러내기 중심의 여성교육에서 구술생애사 시도를 하였으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강사와 참여자들의 사고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낌. 이를테면, 촬영기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촬영은 미흡하나, 이야기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구술생애사 관련 영상 역시 단순하게 보여지면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함. 이 부분을 강사가 끌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지점이 있었음.

커리큘럼에서 구술생애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나 생각함. 구술생애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구술사를 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형태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평가하게 되었다.

영상과 구술사가 만나는 지점은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구술사가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촬영 단계에 넘어갔을 때, 참여자들이 인천 여성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처음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후속모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있음.

경희령 : 참여자들이 구술 생애사를 받아들이는 관점들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참여자들이 편차가 있었던 것.

소화가 안 되고 주춤되는 모습. 어렵게 느끼면서도 점점 즐겁게 느껴진 것 같다.

구술생애사가 일상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통한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 그러한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후속모임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희랑 : 기획자로서 평가. 첫날 교육 기획 내용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첫째는 여성회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센터가 설정했던 목표와 내용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둘째는 교사와 함께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커리큘럼을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웠던 것 같다. 공동주관일 때 각 단위들의 역할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중간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는 두 단위와 소통을 하면서 각 단위들의 요구를 접겁하고 수용하고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하는 입장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다.

기획자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각자의 목표가 달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여성회와 교육을 함께 해야겠다고 평가한 것은 지역에 있는 평범한 이줌마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놓여있는 분들과 교육하기로 했던 것으로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분들이 영상을 통한 자기표현을 통해서 영상을 접해보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회와 소통한 후 김진열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자기이야기를 영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교육 이후 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교육 대상에 대한 방법을 생애구술사라는 방식으로 자기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상과 삶에 대한 에세이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교육 목표로 협의했었다.

막상 교육을 시작해보니 함께 이야기한 교육 대상들이 아니라 여성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교사와 센터에서 교육에 대해 새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생겼다.

교사는 교육생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의 욕구와 이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구술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애초와는 많이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다.

실제 대상에 맞게 교육 내용이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단위가 소통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었다.

처음 우리가 생각한 생애사는 교육생이 영상에 담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여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배치하기로 했었다면 실제 진행된 방식은 촬영이나 편집위주로 건조하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일정이나 교육방식이 갑자기 변화되는 지점들 때문에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제작중심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생애구술사에 대해서 이번 교육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교육방식의 문제 - 교사는 풍부한 영상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 중심의 구술사 예시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고, 참여자들 또한 영상에 대한 포맷이 이미 각자 머릿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많이 다른 예시영상을 보고 재미 없다던가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다. 생애구술사를 접근하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면서 정확한 교육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

박성희 : 수강생 모집 단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다. 신청자들이 모집이 안되어서 여성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집이 마무리 되었다.

이희랑 : 그런 어려움을 센터와 함께 협의해서 풀었어야 했다.

박성희 : 영화나 영상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영상교육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수강생들이 많으면 여성회 기획했던 사람들은 참관자로 참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수강생 모집이 안되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버렸던 것 같다.

이희랑 : 참여자 구성이 달라지면 교사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배려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김진열 : 저도 첫차시, 두 차시 까지는 의식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괜찮았어요.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두 단위가 서

로 만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다. 기획 이후 준비단계에서 서로 만나고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이희랑 : 센터의 경우는 유료강좌만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뜨는데,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아줌마’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고를 띄우기에는 어려웠던 것이다. 무료로 특성화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했다. 사무국장님과 소통할 때에는 모집에 대한 경과를 이야기하기만 했다. 그래서 김영화씨의 경우 자리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참여자모집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대상에 맞는 매체를 찾아 홍보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다. 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여성회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행사를 했던 노하우가 만났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

센터의 경우는 어떤 교육을 공동주관하는 경우 교육운영은 센터가 일임하여 운영했다. 기자재나 공간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서로의 역할이 잘 만났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김진열 선생님이 조율하는 데 고생했던 것 같다.

이전의 다큐멘터리들과 우리가 했던 구술사교육 결과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 하는 부분은 고민 해봐야 할 것이다. 영상작업이 목표가 아니라 영상이 도구가 되어 그 영상자료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 같다.

교육방법은 위의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교안개발과정에서 교육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구술사를 잘 이해시키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시간이나 기간이 타이트했던 것 같다. 아니면 제작과정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김진열 : 보통 영상교육의 경우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지 않고 한 번의 교육을 경험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중심으로 영상교육을 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영상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영상기자재를 다루고 기술에 대한 학습욕구가 강해서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미디어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욕구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많이 다루어본 분들은 그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어있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 1차로 열어두고 초보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여 제작에 대한 기술을 강의하고 그 참여자들 중 2차로 모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세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희랑 : 사실 센터에서는 그런 단계로 교육을 세팅해도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모든 영상교육에 자기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여성교육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하겠다는 포커스를 분명히 맞추고 모집방법을 뚜렷하게 설정해서 모집되는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놓고 양해를 구하고 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다. 모든 참여자의 욕구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교육 시작할 때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면서 계속 교육목표를 반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성희 : 모집이 잘 안되어서 목표한대로는 안되었지만, 여성회에서 영상에 대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정도 성과가 나지 않았나 싶다. 구술생애사가 어려웠던 것 같다.

김진열 : 생애사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조사와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본다거나 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교사입장에서 참여자에게 그런 부분을 끌어내주는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다. 교사인 나 역시 구술사를 전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상작업 경험도 너무 단순했던 것 같다. 미디어교육의 경우에 한 차시가 흐트러지면 그 여파가 다음차시에 혹은 교육과정 전체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같다.

이희랑 : 두단위의 소통의 문제를 정리하고, 교사는 다음 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그리고 여성회는 후속모임을 어떻게 잘 것인지의 부분을 고민하면 될 것 같다.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교육을 기획했으나, 공동주관단체에서 교육생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단체 활동가 등이 대거로 교육에 참여하게 됨.
- 생애기술사를 접목한 여성주의 미디어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교육 참여자를 영상제작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반영하여 제작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짐.

○ 교육목표와 내용

- 여성주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구상의 일환으로서 생애기술사를 접목하였으나, 적합한 교육방법과 자료등이 준비되지 못하면서 교육생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함.
- 교육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제작교육 중심으로 흘러가며 교육시간에 대한 배치에 문제가 발생함.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충분히 이루어짐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공동주관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미디어활동 동아리 형성.
- 교육 결과물을 통해 지역의 영상 공모 등에 활발히 참여함.

○ 종합

- 공동주관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 기획과정에서 목표와 대상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주관 기관들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 있음.
- 공동주관의 경우 교육대상이나 목표설정 등에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교육 기획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합의해야 함.

(6) 푸른샘어린이 도서관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 내용

■ 공동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가좌2동 푸른샘어린이도서관

■ 교육목표

- 영상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이웃,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소통해보면서, 영상으로 이야기하기의 즐거움을 느낀다.

■ 교육대상 : 가좌2동 한부모가정 자녀 15명

■ 강사 : 심설희 (미디어교육 활동가)

■ 교육내용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 이미지를 ‘나’를 표현하고 소통해보는 경험하기
- 우리마을을 영상언어로 표현해보고 해석하기
- 영상미디어 제작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실습

■ 기록



② 사업 평가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가좌2동에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짐.
- 교육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포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 고학년이나 저학년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대상별 교육을 제안했으나, 도서관 측의 사정으로 실행되지 못함.
- 도서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공간이 부재한 문제 발생.
- 한부모가정이 아닌 참여자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대상이 마을 어린이 확장됨.

○ 교육목표와 내용

-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읽기,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이미지표현활동을 통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으나, 교육시간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미디어교육 방법의 부재.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 공간으로 기자재 등을 운반하여 외부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 기자재 등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강사에게 이 부분의 책임을 맡기기 위한 지원책이 별도로 요구되며(교통비 등), 다른 한편, 교육을 함께 주관하고 운영하는 단체 및 시설에 협력을 요청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함.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용 노트북의 경우 컴퓨터 풀더 관리 등이 강사 책임하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함.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푸른샘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의 활동가들이 미디어교육과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 및 활동을 계획하고 센터와 협의 과정에 있음.

○ 종합

-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미디어교육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분류하여 정확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구상하

고 구체화하여 교육을 실행에 옮겨야 하며, 어린이 미디어교육의 상을 갖춘 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를 통해 교육에 임해야 함.

- 어린이들의 능동성을 끌어내면 교육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 필요.
- 마을공동체의 어린이미디어교육의 경우 공동체를 기반한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해야 할 필요 있음.

(7)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 내용

■ 공동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남구학산문화원

■ 교육 목표

-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작품을 기획·구상할 수 있다.
-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한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영상을 자기표현 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경험해본다.

■ 교육 대상

- 문학정보고등학교 영상반 5명
- 인천항공고등학교 방송반 5명

■ 강사 : 문정현 (푸른영상)

■ 교육 내용

- 다양한 영상물 감상 및 토론
- 영상의 기획 및 구성
- 영상작품 제작(촬영 및 편집)
- 영상작품 상영

■ 기록



② 사업 평가

■ 강사 평가

2008년 청소년 미디어교육 평가

영상 작업에 경험 있는 고등학생들과 약 3개월간(총 12차시) 영상제작 교육을 실시했다. 애초 의도했던 대로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로 각 한 편의 작품을 만들게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장애물들이 있었다.

첫째로는 미디어 교육 일정과 각 학교의 학사 일정이 겹치면서 교육진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친구들은 좋은 소재와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촬영, 편집과정에 시간적 여유는 필수사항이었다. 하지만 학사 일정(중간, 기말고사 등) 및 축제, 방송제 등으로 친구들은 미디어 교육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둘째는 교육스타일의 문제였던 것 같다.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교육만 받아오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는 이 친구들이 영상 작업의 경험이 있단 이유로, 또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자신감으로 교육 참가자들을 너무 밀어부쳤다. 여러 학사 일정들과 교육자의 부담스러운 요구가 맞물려 전체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표현해 내는데 성실히 임해 주었다. 친구들은 감독 자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기계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해 내는 주류 미디어의 영상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사회를 이야기하며 나의 현실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데 노력하였다. 물론 아쉬운 작업도 있다. 하지만 친구들의 결과물들은 그 완성도를 떠나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성을 담보로 하고 하는 최소한의 실천적인 영상들이라 생각한다.

교육의 진행이 많이 미숙했고, 불협화음도 많았던 교육이라 고백하지만 친구들 개인에게는 영상제작의 의미와 그 방법에 있어 새로운 경험들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끝까지 잘 따라와 준 친구들이 너무 멋있고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끊임없이 최고, 최대의 지원을 해 준 실무자 선생님들에게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청푸름캠프2008>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작 교육 형태로 진행함.
- 문학정보고등학교 영상제작반 학생들과 정석항공고 방송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상제작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안미디어로서의 영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음.

○ 교육목표와 내용

- 매 수업시간마다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고, 특히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이 제작한 영상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작품을 구상하는 데 생각의 단초를 던진다거나 고민의 여지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한 창작을 일상적으로 해왔고,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다른 방식의 제작교육이 진행되거나 학교축제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꽉꽉한 일정문제로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보다 부담이 커진 것 같다.
- 그러나 다큐멘터리라는 접근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일상을 영상으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통해 주류미디어에

서 보여주는 영상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 완성된 작품을 상영하면서 서로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 이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각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 개인들, 혹은 성별간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작품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처음 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계획하지 못했으나 서울독립영화제 참여라는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참여자가 소속된 학교에 참여자들이 보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자재가 있었음에도 학교에서 학교 밖에 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 CAMF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이었고 학교가 같은 아이들이 기자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기자재 대여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했다. 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누가 언제 사용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자재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청소년 영상모임 'YET'을 만들어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 종합

- 영상제작이 가능한 지역 청소년들이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학사일정 및 참여자들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시간대로 교육시간 배치.
- 참여자들의 작품을 청소년 영화제 등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청소년 영상모임 'YET'의 활동방향 설정 및 활동 지원 방법 모색.

3) 지역사회 협력 및 위탁교육

영역	교육명	기간
교원직 무연수	2008 교원 특수 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1/8~1/12
	2008 교원 특수 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심화과정>	8/11~8/15
위탁교육	하품학교 영상제작교육	7/17~10/16

(1) 교원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① 사업 내용

■ 교육 목표

- 인천 관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사례 체험 및 방법 모색

■ 교육 대상

- 인천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 학교 교육현장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교사

■ 강사

- 박채은(미디액트) / 이남표(충남대학교) / 오정훈 (미디액트) / 박수경(교사) / 이신정(미디어교육자) / 김은희 (문화예술교육활동가) / 김성희, 김일란(연분홍치마) / 이희랑, 경희령(주안영상미디어센터)

■ 교육 내용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 미디어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
-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 이해
- 이미지리터러시의 개념과 방법
- 미디어 표현 활동 - 이미지 책 만들기 활동
- 미디어 표현 활동 - 영상제작
- 교과과정과 미디어교육에 대한 토론과 모색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1월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을	83
			교육만족도	88
			교육양	85
			내용일치도	74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6
			교수방법	87
			시간효율성	88
			친절성	86
			교자료 적합성	87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7
			센터지원	93
			수강생 수	9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5
			관심도증가	88

			센터신뢰도 증가	88
(5)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83
			강좌추천	83
평가총점				86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학교 교사들은 정규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진 공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삶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길 있음.
- 미디어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한 흐름은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것이나, 정작 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미디어교육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미디어교육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편집교육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수에 참여함.

○ 교육목표와 내용

- 공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교사들이 미디어환경과 미디어교육의 개념, 중요성등에 대해 인식하고 미디어교육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미디어교육의 현황이나 미디어교육의 개념, 미디어의 환경과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이미지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내용 구성.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충분하였음.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인천지역의 학교 교사 미디어활동가 모임의 초동을 형성하기 위해 후속모임을 제안하였으나 구성되지 않음.
- 몇몇의 교사들은 후속으로 이루어진 심화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과 영상활동을 구상함.

○ 종합

-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은 교사들의 미디어활용능력을 증진시키는 활동과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이 복합적으로 현존하는 상태임.
- 학교교사들의 미디어교육인증부족한 상황에서 교사 대상 미디어교육은 활용능력 증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사로서 공교육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방법등에 대한 담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함.

(2) 교원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심화과정>

① 사업 내용

■ 교육 목표

- 공교육의 각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영상제작 중심의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과정에 필요한 학습과 체험을 해봄으로써 교육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

-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영상읽기과 쓰기’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과 함께 학교 교과 과정인 방과 후 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영상소모임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영상읽기 및 제작활동을 지도 운영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직무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인천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미디어교육 유 경험자
- 미디어교육 관련 연수자

■ 강사

- | | |
|--------------|---------------------|
| ○ 원현숙 (미디액트) | ○ 신임호 (영화촬영감독) |
| ○ 표용수 (미디액트) | ○ 안슬기 (영화감독/ 현직 교사) |

■ 교육 내용

- 학교에서 영상소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원리와 영상표현활동의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청소년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원리
- 영화의 기초개념 및 제작과정에 대한 기술 교육(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촬영과 조명, 음향, 편집 등)을 통한 체험 학습
- 영화읽기 교육을 위해 좋은 영화를 선택하고 영화읽기를 진행하기 위한 비평 매뉴얼 교육
- 초/중등 과정별 교과과정에 따라 영상동아리 운영과 교육실행을 위한 기획안 만들고 토론하기.

■ 기록



②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8월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심화과정>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7
			교육만족도	89
			교육양	79
			내용일치도	93

			교사만족도	94
			교수방법	92
			시간효율성	90
			친절성	96
			교자료 적합성	91
			교육환경	96
			센터지원	99
			수강생 수	94
			활용가치	91
			관심도증가	91
			센터신뢰도 증가	97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3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미디어교육 및 청소년영상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로 모집.
- 공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과 미디어활동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이 교육에 참여함.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다양한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교과과정등의 연계를 통해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모색하기는 어려운 상황.

○ 교육목표와 내용

-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학교교사들이 청소년들과 다양한 방식의 영상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영상기술능력을 획득하는것에 기본적인 교육목표를 둠.
- 영상활동을 기획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상기술을 중심으로 교육내용 구성.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충분한 기자재 지원.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교육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현장에서 영상 활동을 기획, 실행하고 있음.
- 이후 문학정보고등학교 자체 직무연수 컨설팅.(カリ큘럼 및 강사)

○ 종합

- 학교 교사 미디어교육의 교육내용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모색하는 학교교사들의 커뮤니티가 교사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3) 하품학교 영상제작교육

■ 사업 개요

- 사업명 : 청소년 및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 주최 : 인천문화재단
- 주관 : 하품학교 회원들

■ 교육목표 : 영상언어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나'를 영상언어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하품학교 회원 6명

■ 강사 : 이희랑 (CAMF 교육팀 스텝)

■ 교육 내용

- 영상이미지로 '나'를 표현하기
- 영상이미지 표현의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 알기
- '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하고 구성하기
- 디지털캠코더 원리와 편집 원리 알기
- 영상작품으로 상영하고 소통하기

■ 기록



② 사업 평가

■ 운영자 평가

○ 교육대상 분석

- <하품학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해온 아줌마들.
- 2007년 주민제안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제작 교육을 경험한 교육생들 참여.
- 교육결과물로 상영회를 구상중이었으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였음.
- 서로간의 친밀감이 높으며, 남구학산문화원 회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해옴.

○ 교육목표와 내용

- '나'를 표현하는 영상이야기 만들기와 상영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타인과의 소통 경험을 한다는 것을 주요 교육 목표로 설정함.
- '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해보는 일련의 영상제작 교육과정으로 내용 구성.

○ 기자재를 비롯한 센터의 지원

- HDD캡코더와 프리미어프로CS3로 교육.
- <하품학교>의 일정으로 인해 편집 실습 시간이 추가로 배정되어 멀티교육실 지원.

○ 후속 교육 및 미디어활동의 연계

- 교육결과 영상물을 <하품학교> 상영회에 상영.
- <하품학교> 회원들로 이루어지는 영상동아리 결성.

○ 종합

- 2년에 걸쳐 <하품학교> 회원 영상제작교육을 위탁하였으며, 읽기와 함께 생산 및 제작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함.
- 상영회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일상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4) 교사양성 사업

(1) 미디어교육 자원활동가 운영

① 사업 내용

■ 사업 목적

- 주강사 보조강사와 더불어 미디어교육 자원활동가와 함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 이해를 높인다.
- 미디어교육 자원활동가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 사업 방향

- 교육자원활동가들에게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기초교육 실시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보조함으로써 교육활동 기회 제공
- CAMF의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워크샵을 통해 재교육
- 교육활동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기적인 관계 형성

■ 기간 : 2008년 5월~2008년 12월

■ 대상

- 미디어교육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지역의 관련 전공 대학생들, 문화 및 미디어관련 자원활동 유경험자들

■ 사업 내용

- 미디어교육에 대한 기초 교육 실시
- CAMF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교육 보조 활동
- CAMF의 미디어교육 자원활동가 커뮤니티 활동
- CAMF의 미디어교사 양성 워크샵 참여

■ 참여자 명단

영역	이름
실버미디어교육	황승용
여성미디어교육	이란희, 고민희, 황현정

② 사업 평가

■ 운영자 평가

○ 대상 및 목표 설정

- 찾아가는미디어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함과 동시에 미디어교육 활동가의 저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접근함.
-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거나, 미디어교육을 받은 사람들,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미디어교육의 현장을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
- 지역의 다양한 미디어활동가들과 센터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짐.

○ 홍보와 조직

- 센터 메일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홍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센터를 인지하지 못한 지역의 다양한 미디어 관계 집단들에게 타겟 홍보를 하지 못함.
- 지역내 연관 대학이나 단체등에 설명회 및 홍보를 조직할 필요 있음.

○ 후속효과

- 센터의 미디어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에 참여.
- 센터의 다양한 사업 및 미디어교육 활동에 참여.

(2)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워크샵

■ 사업 목적

-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프로그램화하여 미디어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발굴 한다.
- 지역 기반의 미디어교육 교사집단을 형성한다.

■ 사업 방향

-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교사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내용을 프로그램화한다.
- 이론과 실습교육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을 배치함으로써 교사 교육 이후 자기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교육과정에서 지역의 미디어교육교사모임을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 사업 개요

- 주관 : 남구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기간 : 2008년 11월~2009년 12월
- 대상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지원활동가
 - 미디어교육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지역의 관련 전공 대학생들
- 문화 및 미디어관련 활동가들
- 미디어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들

■ 사업내용

- 미디어교육 기초이론과정 교육
- 미디어교육 기초기술과정 교육
- 미디어교육 연구과정 교육
- 수료자에 한에 수료증 발급

■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08년 10월 22일~11월 5일
- 모집방식 : 홈페이지 공고, 언론보도, 관련 웹사이트 홍보 및 메일링 별송
- 모집대상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지원활동가
 - 미디어교육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지역의 관련 전공 대학생들
 - 문화 및 미디어관련 활동가들
 - 미디어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들
- 지원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edu@juancamf.or.kr) 또는 전화(032-872-2622) 접수
- 제출서류 :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워크샵 지원 신청서 (양식1참조)

■ 교육생 선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담

■ 수료 조건

- 전체 교육시간 80% 이상 출석
- 수료작품 및 미디어교육 기획서 제출

■ 커리큘럼

영역	회차	날짜	주제	내 용	강사
왜? 미디어 교육을 하는가	1강	11월 7일	교육활동과 교육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문화의 관계 인식 ○ 사회변동과 교육의 관계 인식 ○ 교육 철학 	고병훈
	2강	11월 8일	미디어교육의 역사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의 역사 ○ 미디어교육의 유형별 특성과 현황 ○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오정훈
	3강	11월 8일	미디어시장 vs 대안미디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산업 환경과 국가정책의 현황 ○ 미디어시장 vs 대안미디어운동으로서 미디어교육 	허경
	4강	11월 14일	지역공동체와 미디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운동의 개념 ○ 공동체미디어교육의 지향 	지경
어떻게? 미디어 교육을 해볼까	5강	11월 15일	스토리텔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의 중요성과 방법 ○ 교육방법 및 활동에 대한 토론 	문정현
	6강	11월 15일	영상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의 원리 및 영상언어 ○ 교육방법 및 활동에 대한 토론 	문정현

	7강	11월 21일	스토리텔링2	○ 스토리텔링하기의 다양한 방법과 사례들	지경
	8강-9강	11월 22일	시각미디어 리터리시	○ 시각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과 방법 -사진 읽기와 사진말 만들기 -광고사진과 보도사진 읽기	이신정
	10강	11월 28일	미디어에 대한 이해	○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이해 ○ 교육방법 및 활동에 대한 토론	박채은
	11강	11월 29일	DV의 기술적 기초	○ DV의 기초 ○ 영상미디어교육(제작)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초 기술	원현숙
	12강	11월 29일	편집원리	○ 편집원리를 교육하기 ○ 교수방법 및 내용	원현숙
	13강 -14강	12월 5일	'나'를 말하는 영상에세이 만들어 보기	○ 제작과 평가	원현숙
다양한 사회구성원 들과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15강	12월 13일	장애인미디어교육	○ 장애인과 함께 하는 미디어 교육 -발표와 토론	박종필
	16강	12월 13일	노인미디어교육	○ 어르신과 함께 하는 미디어 교육 -발표와 토론	문정현
	17강	12월 13일	청소년미디어교육	○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미디어 교육 -발표와 토론	정혜정
	18강	12월 13일	여성미디어교육	○ 여성과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발표와 토론	김성희
내가 하고 싶은 미디어 교육을 그리다	19강	12월 19일	미디어교육 기획과정이란	○ 미디어교육 기획과 실행까지의 프로세스	정혜정
	20강	12월 19일	대상 분석하기	○ 미디어교육 대상 조사 분석하기	
	21강	12월 20일	교육기획서 만들기	○ 나의 교육기획을 발표하고 토론 하기	

■ 기록



② 사업 평가

■ 참여자 평가

8월		미디어교사양성워크샵		
평가 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6
			교육만족도	89
			교육양	80
			내용일치도	89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1
			교수방법	91
			시간효율성	78
			친절성	99
			교자료 적합성	94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0
			센터지원	94
			수강생 수	99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4
			관심도증가	95
			센터신뢰도 증가	94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2

■ 운영자 평가

○ 대상 및 목표 설정

- 지역의 미디어교육활동가를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로 참여대상 한정.
- 학교교사, 대학생 미디어활동가, 문화예술활동가, 청소년교육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자들로 구성됨.

○ 교육 내용

- 미디어교육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교육 철학과 미디어교육 개념 및 방향 설정을 위한 미디어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 구성.
-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교육활동가들의 교육 특강 배치.
- 교육대상과 목표, 내용을 시뮬레이션하고 토론함.

○ 홍보와 조직

- 미디어교육 자원활동가들 조직.
- 남구학산문화원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정보 메일링을 통해 홍보.
- 지역의 젊은 미디어활동가를 타겟화하는 홍보 미흡.

○ 후속효과

- 지역의 미디어교육 활동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초동모임 형성.
- 토론과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가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미디어교육 내용을 연구 생산할 수 있는 집단적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

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2008청소년 캠프

① 사업 내용

■ 사업주최

- 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 후원 : 문화관광체육부

■ 목적

- 미디어·영상 관련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구축 및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도모와 미디어·영상분야의 잠재인력을 조기 발굴, 지역의 영상문화진흥에 기여
-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자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폭넓은 영상문화 체험기회를 제공.

■ 사업내용

- 기간 : 7월 30일~8월 2일
- 장소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안동 일대
- 캠프명 : 청푸름 미디어캠프 2008 'YOUTH WHO'
- 캠프일정

시간	첫째날-30일 (만남의 날)	둘째날-31일 (창작의 날)	셋째날-1일 (소통의 날)	넷째날-2일 (우정의 날)
08:00	개별센터 집결	기상, 아침식사	기상, 아침식사	기상, 아침식사
09:00	대구출발 및 이동	대강당 집결	집결	대강당집결
10:00		안동출발	대구출발 (셋트장 경유)	퇴소식
11:00	대구집결 (대구공업대학)	전통체험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	대구집결(미디어센터)	개별센터 이동
12:00		중식		
13:00	대강당 집결 (입소식 및 레크리에이션)	래프팅	작품제작 I (편집 및 완성)	
14:00				
15:00				
16:00	센터별 작품발표	한국전통문화체험 (숙박지 집결)		
17:00				
18:00		석식		
19:00	조별 숙소배정 (제작기획서 작성)	조별촬영(계속)	작품제작 II	
20:00				
21:00			작품발표/품평회 레크리에이션	
22:00				
23:00		스텝회의, 취침		

② 사업 결과 및 평가

■ 사업결과

- 전국 중·고등학생 50명 사전교육 및 캠프 참가
- 전국 대학생 12명 보조강사로 참여
- 2008년 7월까지 실제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관(예정포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5곳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집행한 최초 사업으로써 5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 3박4일간 진행하는 캠프의 원활한 진행과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별사업과 공동사업간의 유기적 결합을 목적으로 사전교육 진행 - 영상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제작 기초 교육
- 청소년캠프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총 10개조 10작품 제작

팀명	제 목	장 르	작품길이
1조	그들 각기의 이야기	다큐	05분 06초
2조	시험 중 공감 多반사	단편	05분 31초
3조	3박 4일 완소들의 캠프	다큐	04분 12초
4조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단편	02분 17초
5조	내 여자라니까	단편	02분 41초
6조	신 춘향전	단편	04분 55초
7조	Enjoy in 하회마을	다큐	01분 57초
8조	매너유랑단	단편	02분 20초
9조	지금 다가갑니다	다큐	04분 27초
10조	잘못된 만남 (신세대 춘향이)	단편	04분 11초

- 캠프 참가작 DVD 제작
- 2008년 9월 12일 RTV [미디어로 여는 세상] 방송

■ 기록



■ 사업평가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별로 사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별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영상미디어 제작 기초 능력을 지니고 캠프에 참여하게 함.
- 또한 사전교육은 캠프를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일상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수행.
- 특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사전교육=>캠프=>지역사회청소년영상제작교실]의 과정을 구성하여 7개월 동안의 청소년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 청소년영상미디어캠프의 안정적 운영과 조별 작품 제작 및 상영을 통해 영상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성을 드러냄.
- 영상제작을 위한 기자재, 시설,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들의 공동사업을 통한 영상미디어캠프의 차별성 확보.
- 총 10개조 10작품 제작 및 메이킹 영상 1작품 제작.
- 역시 사업 결정부터 추진까지의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실무자 서로가 원활한 논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였다.
- 또한 첫 번째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캠프 진행에 있어서 신속한 결정과 통일된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교재 개발

① 사업 내용

■ 사업주체

- 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 후원 : 문화관광체육부

■ 목적

-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민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의 방향에 대해 사고한다.
- 교자료 구축과 공유, 교재제작을 통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아카이브의 기초를 마련한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교육방향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기초토대를 형성한다.

■ 방향

- 어린이와 성인으로 이분화하여 영상미디어교육 통합교재 2종을 개발한다.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참여자의 일상과 관계로부터 시작된 스토리텔링, 영상제작의 기초 기술에 대한 이해, 소통에 대한 민주주적 개념 이해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영역을 구성한다.
- 교육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 포맷(DVD)의 교재를 추가 제작한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 결과 영상을 모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 세부 계획

○ 현황 조사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 현황 조사 및 공유
- 교육 장비 및 시설 현황 분석

- 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필수 요구 사항 분석

○ 교재개발 방향 설정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설정 및 공유
- 공동 미디어교육 과정 선정 및 교재 개발 방향 제시

○ 개발팀 구성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담당자, 미디어교육 교사, 미디어/교육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팀 구성

○ 교재 개발

- 프로그램 개발에 맞춰 교재 구성 및 교육 자료 생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교재집 출판
- 교육 자료를 포함한 디지털 교재 제작

○ 교육 실행 및 수정 보완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제 교육으로 실행하면서 평가 및 수정 보완

○ 공동교재 개발 사업의 간사 선정

- 전체 추진 계획에 따른 회의 소집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간 소통 매개자 역할
- 예산 집행 및 정산 취합

○ 지역별 연구 개발팀 구성

-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1인 이상, 미디어교육 교사, 교육영역에 따른 전문활동가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

○ 교재 및 교자료 출판 실무를 위한 출판팀 구성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교재 개발 사업 추진 실무자 2인
- 종이교재 편집과 디지털교재 제작을 위한 실무진 구성

■ 진행 과정 개요

- 사업 기간 : 2008년 6월~12월
- 교육현황조사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교육 현황 수집 및 공유
- 교육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
- 지역 중심으로 개발팀 구성
- 성인 영상미디어교육
 주안/천안 : 미디어의 이해/소통에 대한 이해
 제주 : 기획과 스토리텔링
 대구 : 촬영
 김해 : 편집
 - 어린이영상미디어교육
 주안/ 제주 : 미디어의 이해 및 읽기, 제작과정에 대한 기초 내용

- 팀별 회의 및 교재 집필 - 기존 교육프로그램, 교재 분석/ 집필방향 설정/ 책임 집필 및 토론
- 중간 워크샵 : 교재 내용 중간 점검 및 보완 수정 내용 공유
- 최종집필과 편집
- 출판 워크샵을 통한 공유

■ 교재개발 연구 참여자

김성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사 / 연분홍치마 활동가
박채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문정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사 / 푸른영상
김승욱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강사
정재경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강사
차재국	김해영상미디어센터 강사
안선영	김해영상미디어센터 강사
정혜정	진주미디어교육활동가
김인자	일러스트
이문교	제주관광대학 방송사진영상과
김영덕	전 제주MBC 제작국장
장지욱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경희령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진중두	김해영상미디어센터
변금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김재훈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이희랑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기록



② 사업 결과 및 평가

■ 사업 결과

- 미디어센터와 함께 하는 영상미디어교육 (교육생 영상예제 활용 DVD 1종 포함)
- 네모난 눈 동그란 세상 어린이영상미디어교육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결과 영상 모음(1)(2)



■ 사업 평가

- 6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역별 개발 회의와 전체 개발회의의 유기적 논의 구조 형성.
- 미디어교육에 대한 각 지역별 노하우와 고민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스텝, 미디어교육 교사, 지역 미디어 활동 가 등의 논의를 통해 담아냄.
- 개발한 교재에 대해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에서의 활용을 통해 수정 보완 계획 공동으로 마련.
- 교육생 영상 모음 DVD 제작 및 영상 예제 부록 DVD 제작으로 미디어교육을 위한 영상자료 확보 및 공유 틀 마련.
 - 각 지역별 사업 추진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공동교재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 또한 개발자들 간의 회의를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일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이로부터 의사소통과 결정이 더디게 진행 되었다.
 - 2종의 교재개발 비용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였다.

6) 찾아가는미디어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1) 사업 내용

■ 목적

-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는 지역의 사회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권리와 미디어교육권리 신장.
- 지역 공동체들의 민주적 소통과 자치,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지향하는 공동체 미디어활동의 활성화.

■ 방향

- 유료와 무료지원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형태로 지원 실행
- 미디어교육, 공동체미디어활동,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공동체 및 단체 지원

■ 기간 : 2008년 9월~2008년 12월

■ 대상

-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에 소재하는 개인 혹은 단체.(상업적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형태

- '가'형 지원: 지원 기자재를 유료로 이용
- '나'형 지원: 지원 기자재 할인 이용
- '다'형 지원: 지원 기자재를 무료로 이용

■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지원여부 결정 -> 이용료 지불(무료이용의 경우 예외) ->
- 이용 및 반납 -> 교육결과물 제출(유료이용의 경우 예외)

■ 지원기자재 구성

분류	품명	모델	세부구성	구비수량	대여비 1일 기준
촬영	디지털 캠코더	JVC GR-DV3000KR	■ DV3000 본체 ■ 충전기 ■ 배터리 ■ 카메라 케이스	8대	5천원
편집	데스크탑 컴퓨터			15대	5천원
	노트북			6대	1만원

*편집프로그램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모집방식 : 홈페이지 공고
- 모집대상 :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에 소재하는 개인 혹은 단체.
- 지원방법 : 서류작성 후 이메일(juan-edu@juancamf.or.kr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찾아가는미디어교육 기자재 지원 신청서 1부 (양식1참조), 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증 1부(개인), 단체등록증 1부(단체)

■ 지원여부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및 알림

② 사업 평가

■ 운영자 평가

○ 목표와 대상

- 지역의 미디어교육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지원
-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와 시설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함.

○ 홍보

-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홍보함.
- 연중 지원사업인 만큼 연중 표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지원 기자재 및 방법

-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원 기자재로 수요문제를 검토할 필요 있음.
- 지원 기자재로 구성되어 있는 데스크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대안미디어사업

1) 공동체미디어사업

(1) 우리마을TV 시범사업

① 사업내용

■ 사업목표

- 공통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이 교통하는 동일 지역 주민들이 영상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을 확대.
- 자신들의 일상과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소식들을 지역 상영회, 웹, 방송 등을 통해 소통.
- 지역 공동체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사업 방향

- 영상 미디어가 마을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우리 마을 TV를 운영하는 지역 주체를 형성한다.
- 시범 사업의 성과를 모델로 정리하여 인천지역 전체로 확산한다.
- 다양한 소통 채널을 실험하여 우리 마을 TV에 가장 알맞은 소통 채널을 찾는다.

■ 사업 기간 : 2008년 3월 ~ 12월

■ 사업 대상 :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 사업 내용

○ 영상소식지 제작

동조합의 행사 소식과 소모임 활동 등을 영상소식지로 제작하여 상영하는 사업이다. 2007년에도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교육과 기자재 지원을 하였고,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 2008년에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영상소식지는 봄호, 여름호, 가을호 총 3차례 제작되었으며, 제작팀은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조합원1인과 자원활동가 2인, 영상소모임 교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 교육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영상소식지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영상 소모임이다. 소모임에서 생산된 이야기를 영상소식지로 담아내고, 소모임 구성원이 영상소식지의 리포터나 제작팀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마을TV 시범사업 활동보고서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3월	
보고자	김 수 목			
활동 내용	<p>1. <영상소식지 2008년 봄호 제작></p> <p>1) 2월초 - 3월 말 : 이야기 촬영 및 가편(촬영팀장 김성애님이 현재 진행중) 가정주부인 관계로 집안일로 가편집 진행이 늦었다. 가편집의 중간에 2차례 편집진행에 대한 조언을 진행함.</p> <p>2) 4월초 : 소식지 종편 및 액세스 예정</p> <p>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p> <p>1) 소모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논의 : 3월 4일 영상소식지 촬영팀장(김성애) 평화생협 사무국장(송영석) 영상소식지 자원활동가(최영준)</p> <p>2) 소모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3월 22일 : 영상소식지 촬영팀장(김성애) 평화생협 사무국장(송영석) 총 6명 모집</p> <p>3) 영상이야기 소모임 교육기획 3월 19일 : 영상소식지 촬영팀장(김성애), 영상소식지 자원활동가(최영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성의 교육이 아니라 소모임 형태로 지속적인 모임을 진행 - 교육 진행은 김수목, 교육 조교는 최영준 - 소모임의 핵심 조직기는 김성애가 담당함 - 진행은 디카를 중심으로 자신과 주변 가족의 이야기를 촬영해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 교육 성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소모임의 계속적 활동 속에서 영상 촬영과 편집에 재미를 가지고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활동 중점을 둔다. - 교육 성과의 일부는 영상소식지의 스스로 활용한다. - 소모임 진행 중 동영상제작등에 관심을 가지는 회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해서 영상소식지 자원활동가로 성장시킨다. </p> <p>4) 영상이야기 소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6일 10시 첫모임 - 교사 및 조교 : 김수목, 최영준 - 참여자 : 조합원 5명(1명은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함) - 진행내용 : 모임 이름 정하기 : <들국-카> 정기모임 일정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평화생협 조합사무실 4월 4일 준비물 : 디지털 카메라 - 평가 : 첫 모임이어서 서로간의 소개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수다떨기를 진행한 후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다.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여 첫모임으로는 좋은 성과를 냈다. </p>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4월	
보고자	김 수 목			
활동 내용	<p>1. <영상소식지 2008년 봄호 제작></p> <p>1) 제작 - 4월 중순 : 가편집 김성애 촬영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7일 : 아나운서 촬영 - 4월 말 : 종편 박경수 자원미디어 활동가 </p> <p>2) 상영 - 평화생협 대기실 TV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생협 홈페이지 사랑방게시판 상영 http://icmedcoop.or.kr/board/list.php?forum=bbs - 조합원 VHS 및 CD배포 </p> <p>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p> <p>1) 4월 4일 : 모임 점검 김성애, 김수목, 최영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운영계획 </p> <p>2) 4월 11일 : 교사외 4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 - 공원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생협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기 </p> <p>3) 4월 18일 : 교사 외 5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생협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기 </p> <p>4) 4월 22일 : 교사 외 5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 꾸며보기 </p>			

	<p>5) 4월 28일 : 교사와 2인과 특강교사 1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하는 사람한테 포토샵과 무비메이커 배우기 - 조합원 중 상기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보는 프로그램
--	--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5월
보고자	김 수 목		

활동 내용	<p>1. <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6일 : 여름호 제작 기획회의 : 송영석(사무국장), 김성애(촬영팀장), 최영준(자원활동가), 김수목 <p>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월 3일 : - 평화생협 산행소모임의 도봉산, 사페산 산행 촬영 2) 5월 9일/16일 : - 수강생 참여 부족으로 모임 무산 3) 5월 23일 : 교사와 3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호수공원 촬영 - 공원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생협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기 4) 5월 26일 : 교사 외 3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비메이커 제작 강좌 - 스틸 사진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메일로 보내기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6월
보고자	김 수 목		

활동 내용	<p>1. <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4일 : 조합원 한마당 촬영 (김성애, 최영준) - 6월 26일 10시 : 여름호 기획회의 (김성애 촬영팀장, 송영석 사무국장, 최영준 코디네이터, 박경수 자원활동가) <p>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3인 참석 - 인천평화의료생활협 송영석 사무국장과 특강 진행 - 특강목적 : 카페 운영 및 일상 활동에서 사진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자 함 - 특강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꾸미기 (평화의료생활 혼페이지- 소모임 디카교실방 게시글 15번 참조) [포토샵]을 이용하여 여러 사진의 일부분을 하나의 사진에 모아서 원하는 사진을 만드는 방법 [알 gif]를 이용하여 사진 2장으로 움직이는 영상 만들기 2)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2인 참석 - 지난 12월에 진행된 디카교실 모임이 2008년 봄호 평화의료생활 영상소식지에 한 꼭지를 장식하였고, 지난해 참여하셨던 어머니 3분이 이번 모임에도 참여하시는데, 만들어진 영상을 함께 보고 그 때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됨. - 디카 교실 꼭지뿐만 아니라, 다른 꼭지들을 보면서 평화의료생활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주변 인물과 배경 등을 보며 많이 웃기도 함. 3)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2인 참석 - 촬영한 사진 감상 / 접사 촬영 교육 4)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2인 참석 - 영상편지 제작 1차 기획 : 가족이나 친구 등 대상을 정하고 사진을 이용해서 편지를 보내는 영상편지를 제작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다음 모임에서 그동안 촬영한 집안의 사진들을 가져오기로 함 5)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1인 참석 : 사정이 있으셔서 3분이 참석 못하고, 참석하신 한 분과 1시간여 조촐히 진행. - 6월 23일 모임에서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하여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보자란 이야기를 했었음. 이번 영상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것. 참석하신 분이 가족과 함께 산행을 했던 사진(가족에게 선물할 예정이라 함)을 가지고 오셔서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과 사진 불러오기를 해보고, 알씨를 이용하여 꾸민 사진을 다시 저장하는 것과 평화의료생활 혼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을 설명.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7월
보고자		김 수 목	
활동 내용			<p>1. <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호 제작 : 지역촬영팀장 김성애님이 병으로 요양 중 - RTV 액션V 프로그램에서 2008년 7월 10일 두차례 평화의료생협 영상소식지 영상보고서를 평화의료생협 영상소식지팀과 자원활동가가 자체 제작하여 방영 <p>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월 7일 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2인 참석 - 6월 모임에서 원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하여 사진 슬라이드 영상 만들기를 하기로 함. 어머님 한분이 노트북과 여행갔었던 가족 사진을 챙겨오셔서 원도우 무비 메이커로 작업. 넣고 싶었던 사진들이 많이 없어서 집에서 더 보충하기로 함. 사진들을 보면서 서로 여행갔었던 얘기들과 가족 얘기를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냄. 2) 7월 14일 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수업 못함 3) 7월 21일 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논의(김수목, 최영준) - 모임이 잘 진행되지 않는것에 대한 대책회의. - 방학기간이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자제를 둔 어머님들이 수업과 모임을 부담스러워하시는 상황. 8월 한달은 오프라인 모임이 없는 방학으로 하면서 집안의 휴가여행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평화생협 홈페이지에 올리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았음. 4) 7월 28일 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2인 참석 - 서로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임 방향 논의 - 8월 일정에 대해 이야기 함 : 영화를 보려가자 / 휴가철이니 월요일에 계속 모이기보다는 유통성 있게 조절하면서 느슨하게 가자 / 8월까지는 어머니들이 방학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니 온라인으로 사진을 올리면서 소통을 하고 9월부터 다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꾸려가자.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8월
보고자		김 수 목	
활동 내용			<p>1. <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 제작></p> <p>□ 제작진행</p> <p>8월의 영상소식지 제작팀의 활동의 주요 내용은 2008년 여름호에 사용될 9개 뉴스 끈지 의 촬영을 완료한 것입니다. 꼭지의 내용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8년 1,2차 대의원 간담회 2. 2008년 대의원총회 3. 나눔 장터 : 스케치 및 이웃사랑교회 송규희 목사 및 임종한 한국의료생협연대 대표 인터뷰 4. 강화도 평화의료생협 임직원 수련회 5. 영화이야기 : 김석중 원장의 영화소개 6. 영상릴레이편지 ; 박옥경선생님이 정연순조합원에게 드리는 영상 편지 7. 대의원 교육 이모 저모 8. 노인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의료생협 방문의 날 9. 재가간병팀 등대모임 인천대공원 야유회 탐방입니다. <p>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의 제작은 촬영팀장의 건강문제와 여름휴가 등으로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p> <p>□ 영상소식지 제작 활성화를 위한 논의</p> <p>2008년 7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RTV 액션V 프로그램에서는 평화의료생협 영상소식지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소식지 제작팀과 RTV 액션V제작팀 그리고 다른지역의 커뮤니티 미디어 활동가들간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p> <p>기본적인 논의는 영상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영상매체라는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이 저절로 이야기를 소통시키는 것은 아니며 당연하게도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소통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선행하거나 또는 영상매체를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생협은 그동안의 활동기간에 영상제작의 물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적인 제작인력이 형성된데 비해 이야기가 소통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p>

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

8월은 참여자들의 여름 휴가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온라인상의 블로그와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여름휴가 때 가족사진을 올리고 이를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8월 후반에는 그동안 배운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휴가 사진을 편집하였습니다.

1) 8/4 8/11 : 여름 휴가

7월 모임 후반기에 이야기 된 바와 같이 두주는 여름휴가로 교육은 휴강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휴가 기간 중 가족들을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교사들은 촬영 소재와 사진에 담을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었습니다.

2) 8/18 : 어머니 3분 참여

휴가 중 촬영한 가족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배운 대로 사진들을 모아서 디지털앨범을 제작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휴가 중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서로 어떤 이야기가 어떤 모습으로 촬영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3) 8/25 : 어머니 4분 참여

지난주에 만들어 본 휴가 중 촬영한 디지털앨범을 인터넷 메일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디지털 앤범을 감상한 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9월
보고자		김 수 목	

1. <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 제작>

제작진행

9월초 가편집이 완료되고 월말에 방송되어야 할 영상소식지 제작이 가편집을 담당하는 촬영팀장 김성애님이 편집 컴퓨터의 장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집안문제로 가편집을 진행하지 못해서 전 척되지 못했습니다. 소식지 제작이 너무 늦어져 비상조치로 가편집까지 최종편집팀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촬영 원본테잎을 인계받았습니다.

다음 10월에는 여름호 제작 방영과 동시에 가을호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작팀 기술 교육

가편집을 담당하는 촬영팀장 김성애님이 사용하는 편집컴퓨터가 집에서 영상편집 외에 다른 일상업무와 게임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장애로 심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편집프로그램의 재설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컴퓨터를 윈도우즈 기반부터 재설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재설치와 편집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편집프로그램의 사용에서 사운드의 처리와 조절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였습니다.

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

그동안 열심히 참여한 어머니들과 교통사고나 집안일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들 사이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 처리를 하여 인터넷 등에서 소통하는 능력에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질하고 계신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그동안 참석하지 못한 어머님들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육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 9/1 : 어머니 4분 참여

그동안 촬영하였던 사진들을 보면서 사진 촬영에 있어 소재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이즈와 구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된 교육 내용이어서 처음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오히려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2) 9/8 : 어머니 3분 참여

포토샵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명암이나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배워보았습니다. 기존에 포토샵을 이용해 본 어머니와 그렇지 못한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들 기본적인 처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3) 9/15 : 어머니 2분 참여

어머니들이 일이 있으셔서 많이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사진을 배우면서 재미있었던 일과 느낀점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4) 9/22 : 어머니 4분 참여

촬영한 사진을 모아 무비메이커를 이용하여 배경음악을 가진 영상앨범을 제작하고 이를 CD로 제작하는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5) 9/29 : 어머니 3분 참여

조합원 한마당 행사에서 사용할 디카교실 홍보물 제작을 같이 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10월
보고자	김 수 목		
<p>1. <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 및 가을호 제작></p> <p>□ 제작진행</p> <p>최종편집을 담당하는 미디어 자원활동가가 박경수에서 이기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기태활동가의 경우 공동체미디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노동자, 장애인들과 함께 평화의료생협영상소식지와 같은 코뮤니티미디어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이기태 활동가는 가편집과 최종편집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및 의원내 진료대기실 상영을 시작하고 현재 VHS Tape 과 CD배포중이며 위성방송 RTV에 방영신청 중입니다.</p> <p>김성애 촬영팀장은 2008년 가을호에 들어갈 조합행사와 이야기 꼭지들을 촬영중입니다.</p> <p>가을호 또한 시기적으로 늦어진 관계로 11월말까지 제작완료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p> <p>mms://wm-002.cafe24.com/ilsee/movie/.wmv 〈a href="mms://wm-002.cafe24.com/ilsee/movie/peacenews2008su.wmv"〉 동영상 보기</a〉</p> <p>□ 제작팀 기술 교육</p> <p>새로운 자원활동가 이기태에게 코뮤니티 미디어활동에서의 중요한 지점들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p> <p>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는 곳에 카메라라는 미디어매체가 들어간다고 저절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이야기가 소통되는 사람들간의 관계와 시스템 그리고 이 관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코뮤니티 미디어 활동가(내부 및 외부 자원)들의 관점이 중요하다. 3. 그러므로 평화의료생협과 다른 공동체에서 모두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소통되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술적인 것은 외부의 자원활동자가 감당하면서 시작하고 이후 점차로 기술적인것도 내부의 조합원이나 활동가가 담당하도록 기획해야한다. <p>이상의 3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p> <p>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6 : 부개 상동호수공원 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메밀꽃이 활짝 핀 부개 상동호수공원을 찾아 야외 촬영을 했습니다. 2) 10/13 : 인천평화의료생협에서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어머니 지난 시간에 찍은 사진들을 함께 보고 사진 꾸미기를 했습니다. 이날 서로의 사진들을 보다가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어 남이섬으로 촬영을 가지는 얘기가 나왔고 자연스레 다음 일정은 남이섬으로 결정 3) 10/20 : 남이섬 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오전 일찍 어머니들과 함께 남이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가기 전에는 차도 밀리고 거리가 좀 멀어서 걱정을 했던 어머니들도 도착하고 도심을 벗어나 간만에 바람을 쐬니 너무들 좋아하셨습니다.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 산시춘도 맛나게 먹고 남이섬으로 들어가서 재미있게 사진 촬영 하고 있었습니다. 4) 10/27 : 하늘공원 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계절이 가을이니만큼 야외로 나가는 활동을 한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역사가 유명하다는 하늘공원으로 사진 촬영을 갔습니다. <p>** 야외로 사진 촬영겸 바람을 쐬면서 어머니들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듯 합니다. 비슷한 환경이신만큼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여러 정보도 주고받고, 즐거워하시고</p> <p>11월에는 야외 촬영과 편집을 병행할 예정이고, 사진꾸미기, 사진으로 이야기하기(무비메이커), 블로그 만들기 등을 해 볼 계획입니다.</p> 			
활동 내용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11월
보고자	김 수 목		
<p>1. <영상소식지 2008년 가을호 제작></p> <p>□ 제작진행</p> <p>김성애 촬영팀장이 2008년 가을호에 들어갈 조합행사와 이야기 꼭지들을 촬영완료 했고 가편집 완료 후 10월 28일 아나운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p> <p>mms://wm-002.cafe24.com/ilsee/movie/peaceweb2008au.wmv 〈a href="mms://wm-002.cafe24.com/ilsee/movie/peaceweb2008au.wmv"〉 동영상 보기</a〉</p>			
활동 내용			

□ 제작팀 활동 평가 및 개편 계획
 10월 28일 아나운서 촬영 후 활동 평가 및 개편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초기에는(소식지 제작하기 시작한 3년전) 조합원들의 호응이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TV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영상소식지가 3년
 간 계속되면서 이제는 그러한 것만으로는 조합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합 소식을 단순전달하
 는 뉴스형식에서 탈피해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소식은 전체 2-3분 정도에 7-8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뉴스형식으로 대폭 축소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형식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
 다음 겨울호에 시험개편으로 독거노인등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간병팀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자. 김성애 촬영팀장이 스케치를 하고 이를 지역의 미디어활동가와 같이 관람하고 제작지원을 받도록 하자.

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

- 1) 11/3 : 인천대공원 출사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낙엽이 쌓인 대공원의 여러 모습을 스케치하였다.
- 2) 11/10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지난 주 대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같이 보면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러그에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 3) 11/17 : 서울 선유도 공원 출사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늦가을 선유도 공원에서 한강과 숲이 어우러진 모습을 스케치하였다.
- 4) 11/24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지난 주 선유도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같이 보면서 사진에 대한 평가를 나누었다.

사업대상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월	2008년 12월
보고자		김 수 목	

1. <영상소식지 2008년 여름호 및 가을호 제작>

□ 제작진행
 가을호는 이기태 자원활동가가 제작완료하여 의원 상영을 진행중이고 RTV방영신청 상태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김성애 촬영팀장이 재가간병팀의 활동을 디지털 사진과 캠코더로 1시간 30분 정도의 분량
 으로 스케치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조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12월 15일 김성애 촬영팀장이 스케치한 영상을 박경수 자원활동가와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스케치한 수혜자의 모습이 전형적이지 못해 보다 다른 모습을 촬영할 필요가 있고 재가간병활동이 2주간격으로
 봉사자가 로테이션 하는 관계로 봉사자의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촬영을 진행해 보자고 논의되었습니다. 다시
 2주간 촬영 후 촬영영상을 같이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연말 조합원 송년회 등 조합활동 스케치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2. <영상이야기 소모임 “들국카”>

- 1) 12/1 :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사진영상 만들기 1>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10월, 11월 야외사진촬영 결과물과 가족여행 등 각자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컴퓨터로 사진 불러오기
 - 사진 정리하기
 -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사진 불러오기와 타임라인 상에서 사진 배열하기
 노트북을 각자 가지고 와서 작업하였고 김왜진 어머니는 수목의 노트북으로 작업하였음. 김왜진 어머니는 작년에
 한번 만들어본 경험은 있지만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작업하였고, 박상임 어머니는 올해
 5, 6월에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개인 작업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림. 김성애 어머니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잘 다룰 줄 아심.
- 2) 12/8 :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사진영상 만들기 2>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지난 시간에 이어 편집하기 계속..
 - 사진 배열하고 길이 맞추기
 - 음악 다운받기,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불러와서 깔기
 - 사진에 전환효과 주기
 노트북으로 편집 작업 진행
 김성애 어머니는 집에서 만드셨는데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오셔서 편집 작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파일로 만드는 방
 법과 컴퓨터에 올리는 방법 설명. 다른 어머니들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편집 작업 계속하심. 어머니들이 포토

활동 내용

	<p>이나 알씨를 이용하여 사진꾸미기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함.</p> <p>3) 12/15 : 서울 선유도 공원 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사진영상 만들기 3) <p>지난 시간에 이어 편집하기 계속. 마무리 음악 맞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과 제작진 넣기 ○ 사진에 전환효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넣기 ○ 파일로 만들기 ○ 컴퓨터에 올리는 방법 설명 <p>노트북으로 편집 작업 진행</p> <p>세 분 다 사진영상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셨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눔. 컴퓨터에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림. 10월, 11월 야외촬영을 거치면서 어머니들이 서로에 대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는 것 같더니, 이젠 등산모임도 같이 가시고 서로 정보들을 나누며 나들이 계획도 세우시는 모습. 눈이 오면 다시 야외촬영을 가자는 얘기를 나눔. 오늘 송년회 예정임</p> <p>4) 12/22 : '들국카' 송년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김왜진, 김성애, 박상임 어머니
--	--

② 사업평가

2005년부터 제작되어 온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영상소식지는 공동체 미디어의 맹아로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을 갖고 있었다. 지역의 영상미디어 활동가의 자원활동과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제작팀, 조합의 소식뿐만 아니라 각 소모임의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병원 대기실과 조합 홈페이지에서 상영하는 제작 및 소통 방식, 영상 소식지를 조합 운영진이 만드는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향 등이 그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우리마을TV 시범사업을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의 영상소식지 제작에 대한 지원과 영상 소모임 교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 영상소모임 교육은 초기 ① 영상 제작 교육 : 월 2회 ② 영화 비평과 이해 : 월 1회 ③ 생활 나눔 : 월 1회의 방식으로 계획되었으나, 영상소모임 참여 조합원들과의 상의를 통해 포토 에세이를 활동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상소식지 제작팀으로의 성장을 기대했던 영상소모임은 여전히 포토 에세이 제작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영상제작팀과 같은 수준으로의 활동력 상승은 단기간에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나, 영상소모임이 영상소식지 제작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 배치를 만들어 내지 못했던 점은 명확히 한계였다. 2009년 영상소모임 교육은 기술적 이해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미디어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영상소식지는 여전히 부족한 내부 활동가와 단순 정보의 영상기록 전달에 머물렀다. 단체 내부 활동가가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거나와, 함께 소식지를 만들어갈 활동가가 없다는 점이 그 원인이다.

2007년과 2008년의 시범사업으로부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공동체의 내부 제작활동에 대한 기술적 인적 지원과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배치만으로는 공동체미디어로의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2명의 영상미디어활동가가 적극적으로 제작지원 자원활동을 하였고, 꾸준한 미디어교육이 있었으며 내부 활동가 역시 2명이나 존재했음에도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의 영상소식지가 내용적 측면에서 제작 과정의 측면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공동체미디어조사사업

① 사업내용

■ 목적

- 인천 지역의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미디어 현황을 파악
- CAMF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대 마련
- 인천 미디어정책 수립과 제안을 위한 기초 마련

■ 기간 : 2008년 4월 ~ 6월

- 지역별, 영역별 공동체 단위 기초 조사 : 4월 ~ 5월
- 공동체별 미디어 현황 조사 : 5월 ~ 6월

■ 대상 : 인천 지역 지역별, 영역별 공동체 추진 단위

■ 조사 방법

-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조사는 외부로 공개되어 있는 각 공동체의 공식 자료만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들다. 공동체가 처한 현실과 과제 및 활용되는 미디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없이는 공동체 미디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공동체 미디어를 위한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했다.

■ 기초 조사

- 1차 : 인천 시민사회단체 활동 내용 분석(발간 자료 및 웹페이지)
 - 2차 : 공동체 지향 단체로부터 추천
 - 공동체별 미디어 활용 현황 조사 : 단체 방문을 통한 실무자 면접 인터뷰
- 현실적으로 인천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나 주민 모임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먼저 기초조사를 통해 심층 조사를 위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차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 조사 사업팀

- 전철원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박채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기획실
- 라정민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성도현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조사 사업결과

○ 결과 분석표

1. 중구, 동구 관통 산업도로 무효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table border="1"><thead><tr><th>① 매우높음</th><th>② 높음</th><th>③ 보통</th><th>④ 낮음</th><th>⑤ 매우낮음</th></tr></thead><tbody><tr><td>10</td><td>8</td><td>6</td><td>4</td><td>2</td></tr><tr><td>근거</td><td colspan="4" rowspan="3">대책위는 단순히 산업도로무효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철학, 문화적 요소들을 발굴해내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려 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근거가 된다.</td></tr></tbody></table>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대책위는 단순히 산업도로무효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철학, 문화적 요소들을 발굴해내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려 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근거가 된다.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대책위는 단순히 산업도로무효화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철학, 문화적 요소들을 발굴해내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려 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근거가 된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table border="1"><thead><tr><th>① 매우높음</th><th>② 높음</th><th>③ 보통</th><th>④ 낮음</th><th>⑤ 매우낮음</th></tr></thead><tbody><tr><td>10</td><td>8</td><td>6</td><td>4</td><td>2</td></tr><tr><td>근거</td><td colspan="4" rowspan="3">정례적인 집회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는 부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으며 참여 구성원 또한 한정적이다.</td></tr></tbody></table>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례적인 집회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는 부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으며 참여 구성원 또한 한정적이다.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례적인 집회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는 부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향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으며 참여 구성원 또한 한정적이다.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table border="1"><thead><tr><th>① 매우높음</th><th>② 높음</th><th>③ 보통</th><th>④ 낮음</th><th>⑤ 매우낮음</th></tr></thead><tbody><tr><td>10</td><td>8</td><td>6</td><td>4</td><td>2</td></tr><tr><td>근거</td><td colspan="4" rowspan="3">정례적인 회의가 있으나, 모임에 참석하는 성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의제설정이 몇몇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이 있다.</td></tr></tbody></table>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례적인 회의가 있으나, 모임에 참석하는 성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의제설정이 몇몇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이 있다.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례적인 회의가 있으나, 모임에 참석하는 성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의제설정이 몇몇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이 있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table border="1"><thead><tr><th>① 매우높음</th><th>② 높음</th><th>③ 보통</th><th>④ 낮음</th><th>⑤ 매우낮음</th></tr></thead><tbody><tr><td>10</td><td>8</td><td>6</td><td>4</td><td>2</td></tr><tr><td>근거</td><td colspan="4" rowspan="3">정례적 회의(총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2개 성당(송현성당, 송림성당) 신부들의 참여로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고 한다.</td></tr></tbody></table>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례적 회의(총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2개 성당(송현성당, 송림성당) 신부들의 참여로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례적 회의(총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2개 성당(송현성당, 송림성당) 신부들의 참여로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table border="1"><thead><tr><th>① 매우높음</th><th>② 높음</th><th>③ 보통</th><th>④ 낮음</th><th>⑤ 매우낮음</th></tr></thead><tbody><tr><td>10</td><td>8</td><td>6</td><td>4</td><td>2</td></tr><tr><td>근거</td><td colspan="4" rowspan="3">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단체이다 보니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는 높은 편이다. 지역민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td></tr></tbody></table>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단체이다 보니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는 높은 편이다. 지역민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단체이다 보니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는 높은 편이다. 지역민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table border="1"><thead><tr><th>① 매우높음</th><th>② 높음</th><th>③ 보통</th><th>④ 낮음</th><th>⑤ 매우낮음</th></tr></thead><tbody><tr><td>10</td><td>8</td><td>6</td><td>4</td><td>2</td></tr><tr><td>근거</td><td colspan="4">단체 구성원(운영위원)에 지역대표, 아파트입주자대표, 성당 신부님을 참여시켜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 지역민, 관련 단체, 관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홈페이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td></tr></tbody></table>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단체 구성원(운영위원)에 지역대표, 아파트입주자대표, 성당 신부님을 참여시켜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 지역민, 관련 단체, 관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홈페이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단체 구성원(운영위원)에 지역대표, 아파트입주자대표, 성당 신부님을 참여시켜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 지역민, 관련 단체, 관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홈페이지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는 1명이나, 운영위원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원활동으로 참여하는 성원들이 많고, 대책위가 포괄하고 있는 지역적 능력들이 높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구성원의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높은 까닭에 특별히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없다. 미디어에 대해선 수동적 수용자이거나, 단지 홍보 도구로 생각하는 정도.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몇몇 사람들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나 사용 능력이 높으나, 기록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를 사용한다.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에 카페를 제작하였으나, 활발하지 않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제작된 카페도 활용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이해가 낮아 요구가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상근자인 사무국장은 연령대를 고려한 미디어교육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설문지, 인쇄물을 제작이 있으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라고는 볼 수 없다. 쌍방향적 성격이 아니라 일방향적 정보 전달 수준이기 때문이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캠코더, 디카, 노트북 등이 있으나 단순 기록용. 적절한 교육 장소가 없다. 단, 아파트 회관이나 성당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활용 능력 낮음.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연령대를 고려한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

2.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다양한 문화체험,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마을 축제가 매년 있으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 고향 만들기 운동 등의 프로그램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 이후 자생적 모임으로 발전하는 구조는 부재.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분과회의→운영회의→본회의 순으로 의견이 반영되며, 내부의사소통은 활발한 편이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편이나, 이를 안정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체계는 없다. 회의 외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 많은 교류가 있지 않다. 단, 학부모 단체와는 정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민과의 의사소통을 개척하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수렴된 주민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더 많은 주민들을 포괄하기 위해 연령층,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2명, 다수의 자원활동가, 운영위원들이 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진행.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활용이 사람들을 모아내는 효과를 알고 있고, 소식지 발행이나 공원에서의 음악 틀어주기로 실천하고 있다.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평균적으로 간단한 미디어 사용 능력을 지니고 있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자치센터를 자주 찾는 주부들은 미디어 활용에 관심을 나타내나, 기록이나 홍보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 수준. 연령대를 고려한 미디어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활용이 일방향적이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비디오 감상실 4개가 있고, 기록용 디카와 캠코더 존재. 마을 방송(오디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으며, 넓은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매체 사용이 가능한 인력이 있음.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줄 것. 연령층을 고려한 미디어교육.
------	--

3.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풀뿌리 지역자치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나, 특정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역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들의 연합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환경보호활동, 지역주민 활동가 워크샵 등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풀뿌리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주 1회 정례회의 등을 진행. 회의구조 외에 의사소통 방식은 특별하게 없음.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의구조외에 특별한 소통체계 없음.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 없음.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지역민들과의 의사소통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 장애인 단체, 여성 단체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풀뿌리 협의회를 통해 수렴한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풀뿌리 협의회는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자생적 지역 운동, 주민 모임의 연대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3인.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를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보고, 지역 공동체간 연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도구로 봄.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본적인 촬영 편집 가능. 지역과 연계하여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제작지원을 함.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공동체들에서 미디어 지원 요구가 많음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정도.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록용 디카와 캠코더 확보. 교육용 장소로 마땅한 곳이 없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높고 활용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4. 이웃사랑 품앗이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화폐, 워커스 그룹(재화를 스스로 만들어서 나누는) 등의 프로그램이 보여주듯 공동체에 대한 지향은 높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역화폐보다는 자체생산(워커스 그룹)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공동체 활성을 위해 초청 강연을 하고 있고, 지역 독거노인을 돋는 활동이 있다. 지역 나눔장터를 월 1회 열고 있다.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지역 인사를 참여시켜 폭 넓은 의사소통구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는 모임 횟수가 줄어들면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구성원 내의 의사소통은 전체회의와 공동작업 속에서 이루어진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운영위원회 회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 또한 없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주 활동들이 지역과 만나고, 대화하는 프로그램. - 천연비누제작 강좌, 나눔장터, 독거 노인 돋기 등.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좌를 열고, 회원만남의 날을 정례적으로 열고자 한다. 지역에 있는 단체(여성, 장애인 등)와 함께 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려고 한다. 나눔장터 역시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주요 방식이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1명, 자원봉사자 7~8명 정도. 워커스 그룹, 나눔장터 등을 활발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중심인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가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미디어 주요 활용은 단체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 이용 외에 다른 미디어 활용이 보이지 않는다. 홈페이지도 업데이트가 미진하고,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교육과 활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연 등으로 인식이 머물러 있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초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 활발하지 않으며, 소식지 등의 발행 같은 경험도 없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록용으로 디카와 캠코더를 구비하고 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교육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지 않지만, 이웃사랑교회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활용 능력을 지닌 주체가 없고,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인식과 의지도 약하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5. 인천광역시 장애인 부모회 주간 보호센터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아동의 사회 적응 교육,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의 상담 등을 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간의 정보를 주고 받는 수준의 커뮤니티 정도가 있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하는 캠프가 년 1회 있다. 그러나 공동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보긴 어렵다.				
----	---	--	--	--	--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부모들까지 포함한 정기회의가 월 1회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일들은 상근자 회의에서 대부분 결정한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온라인을 통한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작성은 필요에 따라 하고 있다. 지역 소식지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 아동 부모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의 관계외에 지역과의 소통 방식이나 채널이 없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별다른 소통 방식이나 채널도 없고, 지자체와의 관계 유지, 타 장애인 단체와의 연락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장, 국장, 사회복지사 등 총 19명이 상근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를 업무로 하는 직장인들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많으나 공동체로서 내부 주체 역량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부모들 서로간에 교류를 돋고, 장애인 자녀들의 사회 적응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정도.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여타 미디어에 대한 활용이 보이지 않는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시청각자료로써 영상에 대한 활용 요구가 높음.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정보 교류가 되고 있다. 전국적인 소식지 발간이 있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고, 내부 기록용 캠코더와 디카를 갖고 있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약하고, 활용 능력을 갖고 있는 상근자도 없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6. 자립선언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공동의 목표(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 것)를 갖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 특성상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화 강좌 등을 하고 있다. 내부의 모든 사안들에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묻고 수렴한다.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사안마다 전체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다.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나 공동체가 자리 잡아나가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도 익숙해졌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매 사안에 대해 의사를 확인하는 점, 서로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화 학습 등을 한다. 신체적 부자유가 의견개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사용 능력을 키우려 한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내 장애인 단체들과 연대활동. 지자체에게도 장애인 권리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교류를 한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질 수 있게 강좌, 캠페인, 일일 장애인 체험 등을 한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고(강좌, 캠페인, 일일 장애 체험 등), 계속해서 발굴하고자 한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6명(장애인 4명, 비장애인 2명), 자원활동가 2명이 일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상근자들의 경우 일하는 데 약간 어려움은 있으나, 지향에 대한 동의로부터 장애인 맞춤 교육, 미디어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의 활용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장애인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장비를 신체 환경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컴퓨터 사용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리 확보 인식이 있고, 장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미디어 교육을 원하고 있다. 사진 교실 등에 참여도가 높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및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영상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 영화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진행.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록용 디카와 캠코더가 있고, 영화 감상을 위한 비디오데크가 있다. 공간이 협소하여,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렵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대표의 경우 미디어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장애인에 맞는 컴퓨터 조립을 할 줄 알고, 일반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영상 제작을 할 계획이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 제안서를 보낼 계획이다.
------	---

7.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아파트 내 부모 모임 성격이 강하다. 환경과 교육을 주제로 한 느슨한 공동체.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방학 중 독서교실(아이들 대상), 독서모임(부모 대상), 하천 생태학교 참여, 좋은 책 전시 등 환경, 교육, 생태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꾸리고 있음.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 일부 회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일만한 공간이 없다.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고 있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기적인 회의를 정착시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프라인 회의가 힘들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아파트 단지에서의 소통은 원활한 편. 지역 내 다양한 단체에서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마을회관, 도서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고, 대표를 제외하곤 내부 활동에 적극적인 주체가 없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활용이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카페(인터넷) 사용 외에 다른 미디어 활용 사례가 없고, 미디어 사용 능력을 파악할 만한 다른 활동이 없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온라인 카페에 의한 의사소통에 만족하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를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만들어 낼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온라인 카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경험말고는 없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공간도 없고, 기자재도 없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활용 경험이 없고, 구성원들의 의지도 없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8. 가좌 2동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생태캠프, 청소년 치유캠프, 마을 축제 등을 하고 있다. 역사, 종이인형 만들기, 독서모임 등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들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실무자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정기회의(생회의-분과별회의)에서 세밀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들을 도서관 정기회의에서 반영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한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세밀한 회의구조를 갖고 있으며, 보다 나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1년에 한번 정도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주부와 아이들이 도서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마을축제, 생태캠프 등은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마을 축제, 영화상영 등.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2명, 자원활동가 3명이 있다.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 영상에 대해 접근하였으나,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교육 컨설팅 과정에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하기로 하였다.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화 상영 등을 하고 있으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화상영 경험이 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 컨설팅으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활용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온라인 카페가 있으나 활발하지 않고, 소식지는 비정기적으로 나오며 이 또한 활동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다. 대체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교류는 활발하나,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약하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화 감상을 위한 기자재 보유. 교육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기록을 위한 캠코더와 디카를 보유하고 있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고 있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9. 배다리를 지키는 시민 모임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배다리 지역의 공동체 실현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역사, 철학, 문화적 지역성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함.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산업도로 무효화 운동 결합.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프로그램. - 배다리 문화 축전 / 시다락방 시낭송회 / 동네에 숨겨진 재능인 찾기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매주 집행위원회의.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내부 의사소통 구조에 대한 고민보다는 더 다양한 지역 인사를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함.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직접적인 의사소통보다는 간접적 의사소통이 더 많음. 외부인이 지역 사안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솔빛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성당 신부님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제 설정.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 웃어른에게 내 고장 이야기 듣기 - 동네어른 모시고 마실 가기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 1명, 반상근 1명. 필요에 따라 결합하는 집행위원, 자원활동가 다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의 소통구조가 좀 더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생각과 미디어의 활용이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 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음.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구성원의 다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사용 능력은 약하다.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높은 사람도 소수 있긴 하다. - 서점주인, 인천일보 기자 등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구성원 대다수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 자체도 적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소식지를 발간하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공간 있음. 기자재나 시설은 취약. 디카와 핸디캠은 기록용으로 갖고 있음.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 중 한명이 기자여서 미디어 활용에 대해 계속 주장. 아벨서점 주인이 연령대를 고려한 미디어 활용에 대해 여러 방법을 제안 - 그림 그리기 / 구성원 문집내기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연령대를 고려한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
------	-----------------------

10. 인천사람연대.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공동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이해가 있으나, 지역 시민사회 단체라는 성격이 더 강함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김장 나누기 행사, 주말농장, 장애인 비장애인 캠프 등을 통해 인천지역 공동체들의 연대를 모색.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각 부문별 소회의가 수시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가 결정, 집행위의 결정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의견 수렴하는 구조는 갖추었으나 수직적 소통구조.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본 의사수렴 구조 외에 월례강좌를 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 개진이라기 보단 설정된 의제에 대한 설득과정으로 보인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다양한 지역 내 사안에 대해 개입하여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려고 시도.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깊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독거노인 살피기, 김장나누기, 도배 봉사 등의 활동으로 지역과 만나려고 한다. 또한 지역 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1명, 단 연합하고 있는 단위들의 대표들이 상근을 하면서 인천사람연대의 여러 사업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가 가지는 파급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내부소통을 넘어서서 공공적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연대하는 단체들과 온라인 연대를 이루고자 한다.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 관리, 팜플렛 제작, 월보(소식지) 제작 등을 하고 있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의사소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기준 매체와 방법을 제외한 요구 사항은 없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사소통, 결정되거나 실행된 사안들에 대해 정리한 소식지, 팜플렛 제작.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록용 캠코더, 디카 보유. 다른 공공 시설을 빌려서 교육공간은 확보 가능하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준에 진행하는 매체 활용을 제외한 부분을 맡아서 활동할 주체들은 없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11. 소통구리학교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에서 교육, 생태 공동체를 모색하고 있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 김장 나누기(인천사람연대와 함께 진행), 주말생태학교운영.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다함께 학교 운영.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회의구조 갖춤. 학부모들 소모임과 같은 형태로 찾은 오프모임을 만들고 있다. 월 1회 교사 운영회의가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주1회 하고 있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회의구조 갖춤. 학부모들 소모임과 같은 형태로 찾은 오프모임을 만들고 있다. 월 1회 교사 운영회의가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주1회 하고 있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어린이회원 20명, 후원회원 20명 수준 유지. 지역 내 교육이나 환경 관련 이슈들로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만들고 있다.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내 교육, 환경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곤 한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 1명, 자원활동가 6명. 교육과정에 정식 교사를 초빙하려고 노력. 지역이슈와 발굴해내고, 전국적 이슈에 대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에 대해 인식.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문화예술교육으로 시진교실 진행한 사례(부모대상) 있음. 상근자의 경우 영상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음.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문화예술교육에서 활용할 시청각 자료 정도의 요구.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교육으로 요구되는 것은 없음.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설문조사 경험.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록용 디카, 캠코더 보유. 교육 공간 갖추고 있음.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가 영상제작 경험 있음. 미디어 활용이나 교육에 대한 의지 없음.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12. 여럿이 함께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다문화위원회에서 하는 한글교실,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마을 단오 축제 매년 개최.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다문화, 청소년, 마을 위원회 등의 위원회별 회의와 월 1회 전체모임, 비정기적 운영위원회의가 있다. 인터넷 카페가 있으나 운영은 활발하지 못한 편.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각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점검하고 대화하는 위원회회의를 월 1회 하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다. 회원 전체모임에서는 다문화, 인문학 강좌 등을 하면서 회원들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청소년, 이동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진행. 8회째 '마을단오축제' 진행.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각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단오축제 등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려고 함. 회원들이 속한 어린이집, 공부방, 어린이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접점 형성.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2명, 운영위원회 8명, 회원 50명 정도. 회원들이 지역 공부방 교사,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 도서관 교사 등으로 일하면서 '여럿이 함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가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냄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성장에 기여한다고 봄. 청소년 동아리 - 마을뉴스제작단, 웹진 동아리에서 구체적인 마을 소통에 대한 고민 반영.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 내부에 홈페이지 제작 능력, 영상제작 능력 갖춤. 영상 동아리, 웹진 동아리 등에서 미디어교육 진행.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마을뉴스 제작하고 있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대체할 예정. 마을 청소년들이 만드는 웹진 계획 중.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이전 경험은 많지 않다. 온라인 카페에서의 소통 정도.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용 캡코더 4대, 교육용 컴퓨터 4대, 전문 작업용 컴퓨터 2대 갖추고 있음. 교육공간 협소하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있음(어린이집, 공부방, 어린이 도서관 등). '여럿이 함께' 문화공간을 추진 중.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들이 웹페이지 제작 능력, 영상제작 능력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에서 미디어교육하고 있음.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13. 작은자 야학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화두로 활동하지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삶의 영역 전반을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특별히 시도되고 있는 프로그램 없음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모이지만, 장애당사자로서 공감대가 크고, 소통이 원활. 교사들도 의사결정기구를 갖고 있으나 교사 상호간, 교사와 학생간 소통은 약함. 학급회와 상근 간사가 간극을 좁히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워크샵, 학급회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 수학여행, 소풍 등을 통해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도록 유도. 상근간사를 둘으로써 의사소통의 매개자 역할 부여.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야학에 다니지 않는 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은 부족하다.			

	또한 지역 내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진행도 거의 없다.(동암역 앞에서 야학 사진전 수행한 정도)
--	---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동암역 앞에서 야학 사진전 수행. 민들레 야학과 함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슈를 갖고 집회를 가짐.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 부재.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비장애인 상근간사 1명, 장애 반상근간사 1명. 야학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음.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의 교육 경험을 통해 미디어가 홍보를 넘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체득한 상태. 단 전체구성원의 고른 경험은 아님.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구성원들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체 접근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사 또한 매체 관련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자원활동교사가 만든 영상으로 장애인 영화제 출품 경험이 있고, 안영상미디어센터와의 교육 경험이 있음. 이로부터 미디어를 통해 내부 소통이 확대되는 것에 주목. 구성원들의 요구가 높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화제 출품까지 한 영상제작 경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의 교육 경험. 그러나 홈페이지가 사실상 잘 운영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15평 남짓의 공간. 기자재는 없고, 특히 장애 특성에 맞는 기자재 수급은 매우 어려움.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1인의 상근 간사가 있지만, 업무량이 많음. 자원활동교사들도 미디어 활용 가능자 부재.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장애인 미디어교육 및 교육 활동가 파견과 양성

14. 민들레 야학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인권에 대한 고민. 장애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 속에서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활동 모색.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민들레 장애인 차별 철폐 인권 실천단 "불나비" - 인권의 차원에서 장애인 삶에 대해 접근하고, 그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모임.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당사자간 소통은 원활, 교사 상호간 소통과 교사와 학생간 소통은 어려움. 학생회는 잘 이뤄지고 있음. 월 1회 운영위원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임. 빠른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 구성.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사와 학생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음. 학급회의, 워크샵 등 프로그램 진행.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타 장애인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음. 2008년 공간 문제를 풀기 위해 했던 집회로 비장애인들에게 활동을 많이 알렸다고 자평함.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불나비" 구성과 활동으로 지역에 장애인 삶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던지려는 시도 중.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비장애 상근 간사 1명, 장애 반상근 간사 1명이 야학 운영. "불나비"를 발족했으나 아직은 초기라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교장 개인의 역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홍보 용도로 인식하는 수준.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 사용 경험이 부족하고, 사용 능력이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구성원 대체로 요구가 많지 않고, 상근자의 경우 미디어 활용에 대해 고민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막혀있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직접 대면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음.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공간은 25평~30평정도 있으나, 기자재가 없음.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내부 인력 없음.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서 장애인 라디오 방송을 했으면 한다.
------	----------------------------------

15. 인천여성장애인연대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여성의 자립생활지원과 사회적응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체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이용인 아카데미를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다.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있다. 운영위원회가 실무자회의 성격, 이사회는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 실질적인 회원들의 의견은 이용자 아카데미나 문화프로그램 등에서 직접 접촉해서 수렴. 혹은 전화를 통한 의견 수렴.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직접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을 중시. 구성원들을 불러들여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찾아가서 만나거나 기타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부방과 문화센터의 중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음.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이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 10명, 반상근 2명. 자립생활 지원과 푸드뱅크 사업, 여행지원, 문화센터 사업을 하고 있음. 장애인과 도우미를 연계해주는 역할 이상 못함.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홍보용으로만 생각. 성서 FM 사례를 듣고는 관심을 보임. 장애인 라디오가 지역단위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반응.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우편, 전화 정도를 사용. 홈페이지가 있고 소식지도 발행하지만,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대구 성서FM 사례를 듣고 관심을 보이나, 자신들의 역량으로 하기 힘든 일이라 판단하고 있음.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우편, 전화 경험이 전부.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실이 있으나 협소하고, 기자재가 없다.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사람이 부재.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16.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슈에 대한 집회 결합.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목적여행 - 멀리가지 않고 '버스타기', '쇼핑하기' 등 장애인이 평소에 하기 힘든 일을 직접 경험해 보는 활동.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활동보조 모니터링, 전화 상담 등 진행. 회원이란 규정이 느슨해 의견수렴이 어렵다. 상근자와 상담자들의 회의가 있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들을 위한 회의는 존재하지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과는 소통이 어렵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내 다른 장애 단체와는 연계가 잘 되고 있음. 비장애인과의 소통은 별로 없음.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거의 전부.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장애인 상근자 6명, 비장애인(여성) 상근자 3명. 자립생활 지원도 어려운 형편.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활동보조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 도구로 인식.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활동 내용들이 정보화되어 보이지 않고 있음. 사용 능력이 있는 상근자, 회원 없음.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들의 요구는 없는 셈. 자신들을 알려내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에 대한 요구.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전화에 의한 소통이 전부인 셈.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사무실 규모가 작다. 기자재나 시설 미비.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 인력 대부분이 자립생활지원에 묶여 있는 상황.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17. 여성민우회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과 여성차별 철폐를 위해 설립.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 운영. 한부모들의 소모임을 운영. 공부방과 한부모 소모임이 공동체적 성격을 만들어감.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공부방 -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 세미나, 회원의 날 운영. 한부모 지원 - 편모 가정을 지원하고, 소모임 활동을 거쳐 공동체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함.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의 날, 편지, 전화 등으로 회원간 소통 유도. 매 사업마다 함께 할 수 있는 회원 모집.(사무국장도 소모임서 활동하다가 상근자로 일하게 됨) 소모임서 내부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사례가 많음.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소식지, 전화, 편지 등으로 사업들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집.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공부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발생.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내 이슈가 아닌, 여성 일반의 문제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려고 하는 캠페인 벌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마련 - 영화보기 / 공개강좌 등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2명, 사업마다 소모임에서 자원활동가 결합. 현재 한부모사업에 대한 인천시 위탁 철회로 사업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를 회원교육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생각.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사업을 보고하고 홍보하는 수준으로 소식지 발행. 영상 읽기와 수용자 교육이 가능한 수준.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교육 혹은 회원 확대 방법으로 생각.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들과 영화보기 후 여성적 관점으로 토론. 작년까지 계간으로 소식지 발행.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30평 정도 건물이 있으나 3곳으로 나뉘어 활용. 기자재나 시설 열악.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2인 모두 영상 활용 능력은 없음. 소식지를 계간에서 월간으로 바꾸는 계획중, 벅차함.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18. 인천여성노동자회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음. 활동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조모임들이 공동체성 지님.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활동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조모임들이 공동체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풍물과 같은 문화소모임 활동, 세미나 진행 등을 함.				
----	--	--	--	--	--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각 자조모임 대표들과 사무국이 월 1회 정기회의. 자조모임에서 수렴된 일상적 이야기들이 논의됨. 각 활동별로 접촉면을 갖고 의사소통 만들어 감.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월례모임 참석 유도. 각종 회의와 교육에 참여케 하고,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만들어서 중층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게 한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 내 다른 여성단체들과 FTA, 쇠고기, 보육조례 문제 등으로 연대.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부설기관, 당사자 모임, 자조모임 등의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역 내 다른 여성단체들, 노동단체들과의 연대는 일상적인 편이다.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부설기관 포함 상근자 7명, 반상근 1명. 자조모임 대표들과 자조모임에서 사업별로 결합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있다.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를 문화교육을 위한 도구로 보거나, 문화예술교육의 일부로 미디어교육을 이해하고 있다.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사진을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준. 계간으로 소식지 발행. 기록용으로 캡코더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워놓고 녹화하는 수준이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미디어교육이 문화강좌 일부로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음. 풍물활동, 문화행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자 함.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홈페이지 활용. 계간 소식지. 총회와 같은 행사때 사진 슬라이드 제작과 감상 등.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7~8평 정도의 교육실이 있고, 캠코더 있음.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담당 인력 부재.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19. 인천여성회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동단위 모임에서 인천시를 포괄하는 여성단체로 성장했었고, 다시 구와 동 단위 활동을 지원하면서 여성주의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구 단위 지부 설립을 위한 활동 주력.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주 1회 사무처 회의. 월 1회 운영위원회의. 연 1회 총회. 지부단위로 월 1회 회원의 날 있음. 각 지회장들과 사무처가 일상적으로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갖고 있음.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월례회의 진행. 월례회의에 참석 못한 회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여성영화제 조직, 집행. 1년에 4회 정도 대중강좌 진행. 여성단체들과의 연대활동 하고 있음. - 보육조례에 대한 공동대응				
----	---	--	--	--	--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대중강좌를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로 열고, 여성영화제를 지역 여성단체들과 결합해서 프로그램 하고있음. 지역 내 여성과 관련한 이슈들에 연대활동.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중앙사무처 상근자 6명, 지회 상근자 3명, 반상근 7명. 적극적인 회원들 몇 명이 여러 사업에 자원활동으로 결합.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강좌, 교육으로 영상 활용. 영화제에 자체 제작 영상들을 출품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에서의 여성현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화제 주최하고 운영. 리더쉽 교육 마지막 순서로 UCC 제작. 각종 행사때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줌.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교육, 홍보에 활용하는 영상제작 능력 함양 요구. 지회에서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요구 있음.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화제를 통해 피드백 받은 경험들. 리더쉽 교육때 직접 UCC 제작하여 토론해 본 경험. 기록을 영상으로 작업하여 행사때 함께 본 경험 등.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중앙사무처에 8평 정도의 교육실이 있음. 지회별로 공간이 있고, 근처 공공기관들에서 교육공간 대여가 가능. 영상감상 시설 갖추었으나 제작 기자재는 없음. 기록용 디카와 캠코더 1대씩 있음.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회에 영상 제작 능력이 있는 회원 있고, 중앙사무처에도 영상 제작 능력이 있다.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20. 인천여성의전화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고, 이러한 소모임들이 공동체적 성향을 지님.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울랄라 아주 여성 쉼터"라는 아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쉼터 겸 공동체 지향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문제를 사안별, 대상별로 나누어 그룹화(성폭력, 아주여성 등)하고, 이러한 그룹별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려고 함.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소식지 '물꼬' 운영. 뉴스레터도 운영하고 있음. 각 단위 소모임, 자조모임 대표들과 여성의 전화 실무자들이 상시적으로 회의 진행. 소모임, 자조모임들에 회원들이 중층적으로 결합하게 하고 있음. 홈페이지는 침체되어 있으나, 소모임 카페에서는 활발한 의사소통이 되고 있음.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소식지 '물꼬' 운영. 소식지를 웹진으로 발행할 계획 있음. 뉴스레터 발행. 소모임별 카페를 만들어서 상시적 내부 소통을 만들어 갑. 회원들간 만남을 중층적이고 일상적으로 유도하는 각종 모임과 사업 추진. 사업 사안마다 전화 소통 시도.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여성단체들과 연대 활동.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회의. 홈페이지 운영.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여성의 전화 상근자 5명, 반상근 1명, 부설기관 상근자 15명. 자원활동가 20여명 정도. 6개 부설기관 사업과 여성의 전화 운영하고 있음.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상 매체는 증거자료용으로 생각하고 있음. 소식지인 '물꼬'에 대한 노력. 성서 FM 사례를 듣고, 페미니즘 FM을 설립하고 싶어 함.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영상 촬영은 하고 있으나, 편집을 통해 영상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 능력이 있는 실무자가 있으나 기자재가 없는 현황. 소식지는 수준이 높은 편.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하고 싶어 함.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소식지. 홈페이지에서 특정사례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경험.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실과 부설기관이 존재. 시설과 기자재 부재.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간단한 영상 제작 능력이 있는 활동가 1인.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소모임 회원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하고 싶다.

21.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더불어 사는 국제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국가별로 이주노동자들이 공동체를 운영 중.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쉼터, 체육대회, 한국어교실 등 프로그램 진행. 각 국가별 공동체 활동을 지원.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국가별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으로 소통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지역민과 소통을 만들어내지는 못함.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In joy Asia 이주민 체육대회, 이주민 문화축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함.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5명, 반상근 2명, 자원활동가 20여명. 쉼터, 문화교실, 이주민 의료지원,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음.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사업과정에서 홍보용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자 함.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소장의 경우만 인쇄 매체 활용 능력이 높다.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여러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위한 미디어 활용 요구가 높다.
----	--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노동자 영상패 씨'와 함께 영상을 제작한 경험. 카페가 있으나 활발하지 못하다.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충분. 기자재와 시설은 취약.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매체 사용 능력을 지닌 구성원이 없음.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22.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다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이 목적. 국가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국가별 공동체에 대한 지원 - 쉼터, 의료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국가별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부터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극복하려고 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음.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	------	------	------	--------

10	8	6	4	2
근거	국가별 공동체와 지역의 소통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고민 중이나 어려운 상황.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In joy Asia를 함께 진행. 인천아시아 이주민축제를 시도. 이주민강사들이 지역 내 학교에 다문화 강사로 참여.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 3명, 반상근 2명, 비상근 대표가 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25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자원활동가로 결합. 의료지원, 문화교육, 국가별 공동체 지원 사업들 수행.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외부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다큐멘터리, 극 제작 경험 있음. 미디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경험을 갖고 있으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한 홍보라는 측면으로 매체를 보는 관점이 강함.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드림'이라는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 인터넷 사용, 포토샵 활용 강좌를 진행하고 있음.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구성원들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나, 기자재 부족과 인력부재로 요구를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로띠와 신라면'이란 작품을 제작하고 외국인 영화제에 출품한 경험. 소식지 '드림' 발행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교육실, 교육용 PC 6대, 소극장이 있음.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상근자들에게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음.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비정규적인 상황.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23. 부평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1. 공동체 내부 환경 및 조건 파악

1) 공동체 지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부평을 중심으로 인천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2) 공동체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프로그램 없음.			

3) 내부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온라인 커뮤니티(카페)를 통해 의사소통 진행. 교육, 워크샵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음. 매월 1회 '자전거대행진'을 하고 있으나, 집단적 퍼포먼스의 의미이지 소통을 만들어 내긴 힘든 상황.			

4) 내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소통 위주로 활동하고, 워크샵이나 강좌를 만들어서 오프모임을 유도하고 있다.			

5) 지역과의 의사소통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자전거 대행진' 퍼포먼스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부평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에 대한 동참 호소. 각종 토론회, 발표회등에서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함.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기도 함. 부평 신문기자가 활동을 알려내고 있음.			

6) 지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정기적인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 대시민 홍보 활동. 부평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에 대한 동참 호소. 각종 토론회, 발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에 대해 알려내고자 함. 부평 신문기자가 활동을 알려내고 있음.			

7) 공동체 내부 주체 역량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행진단 단장 1명, 부단장 3명이 행진단을 이끔. 사무국장과 재무국장이 1명씩 있고, 운영위원회가 주요 사안들에 대해 회의하고 결정.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이라 비상근활동들임.			

2. 공동체 미디어

1)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정도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활동에 대한 다양한 흥보채널로 미디어를 이해하고 있음.			

2) 미디어 사용 능력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 중 신문기자가 있어서 시진보도가 되는 정도.			

3) 미디어 활용에 대한 요구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신문매체에 더해 영상매체를 갖고 더 많은 흥보를 하고자 함.			

4)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카페에서의 내용 공유.			

5)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시설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다른 단체 사무실에 결살림을 차린 상황. 상근자 없는 커뮤니티이기 때문. 공간도 기자재도 부재한 상황.			

6) 미디어 활용을 위한 가능성 (인력을 중심으로)

① 매우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낮음
10	8	6	4	2
근거	회원들 중에 미디어 활용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확인되고 있지 않음.			

3. 특정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	----

□ 평점표

1. 중구, 동구 관통 산업도로 무효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4	6	8	8	8	8	50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4	4	4	4	4	4	24	74

2.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1-1	1-2	1-3	1-4	1-5	1-6	1-7	소계
6	6	8	4	6	8	8	46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8	6	8	4	8	6	40	86

3.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1-1	1-2	1-3	1-4	1-5	1-6	1-7	소계
10	8	6	4	8	8	8	52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10	8	6	6	4	8	42	94

4. 이웃사랑 품앗이

1-1	1-2	1-3	1-4	1-5	1-6	1-7	소계
10	8	4	2	8	6	6	44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4	8	4	6	4	32	76

5. 인천광역시 장애인 부모회 주간 보호센터

1-1	1-2	1-3	1-4	1-5	1-6	1-7	소계
4	2	4	8	4	4	4	30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6	6	6	6	4	34	64

6. 자립선언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6	8	10	6	8	8	54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10	8	10	8	4	8	48	102

7.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1-1	1-2	1-3	1-4	1-5	1-6	1-7	소계
6	6	4	6	6	6	4	3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4	4	4	2	2	22	60

8. 가좌 2동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

1-1	1-2	1-3	1-4	1-5	1-6	1-7	소계
10	8	8	8	8	8	8	5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6	8	4	6	6	36	94

9. 배다리를 지키는 시민 모임

1-1	1-2	1-3	1-4	1-5	1-6	1-7	소계
10	8	6	6	6	8	8	52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8	6	4	6	4	8	36	88

10. 인천사람연대

1-1	1-2	1-3	1-4	1-5	1-6	1-7	소계
6	8	6	6	8	8	6	4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8	6	4	6	6	4	34	82

11. 소똥구리학교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8	8	8	6	6	8	52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6	6	6	6	6	36	88

12. 여럿이 함께

1-1	1-2	1-3	1-4	1-5	1-6	1-7	소계
10	10	6	8	6	8	10	5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10	10	8	6	10	10	54	112

13. 작은자 야학

1-1	1-2	1-3	1-4	1-5	1-6	1-7	소계
4	4	8	8	4	4	6	3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8	4	8	8	4	4	36	74

14. 민들레 야학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8	8	8	6	6	6	50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4	4	4	4	4	4	24	74

15. 인천여성장애인연대

1-1	1-2	1-3	1-4	1-5	1-6	1-7	소계
2	4	4	4	4	8	4	30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4	6	4	4	2	26	56

16.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1-1	1-2	1-3	1-4	1-5	1-6	1-7	소계
4	6	6	4	6	4	4	34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4	2	4	4	4	4	22	56

17. 여성민우회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8	8	6	6	6	6	4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6	6	6	4	4	32	80

18. 인천여성노동자회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6	6	8	6	6	8	4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6	8	6	6	4	36	84

19. 인천여성회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6	6	6	8	8	8	50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8	8	8	8	6	8	46	96

20. 인천여성의전화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8	8	8	4	6	8	50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4	6	6	6	6	6	34	84

21. 한국아시아아이주민센터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8	4	8	4	8	8	48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4	6	4	6	4	30	78

22.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1-1	1-2	1-3	1-4	1-5	1-6	1-7	소계
8	6	4	8	4	8	8	46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6	6	6	8	4	36	82

23. 부평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1-1	1-2	1-3	1-4	1-5	1-6	1-7	소계
4	2	6	6	8	8	6	40
2-1	2-2	2-3	2-4	2-5	2-6	소계	총점
6	4	6	4	2	4	26	66

② 사업평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주민모임이나 주민자치단체가 계층별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높았다. 장애인 단체들의 경우 장애인들의 인권향상 및 복지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활동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성단체들 또한 여성인권향상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들에 실무역량의 대부분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즉 계층별 단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계층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점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단체들에서도 공동체적 활동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경우 각 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소모임 활동들이 공동체적이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다. 일부 장애단체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 속에서 공동체 지향을 볼 수 있었다.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의 정착과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주민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자발적인 이주민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인천에서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주민모임이나 주민자치단체

둘째, 여성단체들에 속한 소모임

셋째, 장애인들이 스스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넷째, 이주민공동체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은 미디어를 단체 홍보를 위한 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내부 의견 수렴과 정보 소통을 위한 웹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확립을 위한 일상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는 단체는 없었다. 또한 각 단체들이 미디어에 대해 평소 갈증을 느꼈던 부분은 구성원 혹은 실무자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면접 조사 과정에서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난 것들은 미디어 사용 능력에 대한 교육(비록 미디어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이었다.

그러므로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위해선 우선 미디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미디어가 각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강좌형태가 아니라 반복 상향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미디어에 대한 이해(특히 공

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체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미디어교육 사례로부터 꾸준히 검증된 사실이다.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 어느 정도의 교육실은 확보하고 있지만,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자재와 설비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즉 지역 내 대부분의 단체들은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술적 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지에 대한 증거로 이해된다. 적어도 인천에서 미디어와 관련한 기술적 인적 자산과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은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 지역 공동체 미디어 프로젝트 '우리동네 말걸기'

①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2009년 공동체미디어 사업에서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 준비

■ 사업 기간 : 2008년 10월~12월

■ 사업 내용

상반기에 진행했던 조사 작업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동네 말걸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말걸기'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지역 공동체가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대화를 시도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했다.

- 첫째, 2009년 공동체미디어 시범사업이 사례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공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제로 일상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공동체
- 셋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대화를 시작한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보이고 있는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청천동 주민공동체 '여럿이 함께' 세 곳이었다.

- '우리동네 말걸기' 프로젝트 전 과정은 RTV의 액션V 지역프로젝트 팀에 의해 기록되었고, 방송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영상은 지난 11월 14일 방송을 통해 방영됐고, R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보기 주소 <http://cr09c.rtv.or.kr/tc/64>]

■ 사업 일지

일 시	내 용	비 고
10/15	지역 공동체미디어사업 관련 1차 회의 진행	사무실
10/22	지역 공동체미디어사업 관련 2차 회의 진행	회의실
10/29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11/04	청천동 '여럿이 함께' CAMF 방문	강의실

11/12	가좌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가좌동 주민자치센터
11/14	금 밤 10시 RTV 방영〈행동하라, 비디오로! - 액션V〉 63회 〈행동하라, 비디오로! - 액션V〉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편 "우리동네 말걸기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지역 공동체미디어 프로젝트"	RTV
11/19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 10시 CAMF 견학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12/04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미팅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② 사업 결과 및 평가

- 지역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기획하고 있는 '공동체미디어' 사업에 대한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고, 지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상황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 '공동체미디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과정과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다. 세 지역은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미디어를 통한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2009년 공동체 미디어 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첫 만남 이후 두 차례의 대화를 더 가졌다.
- 2008년 상반기의 조사사업에 기초하여 하반기에 진행한 '우리동네 말걸기' 프로젝트를 통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9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위한 사업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다.
 - 사업 대상을 지역공동체로 한정하고
 - 커뮤니케이션 체험으로 이뤄지는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며
 - 하나의 지역과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다뤄지는 매체는 공동체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한다.

우리가 어떠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방향을 잡았는지 보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기록했던 대화들에서 주요한 부분을 발췌 수록한다.

■ 프로젝트를 위한 내부토론

1. 내부토론

'우리동네 말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2차례의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는 '공동체미디어가 무엇이냐'하는 개념논의에서부터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과 방법들이 난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는 다소 개념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여러 상들을 가지고 지역과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아래는 당시 현장에서 녹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1, 2차 회의에서 나왔던 주요 의견들을 발췌한 것이다.

1) 1차 회의(10월 15일)

- 일시 : 2008년 10월 15일
- 참석 : 전철원(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위치혜(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안미디어팀), 라정민(공동체 미디어 조사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녹취록 발췌

"현실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차별과 문제들은 어떤 한 영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른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그러한 문제는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존

재하는 곳에서 풀어야 한다. 그건 지역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미디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함께 만들어내고자 하는 미디어가 비록 작은 영역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지역에서 발현될 때는 지역 공동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지역 안에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미디어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문자를 안다고 공동체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미디어 기술을 안다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자라는 것도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미디어와 관련해 우리가 매체를 제안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경험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가 아니라 경험시킬 것이냐. 단절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는 과정, 회복되는 경험,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재미를 봤으면 좋겠다.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재미, 이렇게 해봤더니 재미있고, 내 옆집 사람과 뭔가를 해봤더니 재미있고, 그런 방식을 찾아할할 것 같다."

"상시성, 지속성, 장소이든 사람이든 늘 같을 것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적으로 부족하고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가 동일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속한다면 그 자체(장소와 사람)가 사실로 인식되고, 그 관계망이 늘어나면 좀 더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중심에서 뭔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뿐리 하나가 옆으로 다른 뿐리를 내리고,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공동체사업에 있어서 미디어센터라는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 개인이었을 때는 개인적인 사정들로 힘들어질 수 있는데 미디어센터가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에 대한 상을 지역으로 잡았는데, 지역공동체가 지닌 힘을 지속성으로 보았을 때,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그 지역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센터는 그런 활동과 관련해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지지시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성과 장기 성에 있어서 센터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좀 머리가 아프다. 지원방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편향 지원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일정 단계 이후에는(그 단계 설정 역시 쉽게 두고 있지 않다) 지역이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2차 회의

- 일시 : 2008년 10월 15일
- 참석 : 전철원(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위치해(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안미디어팀), 경희령(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 라정민(공동체 미디어 조사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녹취록 별첨

"공동체 조사 결과로 보면 세 지역 정도로 공동체미디어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마을공동체나 지역 자치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보면 연수2동, 가좌2동, 청천동 정도다. 연수2동은 인천 내에서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고 생활기반의 모임이 잘 형성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다. 가좌2동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엄마들이 모이면서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에서 조금은 특화된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푸른샘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확대된 것으로 그 안에서 마을잔치와 같은 다양한 지역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청천동은 지역주민들이 자체

적으로 마을축제 '여럿이 함께'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진 경우다. 부평공단 배후도시여서 지역 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수준이 낮지만 마을공동체 운동의 경험과 활동이 있는 장점이 있다."

"공동체를 선정할 때 어디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나라는 기준을 두고 고를 것인지, 아니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어쨌든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깐,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들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근데 좀 더 열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마다 대상이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른 성격들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도 의미가 있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들의 문제를 조금씩 해소하면서 뭔가 다른 그 공동체가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추동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또 여러 모델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대상을 접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내년도에는 공동체교육까지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설정과 단계를 결정해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 진행과정을 계속 보면서 평가를 하고, 이후 교육이 종료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보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활동은 그 마을에 활동주체들이 자기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미디어를 마을 안에, 지역 안에 세트하는 것을 상정하고 자기 활동을 시작해야하는 거고 그 활동을 센터가 지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이후의 것들에 대해 좀 더 틀거리를 만들어 지역과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후 단계 설정들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고민이 더 되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매체나 미디어가 구상되고 프로듀싱되는 과정이나 혹은 그 이후에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방식들도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2. 지역과 나눈 이야기

지역과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얘기된 것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배경과 역할이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교육과 함께 공동체미디어 영역을 주요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마을 단위의 작은 공동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설계하고 구성해 나가기 위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공동체미디어'라는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역과 함께 구상하고 진행하고자 한다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세 지역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지역과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은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첫 만남을 가졌다.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활동은 물론 공동체미디어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릭액세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지역방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지역에서 공동체미디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체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이후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체미디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연수2동은 이날 만남 이후에도 2차례의 만남을 더 가졌다. 11월 19일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공동체미디어 사례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12월 4일에는 공동체미디어 사업을 지역 내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연수2동 말말말

"개개인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어디다 어떻게 표출할지 몰라서 불편한 점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불편한 점을 표출시키고 함께 공유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그 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둘만 있으면 나머지는 또 함께 가는데, 그 사람들을 찾는데 주력해야겠군요."

"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기회를 빼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잖아요?!"

2)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

가좌2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 실무자들과 만났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동체미디어 사업에 대해 설명했을 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어떤 매체가 가능하나요?"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이다. 도서관 실무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공동체미디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매체나 프로세스를 설정하지 않고 가는 것은 그것들을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설정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역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원했다. 특히 가좌2동의 경우 마을라디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과 소리로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마포나 관악 공동체라디오에 견학을 다녀 온 적도 있다고 했다. 어쨌든 매체가 먼저 설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 경험을 통해 지역에 맞는 미디어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도서관 실무자들 역시 장기적으로 간다면 지역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며 내부에서 공동체미디어 관련해 논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

○가좌2동 말말말

"지역 내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 늘 고민하고 있는 거고 도서관도 사실은 그런 공간 중 하나인데, 미디어라는 매체로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거지요?"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니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고민할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어서 재미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발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풍부하게 보면서 저희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 청천동 주민공동체 '여럿이 함께 동네야 놀자'

청천동 주민공동체 '여럿이 함께 동네야 놀자'(이하 여럿이 함께)는 최근 사무 공간을 이전해 내부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무국장과 실무자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여럿이 함께 실무자들과는 대구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역 영상물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럿이 함께의 경우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인지 공동체미디어 사업을 선뜻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듯 했다. 지역 내 소통은 사람들과 직접 만남을 통해 또 작게는 마을 소식지를 통해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역과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럿이 함께는 공동체 내부에서 논의를 한 뒤 공동체미디어 대한 이야기를 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 ‘여럿이 함께’ 말말말

"방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영상을 메시지로 쏘는 거야. 나의 메시지를 꽤 알리는 것이지. 그럼 멀리서도 내 메시지를 볼 수 있잖아.(웃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체는 자극적인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큰 사건, 큰 뉴스, 유명한 사람, 유명한 것,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사실 소통에 대한 욕구도 많이 만나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상적 소통이 가능하려면 같은 생활권에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부딪히면서 소통의 방식도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2) 퍼블릭액세스 지원 사업

(1) 제1기 인천 시민PD 제작 워크숍(주민영상제작단 교육)

① 사업내용

■ 교육 목표

-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이해한다.
-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으로 방송국에 액세스한다.

■ 교육 대상

- 인천지역 영상제작 모임, 영화 동아리 회원 등의 영상제작 경험이 있고,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일반 인천 시민

■ 교육방법

-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강의
- 2개조로 나누어 워크숍 진행
- 조별 담당 멘토 배치를 통해 제작 기획부터 액세스까지 밀착 지도

■ 교육과정

회 차		교 육 명	교 육 내 용	비 고
1회차	10/15	오리엔테이션	- 강좌 특성 및 진행 소개 - 참여자 소개 및 동기 공유	전철원
2회차	10/22	퍼블릭액세스의 이해	- 퍼블릭액세스의 개념 - 퍼블릭액세스 국내외 현황	박채은
3회차	10/25	방송의 이해	- OBS 현장 방문 - ‘꿈꾸는 U’ 제작팀 미팅	멘토 2인
4회차	10/29	기획	- 소재 발굴 - 제작 기획	이혜린
5회차	11/5	작품 제작1	- 수료작품 기획 회의 : 제작 계획 발표 및 점검	멘토 2인
6회차	11/12	작품 제작2	- 촬영: 촬영 및 점검	멘토 2인

7회차	11/19	작품 제작3	- 편집: 편집 및 점검	멘토 2인
8회차	11/26	작품 제작4	- 증편 및 시사	멘토 2인

■ 강사

- 전철원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박채은 - 미디액트 정책실
- 이혜린 - 시민방송 RTV 액션V 담당
- 멘토 - 황승용(영상활동가) / 이기태 (영상활동가)

■ 기록



(2) 청소년 퍼블릭 액세스 제작 교육

①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 기간 : 2008년 9월 ~ 12월

■ 교육목표

-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이해한다.
- 지역 케이블방송국에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액세스한다.

■ 교육대상

- 문학정보고등학교 영상제작반, 정석항공고등학교 방송반 청소년 10명

■ 교육방법

-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강의

- 제작 기획부터 액세스까지 밀착 지도

■ 교육내용

회 차	교 육 명	교 육 내 용
1회차	9/22 오리엔테이션	- 교육 특성 및 진행 소개 - 전체 교육 진행 소개
2회차	9/29 퍼블릭액세스의 이해	- 퍼블릭액세스의 개념 - 퍼블릭액세스 국내외 현황
3회차	10/13 기획1	- 마인드 맵을 활용한 주제 및 소재 찾기
4회차	10/20 시나리오	-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 - 과제 : 시나리오 작성
5회차	10/27 콘티	- 콘티에 대한 이해 - 과제 : 콘티 제작
6회차	11/3 촬영1	- 1회차 촬영 - 조명 및 동시녹음에 대한 이해 - 문학정보고등학교 로케이션
7회차	11/10 촬영2	- 2회차 촬영 - 문학정보고등학교 로케이션
8회차	11/17 촬영3	- 보충 촬영 - 침실 씬 촬영
9회차	11/24 편집	- '즐거운 학교' 편집
10회차	12/1 시사 및 평가	- 결과물 시사 및 평가

■ 강사

- 주강사 : 전철원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보조강사 : 라정민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메이킹 : 조상현

■ 퍼블릭 액세스

- NIB 남인천방송국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작은영화제]에서 '아버지', '즐거운 학교', '즐거운 학교 메이킹' 총 3편 방송

(3) 인천미디어활동가 워크숍

① 사업내용

“미디어 공공성의 뿌리에서 미래까지”

■ 사업 목적

- 인천지역 미디어활동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인천지역 미디어관련 네트워크의 기초를 형성한다.

■ 사업 개요

- 퍼블릭액세스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미디어관련 시민단체와 운동단체의 미디어활동가를 12명 모집한다.
- 4회에 걸친 미디어 공공성의 영역과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미디어 관련 활동의 기초적인 활동상을 공유한다.

- 워크숍을 통해 지역미디어운동의 활동을 소통하고 공유할 초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사업 시기

- 2008년 10월 23일,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저녁 7시 (격주 목요일) 4회 연속 워크숍

■ 사업 주체

- [공동주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퍼블릭액세스위원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의 《지역정책역량강화프로젝트》와 연계

■ 워크숍 진행 방향

- 미디어운동의 전체 영역을 다루도록 한다.
- 각각의 영역이 과편적이고 독립적이지 않고 통일적인 흐름을 가지고도록 한다. 이 통일적인 흐름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도록 한다.
- 전체 운동적인 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적인 미디어운동의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한다.
- 지역적인 실천을 논의하기 위해 매 교육마다 강의는 1시간 내에 끝내고 지역주체들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 매 강의마다 지역주체들이 토론문을 제출하여 토론회 형태로 진행한다.

■ 워크숍 내용

- 《1강》 미디어 공공성 1.0

- 미디어공공성의 문제와 방송통신융합정책 현황
 - 강의자 : 허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일정 : 2008년 10월 23일(목) 오후 7시
 - 미디어운동에 대한 소개
 - 미디어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의 역사, 지형, 영역에 대한 정리
 - 방송통신융합 미디어환경의 변화, 정부의 미디어정책의 문제 인식과 비판적 분석
 - 미디어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체언론미디어운동진영의 과제

- 《2강》 미디어 공공성 1.0

- 지역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지역언론의 문제와 위기"
 - 강의자 : 박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부소장, 전북민언련)
 - 일정 : 2008년 11월 6일(목) 오후 7시
 - 지역 언론(방송사, 케이블, 지역신문)의 현황과 위기에 대해
 - 미디어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지역 언론의 나아가야 할 방향
 - 지역 언론과 지역미디어운동의 관계 맺기

- 《3강》 미디어 공공성 2.0

- 미디어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커뮤니티 미디어
 - 강의자 : 이경희 (성서공동체라디오PD, 대구미디어활동가)

- 일정 : 2008년 11월 20일(목) 오후 7시
 - 미디어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공동체미디어 : 왜 공동체미디어가 필요한가?
 - 공동체라디오, 동네TV등의 국내외 사례의 검토와 이론적 정리
 - 성서공동체라디오와 대구건설노동자 퍼블릭액세스프로젝트 사례의 실제적인 검토
- 《4강》 미디어 공공성 2.0
 - "아래로부터의 미디어 공공성 : 촛불, 인터넷, 공공성"
- 강의자 : 조동원 (미디어활동가/연구자)
- 일정 : 2008년 12월 4일(목) 오후 7시
 - 촛불운동(2002, 2004, 2008)과 미디어 행동주의의 변화 발전을 추적해 본다.
 - 2008촛불운동의 길거리 미디어, 네트워크 미디어, 혼성 미디어의 사례, 의미, 한계를 토론해 본다.
 - 아래로부터의 미디어 공공성과 미디어 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질문해 본다.

(4) ‘이야기가 있는 인천’ 공모 사업

① 사업내용

■ 사업 개요

-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 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후원 : 인천광역시
- 주관방송사 : NIB 남인천방송

■ 사업배경

- 인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인천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 추상적
- 인천에 있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개인의 역사를 수집하는 방식이 필요함

■ 사업 방향

- 인천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대해 떠올린 시민들의 기억을 형상화한 10분 내외의 영상물 공모
- 각 공간별로 영상물 DB 구축 및 아카이브화하여 인천과 인천에서의 삶이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 될 수 있는 창구 역할로 기능
- CAMF 개관 1주년 기념사업으로 연계

■ 사업진행 내용

- 공모시기 : 2008년 8월
- 공모내용 : 인천의 특정한 공간에 대해 남아 있는 개인의 기억을 담은 10분 내외의 영상물
- 공모 방식 : 홈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 인천’ 페이지 마련
 - 위 페이지에서 한 달간 영상물 접수
 -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DB화 할 영상물 선정

■ 응모작

순번	출 품 작	출품자
1	겨울시장	최대한
2	노인유사체험학교	한승현
3	강화서도중앙교회	사유진
4	엄마의 추억여행	박기범
5	도장리 사람들	김경민
6	만나고 싶었소	이기태
7	주인공원의 지킬박사와 하이드	민후남
8	비보이 비상하다	황제은
9	공간, 추억, 삶... 배다리 헌책방	정수미
10	공부방 이사	조상현
11	일보전진 십보후퇴	라정민
12	아벨서점을 통해 본 배다리의 역사	김현숙
13	그녀의 가족들	심혜령
14	세상 속 또 하나의 공간	박성희
15	사라져가는 인천의 기억 배다리	배성무
16	가을 동산 돌아보기_계양산	권미선
17	봄나들이_어린이박물관과 도호부청사	권미선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역사성	인천의 역사로 가치있는 이야기여야 함	10
지역성	어느 도시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천 지역만의 이야기여야 함	15
다양성	다양한 문화와 삶이 공존하고 있는 인천의 도시 정체성에 어울리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여야 함	15
일상성	인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체화되어 있는 이야기여야 함	20
원성도	사건 혹은 공간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로서 완결이 되어야 함	20
전달력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고, 호소력이 있어야 함	20
합 계		100

■ 심사결과

수상	작품명	출품자명
우수상	도장리 사람들	김경민
	공부방 이사	조상현
	일보전진 십보후퇴	라정민
	아벨서점을 통해 본 배다리의 역사	김현숙
가작	겨울시장	최대한
	만나고 싶었소	이기태
	주인공원의 지킬박사와 하이드	민후남
	세상 속 또 하나의 공간	박성희
	사라져가는 인천의 기억 배다리	배성무

■ 심사 총평

2008년 ‘이야기가 있는 인천’에 응모한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야기가 좋은 작품은 공간에 대한 기억이 아쉽고, 공간에 대한 기억이 뚜렷한 작품은 이야기가 아쉬우면서 전체적인 심사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인천’의 공간에 대한 기억은 개인적 삶의 경험과 인천이라는 도시적 삶의 통합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반면에 응모작품들에서 취한 공간에 대한 기억은 많은 부분 역사적 기록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사에서의 아쉬움과 비슷한 성적이 나온 심사결과 2008년 ‘이야기가 있는 인천’은 대상작 없이 우수상을 4편 수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시상식

- 일시 : 2008년 12월 26일 (금) 오후 7시
- 장소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영화공간 주안4관)
- 프로그램 : 1. 수상작 상영회
2. 시상식

■ 기록



② 사업평가

지역 방송(케이블방송, 라디오방송)의 관심 속에서 인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가 이루어졌다. NIB남인천방송의 경우 주관방송사로서 상금 후원과 함께 9월부터 11월까지 ‘이야기가 있는 인천’의 티저광고를 지속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경인방송FM과 인천교통방송에서 각각 ‘이야기가 있는 인천’ 공모와 관련한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영상의 완성도 보다는 인천시민 스스로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모 사업이었으나, 공간에 대한 기억을 기초로 영상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겐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소재와 이야기끼리였다고 보이는 여러 작품들이 좋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상작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야기가 있는 인천’ 공모 사업은 인천 시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 기록으로 만들어가는 경험만으로도 유의미한 사업이다. 더불어 실제 삶에 이야기가 담긴 지역의 풍경들이 영상 기록으로 축적되는 것은 도시 정체성과 역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영상물들의 축적은 인천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적 해석과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도 작동할 것이다.

이후 사업에서는 2008년 사업에서 한계로 드러난 영상스토리텔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 공모가 아닌 교육을 연결하는 제작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창작지원사업

1) 기자재실 운영사업

(1) 기자재 대여

①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한다.

■ 사업대상

- 희원교육을 이수한 시민들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개인
- 학교 방송반,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 제작을 하고자 하는 단체

■ 기자재 대여 절차

처리절차	일정	내용	결과	비고
홈페이지 신청 ↓	D-3 이전	⇒ 기자재 대여 신청	차주 장비 준비	신청자
대기 ↓	D-2 이전	⇒ 미입금 [문자발송등]	미입금자 기자재 취소	관리자
승인 ↓	D-2 이후	⇒ 최종 입금자 확인	기자재 준비	담당자
대여	당일	⇒ 본인여부 확인 및 대여	기자재 대여	담당자 신청자

■ 기자재 대여 현황

- 장비별 활용 현황

장비명	수량	대여건수				대여일수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Sony HDV HVR-V1N	3	93	6	12	75	392	10	16	366
Sony HDV HVR-A1N	8	157	3	123	31	319	9	232	78
Panasonic DVX100P	2	5	2	1	2	15	5	1	9
JVC GR-DV3000	6	51	22	20	9	90	34	20	36
Manfrotto 503 Tripod set	3	16	3	1	12	154	8	1	145
Libec TH-950DV	8	188	18	115	55	414	21	210	183
Sony HDV HVR-V1N용 광각렌즈	2	45	2	3	40	198	3	7	188
FIG RIG 595B	1	6	2	1	3	16	5	1	10
Reflector 42" * 42"	1	9	2	4	3	15	5	4	6
Wireless Mic UWP C-1	2	51	2	.	49	190	5	.	185

Wireless Mic TX-755PM	8	39	7	9	23	108	13	26	69
Condenser Mic Audie Technica 815B	2	13	1	6	6	25	1	6	18
외장하드	6	19	9	.	10	19	9	.	10
Dedo Light Set	1	2	1	.	1	5	1	.	4
Tungsten 650W Set	3	18	4	10	4	29	7	15	7
KinoFlo 4ft 4bank Set	2	14	5	7	2	36	20	11	5
Jupiter Light	6	9	5	2	2	25	11	2	2
Grip Set (C-stand Griphead arm)	1	11	3	7	1	18	7	10	4
BEHRINGER XENYX 1002	3	21	.	1	20	101	.	1	100
Sennheiser K6 Mics ME66 (Boompole 포함)	1	8	1	4	3	23	4	8	11
TASCAM HD-P2 Portable Recorder	2	14	2	10	2	29	3	14	12
Sony GV-HD700	1	9	4	1	4	22	7	5	10
EIKI LC-XB40 프로젝터	1	26	1	3	22	111	4	3	104
80인치 유압식 스크린	1	23	.	2	21	103	.	2	101

○ 월별 사용 현황

월	대여건수				대여일수				비고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1월	58	11	40	7	114	23	44	47	
2월	14	2	.	12	60	2	.	58	
3월	12	.	.	12	62	.	.	62	
4월	51	1	38	12	103	3	40	60	
5월	67	2	13	52	187	13	13	161	
6월	59	11	10	38	192	33	10	149	
7월	72	5	49	18	156	14	66	76	
8월	97	5	61	31	219	16	91	112	
9월	103	8	32	63	255	23	32	200	
10월	119	13	43	63	419	31	145	243	
11월	195	43	49	103	537	72	121	344	
12월	59	6	11	42	188	9	11	168	
총 계	906	107	345	453	2492	239	572	1680	

○ 총대여 현황

	대여건수				대여일수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2008년 총계	906	107	345	453	2492	239	572	1680

② 사업평가

■ 기자재 사용자 현황

	20대	30대	40대	총계
남	17명	76명	3명	96명(90%)
여	4명	5명	2명	11명(10%)
총계	21명(19%)	81명(76%)	5명(5%)	107명(100%)

■ 운영자 평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촬영장비, 녹음장비, 조명장비를 구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기자재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원(일반회원, 정회원)을 대상으로 대여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이용할 수 있다.

2008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75건의 대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여건수와 대여일수를 1일 단위로 나눠보면 하루 4개의 기자재가 평균 10일 정도씩 대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료 대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교육이나 지원 전수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년도 유료건수가 14건(9월~12월)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2008년 유료 대여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유료 대여 건수만 107건이며, 대여 일수 역시 200일이 넘었다.

교육과 지원에서는 기자재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부분에서는 5월부터 대폭 이용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영상물로 제작하고 있는 문화PD에 대한 장비지원이 5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PD 사업은 인천영상위원회와 CAMF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역 문화자산을 축적,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 장비 대여 현황을 보면 카메라 장비 Sony HDV HVR-A1N, Sony HDV HVR-V1N과 촬영 장비 Libec TH-950DV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무선 마이크 Wireless Mic UWP C-1, Wireless Mic TX-755PM의 이용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조명 장비인 Dedo Light Set와 카메라 Panasonic DVX100P, 촬영장비 FIG RIG 595B의 활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촬영장비인 FIG RIG은 이용자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에 회원무료 특강을 마련했으며, 내년도에도 장비특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남성이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76명), 20대(17명), 40대(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이용비율을 보면 남성이 90%로 압도적이다.

(2) 공간 운영

①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촬영 및 편집 기자재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한다.

■ 사업대상

- 회원교육을 이수한 시민들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개인
- 학교 방송반,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 제작을 하고자 하는 단체

■ 사업내용

- 전문편집실 대여 및 관리
- 스튜디오 대여 및 관리

■ 공간대여 현황

- 전문편집실 대여 절차

처리절차	일정	내용	결과	비고
홈페이지 신청 ↓	D-3 이전	⇒ 전문편집실 이용 신청	편집실 예약	신청자
대기 ↓	D-2 이전	⇒ 미입금 [문자발송등]	미입금자 예약 취소	관리자
승인 ↓	D-2 이후	⇒ 최종 입금자 확인	편집실 준비	담당자
대여	당일	⇒ 본인여부 확인 및 대여	편집실 대여	담당자 신청자

- 편집실 월별 이용 현황

월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1월	3	3	.	.	12	12	.	.
2월
3월
4월	1	1	.	.	4	4	.	.
5월	23	3	.	20	156	12	.	144
6월	27	2	.	25	176	12	.	164
7월	5	1	.	4	40	4	.	36
8월	19	4	5	10	112	28	28	56
9월	29	4	11	14	168	16	48	104
10월	25	7	.	18	136	40	.	96
11월	32	9	.	23	176	40	.	136
12월	17	8	.	9	96	32	.	64
총 계	181	41	16	124	1076	200	76	800

- 편집실 총 이용 현황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2008년 총계	181	41	16	124	1084	196	76	812

○ 스튜디오 대여 절차

처리절차	일정	내용	결과	비고
홈페이지 신청 ↓	D-7 이전	⇒ 스튜디오 이용 신청	스튜디오 예약	신청자
대기 ↓	D-3 이전	⇒ 미입금 [문자발송등]	미입금자 예약 취소	관리자
승인 ↓	D-3 이후	⇒ 최종 입금자 확인	스튜디오 준비	담당자
대여	당일	⇒ 본인여부 확인 및 대여	스튜디오 대여	담당자 신청자

○ 스튜디오 월별 이용 현황

월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1월
2월
3월
4월	1	.	1	.	3	.	3	.
5월
6월
7월	1	.	.	1	2	.	.	2
8월	6	.	5	1	20	.	19	1
9월	1	1	.	.	1	1	.	.
10월	3	2	.	1	3	2	.	1
11월	3	.	3	.	12	.	12	.
12월
총 계	15	3	9	3	41	3	34	4

○ 스튜디오 총 이용 현황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2008년 총계	15	3	9	3	41	3	34	4

② 사업 평가

■ 편집실 운영 평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및 영화제작 이후 후반작업을 위한 편집공간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문편집실은 2인 편집시스템 2대를 갖추고 있으며, HDV 데크를 비롯해 22인치 듀얼 모니터, 오디오 믹서, VTR 등이 설치되어 있다. 편집프로그램으로는 프리미어 CS3를 사용하고 있다. 전문편집실 역시 회원을 대상으로 대여되고 있으며, 하루 3타임(각 타임별 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편집실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 되고 있지 못하다. 한 달 평균 15건의 편집실 대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여시간으로 보면 1일 평균 3시간씩 사용되고 있다.(365일 기준)

■ 스튜디오 운영 평가

스튜디오는 30평 규모로 스튜디오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촬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스튜디오 내에 CAMF 조명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어 촬영 교육이나 조명교육, 나레이션 녹음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009년에는 스튜디오 공간 활성화를 위해 ‘체험스튜디오’와 같은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으며,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3) 2008년도 기자재 및 공간 운영 전체 평가

■ 기자재 및 공간 운영 평가

전체적으로 기자재 시설이나 공간 이용도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했다. 특히 기자재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기자재 이용 및 대여, 지원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다르게는 인천 시민들의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센터 정규교육과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 안정화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 기자재들이 정기적으로 활용되었고 센터 내부 사업 외에 외부 사업들이 센터 사업과 연계되면서 기자재 지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반 대여의 경우 간단한 영상을 제작이나 단편영화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촬영장비와 조명장비들이 대여되었으며, 지원의 경우에는 인천 문화콘텐츠물 제작을 위한 문화PD 지원이 가장 많았다. 기자재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비 대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검수 및 관리 역할 비중이 높아졌으며, 한편 중요해지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기자재나 공간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었지만 작은 소모품들이 분실되거나 장비의 많은 사용으로 마모, 훼손이 된 장비도 있었으며, 전문편집실 컴퓨터의 경우 많은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자주 오류를 발생해 A/S가 몇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일상적인 검수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A/S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만큼 소모되는 기계장비들인 만큼 시기에 맞춰 전체적인 점검 및 A/S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률이 적거나 기자재 이용이 어려운 장비들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장비특강’이나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기자재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센터 기자재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과 2008년이 기자재 및 공간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여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09년 이후로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자재든 공간이든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면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향후 계획

앞의 평가에서 말한 것처럼 2009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자재 및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특강을 비롯해 스튜디오 체험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다. 또 기자재 대여 운영 시스템도 시민들이 보다 원활히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2~4시 대여, 6시~8시 반납에서 두 시간대 모두 출.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 아카이브 사업

(1) 사업내용

■ 사업개요

아카이브는 회원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카이브 자료들은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며, CAMF 공간 안에서 이용가능하다. 최근 신규 자료들을 업데이트해 앞으로 아카이브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목표

- 다양성을 갖춘 영상자료아카이브 구축
- 지역성을 갖춘 영상자료아카이브 구축

■ 사업대상

-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원

■ 사업내용

- 지역성을 갖춘 인천지역제작물의 아카이빙
- 다양성을 갖춘 국내외 영상제작물의 아카이빙
- 미디어 관련 도서의 아카이빙

■ 아카이브 현황

- 아카이브 DVD/VHS 자료 현황

	2007		2008		계
	DVD	VHS	DVD	VHS	
한국독립단편	25	10	4		39
한국독립영화	38	46	6		90
한국일반	61		8	9	78
중국+홍콩	40		1	2	43
일본	61		10		71
미국	135		24	18	177
유럽	89		5		94
제3세계	14		6		14
애니메이션	8		8	3	14
기타	3				14
계	474	56	72	32	634

- 아카이브 도서 자료 현황

	2008 구매도서	2008 기증도서	계
미디어,방송	14	20	34
영화	10	40	50
영상	1		1

인천문화	7	45	52
기타	5		5
합계	37	105	142

■ 이용 현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이용건수	.	1	.	2	1	.	.	2	.	3	7	3	16
이용시간		3		4	3			3		10	17	6	46

(2) 사업평가

■ 아카이브 사업 평가

CAMF의 아카이브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인천 영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초 자료 및 영상물들을 구축했다. 올해 구입하거나 지원받아 새롭게 구비한 DVD자료 104편과 도서 142편을 포함해 총 770여 종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CAMF 아카이브의 자료들은 시민들의 폭넓은 영상문화 이해와 다양한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DVD의 경우 한국독립영화와 국외 다양성 영화(예술영화 포함) 자료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그 밖에도 미디어 교육을 위한 영상자료나 애니메이션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도서 자료는 2008년 들어 새롭게 구비하기 시작했으며, 미디어·방송, 영화, 영상 자료는 물론 지역문화와 관련한 도서 자료들을 구비했다.

■ 향후계획

아카이브는 신규 자료 구입 사업 외에도 두 가지 큰 사업들이 기획되어 있다. ‘인천영상 아카이브’ 사업과 ‘DVD 클럽’이 그것이다. ‘인천영상 아카이브’ 사업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영상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20편의 작품을 공모해 디지털화하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VD클럽’은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영상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소동아리 모임이다. 올해 아카이브는 대안미디어 영역에서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인천의 다양한 영상문화를 만들 어내고자 한다.

3) CAMF 특강 사업

(1)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인천 지역의 영화 및 영상물 제작 활성화
- CAMF 회원들의 결속력 강화
- CAMF 기자재 활용 확대

■ 사업대상

- 전문적인 제작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
- 지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 사업 내용

- 3개의 특강 구성 : 동시녹음 특강, 촬영 특강, 포켓미디어 특강
- 현장 경험 및 강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 배치
- 동시녹음 및 촬영 특강은 CAMF 보유 기자재를 중심으로 교육 진행
- CAMF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좌

(1) 포켓미디어 특강

- 강의명 : 주머니속의 미디어를 만나다
- 모집기간 : 2008년 11월 25일 ~ 12월 12일
- 특강 일정 : 2008년 12월 16일, 18일, 20일
- 강사
 - **이하송 독립영화감독**
2006년 단편영화 '허그'
독립영화워크숍 73기
2007년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선재상 수상 '웅이 이야기'
 - **이수진 독립영화감독**
계원조형예술대학
2008년 제7회 미쟝센단편영화제 비정성시 작품상 '적의 사과'
 - **장건재 독립영화감독**
단편 '학교다녀왔습니다' 연출
단편 '히치하이킹' 촬영감독
- 강의 진행

강의일	강사	강의 내용	수강
12/16	이하송	포켓미디어의 정의 / 제작 기획	5/8
12/18	이수진	촬영과 실제 / 자료 감상 / 촬영 실습	4/8
12/20	장건재	촬영 확인 / 편집 교육 / 시사	3/8

- 수강생 현황 : 10인 정원에 8인 신청(신청률 : 80%)
수강 참석률 : 50%(12/24)

(2) 동시녹음 특강

- 강의명 : 동시녹음과 HD-P2의 활용
- 모집기간 : 2008년 11월 25일 ~ 12월 17일
- 특강 일정 : 2008년 12월 19일, 20일
- 강사
 - **노현진 음향감독**
용인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전공. 멀티미디어 복수전공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애니메이션 전공
영상기술학회 HD 영상연구 연구원
MBC 드라마 촬영부
한국독립영화협회 HD 영화촬영 Workshop 강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영상디자인 강의
영화 Why did you marry my mother? 촬영, 편집, 믹싱 - 영국 Channel 4 방영
독립장편 궤도 - Lift Track 편집

상업장편 집으로, 살인의 추억, 장화홍련 등 사운드 디자인

○ 강의 진행

강의일	강의 내용
12/19	동시녹음에 대한 이해 - 동시녹음을 위한 기초 음향 이론 - 마이크의 종류와 특성과 마이킹 - TASCAM HD-P2 알아보기
12/20	동시녹음 활용 - 영화 녹음에 TASCAM HD-P2 적용하기 - 상황에 따른 마이크 적용과 HD-P2를 이용한 녹음 및 무선 마이크 사용하기 - 후반작업을 위한 주변음 녹음 및 녹음내용 확인하기

- 수강생 현황 : 10인 정원에 9인 신청 (신청률 : 80%)

수강 참석률 : 100%(18/18)

(3) 촬영 특강

- 강의명 : Fig-Rig 등 다양한 트라이포드를 활용한 촬영 스타일
- 모집기간 : 2008년 12월 19일 ~ 12월 26일
- 특강 일정 : 2008년 12월 27일
- 강사 : 박정식
- 강의 내용

강의일	강의 내용		
12/27	1	활용 사례	사례
	2	이론 강의 및 시연	시연
	3	실습	제작

- 수강생 현황 : 12인 정원에 8인 신청 (신청률 : 66%)

수강 참석률 : 100% (8/8)

■ 기록



(2) 사업 평가

■ 특강 사업 평가

2008년에 진행한 첫 특강으로 12월에 모두 진행되었다. 교육팀과의 협의와 내용 정리를 통해 특강으로 진행해야 할 것과 정규교육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공유가 필요했다. 진행된 특강들은 CAMF가 보유한 기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좌 수강 이후에 수강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각 특강들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 보다는 각 강좌의 전문경력 과정에서 필수적인 내용들만 정리하여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필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초 강좌로 이러한 특강을 배치하고 이후에 심화과정에 대한 강좌가 배치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에 포켓미디어특강은 다른 특강과는 달리 명칭의 낯설음과 더불어 기초적 수준에서의 수강임에도 제작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수강생들이 어려워하였다. 이런 점때문에 수강생들이 첫 강의 이후 불참하면서 수강률이 많이 낮아졌다.

■ 향후계획

2009년 특강은 전체적인 정규강좌 일정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2008년에 진행하지 못했던 수강생 만족도 부분과 강의 성과에 평가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4) 오매불망 프로젝트 사업

(1)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인천 지역의 영화 및 영상을 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영상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

■ 사업대상

- 지역 내에서 영상으로 소통하고자 하며 제작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기자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한 작품
- 작품의 주제와 그 내용이 개인적 이해에 대한 것이 아닌 작품

■ 사업내용

- 지원방식 :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장비, 편집실 등 공간, 기타 시설)로 지원하는 방식, 신청규모 중 최대 70%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인천 지역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 공모기간 : 2008년 7월 29일(화) ~ 8월 25일(월)

■ 신청작품

연번	작품명	형식	신청인	결과
1	파마	극영화	이란희	
2	귀신이 산데 외 4편(묶음 장편)	극영화	백승기	지원

3	백제난	다큐멘터리	사유진	
4	춤추리	극영화	홍현정	지원

■ 선정작품

연번	작품명	형식	신청인	지원CC
2	귀신이 산데 외 4편(묶음 장편)	극영화	백승기	40만CC(단 시사회를 위한 극장 사용 조건)
4	춤추리	극영화	홍현정	130만CC

귀신이 산데 외 4편은 교사와 중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장편영화로서 지역과 청소년, 그리고 센터가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제작의 과정과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시사회를 할 수 있는 극장 사용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춤추리’는 지역의 풍경과 공간이 결합한 영화. 또한 작품을 완성 할 수 있는 능력도 포트폴리오로 확인하였다.

(2) 사업 평가

■ 오매불망 프로젝트 사업 평가

2008년의 오매불망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제작의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업이었다. 물론 CAMF의 기자재가 아직 전문적 제작을 위한 수준에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들이 지원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전체에서 제작되는 수량을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소규모 독립 단편 영상을 제작하기에 부족함은 없는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영상제작을 계획하는 상당수의 인력에 대한 파악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2008년에는 비록 4편 밖에 접수되지 못했지만,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이 인천영상위원회의 제작비지원과는 다른 장점으로 특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5) I-culture 사업(인천문화PD 사업)

(1) 사업내용

I-culture 사업(인천문화PD 사업)은 지역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인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사업으로 (재)인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4인의 문화피디를 위촉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8월 이후에는 (재)한국문화정보센터와도 사업 연계를 가졌다.

■ 사업 목표

- 인천의 문화축제, 문화행사에 대한 영상 DB 구축
- 영상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
- 지역 내 문화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대상

- 문화피디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 문화피디 활동으로 조성된 컨텐츠를 이용할 인천시민

■ 사업 내용

- 인천문화예술 관련 영상물 제작
- 문화PD 4인이 월 4편, 8개월간 총 32편 제작
- 사업 진행 일정

기간	내용	비고
4월 8일	인천 문화PD 운영을 위한 (재)인천문화재단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협약 체결	<I-culture>명칭으로 진행
4월 8일~22일	문화(I-culture) PD 4인 선발	사유진, 김주영, 최영준, 서은선
4월 25일~30일	문화PD 기본 교육 / I-culture 트레일러 제작	기술(HDV) 및 콘텐츠 기획 교육
5월 1일~12월 31일	문화PD 활동	10월부터 2인 교체 - 최영준, 서은선 2명 정영호, 승희로

■ 제작 작품

연번	월	작품명	제작PD
1	5	배다리 리포트	사유진
2		신나는 문화학교	최영준
3		제26회 전국연극제	김주영
4		흥예문 예술축제	서은선
5	6	배연신굿-2008 서해안 풍어제	사유진
6		일하는 사람들의 쉼터, 삶이 보이는 창	최영준
7		2008 비타민 연극제	김주영
8		2008 이민사 박물관	서은선
9	7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데일리 1~4	문화PD 4인 공동기획
10			
11			
12			
13	8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사유진
14		생태문화체험학교, 강화 초록마당	김주영
15		영화를 꿈꾸는 인천	서은선
16	9	인천시청 검도부	사유진
17		열우물길 프로젝트	서은선
18		21회 인천노동문화제	김주영
19	10	인천 부평 기적의 도서관	김주영
20		SKY 페스티벌	정영호
21		인천축제의 현장속으로	정영호
22		사진전을 통해 다시 바라본 인천	이승희
23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이승희
24		자연으로의 귀의-수목장 1부	사유진
25	11	자연으로의 귀의-수목장 2부	사유진
26		연안부두	이승희
27		작곡 동아리 <끝없이 이어지는 장단 발표회>	김주영

28	12	자연에 더 가까이	정영호
29		마을 축제	김주영
30		부평도호부청사 알아가기	이승희
31		강화 서도중앙교회	사유진
32		도심속의 작은 섬, 월미도	서은선

(2) 사업평가

I-culture 사업 평가

I-culture 사업(인천문화PD 사업)은 지역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인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사업으로 (재)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였다. 사업 초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타 유통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일정보다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32개의 문화 콘텐츠 생산, 6인의 문화PD 교육, 생산된 콘텐츠의 정기적 웹 게시를 통한 정규 유통 등 많은 성과를 남긴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8월 이후 (재)한국문화정보센터와 협의된 문화PD 사업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인천문화PD 사업은 많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콘텐츠에 대한 관점과 철학적 해석이 너무 달랐고,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활용과 유통의 계획도 많이 달랐다.

또한 CAMF와 (사)인천문화재단과는 문화PD들이 선정하는 소재와 주제에 대해 약간의 긴장을 유지했다. 나름대로 민감한 지역적 문제가 항상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차츰 문화PD들의 고민이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소재들로 확대되면서 완화될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 문화PD들 사이에서 편차를 보이던 콘텐츠의 질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 되어 갔다.

향후 계획

2009년에는 인천문화PD들의 작품들이 웹에서만 상영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콘텐츠가 단순한 정보전달의 매개로 활용되기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만들 수 있는 작품으로 접근될 수 있는 플랫폼 형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문화 콘텐츠의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PD들에 대한 마인드웨어 교육이 필요하다.

4. 정책사업

1) 웹진 발간 사업

(1)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명칭 - CAMF페이퍼
- 제작형식 - 격월 웹진
- 배포방식 - 이메일링 발송, 인터넷 게시판 등록
- 배포대상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원 및 이메일링리스트 가입자, 유관 기관, 지역의 시민단체 및 공동체

■ 사업 목적

- 미디어문화와 교육, 미디어산업과 정책, 대안미디어활동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소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미디어 정책 생산과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 방향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회원 및 영상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글쓰기를 한다.
- 지역 매체로서 지역에 밀착하여 구체화하고 드러낸다.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공동체미디어활성화라는 운영방향이 드러나는 기획을 통해 타 웹진과의 차별성을 꾀한다.

■ 세부 운영

- CAMF페이퍼 편집위원회 구성 - CAMF페이퍼의 운영방향과 내용 기획
- 편집위원
 - 김성희 : 중앙대학교 강사/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김화범 : 인디스토리
 - 정진오 : 경인일보 기자
 - 허경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간사
 - 허은광 :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 편집위원회 회의
 - 편집위원회 간사 1인과 편집위원 5인으로 구성
 - 편집위원회 간사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스탭이 맡으며, CAMF 페이퍼 편집회의 진행 및 웹진 제작을 함

■ CAMF페이퍼 카테고리

○ 메인 카테고리

- <이슈와 쟁점> 미디어亂장
 - 미디어환경에 대한 거시적 담론들을 소통한다.
 - 지역에 기반하여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산업 및 기술, 미디어환경과 동향, 비판과 전망
 - 미디어 관련 법제 및 제도화와 관련된 이슈, 입장, 해석
- 미디어·교육
 - 미디어교육의 현장들이 공유되고 전시되는 미디어교육 페스티벌

-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들이 소통되는 교사재교육의 장
-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현장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교자료, 교재 소개
- 미디어Activist
 - 미디어활동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현장과 활동가들 소개
 - 미디어활동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미디어 활동 현장
 - 미디어activist 및 단체 소개 -인터뷰 및 취재
- IN천 스토리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방향인 공동체미디어활동에 대한 저변 공유
 - 인천의 학교, 마을, 단체, 노조, 생협 등등 공동체미디어활동에 대한 공유
 - 공동체의 소통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
- 다양성 영화의 장
 - 상업화를 지향하는 영화산업과는 다른 영화생산 및 소통, 대안적 영화운동에 대한 모색과 공유
 - 독립영화 및 다양성 영화 관련 정보 및 소식
 - 개봉 독립영화 소식
 - 대안적 영화운동에 대한 모색
 - 공동체상영 관련 다양한 활동들
- 〈영화읽기〉 천개의 눈@천개의 영화
 - 영화읽기를 통한 생산적 독해의 장
 - 영화를 통해 현실을 읽어내고 드러내는 메타비평의 장
 - 독립영화등 다양성 영화에 대한 영화비평
 - 비평전문가들이 아닌 다양성 영화 매니아들, 지역시민들이 참여하는 영화비평의 장

○ 서브 카테고리

- 열린게시판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게시판.
 - 자유게시판 기능
 - 미디어와 관련된 전국적, 지역적 쟁점에 대해 유저들이 직접 공유, 특정이슈를 제안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게시판
 - 성명서등을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함으로써 열린 토론의 장
- 뉴스크리핑
 - 다양한 매체들의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 모아 전달
 - 문화, 미디어, 정보 등과 관련된 각종 미디어들의 뉴스 소통 창구

■ 사업 내용

- 웹진 창간준비호 발간 - 2008년 8월 7일
- 웹진 창간호 발간 - 2008년 10월 25일
- 웹진 2호 발간 - 2008년 12월 30일

2) 정책 토론회 사업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발전을 위한 토론회

① 사업 내용

■ 사업 목적

-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경험과 성과를 상호 교류하고 평가
-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
- 미디어센터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조직 건설

■ 사업 기간 및 장소

- 2008년 12월 5일 ~ 6일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청소년미디어센터 강의실

■ 사업 내용

- 섹션 1. <전국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결속력 강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 발제 : 전국미디어센터의 연대활동에 대한 제언
손동혁(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장)
 - 토론 : 이충희(대구영상미디어센터)
박승우(마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최성은(전주 영시미)
- 섹션 2.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평가 및 운영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발제 : 지역미디어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제언
전철원(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토론 : 김성환(방통위 방송환경개선팀 사무관)
이정현(문화부 영상산업과 사무관)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권용협(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 섹션 3. <미디어센터 활동력 배기를 위한 집중토론>
 - 공동체 미디어교육섹션
 - 상설 미디어교육섹션
 - 창작지원 섹션
 - 웹 및 홍보 섹션
 - 정책개발 섹션
 - 관리 및 운영

■ 참여 인원 - 전국지역영상미디어센터 스텝 38명

■ 기록



(2) 국제 세미나 <미디어융합과 공동체미디어의 미래>

■ 사업 목적

- 공공 인프라로서의 지역 공동체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 미디어 센터 설립 및 운영 주체의 국제적 소통과 연대
 - 지역미디어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여 각종 법제, 정책, 사업 등의 개선 방향을 공유
 - 한국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려내고 국제 사례에서 장점을 공유
- 미디어융합 환경에서의 미디어센터의 역할 재조정
 - 미디어센터의 확대 및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법제 및 정책 의제 개발 및 논의

■ 공동 주최 및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사업 기간 및 장소

- 2008년 12월 17일 ~ 18일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사업 내용

○ 미디어센터 섹션1

- 이주훈 (미디액트/한국) : 미디액트의 활동 및 미디어센터의 전국적 상황
- 전철원 (CAMF/한국) : 지역미디어센터로서의 CAMF 활동
- 야스다 유끼히로 (MediR/일본) : 도쿄 지역미디어센터인 MediR의 활동

○ 미디어센터 섹션2

- 조슈아 브레이트바트 (민중 미디어 프로덕션/미국) : 필라델피아의 미디어센터
- 루이스 미사이어 (스크라이브 비디오 센터/미국) : 뉴욕의 미디어센터

○ 미디어융합과 시민사회 섹션1

- 김지현 (미디액트/한국) : 미디어 융합과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개입 활동
- 가브리엘 하들 (일본) : 일본의 정책 융합과 온라인 시민사회미디어
- 이케다 가요 (아워 플래닛/일본) :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네트워크 활동

○ 미디어융합과 시민사회 섹션2

- 사샤 콘스탄자 (USC/미국) : 공공 미디어의 미래, 미국적 맥락
- 조엘 켈시 (소비자연맹/미국) : 미디어 융합과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응

○ 미디어융합과 시민사회 섹션3

- 엘리 레이니 (호주) : 융합과 호주 공동체 미디어의 대응, 개념의 재구성
- 로리 할렛 (CMA/영국) : 융합과 디지털전송 시스템 : 공동체라디오를 중심으로

○ 공동체미디어와 공적지원 섹션

- 박혜정 (펀딩 익스체인지/미국) : 미국의 공동체 미디어 펀딩 및 펀딩 익스체인지의 활동

■ 참여인원 - 전국 미디어활동가 76명

(3) 포켓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토론회

■ 사업 목적

-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인 포켓미디어가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대를 위한 주요 도구로 재인식되게 한다.
- 포켓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제안한다.

■ 사업 기간 및 장소

- 2008년 12월 27일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 사업 내용

- 발제1 - 포켓미디어의 특징과 활용 : 장건재(독립영화 감독)
- 발제2 - 포켓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제안 : 이하송(독립영화 감독)
- 토론1 - 포켓미디어와 시민참여적 방송의 가능성 : 구자길(NIB 남인청방송 PD)
- 토론2 - 포켓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가능성 ; 황승용(미디어 활동가)
- 종합토론 : 포켓미디어와 시민참여적 미디어민주주의 확대

■ 참여인원 - 인천미디어활동가 8명

■ 기록



5. 상영사업

1) 독립영화 개봉 상영 사업

(1)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독립장편영화들을 인천 시민들에게 소개
-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마련

■ 상영작품 및 관객집계

작품	상영일 및 관객집계				비고
은하해방전선 /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 / 택시 블루스 (교차상영)	상영일	관객수	상영일	관객수	· 주말 및 연휴 상영 · 1일 4회 상영 (작품별 교차상영)
	1/1	23	1/30	23	
	1/19~20	12	2/2 ~3	7	
	1/26~27	16	2/6~10	32	
	계	113			
어느 날 그 길에서 / 작별	상영일	관객수	상영일	관객수	· 상영기간 중 남구문화기 간 행사<기족만담>으로 인한 기간 변경 (5/5 ~ 17일까지)
	4/15~20	19	5/23~25	9	
	4/22~25	12	5/27~6/1	19	
	4/27	36	6/3~4	6	
	4/29~5/4	24	6/10~15	15	
	18	6	6/17~19	7	
	5/20~21	24			
	계	177			
어느 날 그 길에서 / 작별 / 인디애니박스:셀마의 단백질 커피	상영일	관객수	상영일	관객수	· 3편 교차상영
	6/20 ~ 22	7	6/24 ~ 27	7	
	29	11			
	계	25			
인디애니박스:셀마의 단백질 커피	상영일	관객수	상영일	관객수	
	7/1 ~ 4	9	7/8 ~ 13	17	
	7/15 ~ 20	15			
	계	41			
퀘도	상영일	관객수		· 상영관 냉·난방기 고장 및 점검을 위한 휴관 · 상영관 상설운영관련 협 의를 위한 휴관	
	7/27	1			
	7/29 ~ 8/3	5			
	계	6			
관객수 총계			302		

(2) 사업평가

먼저 독립장편영화들의 상영은 개봉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상영관의 상황에서 매표와 검표, 그리고 영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 부족으로 인해 결국 상설적인 상영관으로의 운영이 지속하지 못하였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상영관의 물리적 거리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2) 기획 상영

(1) 냇다 냇다 아시프 -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 순회 상영회

① 사업내용

■ 사업 목표

- 영상 전문 단체들과의 협력 사업 모델 개발
- 지역민들의 다양한 영상문화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사업 내용

- (재)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
- CAMF 회원들에게 무료초대권발송
- 주안, 서울, 대구지역이 연계 상영

■ 상영작 리스트

프로그램	영화	러닝타임
프로그램 1	AISFF2005 수상작	Total : 98.26
- 애니멘터리상	〈체임버 The Chamber〉-유석현 / 한국	4'50"
- 채플린상	〈알리스와 나 Alice and I〉-미사 월드 / 벨기에	19'
- 단편의 얼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 About A Bad Boy〉-박신우 / 한국	9'30"
- 뉴 필름메이커상	〈G-23〉-앤서니 첸 / 싱가폴	18'46"
아시프펀드프로젝트	〈쁘와숑 다브릴 Poisson d'Avril〉-허인 / 한국	22'
- 대상	〈천재소년 Boy Genius〉-아딧야 아싸란 / 태국	10'
	〈텐 미니츠 Ten Minutes〉-알베르토 루이즈 로조 / 스페인	15'
프로그램 2	AISFF2006 수상작	Total : 95.55
- 뉴필름메이커상/ 네이버인기상	〈댄싱보이 Dancing Boy〉-배지영 / 한국	19'55"
- 애니멘터리상	〈허수아비의 전설 The Legend of the Scarecrow〉-마르코 베사스 / 호주	11'
- 관객심사단상	〈골수팬 The Clap〉- 제프 린지 / 영국	12'
아시프펀드프로젝트	〈암사자(들) Lioness(es)〉-홍재희 / 한국	21'
- 심사위원특별상	〈물과 우유 The Water and the Milk〉- 셀소 가르시아 로메로 / 멕시코	12'
- 대상	〈럭키 Lucky〉-아비 루트라 / 남아공&영국	20'
프로그램 3	AISFF2007 수상작	Total : 97.3
- 채널CGV 한국영화단편상	〈열정 가득한 이들 Passionate People〉-유승조 / 한국	16'
- 관객심사단상	〈살바도르 Salvador〉-알델라티프 휘다르 / 스페인	14'

- 애니멘터리상	〈천년기린 A Millennium Giraffe〉-원종식 / 한국	17'30"
- 뉴필름메이커상	〈할매와 매다기 Crayon〉윤혜령 / 한국	13'0"
- 심사위원특별상	〈사라에 관하여 Regarding Sarah〉-미셸 포터 / 캐나다	14'
- 대상	〈소년과 TV The Tube with a Hat〉- 라두 주드 / 루마니아	23'

■ 상영결과

상영 시간표		5. 15 (목)	관객수	5. 16 (금)	관객수	5. 17 (토)	관객수
1회	PM 3:00	프로그램3	-	프로그램3	4	프로그램1	8
2회	PM 5:30	프로그램1	5	프로그램2	12	프로그램2	6
3회	PM 8:00	프로그램2	5	프로그램1	16	프로그램3	5
총계	61		10		32		19

(2) 인디피크닉2008 - 서울독립영화제2007 수상작 순회상영회

① 사업 내용

■ 사업 목표

- 영상 전문 단체들과의 협력 사업 모델 개발
- 지역민들의 다양한 영상문화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사업 내용

- 서울독립영화제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독립영화의 비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작품들 상영
- CAMF회원 무료초대권 발송
- 2007년에 진행했던 〈서울독립영화제2007 with 주안〉과 결합될 수 있는 상영 기획전

■ 상영작품 및 관객현황

일정	6월 5일(목)	6월 6일(금)	6월 7일(토)	6월 8일(일)
14:00	독 불장군상 〈살기 위하여 - 어부로 살고싶다〉	집행위원회 특별상 〈아스라이〉	경계허물기 〈목욕〉, 〈올드랭샤인〉 〈불한당들〉	단편수상작1 & 개막작 〈오월상생〉 〈무림일검의 사생활〉 〈소이연〉
16:00	핸드메이드 필름 〈동면〉, 〈The Crossing〉, 〈Light Flow〉, 〈기록〉, 〈꿈나라-묘지이야기1〉, 〈밀물〉	단편수상작1 & 개막작 〈오월상생〉 〈무림일검의 사생활〉 〈소이연〉	관객상 〈전장에서 나는〉	가족을 위한 단편선 〈밥묵자〉, 〈천년기린〉 〈슈퍼맨의 하루〉, 〈아이들은 잠시 외출했을 뿐이다〉
18:00	관객상 〈전장에서 나는〉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 〈새끼여우〉 〈OO씨의 하루〉 〈적의 사과〉	2007 올해의 독립영화 〈은하해방전선〉	집행위원회 특별상 〈아스라이〉
20:00	2007 올해의 독립영화 〈할매꽃〉	단편수상작2 〈투수, 타자를 만나다〉 〈김판수 당선, 그 후〉, 〈사과〉, 〈알게될거야〉	2007 올해의 독립영화 〈할매꽃〉	2007 올해의 독립영화 〈은하해방전선〉
관객수	0	1	2	4

(3) 기획 상영 평가

- 순회상영회 사업들은 모두 지역 외 단체들과의 결합으로 진행되며 협력기관의 신뢰속에서 관객들에게 더 많이 선보이기 위함이 목적이 될 것이다. 결국 그 내용은 지역 내 홍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2개의 순회 상영전 모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관객 수이다.
- 주요 관객층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외연을 확대하고, 순회상영전을 상영관 밖으로 찾아가서 보여주고 다시 상영관으로 당길 수 있는 방식의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3) 다양성 영화 정기 상영 사업

(1) 씨네마 프랑스 인천

① 사업 내용

■ 사업 목적

- 인천 시민들에게 프랑스 영화 관람기회 및 프랑스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영화를 통해 국제적 문화교류의 장 마련

■ 사업 방향

- 프랑스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영화상영과 더불어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 건전한 문화 소비를 위한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
- <인천알리昂스프랑세즈(인천프랑스문화원)>, <(주)펜타코드>와 공동으로 사업 주관
 - 사업 역할 및 내용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천알리昂스프랑세즈	(주)펜타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선정 및 수급과정 업무 진행· 개별 홍보· 상영관 영사 및 행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대사관 및 문화원 연계 (작품 수급 등)· 대상 및 언론 홍보· 행사 진행(자원활동가 모집 및 발권 및 자막 등 기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구축· 웹 메일링 발송 및 예약· 행사 진행(부대행사 진행 및 예약자 확인 등)

■ 사업 내용

- 2nd 시네마프랑스인천

행사일시	2008년 2월 23일 오후 2시 ~ 8시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컨셉	기족과 함께 하는 프랑스 애니메이션과 영화		
시간	행사내용	비고	관객수
15:00 ~ 16:20	<애니꼴리쥬> - 프랑스 단편애니메이션 7작품	초등학생이상 관람가	88
16:30 ~ 18:10	<코러스>	전체관람가	111
18:20 ~ 20:00	리셉션		70
	계		269

○ 3rd 시네마프랑스인천

행사일시	2008년 5월 22일 오후 3시 ~ 10시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컨셉	프랑스 고전영화와 클래식 음악		
시간	행사내용	비고	관객수
17:15 ~ 18:55	〈시랑의 도파〉	15세이상 관람가	51
19:45 ~ 21:00	〈띠보 꼬방 클래식 기타 연주회〉	전체관람가	127
	계		178

○ 4th 시네마프랑스인천

행사일시	2008년 7월 26일 오후 3시 ~ 8시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컨셉	프랑스 바캉스 문화		
시간	행사내용	비고	관객수
14:00 ~ 16:00	〈월로씨의 휴가〉	전체관람가	49
16:20 ~ 17:00	프네상스에 대한 이해 - 프랑스 고성(固城)들		55
17:00 ~ 18:50	〈태양은 가득히〉	15세 이상 관람가	68
	계		172

○ 5th 시네마프랑스인천

행사일시	2008년 12월 6일 오후 1시 ~ 8시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컨셉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수상작과 와인이야기		
시간	행사내용	비고	관객수
13:30	시네피 매니아 섹션 1	15세 이상 관람가	67
15:00	패밀리 섹션	전체관람가	60
16:30	시네피 매니아 섹션 2	15세 이상 관람가	82
18:00	소믈리에 아르노 아바디와 함께 하는 와인이야기		85
	계		294

■ 기록



② 사업 평가

- 2007년 인천알리앙스프랑세즈, (주)펜타코드와 함께 시작하였던 시네마프랑스인천이라는 행사를 2008년에는 정기 상영으로 자리잡게 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까지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사업 기획을 다양성영화상영사업으로 잡았다. 그러나 시네마프랑스인천 외에 다른 문화권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 시네마프랑스인천은 5회까지 진행되면서 프랑스의 다양한 영화 작품들을 상영하고, 〈띠보 꼬방 클래식기타 연주회〉, 〈소믈리에 아르노 아바디의 와인이야기〉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세 단체가 각 단체의 장점을 활용하고 공동으로 노력한 이러한 진행은 관객들의 많은 참여로 이어졌다.

4) 디렉터스 뷰 정기 개최 사업

(1) 사업내용

■ 사업 목적

- 다양한 영상문화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냅으로써 지역 영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다양한 영화들 특히 독립·단편영화들을 통한 상업영화로 진출한 감독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상영

■ 사업 내용

- 주관 - 인천영상위원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공동 주관
- 초대 대상 - 독립 단편영화로부터 상업영화로까지 영역을 넓힌 감독들 초대
- 프로그램 - 단편 및 장편 각 1편 상영
 - 감독과의 대화

■ 진행 결과

회수	일자	초청자	진행자	상영작품(단편/장편)	관객수
1회	4.25(토)	나홍진 감독	전찬일 / 영화평론가	〈완벽한 도미요리〉, 〈추격자〉	162명
2회	6.28(토)	허진호 감독	남다은 / 영화평론가	〈고철을 위하여〉, 〈봄날은 간다〉	96명
3회	8.30(토)	이명세 감독	김선업 / 영화평론가	〈M〉 (※단편상영없음)	84명
4회	10.25(토)	원신연 감독	함주리 / 영진위 객원연구원	〈자장가〉, 〈세븐 데이즈〉	76명
5회	11.29(토)	이경미 감독	김혜리 / 씨네21 기자	〈잘 돼가? 무엇이든〉, 〈미쓰 흥당무〉	118명
계					536명

■ 언론 및 방송 노출 내용

No	언론사명	제 목	개재일
1	인천신문	연출자·관객 교감하며 영화 속으로	4- 15(화)
2	경인일보	'추격자'집중해부 - 26일 주안서 감독 초청토크	4- 15(화)
3	시민일보	영화, 심도있게 관람해보자	4- 16(수)
4	인천일보	나홍진 감독과 함께 '추격자' 감상	4- 17(목)
5	경기일보	독립·상업영화 '디렉터뷰' 개최	4- 17(목)
6	동아일보	문화강연 - 영상위원회 디렉터뷰	4- 23(수)
7	기호일보	인천문화재단 '디렉터뷰' 개최	4- 24(목)
8	인천일보	'추격자' 나홍진 감독 '영화공간 주안' 방문	4- 28(월)

9	sunnyFM	Fly Studio - <디렉터뷰> 인터뷰	4- 18(금)
10	인천문화통신	관객, 감독을 만나다 - 인천영상위원회 '디렉터뷰'	5- 02(금)
11	연합뉴스	인천문화재단 '6월 디렉터뷰' 28일 개최	6- 19(목)
12	중부일보	인천문화재단 28일 6월 디렉터뷰 개최	6- 23(월)
13	기호일보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두 번째 디렉터뷰 개최	6- 24(화)
14	인천일보	"코믹영화 만들고 싶다"-디렉터스뷰 두 번째 만남 허진호감독	7- 03(목)
15	뉴시스	인천영상위원회, 디렉터스 뷰 30일 개최	8- 20(수)
16	인천신문	세 번째 디렉터스 뷰	8- 20(수)
17	인천일보	이명세 감독과 함께하는 디렉터스 뷰	8- 22(금)
18	연합뉴스	인천문화재단, 30일 이명세 감독과의 만남	8- 26(화)
19	동아일보	명사초청	8- 27(수)
20	시민일보	영화 'M'이명세 감독 30일 공개 대담	8- 27(수)
21	조선일보	이명세 감독과의 대화 시간	8- 27(수)
22	미추홀뉴스	관객, 감독을 만나다. 그 네 번째 자리	10-10(금)
23	기호일보	인천문화재단 네 번째 디렉터스 뷰 영화공간주안에 마련	10-14(화)
24	현대일보	"감독과의 만남" 그 네 번째 자리	10-10(금)
25	인천일보	원신연 감독 '관객과의 만남'	10-20(월)
26	인천신문	'세븐데이즈' 원신연 감독과 대화	10-16(목)
27	연합뉴스	인천문화재단, 25일 '10월 디렉터뷰' 개최	10-17(금)
28	경인일보	인천영상위·주안미디어센터, 25일 원신연감독 디렉터스뷰	10-23(목)
29	인천일보	"느끼는 바를 느꼈으면 하는 대로 만들어" 디렉터스 뷰	10-30(목)
30	연합뉴스	인천문화재단, 29일 '11월 디렉터뷰' 개최	11-15(토)
31	인천일보	'미쓰홍당무' 이경미 감독과 만남	11-20(목)
32	인천신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녀 미쓰 홍당무와 데이트	11-24(월)
33	동아일보	디렉터스 뷰	11-20(목)
34	한겨레21	이경미 감독과의 대화	11-21(금)
35	현대일보	감독과의 만남 그 다섯 번째 자리	11-17(월)
36	인천일보	"영화 속 캐릭터에 나 자신의 모습 투영"	12- 4(목)

■ 기록



4월 <추격자> 나홍진/전찬일



6월 <봄날은 간다> 허진호/남다은



8월 <M> 이명세/김선업



10월 <세븐데이즈> 원신연/함주리



11월 <미쓰홍당무> 이경미/김혜리

(2) 사업 평가

- 디렉터스 뷰 사업은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CAMF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첫 사업으로 공동진행업무와 함께 공간과 예산을 서로 진행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5번의 행사를 잘 치루어 낼 수 있었다. 언론 등을 통한 일반관객들의 접근과 호응도 좋았으며 지역에서 감독과 평론가, 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식의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적인 사업 진행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 단편과 장편-독립·단편 감독 출신의 장편 영화 감상-에 해당되는 감독들의 섭외가 어려워지면서 홍보가 부족 할 수 밖에 없었다.

5) 대관, 후원, 기타

(1) 사업 내용

■ 사업 목적

- 지역 문화예술 및 영화 관련한 전문적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인천 시민사회에 다양한 지원 방안 개발

■ 사업내용

- 지역단체들의 행사 및 세미나 등 기타 영상문화와 관계된 행사에 대한 대관 및 지원

■ 대관 및 후원 현황

형태	행사명	주최	일(기간)	행사 내용
대관	시사회 -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인천영상위원회 MK픽쳐스	1/3~4(2)	·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지역 및 VIP 시사회
	계		2	
지원 및 후원	인천 남구청 업무보고	인천남구청	1/7~8(2)	
	하품학교	남구학산문화원	1/26(1)	· <시계태엽오렌지> 시사 및 강연
	남구학산문화원 3대 원장취임식	남구학산문화원	3/13(1)	· 취임식
	가족만담	남구축전실행위원회	5/5~11 5/13~14(9)	· 가족의 달 기념 공동기획 상영전
	제4회 인천여성영화제	인천여성회	7/3~6(4)	· 영화제 상영
	주인미디어문화축전	남구축전실행위원회	9/27(1)	· 포켓미디어 페스티벌
	제5회 하품영화제 개막식	남구학산문화원	10/31(1)	· 영화제 상영
	인천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인천독립영화상영네트워크	12/25~26(2)	· 독립영화 상영회 내 2섹션 상영
계			21	

6) 찾아가는 영화관

(1)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찾아가는 영화관 - 인천 구석×2

- 사업기간 : 2008년 8월 ~ 11월
- 후원 :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 사업 배경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
- 공동체미디어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영상문화 활동 필요
- 지역의 기초적인 영상문화 환경 파악

■ 사업 목적 및 내용

- 지역 내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 격차 해소
- 지역에서 독립영화, 예술영화, 국내 고전영화, 아동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다양성 확대에 기여
- 공공 시설 및 단체의 영상문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영화와 다양한 계층 간의 접근과 소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특성

-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연령별 프로그램과 개별 단체들의 목적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도서 지역을 비롯한 문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접근
- 지역의 관객별, 내용별 영상문화수용에 대한 지표 점검

(2) 사업 진행 내용

■ 사업 사용 장비

No	장비명	사진	내용
1	Projector	 <ELKI LC BX-40>	대형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 비교적 밝은 프로젝터 이지만 일부 낮 상영에서는 화면이 흐릿한 문제가 있었다. 이는 프로젝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영 공간에서 외부 빛을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상영 장소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DVD Player	 <LG RH-1788>	대부분의 장소에 자체 상영시 DVD플레이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DVD플레이어가 있더라도 레이저 클래스가 낮아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를 위해 직접 제작한 DVD Tilt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3	HDV/DV Deck		대부분 DVD로 상영 했으나 일부, 특히 아외 상영 시 DV(DVCAM) 포맷이나 HDV포맷으로 상영했기 때문에 일부 상영에서 사용 했다.

4	Screen		100인치 크기의 이동형 스크린을 사용했다. 사업의 특성상 쉽고 빠르게 설치 및 해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인치라는 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영 공간에서 영상 규격에 미치지 못했다. 이동형극장이라는 특성과 실내 상영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겠다.
5	Mixer		1편의 긴 영화를 상영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짧은 영화를 여러 편 상영하는 경우에는 요긴하게 사용 되었다. 대부분의 영화가 각각 믹싱되어 볼륨이 너무 크거나 낮았고 심지어는 제공된 마스터 테입에 레퍼런스 톤 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영 중 각 영화에 맞게 볼륨을 조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믹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었다.
6	Speaker		찾아가는 영화관에서 사용한 스피커는 102mm 유닛에 1.2KW라는 비교적 큰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용 스피커라는 한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서는 스피커의 성능이 공간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7	기타 연결선들	Video Signal	Component BNC, 아외 상영에서 대형 프로젝터와 DV/HDV Deck를 component방식으로 연결 할 때 사용
			S-Video DVD Player와 프로젝터를 연결 할 때 사용
			Composite RCA, 특정 공간에 프로젝터가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Composite신호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와 프로젝터를 연결 할 때 사용
		Audio Signal	Stereo 일부 고전 영화의 경우 모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테레오로 되어 있고 일부 멀티채널로 되어 있는 영화의 경우에도 여전히 스테레오만 들려 줄 수 있어 스테레오 신호만 사용 했다. 모든 장비가 RCA단자로 연결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RCA방식의 케이블을 사용 했다.
		기타	전원연장선 및 멀티탭 장비 설치 장소에 따라 전기 연장선은 필수적이다. 또한 기기가 최소 3개 이상이기 때문에 멀티탭도 꼭 필요하다.

■ 상영 일정

번호	장소	일시		작품목록	비고
1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 - 양지공원	8. 23	저녁 9시	1. 지우개 따먹기 2. 1979년 10월 28일 일요일 맑음 3. 웅이 이야기 4. 적의 사과	120명
2	노동 문화제 - 부평공원	9. 6	저녁 8시	1. In the Pit	83명

3	인하대학교	9. 23	저녁 7시	1. 적의 사과 2. 무림일검의 사생활 3. 날아간 뱡튀기(X) 4. 국가보호가 필요하다	62명
4	새빛 행복한 훈스쿨	9. 25	오후 3시30분	1.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2. 말괄량이 지하르카 3. 애완동물 가게 4. 화성여행 5. 지구의 끝자락 6.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원생 : 42명 교사 : 2명
5	선민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9. 26	오후 4시	1. 애완동물 가게 2. 곰 이야기 3. 신 4.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5. 우주비행사 6. 난파	원생 : 35명 교사 : 3명
6	주안영상미디어축전 - 구 시민회관 공원	9. 26	저녁 7시	1. 적의 사과 2. 웅이 이야기 3. 2-1=4 4. 캐치볼 5. TV수신료 납부거부사건	78명
7	계양기파지역아동센터	9. 30	오후 3시	1. 화성여행 2. 말괄량이 지하르카 3.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4. 북쪽의 남쪽 5. 천년기린 6. 마지막 포효	원생 : 42명 교사 : 2명
8	성광지역아동센터	10. 2	오후 3시	1. 패트와 스탠 2. 애완동물 가게 3.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4.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슬픈 이야기 5. 실험쥐 퀄리토 6. 천년기린	원생 : 39명 교사 : 3명
9	배다리를 지키는 시민 모임	10. 11	오후 6시30분	1. 배다리 리포트 2. 우린 액션배우다	89명
10	주안도서관	10. 12	오후2시	1.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2. 말괄량이 지하르카 3.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4. 화성여행 5. 마지막 포효 6. 곰 이야기	부모 및 아동 : 22명
11	서구노인문화센터	10. 15	오전9시30분	- 삼등과장	26명
12	서구 푸른꿈 아동센터	10. 17	오후4시	1. 화성여행 2. 말괄량이 지하르카 3.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4. 북쪽의 남쪽 5. 천년기린 6. 실험쥐 퀄리토 7. 애완동물 가게	원생 : 39명 교사 : 2명
13	푸른샘어린이 도서관	10. 18	오후3시	1.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2. 말괄량이 지하르카 3. 애완동물 가게 4. 화성여행 5. 신 6.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21명

14	강화 마리학교	10. 23	오후 6시30분	- 우린 액션배우다	학생 : 24명 교사 : 4명
15	강화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10. 24	오후4시	1. 신 2. 애완동물 가게 3. 패트와 스탠 4.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5. 화성여행 6. 말괄량이 지하르카	원생 : 42명 교사 : 2명
16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10. 25	오후1시	1. 화성여행 2. 말괄량이 지하르카 3.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4. 신 5. 천년기린 6. 실험쥐 칼리토	원생 : 46명 교사 : 1명
17	사랑의 지역아동센터	10. 28	오후4시	1. 패트와 스탠 2. 애완동물 가게 3. 천년기린 4. 실험쥐 칼리토 5. 신 6.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원생 : 18명 교사 : 3명
18	소망의 집	10. 30	오후 3시	- 삼등과장	45명
19	이작분교	10. 31	오전 11시	1. 별별이야기 2	학생 : 11명 교사 : 2명
20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11. 3	오후2시	1. 삼등과장	20명
21	또래모아 지역아동센터	11. 4	오후3시	1.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2. 말괄량이 지하르카 3. 화성여행 4. 패트와 스탠 5. 신 6.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32명
22	남구 노인문화센터	11. 7	오후12시30분	- 삼등과장	40명
23	석남지역아동센터	11. 8	오전 10시30분	1. 말괄량이 지하르카 2. 패트와 스탠 3.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4. 크로시카-카브로시카 5. 곰 이야기 6. 신	7명
24	인천 밀알 선교단	11. 11	오후 7시30분	1. 별별이야기 2	62명
25	믿음소망사랑 지역아동센터	11. 12	오후4시	1. 패트와 스탠 2. 지구의 끝자락 3. 화성여행 4.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5. 말괄량이 지하르카 6. 곰 이야기	21명
26	성광지역 아동센터	11. 13	오후 3시 30분	1. 말괄량이 지하르카 2.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3. 곰 이야기 4.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5. 신 6. 화성여행	26명
27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11. 15	오후4시	1. 우린 액션배우다	7명
			오후7시	1. 적의 사과 2. 웅이 이야기 3. Catch ball 4. 무림일검의 사생활	0명

28	인천여성회 연수지회	11. 15	오후7시	1. 별별이야기2	22명
29	민주노동자연대	11. 16	오후 3시	- 콜리지알스, 민중의 의회	16명
30	강화 교동 초등학교	11. 17	오후1시	1. 화성여행 2. 우주비행사 3. 딜리버리 4.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5. 신 6. 천년기린 7. 지구의 끝자락	46명
31	인천발전연구원	11. 19	오후4시	1. 적의 사과 2. 무림일검의 사생활 3. 웅이 이야기 4. 날아간 뱕튀기	13명
32	서구노인문화센터	11. 19	오전 9시30분	- 미워도 다시 한번(1968)	32명
33	연평초등학교	11. 21	오후 7시	- 월·E	80명
34	덕적도 서포리 노인회관	11. 22	오후 7시	- 미워도 다시 한번	32명
35	보라매 아동센터	11. 23	오후 3시	1. 우주비행사 2. 화성여행 3. 패트와 스탠 4.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5. 말괄량이 지하르카 6.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26명
36	북도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	11. 25	오후 7시	- 월·E	37명
37	민들레 앙상블	11. 26	오후5시30분	- 우리학교	7명
38	강화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11. 27	오후 4시	1.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2. 곰 이야기 3. 크로시카-카브로시카 4. 실험쥐 칼리토 5. 지구의 끝자락 6.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7. 우주비행사	36명
39	남구 노인문화센터	11. 28	오후1시	- 청춘쌍곡선	47명
40	주안도서관	11. 30	오후2시	1. 팩과 스탠 2. 신 3. 천년기린 4. 애원동물 가게 5. 실험쥐 칼리토 6. 크로시카-카브로시카	38명

※ 총 관객수 : 1,555명

■ 상영후기 및 기록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8시
 장소 : 양지공원 -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영작품 : 지우개 따먹기, 1979년 10월 28일 일요일 맑음, 웅이 이야기, 적의 사과

연수동 양지공원에서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주민 축제가 열렸다. 이 날은 지역 주민들 위주의 공연팀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고 행사의 마지막으로 독립영화를 상영했다. 하지만 이날은 베이징 올림픽 한국 야구 팀의 결승전이 진행된 날이기도 했다. 첫 공연이 시작 될 때 쯤부터 프로젝터로 무대 옆에 야구중계를 영사했지만 영화 상영을 위해 프로젝터를 이동하자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결승전 종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해진 행사를 중단 할 수만은 없었기에 영화 상영을 계속했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리를 떴다.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맥주를 마시면서 DMB TV로 야구중계를 보았고,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영화를 관람했다.



공연을 관람하는 주민들(좌). 맥주와 분식을 즐기며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는 중(우)

일시 : 9월 6일(토) 오후 7시
장소 : 부평공원
상영작품 : In the Pit

부평공원은 17사단 수송부대가 있던 자리로 부대이전 후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축제와 놀이 공간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 단위의 주체적 결합과 프로그램 구성을 강화하여 대안 사회 구성과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실험과 시도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부평공원에서 열린 인천노동자문화제의 첫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멕시코의 다큐멘터리영화 구멍 속에서 In The Pit, 2006을 상영 했다. 멕시코 최장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노동문화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좋은 영화라 생각 됩니다. 대형 스크린과 부평공원이라는 상영장소가 주는 이점이 충분히 활용된 상영이라 할 수 있었다. 대형스크린과 음향으로 멀리서도 관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최 측이 마련한 스크린 앞좌석은 물론, 공원에서 산책하던 많은 사람들도 저 멀리 공원벤치에 앉아서 영화를 감상 하였다.



부평공원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시민들

일시 : 9월 23일(화) 오후 7시
장소 : 인하대학교
상영작품 : 적의 사과, 무림일검의 사생활, 날아간 뺑튀기, 국가보호가 필요하다

○ 후기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앞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계단을 좌석으로 삼아 4편의 독립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약간 쌀쌀한 날씨 때문에 상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겨우 10여명의 학생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상영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10명은 30명으로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 후 영화를 보러온 학생들로 인해 관람객은 점점 더 늘어났다. 외국인 보호소를 향해 길을 떠나는 '국가보호가 필요하다/We need state protection', 도로에서 뺑튀기를 파는 사람의 일상을 그린 '날아간 뺑튀기', 시위대와 전경의 대치를 그린 '적의 사과', 현재에 커피자판기로 환생한 무사의 이야기인 '무림일검의 사생활' 이렇게 4편의 독립영화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람했다.



인하대학교 문과대 앞 돌계단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학생들

일시 : 9월 25일(목) 오후3시30분

장소 : 새빛 행복한 훈스쿨

상영작품 :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말괄량이 지하르카, 애완동물 가게, 화성여행, 지구의 끝자락, 옥심쟁이 다람쥐 썰리

행복한 훈스쿨은 기아대책과 교회 그리고 기업이 협력해서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저소득결손가정 아동에게 가정 같은 평안함과 학교 같은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천 갈산동의 새빛교회가 운영하는 곳이다. 이번 상영은 새빛 행복한 훈스쿨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상영과는 다르게 아동들만을 위한 상영이었기 때문에 상영작 모두가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이었고 영화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기위한 영화해설사 선생님도 같이 가게 되었다. 상영은 순조롭게 시작 되었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지도 선생님께서 일찍 끝내주길 요구했다.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해설자 선생님의 말도 잘 따랐고, 영화를 더 보기 원했음에도 지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평계로 빨리 끝내주길 요구했다.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였겠지만 방과 후 시간, 그리고 공부방의 저녁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므로 시간적 배분이 중요함과 더불어 운영자들의 마인드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시 : 9월 26일(금) 오후 4시

장소 : 선민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상영작품 : 애완동물 가게, 곰 이야기, 신, 옥심쟁이 다람쥐 썰리, 우주비행사, 난파

인천 4공단 지역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편부·편모·맞벌이부부·저소득층의 자녀를 교육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보살피고자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6편의 해외 애니메이션을 상영 하였는데 아이들은 그 중 '신/The God'을 가장 재미있어 했고, 상영이 끝난 후 아이들이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요구해서 앙코르 상영을 하기도 하였다. 어린 아이들답게 영화를 보면서도 웃고 떠들고 뛰어 다니기도 하는 어릴 적 극장에서 만화영화를 보면서 뛰어다니던 '나'를 기억하게 하던 상영이었다. 30여명의 아이들과 1명의 선생님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시 : 9월 26일(금) 오후 7시

장소 : 시민공원(옛 시민회관터)

상영작품 : 적의 사과, 웅이 이야기, 2-1=4, 캐치볼, TV수신료 납부거부사건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최로 남구를 대표하는 축적으로 지역의 문화 인프라 및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통하여 세대간의 소통 및 즐거움을 창출하고 미디어를 통해 일탈과 유희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주안 영상문화 지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원에서 설치된 야외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개최되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주안의 시민공원에서 독립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야외상영이 잘 될 수 있을까? 했지만 이전 행사인 Street JuMF에 이어진 행사여서 이전 행사를 관람 하던 청소년들과 공원을 지나던 많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립영화 5편을 끝까지 감상했다. 인천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이 문화 소외지역이 되어버려 이러한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이기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지역특화의 문화 행사가 되길 바란다.

일시 : 9월 30일(화) 오후 3시

장소 : 계양키파지역아동센터

상영작품 : 화성여행, 말괄량이 지하르카,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북쪽의 남쪽, 천년기린, 마지막 포효

계양키파는 한국청소년야외교육협회부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이다. 이곳은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자녀, 조부모자녀, 빈곤층자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방과후 학습지도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빈곤층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10년 된 프로젝션 TV만이 유일한 영화 감상 수단인 이 곳에 전 세계 6편의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기 위해 프로젝터를 비롯한 모든 상영 장비를 가지고 갔다. 3시 30분,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랬는지 14명의 어린이들만 영화를 보기 시작 했지만 상영이 모두 끝났을 때는 작은 교실이 50여명의 아이들과 5명의 선생님들로 꽉 차 있었다. 평일이라는 특성상 늦게 오는 학생들이 많았다. 처음부터 영화를 본 아이들은 늦게 온 아이들에게 지나간 영화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1회뿐인 상영을 가장 아쉬워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시 : 10월 2일(목) 오후 3시

장소 : 성광지역아동센터

상영작품 : 패트와 스탠, 애완동물 가게,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슬픈 이야기, 실험쥐 칼리토, 천년기린

가정동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성광교회 내 성광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재개발로 인해 정든 곳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하는 4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북미 애니메이션 2편, 프랑스 애니메이션 3편, 한국 애니메이션 1편 이렇게 총 6편의 중·단편 애니메이션을 상영 하였다. 이런 단편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해 보는 아이들은 너무 빨리 끝나는 영화로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6편의 영화를 모두 보는 내내 즐거워했다. 또한 '실험쥐 칼리토 Carlitopolis'를 가장 좋아 했다. 이 작품은 기존에 루니툰 스타일의 잔인함을 실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3D애니메이션의 합성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 했다.



식당을 겸한 강당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일시 : 10월 11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앞 송현 근린공원(배다리를 지키는 시민모임)

상영작품 : 배다리 리포트, 우린 액션배우다

배다리를 지키는 시민모임은 경제자유구역 송도에서 시작하여 인천항과 북항, 청라지구를 직선으로 관통하려는 광포한 도로의 개설에 반대하는 주민 한마당을 송현 근린공원에서 열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수도국산 터전을 지나 동국제안 앞으로 뚫린다는 이 산업도로는 비단 배다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도로개설의 기점인 신흥동으

로부터 율목동, 배다리, 금창동, 송림동, 송현동의 주민들에게 헐값의 보상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고 하는 개발주의의 폭력적 산물인 이 도로는 인천의 전역에서 끔찍한 파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배다리 주변 일대의 애향심을 더불어 느낄 수 있는 ‘배다리 리포트’를 상영 했다. ‘배다리 리포트’는 이 도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배다리 문화 축전과 빼까뻔쩍 야외 축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이에 이어 주민 축제에 걸맞게 ‘우리는 액션배우다’를 상영 했다. 이 영화는 흔히 스텐트맨이라고 불리는 액션스쿨동기생들을 기록한 영화로 주민 축제를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코믹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재미있는 영화가 선정 되었다. 낮 행사가 일찍 끝나기도 했고 날씨도 많이 쌀쌀했음에도 많은 주민들이 남아서 영화가 상영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화가 상영 되었을 때는 100여명의 주민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점점 비어갔고 영화가 끝났을 때는 20여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일시 : 10월 12일(일) 오후 2시

장소 : 주안도서관

상영작품 : 눈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말괄량이 지하르카,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화성여행, 마지막 포효, 곰 이야기

주안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 공원 옆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기존 상영 방식은 출시된 DVD를 단순히 상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영화해설을 담당해주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해설을 해 주었다. 관람방식도 평상시에는 선착순 입장을 하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편안한 공간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장소의 크기에 비해서 영사막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였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영화읽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예약을 받아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무료상영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예약했던 많은 가족들이 오지 않아 10분정도 늦어진 시간에 상영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동 열람실에 있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영화를 보게 되어 자리는 대부분 차게 되었다. 영화에 관한 설명은 기존 일본과 영국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국가들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시야와 생각을 넓혀주는 방식이었고, 그에 따라 부모님에게는 옳바른 영화읽기와 지도요령이 설명되었다.

일시 : 10월 17일(금) 오후 4시

장소 : 서구 푸른꿈 아동센터

상형작품 : 학성여행 맘팔랑이 지하르카, 눈나쁜 꼬마 밤울백 이야기, 불쪽의 남쪽, 천년기리, 실험주자 칼리토, 애완동물 가게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푸른꿈 아동센터는 서구2동 내 빈곤 아동들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습지도와 무료급식 위주의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5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이곳은 운영비지원이 미흡하고 후원 기업이나 후원자가 없어서 사업을 행할



에 있어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아동에게 돌아갈 양질의 보호서비스가 기대와 노력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7편의 세계 단편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기로 한 이 날은 학교 학예회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30여명만 참석하게 되었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었지만 이미 30여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예정된 시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빨리 보기를 원했고 학예회 연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상영이 끝나기 전까지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한 후 예정시간 보다 15분정도 이른 3시 45분에 시작 하였다. 아이들답게 상영 중에도 몇몇 아이들은 떠들고 뛰어 다녔지만 아이들의 눈길을 끌만한 재미있는 영화가 상영 될 때는 모두들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시 : 10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 가좌4동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

상영작품 :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말괄량이 지하르카, 애완동물 가게, 화성여행, 신,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지역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밖으로만 나도는 아이들에게 문화쉼터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가좌2동은 서구에서 보조금을 따내 주민자치센터를 4층으로 증축하고 3층에 어린이도서관 자리를 확보했다. 행정의 지원을 받아 뚝딱 만들면 한 달에 만들 수 있지만 1년이 걸렸다. 원칙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이후에 주민들이 운영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고민, 어떻게 참여하게 할지부터가 고민이었지만 도서관 이름을 짓고, 책 모으는 일 등을 부녀회에서 맡아 진행하고, 이에 질세라 주민자치위원회들은 발 벗고 나서 도서관 인테리어와 서가, 집기 마련 등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직접 해냈다. 이렇게 지역 주민과 행정의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자 한 달에 2000원씩 내는 후원회원 76명으로 구성된 후원회도 생겨나 어린이 도서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화창한 휴일 오후라는 시간이 원인인지 예정시간이 되어도 단 3명만이 자리를 지키기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고 영화 상영이 시작되자 도서관을 이용하러 온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한명 한명 자리를 채우게 되고 총 25명 정도의 주민이 자리를 채워 주었다. 프로그램은 그다지 다르지 않았지만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보통 아이들은 빨리 다음 영화를 보기 원하는 것에 반해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에 아이들은 해설 선생님 진행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영화를 보러 온 도서관 이용자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시 : 10월 23일(목) 오후 6시30분

장소 : 강화 미리학교

상영작품 : 우린 액션배우다

강화군 양사면 민통선 지역 바로 앞에 위치한 마리학교는 '생명이 곧 하늘입니다'라는 교육이념에 따라 '스스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세상을 살리세'라는 교육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중등 교과 과정의 대안학교이다. 그래서 학교의 이름도 하늘과 땅 사이에 기운이 으뜸으로 통하는 곳에 붙여진 '마리산(마니산)'에서 따왔다고 한다.

가을비가 오는 날 인천이라고 하지만 가깝지만은 않은 길을 찾아갔다. 60Km가까이 되는 거리였다. 저녁 식사 후 상영을 했기 때문에 7시가 다 되어서 시작하였다. 상영 전에는 TV를 보고 싶다거나 하는 평계로 영화를 보려하지 않은 아이들도 간혹 있었지만 상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들 영화에 빠져 들었다. 이번에 상영한 영화는 '우리는 액션배우다'라는 흔히 스탠트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다큐멘터리



교실을 겸한 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하게하는 대안학교의 성격상 스텐트맨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이 영화는 아이들에게 접하기 힘든 직업의 간접 경험과 독립영화라는 그동안 접하지 못한 문화 영역을 소개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시 : 10월 24일(금) 오후 4시

장소 : 강화 신나는 공부방

상영작품 : 신, 애완동물 가게, 패트와 스탠,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화성여행, 말괄량이 지하르카

빈곤이 아동들에게 악순환 되는 모순을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강화 여성의 전화에서는 빈곤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동들의 방과 후의 활동이라는 결과를 얻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안심하고 아동들을 위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동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화 신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외지인 이 곳은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어 극장이 하나도 없어 아이들이 영화를 보는 것은 방학 중 김포시내로 단체 영화를 보러 가는 것뿐이라고 했다.

강화 신나는 공부방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다. 너무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사무를 보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도하고 뛰어 놀기도 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가져간 장비들을 보고는 20만원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만화영화를 보여줄 스크린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곧 상영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히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며 신기해 하였다.



아이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시 : 10월 25일(토) 오후 1시

장소 :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상영작품 : 화성여행, 말괄량이 지하르카,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신, 천년기린, 실험쥐 칼리토

만수 중학교 앞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아동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밝은 얼굴로 즐겁게 공부하고 식사하며, 아이들을 보호, 양육, 상담, 지도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공부방의 사정상 한 주 연기되어 상영을 하게 되었다. 40여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비 오는 토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25명 정도의 아이들만이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지만 공부방에서 자원봉사 하는 여고생 6명과 선생님들도 같이 영화를 보게 되어 넓지 않은 장소였지만 꽉 차게 되었다. 짧은 시간 6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몇몇 아이들은 조금 지루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봉사하는 여고생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를 상영하기 전 아이들이 스크린에 대고 장난을 하고 있다.

일시 : 10월 28일(화) 오후4시

장소 : 사랑의 지역아동센터

상영작품 : 패트와 스탠, 애완동물 가게, 천년기린, 실험쥐 칼리토, 신,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사랑의 지역아동센터는 청천동에 위치한,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다. 1층 예배당에는 스

크린은 물론 상영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갖추어 있었다. 상영을 위해 상영 30분전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날 마침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영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10여명의 아이들과 1명의 선생님만이 참여한 상태로 상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 영화를 보던 몇몇 아이들이 영화가 재미있다며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 어느새 아이들은 20여명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실험쥐 칼리토’와 ‘신’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고, 처음부터 영화를 본 선생님은 ‘실험쥐 칼리토’만 빼고 다 재미있었다고 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시 : 10월 30일(목) 오후 3시

장소 : 소망의 집

상영작품 : 삼등과장

인천 남구 고잔동 남동공단 외곽에 위치한 소망의 집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사랑과 봉사와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분들께 전문적인 기독교사회복지서비스를 원조하고자 장애인이셨던 김기성 목사의 사재로 설립된 노인요양신고시설으로 한 소망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소망의 집에는 치매나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중복장애를 앓고 있는 43명의 식구가 8명의 직원과 함께 한 식구처럼 서로가 베풀목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신고시설이기는 하나 아직 여건상 법인으로는 안되어 있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시 외곽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날 상영에는 거동이 가능한 모든 식구들이 참여해 영화를 관람했다. 상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관람을 하기는 했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2시간 가까운 상영시간은 무리가 있기도 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편했는지 자리를 뜨는 분들이 몇몇 있기도 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층의 다목적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일시 : 10월 31일(금) 오후 11시

장소 : 이작분교

상영작품 : 별별이야기 2

인천에서 배를 타고 2시간 10여분 남짓 해서 떨어진 이작도의 작은 학교인 이작분교는 10명의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다. 남매도 있고 형제도 있으며 아이들은 밝고 건강한 느낌이었다. 상영작은 <별별이야기2>로 12세 이상 관람가여서 아이들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작품 2편은 빼고 상영하였다. 아이들은 예상외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선생님 또한 장애, 인권, 여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공간구성에 비해 영상자료가 미약하다보니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했다.



일시 : 11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상영작품 : 삼등과장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되었던 사할린의 한인들은 일본의 패망이 후 완전히 잊혀진 채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다. 1989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정부는 사할린억류 한인들의 귀환을 돋기 위해 양국의 적십자사를 통해서 사할린 한인의 지원 사업을 주관하기로 하면서 사할린 동포의 귀환 활동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할린 동포 1세들이 영구귀국이 이루어졌지만 독신 또는 질병과 노환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워 요양이 필요한 사할린 동포 1세들을 돌보고 있는 곳으로 질병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간호사와 생활지도원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여가 시간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상영은 이러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 되었다. 회관 1층에 있는 작은 예배실을 겸한 소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20여명의 많지 않은 분들만 관람했지만 긴 상영시간을 힘들어 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계자께서는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2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매우 힘들 일이라고 했다. 상영 내내 모두 즐겁게 관람했다.



강당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일시 : 11월 4일(화) 오후 3시
장소 : 또래모아 지역 아동센터
상영작품 :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말괄량이 지하르카, 화성여행, 패트와 스탠, 신,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도화3동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권 다툼 때문에 거리 분위기마저도 싸늘한 곳에 위치한 또래모아 지역 아동센터는 인천시 내 150여개 아동센터들 중에서도 이용하는 아동이 3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동센터로 이날 상영은 22명의 아이들이 관람 했다. 이 작은 아동센터는 각각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은 아주 작은 곳으로 공부방이나 식당 사무실조차 하나의 공간에 있었다. 상영을 위해 출입구 옆에 영사막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책상을 밀어 공간을 확보한 후에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처음 상영을 시작할 때는 16명만이 관람을 했지만 방과 후 공부방으로 온 학생들로 인해 상영 중간쯤에서는 22명의 아이들이 영화를 보았다. 아동센터에서 상영을 할 경우 초등학생이라 해도 고학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상영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예상해 시간을 조정해야하겠다.



아이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시 : 11월 7일(금) 오후 1시
장소 : 남구노인문화센터
상영작품 : 삼등과장

천주교구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노인문화센터는 남구 관내의 노인들에게 기본생활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함으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강당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이용자들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공동체사업중 하나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다. 이날은 삼등과장이라는 노인들의 향수를 부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영화시작 전 20여명이 상영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센터 관계자는 홍보를 잘 못해서 사람이 적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상영이 시작되고 한명 두 명 늘어나 얼마 후에는 40여명이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다.

일시 : 11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석남지역아동센터

상영작품 : 말괄량이 지하르카, 패트와 스탠,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크로시카-카브로시카, 곰 이야기, 신

석남 지역 아동센터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로서 50여명의 지역 아동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다. 토요일 오전 이른 시간에 예정되어 있어서였는지 도착했을 때는 5명의 아이들만 상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 예배당에서 상영할 예정이었지만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 공부방에서 상영을 했다. 상영중 3명의 아이들이 더 오기는 했지만 주택가 한 가운데 있고 50여명이나 등록되어 있음에도 상영 시간의 선택문제도 있고, 홍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듯 했다. 중간에 온 3명의 아이들은 잠이 덜 깐 듯한 상태에서 왔고 이미 있었던 5명의 아이들도 영화 상영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듯 했다.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이른 오전상영은 아이들에게 무리일수 있겠다.



7명뿐이라서 좁은 공간이지만 편안하게 영화를 보고 있다

일시 : 11월 11일(화) 오후 7시 40분

장소 : 인천밀알선교단

상영작품 : 별별이야기 2

인천밀알은 정부나 서울밀알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지역 장애인 선교기관으로 다른 곳과는 달리 투명한 재정관리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무료로 장애인위한 컴퓨터 교실, 야학 등을 운영하며 일반인을 위한 수화교실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도화감리교회 중. 고등부실에서 갖는 정기모임 중 예배이후 항상 진행되던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모이는 또래별 모임을 진행하는 대신 이날은 영화 상영을 하게 되었다. 이날 상영한 영화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장애인, 이반등 사회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정기모임 이후 진행되는 행사라서 그런지 4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게 되었다. 다른 곳과 다른 점은 장애인 선교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장애인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단편 모음이라서 재미있지만은 않은 영화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관람을 하였다.



일시 : 11월 12일(수) 오후 4시

장소 : 믿음소망사랑 지역아동센터

상영작품 : 패트와 스탠, 지구의 끝자락, 화성여행,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말괄량이 지하르카, 곰 이야기

부평 지역의 저소득층가정의 아이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고 있는 믿음소망사랑 지역아동센터는 다세대주택의 두 가구를 개조해서 아이들의 공부방과 놀이터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지역아동센터이다. 작은 가정집을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 모두 모여 영화를 볼 수 있을 만큼 큰 공간도 없어서 그 중 가장 넓은 방에 장비를 설치하고 영화를 상

영했다. 가장 넓은 방이었지만 다른 곳 보다는 너무 좁았기 때문에 20여명의 아이들이 영화를 보기위해 앉은 것만으로도 방이 꽉 차서 선생님들은 문 밖에서 영화를 보았다. 아이들답게 떠들기도 하고 프로젝터에서 영상이 나가는 것이 신기한지 장난을 치는 아이도 있었지만 모두들 재미있어 했다.



일시 : 11월 13일(목) 오후3시 30분

장소 : 성광지역아동센터 강의실

상영작품 : 말괄량이 지하르카,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곰 이야기,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신, 화성여행

가정동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성광교회 내 성광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계 단편 애니메이션 6편을 상영 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찾아간 곳이었지만 재개발 지역의 특성인지는 모르지만 40여명의 아이들은 2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추운 날씨와 적은 수의 아이들로 인해 기존에 상영 했던 곳이 아닌 작은 강의실에서 영화상영을 했다. 처음 상영할 때는 상영하기 전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부터 모두들 기대하고 있었다. 늦게 온 아이들은 못 본 영화를 아쉬워했고 처음부터 영화를 본 아이들은 늦게 온 아이들에게 앞서 상영한 영화를 설명해 주기도 했다. 영화를 상영한 작은 강의실은 강의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작은 방 같아서 모두들 따뜻한 방에서 모두들 재미있게 영화를 즐겼다.



아이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시 : 11월 15일(토) 오후 4시30분, 7시

장소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아트홀 <소풍>

상영작품 : 우리는 액션 배우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 1996년 관람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의 문예위원회로 탄생했다. 2005년 문화단체로서 더욱 더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인천연대로부터 독립하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의 상영에 참석한 5명중 회원은 단 1명과 회원과 같이 온 아이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상근자였다. 상영공간의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있기는 했지만 홈페이지의 영화상영 소식의 조회수는 단 7건뿐이고 예술센터 회원 중 참여의사를 알린 회원도 7명에 불과하긴 했지만 단 1명만 참석했다.

이날의 상영은 4:30 ‘우리는 액션 배우다’ 와 7:00 ‘한국 단편영화 수상작’이 렇게 2회 상영되었지만 7시 상영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4:30분 상영만 하게 되었다.



〈인천여성회 연수지회〉
일시 : 11월 15일(토) 오후 7시
장소 :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상영작품 : 별별이야기2

지역여성이라는 공통성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모임으로 40대 여성
이 주류를 이루며 여성의 삶과 자녀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사
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단체로
여성회 회원들과 주변 지인들이 같이 좋은 영화를 보며 느낌을 나누
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을 신청 했다고 했다.

이번 상영은 인천여성회에서 운영하는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상영을
하였다. 일반 가정집의 거실과 같은 느낌의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는
8명 정도의 어린아이들과 3명의 어른뿐이었다. 19시 가 다 되어가자
10명의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위해 도서관에 도착했다. 이 작은 도서관의 거실과 같은 분위기 때
문인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몇몇은 앉아서 몇몇은 누워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두들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했다.



일시 : 11월 16일(일) 오후 3시
장소 : 부평 민주노동자연대 사무실
상영작품 : 콜리지알스, 민중의 의회

상영작품은 다른 곳들과는 달리 상영대
상인 민주노동자연대와 협의, 선택하였
다. 올 해 인권영화제 상영작으로 회원
들이 꼭 보고 싶어 하는 영화이기도 했
기 때문이었다. 약 16여명의 회원이 모
여서 영화를 본 뒤 각자의 생각을 이야
기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서 다른 곳들



의 영화보기 방식과는 좀 다른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토론 주제로 찾아가는 영화관의 상영작이 활용되었다. 작품과 환경, 그리고 주최측과 하나의 의미를 이루어내면서 진행하는 다른 예가 되는 상영회였다. 마치 영화제인 느
낌으로.

일시 : 11월 17일(월) 오후1시
장소 : 강화교동초등학교
상영작품 : 화성여행, 우주비행사, 딜리버리,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신, 천년기린, 지구의 끝자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에 위
치한, 유치원생부터 6학년생까지 총 인
원이 80여명에 불과한 섬마을의 작은
학교이다. 작은 섬마을의 특성상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이 곳에 찾아갔다. 평
소 일본 애니메이션에 많이 노출되어 있
던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영화관"이 준



비한 애니메이션은 아르헨티나, 러시아,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었기 때문에 적응이 걱정되었
다. 그리고 상영시간을 10여분 앞두고 아이들이 하나 둘 씩 모이기 시작했지만 마치 참석하기 싫은 아침조회를 억

지로 참석하는 표정이었다. 몇몇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 만화책을 보는 아이도 있었지만 상영이 시작되고 점점 아이들은 영화에 빠져 들어갔고, 앞쪽에 상영한 영화보다는 뒤쪽에 상영한 영화들을 더 좋아 했다. 문화적 소외지역이 작은 섬마을 학교에 폭력, 선정성이 넘치는 그런 상업 애니메이션이 아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며, 억지가 아닌 창의성에 의한 즐거운 웃음을 많이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일시 : 11월 19일(수) 오후4시
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대강당
상영작품 : 적의 사과, 무림일검의 사생활, 웅이 이야기, 날아간 뺑튀기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다. 이날의 상영은 인천발전연구원내에 있는 영화동아리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천발전연구원의 내부 사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 못하고 13명만이 관람하게 되었다. 상영은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은 4시 20분에 시작하였고, 상영신청서에 독립영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라고 해서 독립영화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고 상영을 시작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상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영화를 보고 있는 인천발전 연구원 직원들

일시 : 11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서구노인문화센터
상영작품 : 미워도 다시한번

두 번째로 찾는 서구노인문화센터는 시설과 환경 뿐 아니라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운영자들도 영화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 또한 <미워도 다시 한번>은 시설 내 노인들이 가장 보고 싶은 영화라고 계속 요청을 해와 어렵게 구한 DVD를 통해 같이 볼 수 있었다. 영화를 보는 방식은 언제나 그렇듯 주위사람과 또는 영화의 장면과 같이 소통하면서 감정이 하나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입장은 영화에 대한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 같아 항상 기쁘고 보람을 생각하게 한다.



일시 : 11월 21일(금) 오후 7시
장소 : 연평초등학교 (교실, 도서실)
상영작품 : 월·E

연평초등학교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하루에 한 번 있는 배를 타고 4시간을 가야하는 연평도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다. 연평도에는 극장 같은 문화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화를 보는 경우는 위성TV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연평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유치원 학생까지 합해서 총 80여



교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아이들



도서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아이들

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지만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공간도 없고 영화 상영장비도 80여명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한 번에 상영하지 못하고 저학년들은 교실에서, 고학년들은 도서실에 각각 총 67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관람했다. 선생님께서는 미래 인류문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영화가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했고, 아이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깨끗한 환경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하겠다고 했다.

일시 : 11월 22일 오후 7시
장소 :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 서포리 노인회관
상영작품 : 미워도 다시 한번

배로 약 2시간여 떨어져 있는 덕적도는 꽤 큰 섬에 속한다. 그리고 그곳은 해수욕장과 낚시를 위한 관광객들로 항상 분주하다. 그 섬의 거주자들은 주로 노인들이 많으며 오래전부터 같이 지내 서로 형제, 자매들처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상영회는 마을의 작은 잔치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모두 노인회관에 모여 즐겁게 영화를 보고 또한 일행이 내놓은 시루떡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영화에 대한 즐거움을 잊지 않으시려고 가시는 분들마다 꼭 부탁한다. 계속 와서 영화를 좀 보여달라고. 아마도 TV 등을 통해 편히 보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을사람들과 모여 같이 이야기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았다.



일시 : 11월 23일 오후3시
장소 : 인천보라매아동센터 강당
상영작품 : 우주비행사, 화성여행, 패트와 스탠, 욕심쟁이 다람쥐 썰리, 말괄량이 지하르카, 눈 나쁜 꼬마 방울뱀 이야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운북동에 소재한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보라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결손가정아동, 기아, 미아 등의 보호아동들이 입양이나 고아원과 같은 장기 보호시설로 가기 전에 6개월 이하 단기간 보호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다. 비포장도로를 타고 가야하는 영종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설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 자원봉사 단체도 비교적 많이 찾는 곳 같았다. 이날은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많을 때는 50여명정도의 아이들이 생활한다고 하였다. 상영은 지하 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강당이라기보다는 작은 교실과 같은 곳이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유아들이나 큰 아이들 몇몇은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상영 후 선생님들은 아이들보다 더 재미있게 봤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일시 : 11월 25일 오후 7시
장소 : 북도면사무소 북도면주민자치센터
상영작품 : 월 · E

북도면 시도(섬)에 위치한 북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시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15분정도 가야하는 도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야생 고라니가 찻길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까지 볼 수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곳이기는 하지만 영화를 보려면 극장이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50여 킬로미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가깝지 않은 거리이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나 학교에도 상영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도면의 주민들은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극장에서 상영했던 ‘월E’를 상영하게 되었다. 7시가 가까워오자 30명이 넘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로 자치센터가 꽉 차게 되었다. 섬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거의 다 모였다고 한다. 일부 아이들은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인터넷카페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끝까지 영화에 집중했고, 상영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보다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이 더 재미있다고 정기적으로 상영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일시 : 11월 26일(수) 오후 5:30

장소 : 민들레장애인야학 강의실

상영작품 : 우리학교

2006년 7월 단 5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교육권 실현을 위해 야학 건설을 준비하게 되었고, 2007년 3월 10일 지금의 공간에 민들레장애인야학은 문을 열게 되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이른 5시경 도착했지만 상영예정 장소인 강의실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상영예정인 5:30에 수업이 끝나고 부랴부랴 장비를 설치했지만 강의실에는 7명 만 있었다. 영화를 보러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자고 해서 예정보다 30분이나 늦은 6시에 상영을 시작했지만 7명만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상영시작하고 30분정도가 지나자 1명이 더 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관람인원이 늘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대부분 상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시간이 넘는 긴 영화이기는 했지만 영화가 끝날 즘에는 단 2명만이 영화를 보고 있었다.



일시 : 11월 27일(목) 오후 4시

장소 : 강화 신나는 공부방

상영작품 : 눈 나쁜 고마 방울뱀 이야기, 곰 이야기, 크로시카-카브로시카, 실험쥐 칼리토, 지구의 끝자락,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우주비행사

강화 여성의 전화에서는 빈곤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동들의 방과 후의 활동이라는 결과를 얻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안심하고 아동들을 위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화 신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외지인 이 곳은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다. 10월 이후 2번째 찾았다. 예정 시간이 4시를 훨씬 넘긴 4:40분경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부방에 있던 30여명의 아이들은 빨리 영화를 보여 달라고 줄랐다. 놀랍게도 한 달 전에 보여준 ‘말괄량이 지하르카’를 다시 보여 달라고 했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상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저녁 식사 후 모여 상영을 시작했다.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어머님들이 공부방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찾아오기도 했고, 상영 중에 아이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왔다. 선생님들은 상영이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내년에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일시 : 11월 28일(금) 오후 1시

장소 : 남구노인문화센터

상영작품 : 청춘쌍곡선

천주교구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구노인문화센터는 남구 관내의 노인들에게 기본생활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함으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사업의 하나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다. 남구노인문화센터역시 두 번째 찾는 곳이다. 지난번 상영에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상영이 잠시 늦어졌지만 이번에는 장비 설치를 위해 상영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30여명 이상이 영화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비교적 홍보도 잘 되어 있는 듯 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 영화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도 많았다. 상영이 끝난 후 영화를 본 어르신들은 고맙다고 했고, 남구노인문화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도 영화 상영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랬다.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일시 : 11월 30일(일) 오후 2시

장소 : 주안도서관

상영작품 : 팻과 스탠, 신, 천년기린, 애완동물 가게, 실험쥐 칼리토, 크로시카-카브로시카

주안도서관은 10월에 이어 두 번째 찾아가는 곳이다. 공공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아 볼 수 있도록 신청 받았다. 2시 상영 예정이었지만 지난번과는 다르게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3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0여명 정도는 지난달 상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지난번과 다른 것은 아빠와 같이 온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7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고 상영이 끝난 후 몇몇 부모님들은 영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사업 평가

■ 상영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상영프로그램 평가

지역아동센터들의 상영 프로그램들은 애니충격전과 협의하여 23편의 작품을 사전에 선택하였다. 모두 해외의 작품으로 자막이 포함되어 있어 미취학 연령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고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부방에 모이는 대상인 초등학생 이상을 염두에 두고 선택되었다. 다만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고와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는 몇몇 작품들과 함께 영화해설사를 통해서라도 이해되고 주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각각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애니메이션들은 영화해설사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소재, 세계 각국에 대한 이야기, 선과 악의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를 소통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 뿐 아니라 같이 본 선생님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다. 매번 똑같은 영화에, 똑같은 방식의 애니메이션들보다 더욱 다양한 재미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영화해설사를 통한 아이들

과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통해 교육적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간접적 체험을 경험하였다고 말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런 긍정적 효과의 반대로 한국 애니메이션들이 <천년기린(연출:원종식)> 외에 작품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애니메이션들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아이들 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빼꼼> 등 기타 TV 시리즈 외에 같이 포함해서 보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 노인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상영프로그램 평가

노인문화회관은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각 시설들에게 한국 고전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과 작품을 구하고 아카이브 할 수 있는 요령 등 실제적인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게 된 것이 더욱 많다. 아직 많은 한국 고전영화들이 모두 아카이빙 되지 못하고 더더욱 각 시설들에서 상영할 수 있는 DVD들은 많이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하지만 <청춘쌍곡선>, <삼동과장>은 오히려 못 보신 노인관객들이 더욱 많아서 오히려 좋은 호응이 있었으며 <미워도 다시 한번>은 너무 많은 요청에 준비하지 못했던 작품을 어렵게 찾아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또한 노인분들에게 한국 고전영화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현재의 영화들의 상영과 함께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프로그램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생각되었다.

○ 기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상영프로그램 평가

찾아가는 영화관이 단체들과 결합하여 단체들에게 필요하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문화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또한 이 결합은 영화선정과 수급 등의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결합이었기에 더욱 만족도는 높았을 것이다. 최초에 설정되지 못한 작품들 - 콜리지알스, 민중의 의회 같은 - 이었지만 협의를 통해 관객들을 설정하고 그곳에 맞는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은 미디어센터의 역할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영화 해설사 진행 평가

- <영화해설사>라는 이름을 만들어 낸 것은 전문적 범주에 영화를 설정하기 보다는 사업적 취지에 맞게 관객과의 눈높이를 수평적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상세한 해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리고 대상은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아동들에게 국한해서 진행되었다. 해설을 해주실 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으로 정했고 사전에 상영작품으로 선정된 30여편의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보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1시간 정도의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교구와 교안들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 초기에는 상영한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고 상영했던 작품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도 더욱 넓어질 수 있었다.
- ‘영화해설사’는 소통을 좀 더 잘 이끌어내는 가이드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었다. 또한 눈높이를 통한 언어 전달이 보다 친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아직 아동들에게 국한 되어 있었고 노인들을 포함한 해설사들이 필요했음에도 진행시키지 못했던 점이다. 시간적 여유와 사업의 진행기간이 너무 축박하게 진행된 관계로 확장하고 2, 3회라도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 영화해설사의 평가

찾아가는 영화관 인천구석 X2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영화 상영을 마치고

'영화해설사'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명칭으로 지난 석 달 간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했다. 영화를 전공하지도, 전문적으로 공부해본 적도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 어렵게 다가왔지만, 늘 해왔던 책이 아닌, 영화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소중한 기회였다. 지역아동센터 11곳, 도서관 2곳, 초등학교 1곳, 아동보호센터 1곳에서 총 18회(2회 상영 포함) 영화를 상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고, 웃음을 만났다.



* 영화 & 아이들

영화해설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아이들의 눈높이였다. 그러나 어른의 눈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시각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이미 지나온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처럼 아이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단지 영화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 더 큰 틀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아이들과 영화는 그 안에 무한한 세계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영화 속에선 무엇이든 허용된다. 자동차를 타고 화성에 가고, 사람과 고양이, 참새삼 촌이 한 가족이다. 뾰족한 모서리 끝에 집이 서 있으며, 방울뱀이 안경 쓰고 책을 읽고, 사람과 손잡고 춤을 춘다. 그 속에선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와도 소통하며, 함께 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도 이미 끝없는 우주가 담겨있다. 어떤 것인든 받아들일 널찍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늘 창조해낸다. 때로는 성장통을 겪으며 성숙할 것이며, 그러면서 더 깊숙이 자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들이 꾸는 자유로운 꿈들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다만 어른들은 그것이 상처입지 않도록 지켜봐주며 한 발짝 뒤에서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그들이 품은 꿈은, 영화 속 상상의 세계보다도 더 넓고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영화 & 이야기

아이들에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외국의 단편 애니메이션들이기에 영화만 보고 끝나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그 내용을 아이들과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버틀랜드 러셀은 '현대의 고민'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교육의 방법으로 인류 역사 전체를 영화로 가르치자는 주장을 했었다. 그것은 다른 종족이나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이런 교육은 처음부터 많은 책을 읽히는 것보다 지역적인 감정을 덜 갖게 되며, 어떤 사람이 외관상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다르게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실제적인 감정을 지닌 동일한 인간성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가 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지적해 주고 있어서 매우 공감한다.

처음에 영화 해설을 준비하면서 먹었던 마음 역시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다. 아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음악, 언어, 이채로운 생활환경 등.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아...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이런 나라도 있구나. 지구 밖 우주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화성도 있고, 달도 있고....' 아이들의 시각을 무한대로 넓혀주고 싶었다. 준비과정에서 여러 차례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했고, 질문과 대답을 준비했다.

- 선생님, 동물들이 그 지하에 묻혀 있는 보물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 그 보물들을 찾는 것보다 그대로 모른 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영화가 끝난 건 아닐까?

- 아니에요, 동물들이 이미 우정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돈이 생겨나도 서로 싸우지는 않을 거 같아요. 만약 돈을 먼저 찾았다면 우정을 찾기는 힘들었겠지만.....
- 많은 돈을 찾아도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면 돼요.
- 지 금도 좋은 집을 두더지들이 지어주었고, 서로 우정도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보물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페트와 스탠〉

영화를 본 후 아이들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고,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으며, 때로는 열려있는 결말에 당황하기도 했다.

- 선생님, 그러니까 안토니오는 화성에 두 번 간 거 맞죠?
- 그래요. 처음엔 할아버지와 함께, 두 번째는 혼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게 되지요.
-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안토니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땐 속상했어요. 화성에서 사온 우주 헬멧을 보여주면 됐을 텐데...
-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사진 속에만 계시네요.
-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자동차로 화성에 가요. 안토니오가 꿈꾼 거 같아요.
- 혁! 화성에서 여자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화성여행〉

- 저 할머니 완전 멋져요. 수퍼할머니예요.
- 죽음을 한방에 보내버렸어요.
- 죽음이 찾아오면 꼭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 영화가 제일 재밌어요.
- 선생님, 저 할머니 끝에 또 졸고 있어요. 죽음이 또 찾아올 거 같아요.
- 저 할머니는 영원히 죽지 않겠네요. 자연스럽게 죽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죽음에 대처하는 법〉

아이들은 첫 번째 영화를 보고 나면 눈동자가 더욱 빛났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영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파악했다는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자막이 길게 나와도, 혹은 영화 전체가 말없이 그림으로만 진행되어도 아이들은 빠른 감각으로 영화를 읽어나갔다. 혼한 표현대로 스펜지가 떠올랐다. 아무리 단편이라지만 여섯 편이나 되는 영화들을 아이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것은 기우였다.

- 선생님, 이야기 속에 심청전이 들어 있었어요.
- 우리 나라 말로 나오니까 편해요.
- 돌쇠 손가락 너무 징그러워요. 왜 다 자른 거예요?
- 옛날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넣어주기도 했대요. 그럼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을 향한 효성의 상징이기도 하죠.
- 마지막에 천년기린도 엄마 품으로 돌아가서 다행이에요.
- 맞아요, 돌쇠만 좋게 끝나면 천년기린이 다리 잘려서 계속 쫓아왔을 거예요.

제목	찾아가는 영화관
일시	11/9/30
장소	제 4강의실
작성자	이 지아
3. 흥미여기 = 맘을 못 하는 동물들이 몸을 하는 건 허기 있는 이야기지만 위생 골은 무서워 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지내는 게 너무 흥미로웠다. 1편의 이야기 중에서 3편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느낌이 오는 것이 흥미로웠다.	
4. 죽음에 대처하는 법 = 죽기 전까지만 너무 흥미 적이었다. 다른 신념 대나무에서 퇴각하기지도 않고 계속 살아가는게 좀 놀랍지 않으니까하고 생각도 많이 왔다.	
5. 화성여행 = 화성의 환경은 못 가봤지만 이통계 영화로 보니 너무 아름다워 단도직입으로도 한번에 알 수도 있고, 공기가 있는 것에서 대장을 열수 있다는 게 신기하였다.	

〈천년기린〉

- 저렇게 뾰족한 모서리 위에 집이 서 있는 상상 해 본 적 있나요?
-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 작은 집 안으로 자동차까지 들어가요. 완전 웃겼어요.
- 선생님,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들어간 곳이 차라리 나아요. 혼들리진 않으니까.
- 한번만 다시 보여 주세요. 잘 못 본 거 있는데....

〈지구의 끝자락〉

- 신이 팔이 너무 많아서 햇갈렸나봐요. 파리를 놓쳤어요.
- 근데, 마지막에 거미로 변신한 거예요?
- 글쎄... 거미로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거미에게 파리가 잡아먹힌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파리가 원래는 거미였는데, 신을 괴롭히려고 잠깐 파리로 변신했던 거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죠. 우리 친구들 마음껏 상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신이 콧구멍에 손 넣는 장면이 제일 웃겼어요.

〈신〉

- 선생님, 왜 흰 쥐로만 동물실험을 해요?
- 흰 쥐는 포유류 중에서 인간의 몸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번식이 쉽고, 한 세대가 짧아서 빨리 결과를 보아야 하는 실험에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실험용 쥐 역시 동물이고 생명체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흰 쥐 실험도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험용 쥐 덕분에 우리 인간이 매우 편리해진 사실이지만, 그건 인간중심적인 행동인 것은 사실이죠.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 처음에 유리칼로 칼립토를 자르는 장면에서 좀 떨렸어요. 그 다음부턴 웃겼구요.
- 처음엔 이쁘다고 뾰뽀해놓고 그다음엔 여러 가지 실험 하는 게 좀 잔인해요.

〈실험쥐칼립토〉

제목	찾아 가는 영화관
일시	11월13일
장소	제 4 강의실
작성자	김우진
내의느낌	<p>나는 11월13일 본 6개의 영화중 5번째로 보았던 신에 대해서 적을 것이 다 신은 팔이 많고 오너지 풀의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영화를 보면 너무나 웃겨서 신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게다가 파리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것도 웃기지 신에 느낄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풀자 마자 갑자기 거미가 파리를 잡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이냐면 신은 바로 거미를 뜯 한 것이다 아니 나는 생각이다. 그리고 마지막 신이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하니 더 했나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팔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팔이 많으면 매번 팔이 고이 기나 하니까 이상하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든다.</p>

제목	찾아 가는 영화관
일시	11월13일
장소	제4강의실
작성자	김준복
내의느낌	<p>먼저 모든 영화가 다 새미 있고 웃겼지만 가장 기억에 확는 것을 쓰라고 하면 말고 말로는 지하로 뛰어서는 안 소년을 뉘우쳐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잡아 먹지 못하고 까마귀처럼 우에서 철 려서 강 물에 뛰어들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화에서 가장 인상 깊고 재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줄을 대처하는 모습에서는 할머니가 해물을 때려잡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을 때가 되면 그 것을 눈치채길 하지 않고 그걸 먹어치운 그럴게 살려고 노력을 하자는 만들는데 내가 만약 그 할머니였다면 나는 그럴게 하거나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데 그 할머니는 살려는 의지를 그루터운 해물을 쓰러뜨렸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표정으로는 가장 인상 깊고 재미있기 같다.</p>

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호간 협의 구조를 일상화
-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정체성 확립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독립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공동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전형을 창출

(2) 사업 방향

-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부 사업별 담당 간사를 선정한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 사업 경험 축적을 위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팀을 구성한다.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 공동 사업의 결과물을 DB 하고, 전국적으로 활용되도록 홍보 및 배포한다.

(3) 사업 개요

- 기간 : 2008년 7월 ~ 12월
- 장소 : 김해, 제주, 대구, 인천(주안), 천안 등
- 주최 : 김해, 제주, 대구, 주안, 천안영상미디어센터
- 사업내용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2008년 청소년 영상캠프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교재 개발

2) 사업진행 내용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 기 간 : 2008년 7월 11일(금)~12일(토)
- 장 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 참가자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실무자 외 21명
- 프로그램
 - 토론회
 - 일시 : 7월 11일(금) 오후 2시~6시
 - 주제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강연
 - 일시 : 7월 12일(토) 오전 10시~12시

- 주제 : 미디어융합 시대에 미디어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일정

일자	시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7/11 (금)	14:00	14:30	30분	참가자 등록/개회	
	14:30	18:00	210분	[토론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손동혁
	18:00	19:00	60분	저녁식사	
	19:00	21:00	120분	친목의 시간	
7/12 (토)	08:00	09:00	60분	아침 식사	
	10:00	11:30	90분	[강의/질의응답] 미디어융합시대에 미디어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명준
	11:30	12:00	30분	폐회	
	12:00	13:00	60분	점심식사	

○ 참가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진종두	김해영상미디어센터	
2	장지욱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전임
3	주진석		사무원
4	강화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
5	경희령		미디어교육팀
6	김정석		대안미디어팀
7	노현일		대안미디어팀
8	손동혁		소장
9	위지혜		대안미디어팀
10	이희랑		미디어교육팀장
11	전철원		사무국장
12	정수미		사무국
13	변금윤		영상교육팀
14	서정수		영상교육팀장
15	원지애		영상교육팀
16	김재훈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17	어윤수		사무국장
18	서정훈	익산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19	오정택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사무차장
20	김민호	순천영상미디어센터	
21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 기록



(2) 2008 청소년 영상미디어 캠프 [미디어교육 사업 참조]

- 캠프명 : 청푸름 미디어캠프 2008 “YOUth WHO~”
- 기 간 : 2008년 7월 1일 ~ 8월 2일
- 장 소 : 각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및 안동
- 참가자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스텝 및 청소년 등 73명

분 류	성 별	남		여	
		47	26	36	26
연령별 (신청자)	중학교		고등학교		
	14	36			
업무별	참여학생	보조강사	사업담당자	참관	
	50	12	6	5	

■ 사업내용

- 사전교육
 - 기간 : 7월 1일~7월 29일
 - 장소 : 김해, 제주, 대구, 인천, 천안 일대
 - 교육내용 : 미디어 기초교육, 촬영 및 편집교육, 5명 1조로 캠프 발표용 작품제작
- 캠프
 - 기간 : 7월 30일~8월 2일
 - 장소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안동 일대
 - 캠프명 : 청푸름 미디어캠프 2008 ‘YOUth WHO’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교재 개발[미디어교육 사업 참조]

- 기 간 : 2008년 6월~12월

■ 사업방향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 체계적인 교재와 교육자료 생산 후 아카이브 구축

■ 사업내용

- 현황조사
 - 기간 : 6월
 - 조사내용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교육 현황, 교육 장비 및 시설 현황,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필수 요구

사항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간 : 7월~8월
 - 개발방향 : 각 지역 미디어교육 담당자, 교사, 연구자 등으로 개발팀 구성, 공통 미디어교육 과정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 교재 제작
 - 기간 : 8월~11월
 - 제작방향 :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 구성 및 교육 자료 생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교재집 출판, 교육 자료를 포함한 디지털 교재 제작
- 공동교재 출판 기념 워크샵 및 교재 배포
 - 기간 : 12월
 - 사업내용 : 공동교재 개발 과정 및 결과물 소개, 전국 미디어교육 기관에 공동교재 배포

3) 사업총평

-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현재 까지 성과를 공유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운영실무자들 스스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기회였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전국적인 동의를 형성할 수 있었다.



4장

부록 - 아카이브 목록

1. 도서자료목록

2. 영상자료목록

1. 도서 자료 목록

구분	번호	제 목	저 자	출판사
미 디 어, 방 송	1	학교로 간 미디어	미디어문화 교육연구	다할미디어
	2	1인 미디어의 힘	정원진, 김양하, 이석근, 민승기	매일경제신문사
	3	미디어 소유와 집중	질리언 도일	커뮤니케이션북스
	4	미디어 리터러시의 도구상자	(사)일본민간방송연맹	커뮤니케이션북스
	5	한국대중매체사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6	인터넷 방송 기획실무	김용섭	커뮤니케이션북스
	7	인터넷 시대, 실전취재 보도론	김창룡	커뮤니케이션북스
	8	기사쓰기 워크북	하준우	나남
	9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스테판 올리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10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베르너파울슈티히	지식의 풍경
	11	정보 불평등	허버트 실러	민음사
	12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매클루언	커뮤니케이션북스
	13	IPTV 혁명	니시 타다시	전자신문사
	14	언론홍보 핸드북	신동호	코리아뉴스와이어
	15	퍼블릭 액세스	김봉수	방송통신위원회
	16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17	미디어교육 자율적, 문화적 군대로 도전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18	커뮤니케이션 권리 핸드북	CRIS 캠페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19	미디어융합시대,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김동현 외 11명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0	융합시대 영상미디어운동의 전략	김명준, 황규만, 혜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1	디카, 대화, 출발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2	미디어교육 새로운 실천 2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3	방과후 학교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적용 모델 연구	오정훈 외 4명	문화관광부
	24	전환기 시청자미디어교육의 확산과 수렴 프로젝트	강수연 외 18명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5	소리로 여는 라디오 세상	고영재 외 5명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6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1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7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2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8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3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9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6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30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5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31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7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32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8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33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4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34	미디액트 2006년 활동백서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영화, 영상	1	한국영화사 (개화기에서 개화기까지)	김미현	커뮤니케이션북스
	2	쇼트 (영화의 시작)	엠마뉴엘 시에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	시점 (시네아스트의 시선에서 관객의 시선으로)	조엘 마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	몽타주 (영화의 시간과 공간)	벵상 피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5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백선기	커뮤니케이션북스
	6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십 분짜리 영화학교	로버트 로드리게즈	(주)도서출판 강
	7	시나리오 마스터 (필름 스토리텔링의 건축학)	데이비드 하워드	한겨레 출판
	8	옥스퍼드세계영화사	제프리 노웰-스미스	열린책들
	9	시네마1 (운동-이미지)	질들뢰즈	시각과 언어
	10	디지털영상 세대를 위한 스토리보드의 이해	박연웅	동양문고, 상상공방
	11	장르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표창원 외	영화진흥위원회
	12	2005 한국 시나리오 선집 (상)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3	2005 한국 시나리오 선집 (하)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4	2006 한국 시나리오 선집 (상)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5	2006 한국 시나리오 선집 (하)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6	다락방에서 타자를 만나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도서출판 여이연
	17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독립다큐멘터리 연구모임	예담출판사
	18	한국영화 정책사	김동호 외	나남출판
	19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강옥희 외	도서출판 소도
	20	매혹과 혼돈의 시대 (50년대의 한국영화)	김소연 외	도서출판 소도
	21	영화프로듀싱과 홍보 마케팅 입문	채윤희 외	도서출판 큰사람
	22	영화와 표현의 자유	임상혁	청림출판
	23	전쟁과 영화	풀 비릴리오	한나래
	24	HD 영화제작의 이해	구재모	여울미디어
	25	한국영화와 근대성	주유신 외	도서출판 소도
	26	나의 사랑 씨네마	김수용	씨네21(주)
	27	영화 영상 기술용어집	유재형	집문당
	28	다큐멘터리 입문	빌 니콜스	한울 아카데미
	29	한국 영화감독 사전	김종원	국학자료원
	30	한국 영화 제작 매뉴얼	안영진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31	영화마케팅론 이론과 실제	이종철	일문사
	32	2005 영화관객 성향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커뮤니케이션북스
	33	2006 영화관객 성향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커뮤니케이션북스
	34	영화정책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정현일 외	(주) 계문사
	35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0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6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1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7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2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8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8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9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9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40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80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41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81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42	KOREAN FILM Observatory No.28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3	국제영화제 평가시스템 개발 및 2005년 국제영화제 평가	김도학 외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44	2006년 국제영화제 평가	김도학 외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45	KOREAN FILM DATABASE BOOK 1995-2008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6	세계영화사강의	임정택 외	연세대학교 출판부
	47	영화와 방송의 연계방안 연구	류형진	커뮤니케이션북스
	48	일본 영화시장 연구	박영은	커뮤니케이션북스
	49	2004년 세계 영화시장 규모 및 한국영화 해외 진출 현황 연구	김현정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50	영화 스타일의 역사	데이비드 보드웰	도서출판 한울
	51	영상 이미지 읽기	마르틴 졸리	문예출판사
인천 문화	1	인천문화비평 9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2	인천문화비평 10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3	인천문화비평 11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4	인천문화비평 12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5	인천문화비평 13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6	인천문화비평 14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7	인천문화비평 15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8	인천문화비평 17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9	인천문화비평 18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0	인천문화비평 19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1	인천문화비평 20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2	인천문화비평 21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3	인천문화비평 22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4	인천문화비평 23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5	황해미술 2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6	황해미술 3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7	황해미술 4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8	황해미술 5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9	황해미술 6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0	황해미술 7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1	황해미술 8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2	황해미술 13, 14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3	황해미술 15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4	황해미술 16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5	황해미술 18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6	황해미술 19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7	황해미술 20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8	황해미술 21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9	황해미술 22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0	황해미술 23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1	황해미술 24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2	황해미술 25	인천민속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3	인천민족예술 1	민예총 인천지회	(주)강산광고인쇄출판
	34	인천민족예술 2	민예총 인천지회	청림인쇄공사
	35	인천민족예술 7	민예총 인천지회	펄디자인
	36	문학예술 3	민예총 인천지회	청림인쇄공사
	37	문학예술 4	민예총 인천지회	청림인쇄공사
	38	문학예술 5	민예총 인천지회	
	39	문학예술 6	민예총 인천지회	펄디자인
	40	진우촌 전집-구가정의 끝날	윤진현(엮은이)	다인아트
	41	사진으로 보는 우현 고유섭의 한국 탑파 (+모음집 CD)	민예총 인천지회	다인아트
	42	문화, 현장, 방법론	신병현, 현광일, 이홍현아	다인아트
	43	풍경, 힘세덕	윤진현	다인아트
	44	행복한 인천연극	윤진현	다인아트
	45	인천 1950	고든 L. 리트먼	플래닛 미디어
	46	인천땅 '이만큼 알기'	인천지리답사모임[터사랑]	다인아트
	47	문화도시로 가는 길-지역문학과 문화에 대한 성찰	이현식	다인아트
	48	인천공부-인천문화와 인천학의 탐구	김창수	다인아트
	49	왜 다시 인천인가	새천년 인천의 희망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다인아트
	50	仁川 근대도시 형성과 건축	이안	다인아트
	51	황해에 부는 바람	최원식	다인아트
	52	월미도가 달꼬리라구?	최재용	다인아트
기타	1	할수있다! 드림위버 CS3 쉽게 배우기	신미영	영진닷컴
	2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S3 그대로 따라하기	김성욱	도서출판 혜지원
	3	After Effects CS3	김지영, 웰기획	웰북
	4	포토샵 CS3	김석일, 이향아, 웰기획	웰북
	5	부서진 미래	김순천 외 10인	삶이 보이는 창

2. 영상 자료 목록

구분	번호	제목	감독	제작사
한국 독립 단편	1	Welcome 2 the freak show (최진성 단편영화컬렉션)	최진성	
	2	나는 내가 의천검을 쥔 것처럼 외 : 독립영화 보부상 프로젝트	윤성호	미디액트
	3	나의 아름다운 단편 : 한국영화아카데미 단편콜렉션		
	4	나의 아름다운 단편 2 : 한국영화아카데미 단편콜렉션II		
	5	내 청춘에게 고함	김영남	이모션픽쳐스, NHK
	6	다섯은 너무 많아	안슬기	씨알필름
	7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 Vol.1	정승구, 흥재희, 이미랑, 이채윤	한국독립영화협회
	8	동백꽃 프로젝트	최진성, 소준문, 이송희일	
	9	둘 하나 섹스	이지상	(주)인디스토리
	10	Dinner Party for Women (필름메신저)	유은정 외	
	11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1	조진	한국독립영화협회
	12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2	김동원	
	13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3(오!꿈의 나라)	이은, 장동홍, 장윤현	
	14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4	이상인	
	15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5	김태영	
	16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6(파업전야)	이은, 이재구, 장동홍, 장윤현	
	17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Vol. 1		
	18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Vol. 2		
	19	미메시스 단편애니메이션 작품집		
	20	반변증법 / 시간의식	김곡, 김선	
	21	사라지는 순간들 : 김종관 단편영화 컬렉션	김종관	
	22	서울독립영화제 2003 수상작		
	23	서울독립영화제 2004 수상작		
	24	서울독립영화제 2005 수상작		
	25	서울독립영화제 2006 수상작		
	26	신성일의 행방불명	신재인	신재인랜드
	27	아스피린-이선영촬영감독콜렉션		
	28	이공 1 (디지털단편옴니버스프로젝트)	민규동, 조민호	
	29	옴니버스 프로젝트 <제국>	최진성, 최현정, 윤성호	MEDIACT영화진흥위원회
	30	자본당 선언 : 만국의 노동자여, 축적하라!	김선, 김곡	곡사
	31	최진성 단편영화콜렉션 2002-2004	최진성	프릭쏘
	32	프락치	황철민	씨네굿
	33	피터팬의공식	조창호	LJ필름
	34	한국독립애니메이션 컬렉션1		진공

	35	한국단편애니메이션 컬렉션2		(주)케이디미디어
	36	서울독립영화제 2007 수상작		서울독립영화제
	37	정병길 감독 三색 컬렉션	정병길	미디액트, 한독협
	38	울면서 달리기	강혜연 외	한독협
	3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경선 역대 수상작 모음1997~2007	박찬옥 외	한독협
한국 독립 영화, 다큐	1	0506 기로에서 : 돌아보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태준식	미디액트
	2	192-399 : 더불어사는집 이야기	이현정	서울영상집단
	3	22일간의 고백	김태일	푸른영상
	4	4월 9일	김태일	푸른영상
	5	54일, 그여름의기록	홍형숙, 흥효숙	서울영상집단
	6	708호 이등병의 편지	김환태	
	7	IMF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 노동자	박종필	다큐인
	8	개방농정의 시대-2001 농촌보고서	권우정	다큐인
	9	결혼 전 이야기	박현선	푸른영상
	10	결혼, 가족 그리고 나	정현주	푸른영상
	11	경계도시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12	계속된다-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주현숙	미디액트
	13	그들만의 월드컵	최진성	
	14	기찻길 옆 공부방	서경화	푸른영상
	15	김종태의 꿈	김성환	푸른영상
	16	꽃피는 할머니	박성미, 김성진	다큐인
	17		박종필	다큐인
	18	나는 행복하다	류미례	푸른영상
	19	낙선	오정훈, 이안숙	한국독립영화협회
	20	낮은 목소리	변영주	보임
	21	낮은 목소리 2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변영주, 신명화	
	22	낮은 목소리 3 - 숨결	변영주	기록영화제작소보임
	23	노들비람	박종필	다큐인
	24	노래로 태양을 쏘다 :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기록	조재홍	서울영상집단
	25	노인, 또 하나의 시간	정현주	푸른영상
	26	녹색 밭자국	공미연	서울영상집단
	27	농가일기	권우정	
	28	대추리 전쟁	정일건	푸른영상
	29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최진성, 미디어참세상 등	한국독립영화협회
	30	돌 속에 갇힌 말	나루	다큐 나루
	31	동강은 흐른다	김성환	푸른영상
	32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33	두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임진평	튜아이드 필름, 키위미디어
	34	또 하나의 세상 - 행당동 사람들 2	김동원, 천주교도시민빈사목회	푸른영상
	35	명성, 그 6일의 기록	김동원	푸른영상
	36	미디어 숲 속의 사람들	김동원	푸른영상

37	미친 시간	이마리오	서울영상집단
38	민들레	최하동하, 이경순	빨간눈사람
39	버스를 타자 - 장애인 이동권 투쟁 보고서	박종필	다큐인
40	변방에서 중심으로 : 독립영화에 대한 특별한 시선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41	보이지 않는 창살	남택진	푸른영상
42	봉천동 이야기	서명진	푸른영상
43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김태일	푸른영상
44	불티는 필름의 연대기	이마리오	미디액트
45	비상(飛上)	임유철	이모션 픽쳐스
46	사이에서	이창재	다큐코리아
47	삶의 자리, 투쟁의 자리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48	상계동 올림픽	김동원	푸른영상
49	세 발 까마귀	오정훈	푸른영상
50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김동원	푸른영상
51	소금-철도여성노동자이야기	박정숙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52	소금-철도여성노동자이야기(영문자막)	박정숙	
53	소풍	홍남희	푸른영상
54	송환	김동원	푸른영상
55	슬로브핫의 딸들	문정현	푸른영상
56	시작하는 순간 - 두밀리 두 번째 이야기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57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변영주	푸른영상
58	야고보의 5월	김동원	푸른영상
59	약속 하나 있어야 겠습니다	오정훈	푸른영상
60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김태일	민주화실천기록운동협의회
61	엄마…	류미례	푸른영상
62	엄마를 찾아서	정호현	
63	에바다투쟁 6년 - 해 아래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하여	박종필	다큐인
64	옥포만에 메아리칠 우리들의 노래를 위하여	다큐멘터리 작가회의	다큐멘터리 작가회의
65	안녕, 사요나라	김태일, 가토 구미코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66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박기복	푸른영상
67	원진별곡	김태일	푸른영상
68	입국금지	박상미	다큐인
69	잊혀진 여전사	김진열	
70	전열	다큐멘터리작가회의	다큐멘터리작가회의
71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이마리오	
72	진실의 문	김희철	(주)엔터원
7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김환태	
74	친구- 나는 행복하다2	류미례	푸른영상
75	팔등신으로 고치라 굽쇼	황철민	
76	풀은 풀끼리 늙어도 푸르다	김태일	푸른영상
77	핑크 팰리스	서동일	

	78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김동원	푸른영상, 칠천만겨레모임 통일맞이
	79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김경만	영화제작소 청년
	80	학교1	남태제	다큐인
	81	한사람	김동원	푸른영상
	82	행당동 사람들	김동원	푸른영상
	83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길	오정훈	푸른영상
	84	학교2	남태제	
	85	열린채널 불행끝! 행복시작! 닫힌채널을 열어라	시민제작자모임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86	얼굴들	지혜	미디액트
	87	무죄(1981년 진도조작간첩사건 기록영화)	김희철	영화진흥위원회
	88	파업전야	이용배	영화제작소 장산곶매
	89	팔월의 일요일들	이진우	인디스토리
	90	전장에서 나는	공미연	한독협
한국일반	1	2009 로스트메모리즈	이시명	(주)인디컴
	2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우노필름
	3	개그맨	이명세	태흥영화주식회사
	4	겨울 나그네	곽지균	동아수출공사
	5	경마장 가는 길	장선우	태흥영화주식회사
	6	괴물	봉준호	(주)청아람
	7	귀여워	김수현	튜브피처스
	8	그들도 우리처럼	박광수	동아수출공사
	9	길	배창호	이산프로덕션
	10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홍상수	동아수출공사
	11	로맨스 빠빠	신상옥	신플림
	12	마부(한국영화걸작선)	강대진	
	13	바람불어 좋은날	이장호	동아수출공사
	14	박하사탕	이창동	이스트 필름
	15	발레 교습소	변영주	좋은영화
	16	번지점프를 하다	김대승	눈 엔터네인먼트(주)
	17	벙어리 삼룡이	신상옥	
	18	복수는 나의 것	박찬욱	스튜디오 박스
	19	봄날은 간다	허진호	싸이더스
	20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김기덕	엘제이 필름(LJ Film), 판도라 필름
	21	비단구두	여균동	오리영화사
	22	뽕	이두용	태흥영화주식회사
	23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신상옥	
	24	사생결단	이시영	MK 픽처스
	25	서편제	임권택	태흥영화주식회사
	26	성춘향	신상옥	신플림
	27	세 번째 시선	정윤철, 김현필	국가인권위원회
	28	수취인불명	김기덕	김기덕피리름, 엘제이 필름

29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김태식	필름라인
30	여우동	이장호	태홍영화주식회사
31	얼굴없는 미녀	김인식	아이필름(주)
32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이하	엔젤 언더그리운드, MK 피쳐스
33	여섯개의 시선	박광수, 박진표	국가인권위원회
34	여자, 정혜	이윤기	LJ필름
35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홍상수	미라신코리아, 유니코리아
36	연산군 (한국영화마스터피스콜렉션)	신상옥	신플림
37	영자의 전성시대	김호선	
38	오아시스	이창동	이스트 필름
39	올드보이	박찬욱	쇼이스트(주)
40	외출	허진호	블루스톰
41	우아한 세계	한재림	(주)루씨필름
42	이창동 감독 콜렉션 스페셜 피쳐	이창동	
43	인어공주	박흥식	나우필름
44	장군의 아들	임권택	태홍영화주식회사
45	장미빛 인생	김홍준	태홍영화주식회사
46	젊은날의 초상	곽지균	태홍영화주식회사
47	주홍글씨	변혁	LJ필름
48	천년학	임권택	키노투
49	천년호	신상옥	신플림
50	청춘쌍곡선	한형모	
51	초록물고기	이창동	이스트 필름, 시네마 서비스
52	축제	임권택	태홍영화주식회사
53	춘향뎐	임권택	태홍영화주식회사
54	친구	곽경택	시네라인주인네트
55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모호필름
56	칠수와 만수	박광수	동아수출공사
57	타짜	최동훈	싸이더스 FNH
58	태백산맥	임권택	태홍영화주식회사
59	파이란	송해성	튜브피쳐스
60	해안선	김기덕	LJ필름
61	홀리데이	양윤호	(주)현진씨네마
62	후회하지 않아	이승희일	청년필름
63	생활의 발견	홍상수	미라신코리아
64	미녀는 괴로워	김용화	리얼라이즈 피쳐스 KM컬쳐
65	밀양	이창동	파인하우스필름
66	사이에서	이창재	다큐코리아
67	삼거리극장	전계수	LJ 필름, (주)프라임엔터테인먼트
68	숨	김기덕	김기덕필름
69	소나기	고영남	남아진흥

	70	애니깽	김호선	합동영화사
	71	누가 龍의 발톱을 보았는가?	강우석	서울필름
	72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박광수	씨네2000
	73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류승완	외유내강
	74	나비	문승욱	(주)팝엔터테인먼트아시아
	75	학생부군신위	박철수	박철수 필름, GTV
	76	아름다운 시절	이광모	(주)백두대간, 미도영화사
	77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병철	오병철프로덕션
	78	銀馬는 오지않는다	장길수	한진흥업
중국 + 홍콩	1	2046	왕가위	상하이필름스튜디오, 제트톤필름프로덕션
	2	국두	장예모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
	3	귀신이 온다	강문	베이징 장보-타임즈 필름 플래닝, 차이나 필름 코-프로덕션 코퍼레이션
	4	당산대형	로우 웨이	골든 하베스트 컴퍼니
	5	돌아온 외팔이	장철	
	6	맹룡과강	부르스 리	
	7	무간도1 (Movie + SUPPLEMENT)	유위강, 맥조휘	
	8	무간도2 (Movie + SUPPLEMENT)	유위강, 맥조휘	
	9	무간도3 (Movie + SUPPLEMENT)	유위강, 맥조휘	
	10	반생연	허안화	만다린 필름
	11	붉은 수수밭	장예모	시안 필름 스튜디오
	12	사망유희	로버트 클라우스	골든 하베스트 컴퍼니
	13	서유기 월광보합	유진위	
	14	서유기 선리기연	유진위	
	15	신 외팔이	장철	
	16	쓰리 타임즈	허우사오시엔	3에이치 필름즈
	17	아비정전	왕가위	인-기어 필름
	18	애정만세	차이밍량	센트럴모션픽쳐스 코퍼레이션
	19	에로스	왕가위, 스티븐소더버그	로이시 필름스, 제트 톤 필름 프로덕션
	20	연지구	관금봉	
	21	열혈남아	왕가위	
	22	영웅본색	오우삼	시네마시티필름프로덕션
	23	영웅본색2	오우삼	
	24	영웅본색3	서극	
	25	완령옥	관금봉	
	26	의리의 사나이 외팔이	장철	쇼 브라더스
	27	이소룡의 삶과 전설	안드류 몰간	
	28	인생	장예모	상하이필름스튜디오
	29	정무문	나유	골든 하베스트 컴퍼니
	30	중경삼림	왕가위	택동프로덕션

	31	지존무상	왕정, 향화승	원스 필름 프로덕션
	32	지존무상2 영패천하	두기봉	
	33	천리주단기	장예모	
	34	천장지구	진목승	
	35	첨밀밀	진가신	UFO, 골든하베스트 컴퍼니
	36	타락천사	왕가위	택동전영제작유한공사
	37	파왕별희	챈 카이거	
	38	하나 그리고 둘	에드워드 양	아톰 필름, 포니 캐년
	39	화양연화	왕가위	블록2 픽쳐스
	40	흔들리는 구름	차이밍량	
	41	쿵푸허슬	주성치	
	42	동사서독	왕가위	
	43	푸른 연	티엔주앙주앙	
일본	1	3-4X10월	기타노 다케시	
	2	4월 이야기	이와이 순지	록웰아이즈
	3	7인의 사무라이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	7인의 사무라이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5	7인의 사무라이 (2disk)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6	간장선생	이마무라 쇼헤이	이마무라 프로덕션
	7	거미의 성	구로자와 아키라	
	8	거미의 성	구로자와 아키라	
	9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미키 사토시	
	10	겐로쿠 주신구라	미조구치 겐지	쇼치쿠 필름
	11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기타노 다케시	
	12	기묘한 서커스	소노 시온	(주)코랄픽쳐스
	13	기쿠지로의 여름	기타노 다케시	
	14	녹차의 맛	이시이 가쓰히토	그레스호파
	15	눈물이 주룩주룩	도이 노부히로	TBS, 아뮤즈
	16	다케시즈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17	도쿄 아이즈	장 피에르 리모젱	유로 스페이스
	18	돌스	기타노 다케시	Office Kitano
	19	라쇼몽	구로자와 아키라	
	20	라쇼몽	구로자와 아키라	
	21	라스트 라이프 라스트 러브	펜엑 라타나루앙	보헤미안 필름스
	22	란포지옥	짓소지 아키오, 카네코 아츠시	알바트로스 필름
	23	릴리슈슈의 모든것	이와이 순지	록웰아이즈
	24	메종 드 히미코	이누도 잇신	아스믹 에이스
	25	모두 하고 있습니까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26	무지개 여신	구마자와 노오토	
	27	박사가 사랑한 수식	고이즈미 다카시	
	28	브라더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29	브라더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30	사랑의 문	마츠오 스즈키	
31	소나티네	기타노 다케시	반다이 비주얼 Co. Ltd., 쇼치쿠 필름
32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이와이 순지	후지 TV
33	스크랩 헤븐	이상일	TV도쿄
34	아무도 모른다	고레에다 하로카즈	시네콰논
35	약 30개의 거짓말	오오타니 겐타로	
36	멋진 일요일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37	멋진 일요일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38	언두	이와이 순지	후지 TV
39	엔젤 더스트	이시이 소고	
40	이키루	구로사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1	이키루	구로사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2	이키루	구로사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3	일본 인디필름 페스티벌 영화제 박스세트 스페셜 퓨쳐		
44	자토이치	기타노 다케시	
45	좋아해	이시카와 하로시	
46	주정뱅이 천사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7	주정뱅이 천사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8	전차남	무라카미 마사노리	도호영화사
49	카게무사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이십세기 폭스사
50	카페 류미에르	허우샤오시엔	쇼치쿠 필름
51	키즈 리턴	기타노 다케시	반다이 비주얼 Co. Ltd., 오피스 기타노
52	피와 뼈	최양일	비와일드
53	피크닉	이와이 순지	후지 TV
54	핑퐁	소리 후미히코	아스믹 에이스 엔터테인먼트
55	하나비	기타노 다케시	반다이 비주얼 Co. Ltd., 오피스 기타노
56	하나와 앤리스	이와이 순지	쇼이스트(주)
57	한밤중의 야지 기타	쿠도 칸쿠로	아스믹 에이스
58	해저드	소노 시온	헤저드 프로젝트
59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나가시마 테츠야	도호 영화사, TBS
60	환상의 빛	고레에다 하로카즈	
61	러브레터	이와이 순지	후지 텔레비전 네트워크
62	오유우님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3	게이샤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4	우개츠 이야기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5	수치의 거리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6	지카마츠 이야기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7	산쇼다 유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8	양귀비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9	신 헤이케 이야기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70	밀바닥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71	밀바닥	장 르누아르	
미국	1	7월 4일생	올리버 스톤	Ixtlan Corporation
	2	THX-1138	조지 루카스	아메리칸 조트로프, 워너 브라더스사
	3	가위손	팀 버튼	아십세기 폭스사
	4	가을의 전설	에드워드 즈윅	트라이스타 픽처스
	5	캔스 오브 뉴욕	마틴 스코시즈	0
	6	게이샤의 추억	롭 마셜	콜럼비아 픽처스, 드림웍스 SKG
	7	고소공포증	멜 브록스	크로스보우 프로덕션
	8	굿 세퍼드	로버트 드 니로	모건 크릭 프로덕션즈, 유니버설 픽처스
	9	굿 나이트 앤 굿 럭	조지 클루니	섹션 에이 Ltd., 2929프로덕션
	10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	MGM
	11	나의 그리스식 웨딩	조엘 즈윅	골드 서클 필름
	12	국가의 탄생	D.W. 그리피스	데이빗 W. 그리피스사
	13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마이크 니콜스	워너 브라더스사
	14	뉴욕스토리	우디 앤런, 마틴 스코시즈	터치스톤 픽처스
	15	다운 바이 로	짐 자무시	블랙 스네이크, 아일랜드 픽처스
	16	닥터 지바고	데이비드 린	MGM
	17	데드 맨	짐 자무시	미리맥스
	18	디파티드	마틴 스코시즈	워너 브라더스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
	19	21그램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This is That Productions
	20	34번가의 기적	레스 메이필드	아십세기 폭스사
	21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티븐 스필버그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드림웍스 SKG
	22	래리 플린트	밀러스 포먼	콜럼비아 픽처스
	23	랜드 오브 데드	조지 A.로메로	로렐 엔터테인먼트
	24	로리타	스탠리 큐브릭	Seven Arts Production
	25	로마제국의 멸망	앤서니 만	사무엘 브론스톤 프로덕션, 랭크 오거니제이션 필름 프로덕션
	26	리핑 : 10개의 재앙	스티븐 휙킨스	워너 브라더스사, 다크 캐슬 엔터테인먼트
	27	매트릭스	래리 워쇼스키, 앤디 워쇼스키	실버 픽처스
	28	매트릭스 2 리로디드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실버 픽처스, 워너 브라더스사
	29	매트릭스 3 레볼루션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실버 픽처스, 워너 브라더스사
	30	맨하탄	우디 앤런	잭 룰린스&찰스 H. 조페 프로덕션

31	멀홀랜드 드라이브	데이비드 린치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32	메멘토	크리스토퍼 놀란	팀 토드, 뉴마켓 캐피탈 그룹
33	멕시칸	고어 버빈스키	드림웍스 픽쳐스
34	멜린다와 멜린다	우디 앤더슨	폭스 서치라이트 픽쳐스
35	모짜르트와 고래	페테르 내스	밀레니엄 필름
36	무성영화	멜 브룩스	Crossbow Productions
37	미국의 광기	프랭크카프라	콜럼비아 픽쳐스
38	미스테리 트레이인	짐 자무시	JVC Entertainment
39	매트릭스 익스피리언스		
40	바그다드 카페	퍼시 애들론	펠레멜레 필름
41	반지의제왕:두개의탑	피터 잭슨	뉴 라인 시네마, 웹넷 필름
42	반지의제왕:반지원정대	피터 잭슨	뉴라인 시네마, 웹넷 필름
43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피터 잭슨	뉴 라인 시네마
44	배리 린든	스탠리 큐브릭	호크 필름즈, 페레그린
45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닐 조던	게펜 픽쳐스
46	버디	알란 파커	트라이마크 픽쳐스
47	보니 앤 클라이드 -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서팬	워너 브라더스사
48	보랏 :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문화 빨아 들이기	래리 칠스	에브리맨 픽쳐, 골드/밀러 프로덕션
49	보이즈 앤 후드	존 싱글턴	콜럼비아 픽쳐스
50	북경의 55일	니콜라스 레이, 앤드류 마튼	사무엘브론스톤프로덕션
51	분노의 주먹	마틴 스코시즈	사토프-웡클러 프로덕션
52	불의 전차	휴 허드슨	워너 브라더스사
53	브로드웨이 멜로디	해리 보몽	
54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울리 에델	바바리아 필름
55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	래드 컴퍼니
56	비열한 거리	마틴 스코시즈	태플린-페리-스코시즈 프로덕션
57	빅 피쉬	팀 버튼	콜럼비아 픽쳐스, 자녹 컴퍼니
58	사느냐 죽느냐	알랜 존슨	아메리칸조트로프
59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소피아 코풀라	
60	사랑은 비를 타고	진 켈리, 스탠리 도넌	MGM
61	사이드웨이	알렉산더 페인	폭스 서치라이트 픽쳐스
62	새	앨프리드 히치콕	유니버설 픽쳐스
63	사이닝	스탠리 큐브릭	호크 필름즈, 워너 브라더스사
64	샤인	스콧 힙스	모멘텀 필름
65	선셋대로	빌리 와일더	파라마운트 픽쳐스
66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	빈센트 미넬리	MGM
67	세인트 엔 솔저(Saints and Soldiers)	라이언 리틀	
68	섹스,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스티븐 소더버그	버진, 미라맥스
69	소년은 울지 않는다	김벌리 피어스	킬러 필름즈

70	쇼타임	톰 데이	워너 브라더스사
71	쑨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	유니버설 픽쳐스,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72	스카페이스	브라이언 드 팔마	유니버설 픽쳐스
73	스트레이트 스토리	데이비드 린치	월트디즈니사, 채널 4 필름
74	시계 태엽 오렌지	스탠리 큐브릭	워너 브라더스사
75	시민 케인	오순 웰스	RKO 라디오 픽쳐스, 머큐리 프로덕션
76	시카고	롭 마셜	미라맥스
77	싸이코	알프레드 히치콕	Shamley Productions
78	씬 레드 라인	테伦스 맬릭	폭스 2000 픽쳐스
79	싸이코	구스 반 산트	이매진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픽쳐스
80	아마데우스	밀로스 포먼	사울 자엔츠 컴퍼니
81	아버지의 깃발	클린트 이스트우드	드림웍스 픽쳐스, 워너 브라더스사
82	아버지의 이름으로	짐 세리단	유니버설 픽쳐스
83	아웃 오브 아프리카	시드니 폴락	유니버설 픽쳐스
84	아이즈 와이드 섯	스탠리 큐브릭	워너 브라더스사
85	아포칼립토	멜깁슨	터치스톤 픽쳐스, 아이콘 엔터테인먼트
86	알라스카의 혼(North to Alaska)	헨리 헤서웨이	
87	알리	마이클 만	콜롬비아 영화사
88	애니 홀	우디 앨런	잭 르린스&찰스 H. 조페 프로덕션
89	애니매트릭스	피터 정, 애니 존스, 기와지리 요시아키, 코이케 다케시, 마다 마히로, 모리모토 코우지	
90	에드 우드	팀 버튼	터치스톤 픽쳐스
91	엘 시드	앤서니 만	사무엘 브론스톤 프로덕션
92	브라질(여인의 분노)	테리 길리엄	유니버설 픽쳐스
93	영원한 휴가	짐 자무시	시네씨저 프로덕션
94	옌 장군의 쓰디쓴 차	프랭크카프라	
95	오클라호마 유전	스탠리 크레이머	스탠리 그레이머 프로덕션즈
96	오페라의 유령	조엘 슈마허	Really Useful Films, Joel Schumacher Productions
97	와일드 번치	샘 페킨파	워너 브라더스사
98	왕이 되려던 사나이	존 휴스턴	콜럼비아 픽쳐스
99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엘리아 카잔	워너 브라더스사
100	우디 알렌의 슬리퍼	우디 앨런	롤랑 조페 프로덕션즈
101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	리브 슈라이버	워너 인디펜던트 픽쳐스
102	워터프론트	엘리아 카잔	콜롬비아 픽쳐스
103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로버트 와이즈, 제롬 로빈스	미라주 필름
104	웨이킹 라이프	리처드 링클레이터	디투어 필름포로덕션
105	웨인왕의원-딕시	웨인 왕	이십세기 폭스사

106	은하수를여행하는히치하이커를위한안내서	가스 제닝스	터치스톤 픽쳐스, 월트 디즈니 픽쳐스
107	이창	앨프리드 히치콕	파라마운트 픽쳐스
108	이터널 선샤인	미셸 공드리	블루 루인, 포커스 피쳐스
109	인사이드 맨	스파이크 리	이매진엔터테인먼트
110	이창	앨프리드 히치콕	파라마운트 픽쳐스
111	자헤드 그들만의 전쟁	샘 멘더스	유니버설 필쳐스
112	재즈 싱어	알렌 크로스랜드	
113	좋은 친구들	마틴 스코시즈	워너 브라더스사
114	죠스	스티븐 스플버그	유니버설 픽쳐스
115	죽은 시인의 사회	피터 워어	터치스톤 픽쳐스
116	지상의 밤	짐 자무시	JVC Entertainment
117	지옥의 묵시록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조에트로프 스튜디오
118	천국보다 낯선	짐 자무시	시네씨저 프로덕션
119	체인 오브 풀스	트랙터	워너 브라더스사
120	카이로의 붉은 장미	우디 앤런	MGM
121	카지노	마틴 스코시즈	유니버설 픽쳐스
122	카포티	베넷 밀러	유니아티드 아티스트
123	칼라 퍼플	스티븐 스플버그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가버-피터스
124	커피와 담배	짐 자무시	Smokescreen Inc.
125	태양의 제국	스티븐 스플버그	워너 브라더스사
126	택시 드라이버	마틴 스코시즈	콜럼비아 픽쳐스
127	터미네이터	제임스 카메론	Pacific Western
128	트래픽	스티븐 소더버그	Initial Entertainment Group
129	펀치 드렁크 러브	폴 토마스 앤더슨	뉴 라인 시네마
130	판의 미로 - 오펠리아와 세 개의 열쇠	기예르모 델 토로	워너 브라더스사
131	풀 메탈 자켓	스탠리 큐브릭	워너 브라더스사
132	프레리 홈 컴패니언	로버트 알트먼	리버 로드 엔터테인먼트
133	한나와 그의 자매들	우디 앤런	MGM
134	헐리우드 엔딩	우디 앤런	드림웍스 SKG
135	환희의 집	테伦스 데이비스	
136	주노	제이슨 라이트먼	폭스 서치라이트 픽쳐스, 맨데이트 픽처스
137	뮤지컬 베스트(헤드윅)	존 카메론 미첼	킬러 필름즈, 뉴 라인 시네마
	뮤지컬 베스트(에비타)	알란 파커	씨너지 픽쳐스 엔터테인먼트, 더티 핸즈 프로덕션
	뮤지컬 베스트(시카고)	로브 마샬	미라맥스
138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샘 우드	파라마운트사
139	전쟁과 평화	킹 비더	Dino de Laurentiis Cinematografica
140	큐바디스	머빈 르로이	MGM

	141	폭풍의 언덕	윌리엄 와일러	
	142	지상에서 영원으로	프레드 진네만	콜럼비아 픽쳐스
	143	왕과 나	월터 랭	이십세기 폭스사
	144	애수	머빈 르로이	
	145	카사블랑카	マイ클 カティズ	워너 브라더스사
	146	로마의 휴일	윌리엄 와일러	파라마운트 픽쳐스
	147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빅터 플레밍	셀즈닉 인터내셔널 픽쳐스
	148	사보타주	알프레드 히치콕	고몽 브리티쉬 픽쳐
	149	돈을 갖고 튀어라	우디 앤런	ABC
	150	검은 수선화(흑수선)	マイ클 ポウェル	
	151	역마차	존 포드	
	152	우리생애 최고의 해	윌리엄 와일러	사무엘 골드윈 컴퍼니
	153	말 없는 사나이	존 포드	아르고시 픽쳐스
	154	맥베드	오슨 웰즈	
	155	오델로	오슨 웰즈	머큐리 프로덕션
	156	구명선	앨프리드 히치콕	이십세기 폭스 필름
	157	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리처드 브룩스	MGM
	158	마이 페어 레이디	조지 쿠커	워너 브라더스사
	159	친구들과의 만찬	노먼 주이슨	HBO 필름
	160	이유없는 반항	제프리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언 필름 커미션
	161	말콤X	스파이크 리	라르고 인터내셔널, JVC 엔터테인먼트
	162	13일의 금요일	숀 S. 커닝햄	파라마운트 픽쳐스
	163	늑대와 춤을	케빈 코스트너	마제스틱 필름 인터내셔널
	164	숏컷	로버트 알트먼	파인 라인 픽쳐스
	165	유주얼 서스펙트	브라이언 싱어	폴리그램필름 엔터테인먼트
	166	레옹	뤽 베송	고몽 영화사
	167	파라다이스 로드	브루스 베레스포드	빌리지 로드쇼 픽쳐스
	168	트루먼 쇼	피터 위어	파라마운트사, 스캇 루딘 프로덕션
	169	작은 전쟁	존 애브너트	아일랜드 월드
	170	올란도	샐리 포터	
	171	미저리	로브 라이너	캐슬 락 엔터테인먼트
	172	파인딩 포레스터	구스 반 산트	로렌스 마크 프로덕션
	173	레이인 메이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아메리칸 조트로프, 더글라스/루더 프로덕션
	174	용서받지 못한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맬파소 프로덕션, 워너 브라더스사
	175	식스센스	M. 나이트 샤밀란	스파이글래스 엔터테인먼트
	176	존 말코비치 되기	스파이크 존스	그러머시 픽쳐스, 프로파간다 필름스
	177	초콜렛	라세 할스트롬	미라맥스
유 럽	1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	로제 바댕	
	2	글래스톤베리	줄리昂 템플	

3	금지된 장난	르네 끌레망	실버 필름스
4	과거가 없는 남자	아끼 까우리스마끼	바바리아 필름, 판도라 필름프로덕션 GmbH
5	5X2	프랑수아 오종	카날 플러스
6	8명의 여인들	프랑수아 오종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	길	페데리코 펠리니	폰티-데 라우렌티스 시네마토그라피카
8	바다소리가 좋아	미모 칼로프리스티	
9	난 혼자다	가스파 노에	
10	내 어머니의 모든 것	페드로 알모도바르	
11	네 멋대로 해라	장 르 고다르	임페리아
12	노스텔지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오페라 필름 프로듀시온
13	노스페라투	베르너 헤어조크	베르너 헤어초크 필름프로덕션, 고몽 영화사
14	녹색광선	에릭 로메르	필름 뒤 로장주
15	닥터 마부제	프리츠 랑	
16	더 리버	장 르누아르	Oriental International Films
17	더 차일드	장 피에르 다르덴, 르 다르덴	레 필름 뒤 플뢰브
18	돈 캠 노킹	빔 벤더스	리버스 엔젤 프로덕션
19	랜드 오브 플렌티	빔 벤더스	이모션 픽쳐스
20	레이닝 스톤	켄 로치	파렐랙스 픽처스
21	리컨스트럭션	크리스토퍼 부	노르디스크 필름
22	리턴	안드레이 즈비아진세프	렌 필름
23	마농의 샘	클로드 베리	DD 프로덕션
24	마농의 샘 2	클로드 베리	DD 프로덕션
25	마리 앙투아네트	소피아 코풀라	아메리칸 조트로프, 콜럼비아 픽쳐스
26	마지막 사랑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레코디드 픽쳐 컴파니
27	마지막 황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AAA 프로덕션, 레코디드 픽쳐 컴파니
28	막달레나 시스터즈	피터 물란	필름 카운실
29	모나리자	닐 조던	핸드메이드 필름
30	무방비 도시	로베르토 로셀리니	엑셀사 필름
31	미녀와 야수	장 쿡도	디스시나
32	미치광이 피에로	장 르 고다르	패스 컨템퍼러리 필름스, 소시에테 누벨 드 시네마토그래피
33	바다를 보라	프랑수아 오종	피델리테 프로덕션
34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크취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35	베를린 천사의 시	빔 벤더스	로드무비 프로덕션, 아르고스 필름스
36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켄 로치	파테
37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빔 벤더스	로드무비 프로덕션
38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빔 벤더스	로드무비 프로덕션
39	비키퍼	테오 양겔로풀로스	

40	비텔로니	페데리코 펠리니	Peg-Film, Roma
41	사랑과 경멸	장 르 고다르	콤파니아 시네마토그라피카 참피온
42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제스풀 필모위 토르
43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제스풀 필모위 토르
44	사랑의 찬가	장 르 고다르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레 필름 알랭 사르드
45	사랑의 추억	프랑수아 오종	유로 스페이스
46	세가지 사랑, 정사	괴르쯔 스필레만	로터스 필름
47	세가지 색 레드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MK2 Productions,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48	세가지 색 블루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MK2 Productions
49	세가지색 화이트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MK2 Productions,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50	소녀들은 수영을 못해	안네 소피 비로	
51	소피솔의 마지막 날들	마르크 로테문트	골드카인드 필름프로덕션
52	시간의 흐름 속으로	빔 밴더스	베스트도이처 룬드펑크, 빔 밴더스 프로덕션
53	시네마 천국	주세페 토르나토레	RAI, TF1 필름즈 프로덕션
54	시트콤	프랑수아 오종	피델리테 프로덕션
55	심플 맨	할 하틀리	파인 라인 피쳐스, 트루 픽션 피쳐스
56	아델 H 이야기(아델의 사랑 이야기)	프랑수아 트뤼포	카로스 필름
57	아버지의 이름으로	짐 셰리단	유니버셜 스튜디오
58	아워 뮤직	장 르 고다르	프랑스 3 시네마, 레 필름 알랭 사르드
59	악의 꽃	끌로드 샤브롤	카날 플러스
60	안개 속의 풍경	테오 양겔로풀로스	베이직 시네마토그라피카
61	안토니아스 라인	마린 고리스	더치 컬처럴 브로드캐스팅
62	어느 사랑의 연대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빌리아니 필름
63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	로베르 브레송	유니온 제너럴 시네마토그래피 (UGC)
64	영원과 하루	테오 양겔로풀로스	스큐디오 카날
65	워터드롭스 온 버닝 락	프랑수아 오종	유로 스페이스, 레 필름 알랭 사르드
66	의식	클로드 샤브롤	올가 필름 GmbH, MK2 프로덕션
67	인간의 피부, 짐승의 심장	엘렌느 양젤	
68	인력지원부	로랑 캉테	BBC, 센터 내셔널 드 라 시네마토그라피
69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체키 고리 그룹 타이거 키네마토그라피카
70	자전거 도둑	비토리오 데 시카	데 시카 프로덕션
71	장미의 이름	장 자크 아노	Cristaldifilm
72	저항	로베르 브레송	고동 영화사
73	전함 포템킨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고스키노

	74	정복자 펠레	빌 어거스트	퍼 홀스트 필름프로덕션, 스벤스카 필름인스티튜트
	75	중앙역	월터 살레스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6	증오	마티외 카소비츠	라 셉트 시네마,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7	초콜릿 고마워	클로드 샤브롤	프랑스 2 시네마,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8	크리미널 .러버	프랑수아 오종	센터 내셔널 드 라 시네마토그래피,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9	타임 투 리브	프랑수아 오종	피델리테 프로덕션, 스튜디오 카날
	80	파니 핑크	도리스 되리	코브라 필름 GmbH
	81	파리, 텍사스	빔 밴더스	아르고스 필름스
	82	퐁네프의 연인들	레오스 까락스	고몽 영화사
	83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	로베르토 로셀리니	시네리즈
	84	프랑소와 오종 단편집	프랑소와 오종(Francois Ozon)	
	85	프린스 앤 프린세스	미셸 오슬로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센터 내셔널 드 라 시네마토그래피
	86	피아니스트	로만 폴란스키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87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톰 티크베어	서밋 엔터테인먼트
	88	훌리와 마리나	산드라 골드바처	
	89	사랑도 흥정이 되나요	베르트랑 블리에	피델리테 프로덕션
	90	원스	존 카니	SummitEntertainment
	91	어둠속의 댄서	라스 폰 트리에	스펙트럼디브이디
	92	빌리 엘리어트	스티븐 달드리	워킹 타이틀 필름즈
	93	오픈 유어 아이즈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94	리골레토		장피에르 포넬
제 3 세 계	1	거북이도 난다	바흐만 고바디	미지 필름 Co.
	2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청소년지능개발연구소
	3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칠드런 & 영 애덜츠 인터렉ചュ얼 벨로프먼트 인스터튜션
	4	떼시스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라 프로듀시온 델 에스코피온, 소헤빠
	5	베테 단 섹스	조너선 테플릿츠키	뉴 비전 필름
	6	보이지 않는 물결	펜엑 라타나루앙	포티시모 필름, 데디케이트 Ltd.
	7	시티 오브 갓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카티아 룬드	O2 필름스, 비디오플름스
	8	씨클로	트란 안 흥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9	오프사이드	자파르 파나히	
	10	올리브 나무 사이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프로덕션즈, 씨비 2000
	11	우작	누리 빌게 세일란	NBC Film
	12	천국을 향하여	하니 아부 아사드	루멘 필름
	13	천국의 아이들	마지드 마지디	카눈

	14	체리향기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프로덕션즈, 씨비 2000
애 니 메 이 선	1	니모를 찾아서	앤드류 스탠튼, 리 언크리치	픽사애니메이션스튜디오, 월트디즈니픽쳐스
	2	몬스터 주식회사	피터 닥터, 데이비드 실버만	픽사애니메이션스튜디오, 월트디즈니픽쳐스
	3	벽스 라이프	존 래서터	픽사애니메이션스튜디오, 월트디즈니픽쳐스
	4	인크레더블	브렛 버드	월트디즈니픽쳐스, 픽사애니메이션스튜디오
	5	초속5센티미터	신카이 마코토	코믹스웨이브필름
	6	캬	존 라세터	픽사애니메이션스튜디오
	7	토이 스토리	존 라세터	월트디즈니픽쳐스
	8	토이 스토리 2	존 라세터, 리 언크리치	픽사애니메이션스튜디오, 월트디즈니픽쳐스
	9	오월상생	전승일	5.18 기념재단
	10	이웃집 투토로	미야자키 하자오	스튜디오지브리
	11	붉은돼지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스튜디오
	12	페르세폴리스	뱅상 파로노, 마르얀 사트라피	
	13	곰이 되고 싶어요	아니크 하스트럽	(주)코랄픽쳐스
	14	천년여우 여우비	이성강	선우엔터테인먼트, (주)엘로우 필름
기 타	1	시민이 만드는 영상 지금 현장에선!		시청자주권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2	2007 독립영화감독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교실	CAMF	
	3	시청자의 이름으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개소2주년특집)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4	평화의료생협 영상소식지 2006년 8월 창간호	김성애	평화의료생협
	5	평화의료생협 영상소식지 2008년 봄호	김성애	평화의료생협
	6	미디어교육 자율적, 문화적 군대로 도전	미디액트	미디액트
	7	디카, 대화, 출발	미디액트	미디액트
	8	뉴욕에선 당신도 방송PD		MBC 프로덕션
	9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리류리	인권운동사랑방